

2002 연구보고서 250-8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한 정 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정 숙 경 (전문연구원)

고 선 주 (위촉연구원)

발 간 사

21세기는 NGO의 시대로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단체의 영향력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은 지금까지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성차별 개선을 위한 세력화 집단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여성단체들이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정보사회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곧 정보사회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이 정보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단체활동과 여성운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남녀평등 실현 및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특히 이 연구는 문헌연구, 전국 주요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심층면접, 여성단체 홈페이지 분석,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여성단체 현실공간(off-line)과 가상공간(on-line)에서의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연구가 정보사회에서의 여성단체 위상을 제고하고 여성단체 활동의 도약과 여성운동 활성화에 일조하기를 바라면서, 본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신 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자문에 응해주신 선생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2년 12월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원 장 장 하 진

연구요약

1. 연구개요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보사회에서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여성단체 중심의 여성운동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의 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여성단체의 정보화 기반 및 사이버 공간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현실 공간(off-line)과 사이버 공간(on-line)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운동 실태와 단체간의 연대 활동을 조사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단체 중심의 여성운동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본 연구는 여성단체의 일반적 특성 파악, 여성단체의 정보화 기반 및 사이버 공간활용에 대한 실태 조사, 여성단체의 off-line과 on-line에서의 여성운동 현황 파악,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사례 연구,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사이버 여성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주요 사이트 홈페이지 사례 분석과 여성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및 전문가 워크숍 등이 활용되었다.

설문조사는 중앙행정부처에 등록된 중앙여성단체와 시·도 단위 지방 여

성단체 630개를 대상으로 한 우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률은 41.1%로 최종 통계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256개였다.

홈페이지 사례 분석은 사이버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단체 홈페이지 20개와 여성관련 주요 사이트 홈페이지 13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구성 및 운영 현황, 여성운동 내용 및 현안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심층면접 조사는 여성단체 가운데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단체와 현실공간에서 여성조직이 없이 사이버 여성운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사이트의 실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단체의 정보화 효과 및 문제점·애로사항,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문가 워크숍(Key persons group study)은 여성단체 실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사이버 공간의 여성운동 내용조사 등 다양한 조사·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보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회의 방법은 조사결과에 대한 요약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하였고, 토론은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카드 퀴즈 토론법과 자유토론 형식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2. 설문 조사 대상 여성단체 특성

여성단체의 설립목적은 여성운동(30.5%), 지역사회발전 도모(12.1%), 직능단체의 회원이익 도모(10.5%), 회원복지·친목 도모(7.8%), 자원봉사단체(6.6%), 교육운동(5.9%)등의 순이며, 여성운동을 표방하는 단체가 가장 많은 편이다.

여성단체가 가입해 있는 **협의체 유형**은 ‘지역여성단체 협의체 가입단체’(36.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본회 및 회원단체’(23.4%), ‘한국여성단체연합

본회 및 회원단체'(16.4%)로 대부분 협의체에 가입하고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단독단체도 18.8%이다.

여성단체의 **인력규모**는 전반적으로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체별로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사무직 유급인력이 없는 경우가 21.9%이며, 1-2명인 경우가 37.9%, 3-5명인 경우가 20.7%로 과반수 정도는 유급인력이 없거나 있어도 한 두 명 정도의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에 무급인력 자원봉사가 없다는 단체 또한 53.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2명인 단체가 19.5%, 3-5명인 경우가 5.5%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성단체 사무를 담당할 인력은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회원 규모는 회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가 13.7%, 101-500명 이하가 25.4%인 반면 회원이 1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도 10.5%로 단체간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여성단체의 지난 1년 간 **집행예산 규모**는 3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37.9%이며 3억이 넘는 경우가 12.3%로 단체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회비를 내는 회원의 비율**이 50%가 넘는 단체가 49.3%인 반면, 회비를 내는 회원이 없다는 단체도 21.9%이다. **정부의 보조금 현황**은 조사단체의 44.5%가 보조금이 없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현재의 예산집행 및 보조금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여성단체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여성단체가 지난해 비중 있게 실시한 **주요 사업** 중 1순위로 가장 많이 지적된 사업은 '자원봉사활동'(19.5%), '여성지위 향상 도모 활동'(16.4%), '여성운동'(10.2%)의 순이다. 2순위에서 나타난 사업은 '여성지위 향상 도모 활동'(15.2%), '환경보존 및 개선 활동'(12.1%), '회원의 권익 도모' 및 '여성상담 활동'이 각 10.5% 순이다. 3순위로는 '여성지위 향상 도모 활동'이 13.7%, '회원권익 증진활동'(12.5%), '자원봉사활동'(11.3%)로 나타났다. 여기서 전반적으로 여성운동과 여성의 지위향상 도모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여성단체의 정보화 현황

여성단체의 정보화 기반 구축현황을 알아본 결과 **펜티엄급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7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86이하 컴퓨터를 보유한 단체가 10.9%, 컴퓨터가 없는 단체도 14.1%에 이르렀다. 펜티엄급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한 단체의 경우 1대가 34.0%, 2-3대가 22.7%로 나타나 여성단체의 정보화 인프라 현황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단체의 **인터넷 이용 현황**을 보면 81.6%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1/5 정도는 아직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다음 **이메일 활용** 비율은 60.2%로 나타났고, 이메일 활용 내용은 ‘단체 활동 및 사업안내’(67.5%), ‘회원관리’(41.6%) ‘새소식 제공’(39.0%)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여성단체 정보화 수준에 대해 응답자 스스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는 100점을 기준으로 평균점수가 56.6점으로 나타났고, 점수 분포는 0점부터 90점 이상(9개 단체)으로 편차(22.4점)가 매우 크다.

사이버 공간 활용형태를 보면 ‘홈페이지’ 형태로 이용하는 단체가 63.8%, ‘본회나 다른 네트워크와 링크해서’가 32.2%, ‘온라인 동호회’ 형태가 3.9% 순으로 나타나, 여성단체 단독으로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홈페이지 운영 비율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본회 및 회원 단체의 경우가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여성단체의 경우가 2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는 상근 간사가 62.9%로 가장 많았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 단체의 사업소개’가 19.2%, ‘회원관리’가 13.8%, ‘게시판 운영’이 11.7%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의 의사전달방법으로는 ‘게시판에 글 쓰기’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다음은 ‘전자메일 보내기’와 ‘배너 달기’ 순으로 홈페이지가 단체의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나 **독자적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못한 여성단체**의 경우, 그 이유로는 재정 부족, 인력 부족, 기술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문제들은 앞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여성단체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 단체의 29.3%이며, 정보화교육의 내용으로는 인터넷 기초교육이 30.6%로 가장 많

고, 전반적인 윈도우 운영이나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초교육이 17.0%이다.
교육대상은 대부분 회원 및 자원봉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4. 정보화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인식

정보화 마인드는 5개 질문 항목 전반에 걸쳐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 공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이 81.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실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단체는 63.7%로 나타나, 실제적인 활용수준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단체들의 **사이버 공간 활용에 대한 효과 인식**을 보면, 주로 단체 홍보와 자료소개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회원들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작용 효과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은 모든 질문문항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의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여성운동을 위한 사이버 공간의 활용은 필요하다’(5점 만점에 평균값 4.40),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단체 활동을 위해서는 여성회원의 정보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평균값 4.30), ‘여성단체의 정보화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것이다’(평균값 4.22),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 연대활동은 여성의 세력화를 효과적으로 이룰 것이다’(평균값 4.08),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때 효과적이다’(평균값 4.03),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은 여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평균값 3.76)의 순이었다.

5.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현황

▶ 현실 공간(off-line)의 여성운동

조사대상 응답단체중 성차별 극복과 여성발전을 목표로 하는 **여성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9.2%이며 나머지 50.8%는 여성단

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고 있다.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126개 단체가 실시 중인 **여성운동 내용**은 ‘성차별 개선 운동’(19.4%), ‘성차별 개선 교육’(17.1%), ‘성차별적 법 제도 개선 운동’(12.7%), ‘회원자질향상 교육’(11.5%) ‘여성의 정치적 지위 개선 운동’(9.5%) 등이다. 여성운동 참여 현황은 1종류의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39.7%로 가장 많고, 2종류의 여성운동 참여가 36.5%로 대부분의 단체가 1-2개 종류의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 사이버 공간(on-line)을 활용한 여성운동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전체 조사 대상 단체의 21.9%이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남녀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 ‘성차별적 법 개정운동’ ‘성폭력 및 성차별 상담’ ‘남녀 평등의식 및 여성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단체 활동 정보제공과 다양한 여성관련 소식 제공’ 순이었다. 이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 여성운동은 1-2 종류에 참여한 경우가 7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필요성이나 효과인식에 비해 실제 사이버 여성운동의 현황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 활용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이 요구된다.

▶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간 연대를 통한 여성운동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연대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운동을 위한 연대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단체가 응답단체의 30.9%, 나머지 69.1%의 여성단체는 연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대활동을 통한 여성운동 현황은 그리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 가운데는 1개 단체와 연대활동을 하는 경우가 38.0%로 가장 많고, 2개 단체와 연대한 경우가 26.6%, 3개 단체와 연대한 경우가 20.3%, 4개 단체와 연대한

경우가 11.4%, 5개 단체와 연대한 경우가 3.8%로 나타나고 있어, 연대활동은 그 규모가 대체로 작음을 알 수 있다.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간 연대를 통한 여성운동의 내용은 ‘성차별 개선 운동’이 38.0%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 관련 운동’(32.2%), 각종 성차별적 ‘법 개정 운동’(12.9%), ‘성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11%), ‘경제 및 노동분야 관련 성차별 개선운동’(5.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홈페이지 분석을 통한 여성운동 사례 연구

▶ 여성단체의 경우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여성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20개 여성단체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단체의 홈페이지는 각 단체들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었으며 각 홈페이지의 독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성단체의 전반적인 정보화 인프라 및 재정적 측면이 열악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 수준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것은 단체의 사이버 공간 활용에 대한 기대와 관심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홈페이지를 통한 여성운동은 게시판과 공개 자료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여성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여성운동은 대체로 ‘성차별 개선운동 및 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홈페이지 분석대상 20개 단체 중 15개 단체에서 이를 찾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 13개 단체,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과 상담실 운영 각각 11개 단체, 법제도 개선 운동 10개 단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여성단체들의 연합 홈페이지에서는 적극적으로 여성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전문영역의 여성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단체나 특화된 영역을 담당하기 위해 개설된 여성운동 사이트들은 주로 관련 분야의 여성운동에 집중하여 활동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 여성단체 이외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여성단체 이외에 사이버 공간(on-line)에서만 여성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13개 웹 사이트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경우에도 여성단체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주로 게시판과 공개자료실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여성단체 홈페이지와 비교해볼 때 각 사이트의 특성을 더욱 분명히 반영하고 있었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여성운동의 내용은 ‘성차별 개선운동 및 교육’과 ‘법제도 개선운동’이 13개중 10개 사이트,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이 7개 사이트,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이 6개 사이트, ‘상담실 운영’이 5개 사이트로 나타났다. 온라인에만 근거를 둔 이들 사이트들은 개설 목적에 부응하여 특성을 충실히 반영, 활발하고 적극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 현안별 여성운동 분석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에 앞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슈가 된 현안별로 전개되고 있는 여성운동을 살펴보았다.

호주제 철폐의 경우 다양한 사이트에서 현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호주제의 직접적인 피해를 알리고 간접적으로 호주제의 부당성을 홍보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단지 같은 현안 사이트라도 쌍방의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는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효과의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군산 화재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여성단체 사이트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성명서나 관련 뉴스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라는 측면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지속적인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여성운동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낸 사례이다.

여성총리 지명의 경우 주로 여성단체가 아닌 여성운동 사이트 여성동인지의 게시판에서 장상 총리지명을 옹호하는 뜨거운 논쟁을 볼 수 있었다.

게시판을 통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평등한 결혼을 주제로 한 토론 전용 게시판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남녀평등 문화정착에 기

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새로운 토론 형태를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는 앞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토론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와 언어폭력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7. 심층면접을 통한 여성단체 활동 및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사이버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여성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상에서의 여성단체 활동 내용 및 여성운동 현황, 앞으로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심층면접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내용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통한 활동내용은 여성단체 사업에 대한 홍보, 여성운동 관련 정보제공, 여성운동 주제별 토론, 사이버 여성운동을 위한 교육활동, 소비자 보호 운동, 전자상거래, 여성 정치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운동, 웹진 류의 여성문화 동인지 모임, 건강 증진운동, 여성정보화 운동, 가족법 개정운동, 여성의식 개선운동 등을 들 수 있다.

▶ 사이버 공간활용의 효과

사이버 공간활용 효과는 정보소통이 빠르고 원활하며 이용자(회원)의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보다 많은 사람에게 홍보가 용이하다는 점, 인력과 시간 그리고 금전적으로 절약이 된다는 점,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상담시 내담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솔직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그동안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거리감을 두어왔던 정치적 주제에 대해 접근이 용이하고 부담 없는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지역적 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정보의 이슈화와 단시간에 많은 회원이 확보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 사이버 공간 활용의 문제점

사이버 공간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소외된다는 점, 단체의 회원확보 및 이용자 등 인원수만으로 단체운동의 성공여부가 판단된다는 점, 홈페이지가 단순한 의사소통 외 정보교류의 장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성으로 자료의 사실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상담을 원하는 경우 위기상황에는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고 연속 상담이 아닌 일회성 상담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면대면 상담이나 전화상담을 위한 중간역할에 제한된다는 점, 여성단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폭력으로 홈페이지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약발생으로 단체 활동의 응집력을 약화시킨다는 점, 인증문제와 관련된 보안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IT 기술을 소유한 소수간사들이 홈페이지 운영을 주도함으로써 다른 구성원들을 소외시킨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 사이버 공간 활용에 따른 애로사항

사이버 공간 활용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홈페이지의 업데이트로 인해 실무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점, 담당 전문인력을 배치하기에는 단체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 현실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운동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의 IT기술 부족으로 콘텐츠 생산에 어려움이 따른 점, 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작업이 각기 분리되어 진행됨으로써 이중적인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 등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8. 현실 공간(off-line)과 사이버 공간(on-line)에서의 여

성운동 활성화 방안

▶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각 여성단체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많이 제안한 것은 ‘정부차원의 지원’(43회)이며 둘째로는 ‘여성단체 주관하의 정보화 교육 확대’(41회)로 나타났다. 한편 현실공간에서의 여성단체 자체 사업으로서는 ‘여성운동의 활성화’(29회), ‘여성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20회), ‘남녀평등을 위한 의식교육 실시’(17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심층면접 결과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며 인터넷에 대한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지원에 있어서는 IT기술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기술교육 내지 기술업체와의 연계를 주선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단체 홈페이지의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련부처인 여성부의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

넷째 사이버 공간에서의 구체적인 여성운동 이슈도 현실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동시에 고려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교육의 내용과 노하우도 비교, 분석, 평가 후 온라인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섯째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사이버 여성운동이 사이버 성폭력을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각 단체의 활동을 하나로 모아낼 협회를 결성하고, 여성 IT인력 풀을 구성하여 여러 여성단체가 하나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해내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가 워크숍(Key persons group study)

사이버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단체 실무 책임자 1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실공간(off-line)에서의 여성운동 및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여성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가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사업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 실질적인 활동가를 확보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배양해야 한다는 점, 단체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민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정형화된 여성운동보다는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인력 풀(pool), 전문기술업체와의 협력 네트워킹을 통한 간접 지원 등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원 및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 다양하고 특성화된 동시에 네티즌의 욕구가 반영된 홈페이지의 운영이 필요하며 사이버 연대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실공간에서의 여성운동이 우선적으로 내실화를 기하고 활성화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9. 결론 및 제언

결론: 이상에서 우리나라 여성단체들 대부분이 인적·물적 토대가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고려할 때, 현실공간에서의 여성운동 참여정도(49.2%)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반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운동

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21.9%에 지나지 않고 있음은 단체 자체의 홈페이지 운영(63.8%)과 현실공간에서의 여성운동 참여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심층면접, 여성운동 참여단체의 홈페이지 분석, 전문가 워크숍 등의 결과를 종합할 때 **여성단체의 사이버 여성운동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현실공간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고, 또한 현실공간에서 여성운동을 활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인적·물적 토대가 건실해야 한다. 그러나 인적·물적 토대가 건실한 단체들 중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여성운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인적·물적 토대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더라도 여성운동에 대한 높은 참여의지를 가진 단체들이 여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여성운동을 활성화시키려면 여성단체의 여성운동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단체 의사결정권자들의 여성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남녀 평등적인 의식, 성인지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세력화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운동이슈에 따른 부문별 여성운동에 다수의 여성단체 참여가 필수적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을 저변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기술적·인적·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실시 등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

제언: 여성단체의 사이버 여성운동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여성단체 차원의 개선 및 노력사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언코자 한다.

정책적 차원의 지원방안으로는 현재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애로사항과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정책적 차원에서 재정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교육지원, 사이버 여성운동 단체간 연대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여성단체들이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여성발전 및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 또한 큼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단체 차원의 개선 및 노력사항으로는 홈페이지 제작 시 단체의 목

적을 명확히 반영, 단체의 특성에 적합한 홈페이지 운영, 상호작용 통로의 극대화를 통한 커뮤니티의 활성화, 전자상거래 구축을 통한 자립방안 모색, 기술담당자와 여성운동 콘텐츠 담당자간의 원활하고 충분한 의사소통 반영, 현안 사이트의 활발한 운영, 개인운동방식의 활용, off-line에서의 여성운동 활성화 도모, 그리고 off-line에서의 여성운동을 on-line에 반영 등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여성단체 사이버 공동망 구축을 통한 홍보의 극대화, on-line 상에서의 회원관리 방안 도입, 적극적인 단체홍보와 주기적인 소식 제공, 지역 여성단체들의 공동 기술인력 풀 구축 및 활용, 여성단체 홈페이지 기술지원을 위한 인턴 제도 도입, 여성단체간 공동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활용 도입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면 충실한 불거리 제공과 신속한 정보 제공 그리고 정보의 업데이트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부족한 인력의 충원 차원에서 기자단의 구성과 자원 활동자를 확보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3. 연구 절차 / 7	
4. 연구의 분석틀 / 11	
II. 이론적 논의	15
1. 여성단체에 대한 개념 정의 / 17	
2. 여성조직활동의 중요성 및 활동 방향 / 19	
3. 여성운동에서의 단체간 연대활동의 중요성 및 현황 / 22	
4.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중요성 / 25	
5. 정보사회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 / 28	
6. 여성단체에 관한 선행 연구 / 32	
III. 조사 개요	43
1. 설문조사 개요 / 45	
2. 사이버 공간활용 여성운동 조사개요 / 46	
3. 심층면접 개요 / 48	
4. 현장전문가 워크숍 개요 / 51	
IV. 여성단체의 특성과 정보화 현황 - 설문조사 결과	53
1.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일반적 특성 / 55	
2. 여성단체의 주요사업 / 62	
3. 여성단체의 정보화 기반 / 63	

4. 여성단체 정보화 수준 평가 및 필요성·효과 인식 / 70	
5.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 활용 및 운영 실태 / 78	
6. 여성단체 정보화 교육실태 및 홈페이지 개설 요구 / 94	
V.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현황 - 설문조사 결과	99
1. 여성단체의 현실 공간(off-line) 여성운동 현황 / 101	
2. 여성단체의 연대활동 현황 / 109	
3. 여성단체의 사이버 활용(on line)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 및 현황 / 124	
VI. 사이버 활용 여성운동 사례 연구 - 홈페이지 분석	135
1.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 활용 및 여성운동 현황 / 137	
2.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의 홈페이지 현황 및 여성운동 사례 / 179	
3.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요 현안별 여성운동 사례 / 206	
VII.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방안	227
1. 심층면접 결과 / 229	
2. 전문가 워크숍 결과 / 291	
VIII. 결론 및 제언	307
1. 결론 / 309	
2. 제언 / 312	
참고문헌	323
부 록	327

표 목 차

<표 III-1>	설문조사 내용	46
<표 III-2>	여성단체 및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명과 주소	47
<표 III-3>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조사 내용 및 분석항목	48
<표 III-4>	심층면접 대상 단체 면접자	49
<표 III-5>	심층면접 조사내용	50
<표 III-6>	워크숍 참석자 명단	52
<표 III-7>	현장전문가 워크숍 내용	52
<표 IV-1>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소재지역별 법인형태 분포	55
<표 IV-2>	여성단체의 설립목적	56
<표 IV-3>	협업체 가입 유형	57
<표 IV-4>	직원 규모: 유급인력 및 무급인력	58
<표 IV-5>	가입회원의 수	59
<표 IV-6>	회비를 내는 회원의 비율	59
<표 IV-7>	2001년 집행 예산 규모	60
<표 IV-8>	2001년 정부 보조금	61
<표 IV-9>	지난 1년 간 실시한 비중 있는 사업	63
<표 IV-10-1>	컴퓨터 보유 현황	64
<표 IV-10-2>	컴퓨터가 없는 이유	65
<표 IV-11-1>	인터넷 이용 현황	66
<표 IV-11-2>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이유	67
<표 IV-11-3>	협업체 형태별 인터넷 이용 여부	67
<표 IV-12>	정보통신비 지출규모	68
<표 IV-13>	정보화 주변기기 보유 현황	69
<표 IV-14>	지각된 정보화 점수	70
<표 IV-15>	여성단체 구성원의 정보화 마인드	71
<표 IV-16>	사이버 공간 활용의 필요성 인식	73
<표 IV-17>	사이버 공간 활용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실제 활용 유무	73
<표 IV-18-1>	사이버 공간 활용 효과 인식	75
<표 IV-18-2>	사이버 공간 활용에 따른 효과 인식과 정보화 태도간의 상관관계	76
<표 IV-19-1>	실제 사이버 공간 활용 여부	78

<표 IV-19-2> 여성단체에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79
<표 IV-19-3> 실제 사이버 공간 활용 정도	80
<표 IV-20-1> 사이버 공간 활용형태	81
<표 IV-20-2> 협의체 형태별 사이버 공간 활용 유형	82
<표 IV-21-1> 여성단체의 E-mail 이용 여부	82
<표 IV-21-2> 여성단체의 E-mail 이용 비율	83
<표 IV-21-3> 협의체 가입형태별 E-mail 이용 여부	84
<표 IV-21-4> 여성단체의 E-mail 활용 내용	85
<표 IV-22-1> 홈페이지 제작 방식	86
<표 IV-22-2> 홈페이지 제작 지원	86
<표 IV-23-1> 홈페이지 운영자	87
<표 IV-23-2> 홈페이지 운영비 규모	88
<표 IV-23-3> 홈페이지 회원 수	88
<표 IV-23-4> 홈페이지 하루 평균 방문자 수	89
<표 IV-23-5> 여성단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90
<표 IV-23-6> 여성단체 홈페이지 상의 의견전달방법 활용도	91
<표 IV-23-7> 협의체 형태별 홈페이지 운영 여부	92
<표 IV-24> 링크된 본회의 홈페이지 활용 정도	93
<표 IV-25> 링크된 본회의 홈페이지에 해당단체 정보제공 정도	93
<표 IV-26> 동호회 회원 수 및 동호회 내 의견교환 정도	94
<표 IV-27> 정보화 교육 실시여부 및 교육 종류수	95
<표 IV-28> 여성단체의 정보화 교육 실시 현황	96
<표 IV-29> 독자적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는 이유	97
<표 IV-30> 홈페이지 개설 형태에 따른 요구사항	98
<표 V-1>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참여현황	101
<표 V-2-1> 여성운동 내용별 참여 여성 단체명	102
<표 V-2-2>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내용(개방형 설문, 중복응답)	105
<표 V-2-3> 협의체 형태별 여성단체에서 실시한 여성운동 관련 사업	108
<표 V-3-1> 여성단체 연대활동 현황	109
<표 V-3-2> 여성단체 연대활동 빈도 및 참여단체	110
<표 V-3-3> 협의체 형태별 여성단체에서 실시한 연대활동	111
<표 V-4-1> 성차별 개선을 위한 여성·시민단체 간 연대활동 현황	113
<표 V-4-2>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 활동 현황	114
<표 V-4-3> 성차별 개선운동 연대활동 빈도 및 단체명	115
<표 V-4-4> 여성의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연대활동 단체	116

<표 V-4-5>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대활동 빈도 및 단체명	117
<표 V-4-6>	법 개정운동 연대활동 단체	118
<표 V-4-7>	법개정운동 연대활동 빈도 및 단체명	118
<표 V-4-8>	성차별 개선교육 연대활동 단체	119
<표 V-4-9>	성차별 개선교육 연대활동 빈도 및 단체명	120
<표 V-4-10>	경제분야 여성지위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단체	121
<표 V-4-11>	경제분야 성차별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빈도 및 단체명	121
<표 V-5>	연대활동의 내용 및 참여단체	122
<표 V-6-1>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	124
<표 V-6-2>	사이버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과 정보화 태도간 상관관계	127
<표 V-7-1>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현황	128
<표 V-7-2>	협의체 형태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현황	129
<표 V-8>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시작 연도	129
<표 V-9-1>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내용	130
<표 V-9-2>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구체적 방법	131
<표 V-10>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제시 내용	132
<표 VI-1>	여성단체 홈페이지의 구성현황	140
<표 VI-2>	여성단체 홈페이지의 운영현황	143
<표 VI-3>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여성운동 현황	145
<표 VI-4>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 활용여성운동	175
<표 VI-5>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의 홈페이지 구성현황	180
<표 VI-6>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의 홈페이지 운영현황	181
<표 VI-7>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의 여성운동 현황	183
<표 VI-8>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의 사이버 여성운동 현황	203
<표 VII-1>	여성단체 사이버 활동 현황	247
<표 VII-2>	여성단체 사이버 공간 활용 현황 및 연대활동 현황	252
<표 VII-3>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 활용 및 연대활동 효과	260
<표 VII-4>	여성단체 사이버 공간 활용의 문제점	267
<표 VII-5>	단체의 사이버 활용 애로사항	275
<표 VII-6>	여성단체 사이버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	290
<표 VII-6>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활성화방안(복수응답)	293
<표 VII-7>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방안(복수응답)	296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 절차	10
<그림 VI-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홈페이지	147
<그림 VI-2>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149
<그림 VI-3>	대한YWCA 연합회 홈페이지	151
<그림 VI-4>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홈페이지	152
<그림 VI-5>	전국여성노동조합 홈페이지	153
<그림 VI-6>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홈페이지	154
<그림 VI-7>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홈페이지	155
<그림 VI-8>	한국여성중앙회 홈페이지	157
<그림 VI-9>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158
<그림 VI-10>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홈페이지	160
<그림 VI-11>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162
<그림 VI-12>	한국여성상담센터 홈페이지	163
<그림 VI-13>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홈페이지	164
<그림 VI-14>	서울여성노동조합 홈페이지	165
<그림 VI-15>	한국여성정치연맹 홈페이지	166
<그림 VI-16>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	167
<그림 VI-17>	김포여성민우회 홈페이지	168
<그림 VI-18>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169
<그림 VI-19>	서울여성의전화 홈페이지	171
<그림 VI-20>	성남YWCA 홈페이지	172
<그림 VI-21>	여자만세 홈페이지	185
<그림 VI-22>	탈호주제 대안사회운동 홈페이지	187
<그림 VI-23>	여성연합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홈페이지	188
<그림 VI-24>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홈페이지	189
<그림 VI-25>	여성마당 홈페이지	190
<그림 VI-26>	살류주 홈페이지	191
<그림 VI-27>	또 하나의 문화 홈페이지	193
<그림 VI-28>	여성신문 홈페이지	194
<그림 VI-29>	주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	195
<그림 VI-30>	위민넷 홈페이지	197
<그림 VI-31>	우리진 홈페이지	198
<그림 VI-32>	달나라 딸세포 홈페이지	199
<그림 VI-33>	언니네 홈페이지	20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3. 연구 절차	7
4. 연구의 분석틀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NGO의 시대로 그 영향력이 급성장하고 기능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서구 학계에서는 “여성과 발전” 영역에서 여성의 세력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NGO와 여성발전의 관련성을 주제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서구 역사를 통해 보건대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일수록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었으며, 관련법 제정과 더불어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 지위향상을 가져왔음이 실증적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의 연장선에서 21세기에도 여성단체는 남녀평등 및 여성발전을 실현해 가는 주체로서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여성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선결과제 가운데 하나는 여성단체 스스로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사회에 적극 대처해갈 수 있는 토대를 정비하는 일이다.

정보사회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히 본 연구진이 주목하고 있는 바는, 정보사회가 진행되면서 각종 정보화 기기의 활용은 물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인간관계 형성이 주를 이루게 됨으로써 의사소통 양식에 있어 일대일(一對一), 일대다(一對多), 다대다(多對多) 등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나아가 공동체 및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공간적으로는 분리되나 공통의 신념과 활동을 같이 하는 다양한 가상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논의는 정보사회에서 남녀평등의 실현 및 여성발전을 목표로 하는 여성운동을 활성화함에 있어 사이버 공간 활용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지금은 여성의 입장에서 정보사회의 제반 특성을 정확히 간파함으로써, 정보사회의 흐름을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 향상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전진적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보사회에서는 급속히 변화 발전하는 정보매체 활용이 조직활동의 성패를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는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열어감에 여성운동의 한 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여성단체를 향해, 정보사회의 흐름을 단체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발전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곧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단체활동을 전개해나가는 동시에 여성운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운동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 또한 정보사회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하겠다.

이에 따라 정보사회에서 여성단체들은 향후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기존의 회원은 물론 보다 광범위한 네티즌(남녀 모두를 포함하는)을 대상으로 여성운동 이슈를 신속히 확산시킴으로써 저변 확대를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다양한 집단성원들을 여성운동에 동참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여성단체의 정보사회 적응도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단체의 정보화 현황 및 사이버 공간 활용도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여성단체 가운데 여성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단체 또한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여성운동단체 가운데 일부는 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정작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희소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성단체의 정보화 현황 및 사이버 공간 활용도를 둘러싼 구체적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정보사회의 연계망 발달에 힘입어 단체간 연대활동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여성단체간 연대활동은 물론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간 연대활동 모두 여성운동을 활성화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UN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세력화를 위한 전략으로 여성단체간 연대활동과 더불어 시민단체와 여성단체간 연대활동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연대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이슈를 둘러싸고 여성단체간 연대 및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간 연대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가 주도하는 연대활동 수준은 여전히 미약하며, 남녀평등의 실현 및 여성발전을 목표로 하는 성(gender)평등적 연대활동은 더욱 미미한 것으로 가늠되고 있다(한정자 외, 2002).

이에 본 연구는 정보사회의 흐름 속에서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를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여성단체 중심의 여성운동 토대를 굳건히 다진 위에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여성단체의 정보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여성단체의 정보화 기반 및 사이버 공간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정보사회에서의 여성운동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재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현실 공간(off-line)과 사이버 공간(on-line)에서의 여성운동 및 단체간 연대 활동 내용을 다각도로 조사 분석하는 동시에, 셋째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여성운동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 여성운동을 전개해 감에 있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시대적 당위성을 토대로 발전적이고 전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¹⁾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1) 이론적 논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단체에 대한 개념정의와 여성조직활동의 중요성 및 활동방향, 연대활동의 중요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1) 본 연구의 주제가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임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현실 공간(off-line)에서의 여성운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on-line에서의 여성운동 활성화가 off-line에서의 여성운동 활성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임을 밝혀둔다.

여성운동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으며, 여성단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2) 여성단체의 정보화 실태 관련 조사

여성단체 정보화 기반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기기 보유현황, 단체회원의 네트워크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여성단체 사이버 공간 활용실태를 알아내기 위해 홈페이지 개설 및 활용 현황,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단체 활동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3) 여성단체 정보화 및 사이버 공간 활용에 대한 태도·요구 조사

여성단체 조직 구성원의 정보화 마인드와 정보화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보화 태도·능력에 대한 인식, 사이버 공간 활용의 필요성 및 실제 활용에 따른 효과 인식, 홈페이지 개설 요구, 여성단체 활동 및 운동에서의 사이버 공간 활용의 필요성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4) 여성단체 중심 여성운동 현황 조사

여성단체 중심의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단체와 여성관련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여성운동 내용을 조사분석 하였다.

5)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 모색

여성단체의 사이버 여성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실 공간에서의 여성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현실 공간(off-line)과 사이버 공간(on-line)에서의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을 설문조사, 심층면접, 전문가 워크숍의 방법을 통해 모색하였다.

나. 연구 방법

- 1) 문헌연구: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 2) 전문가 자문: 연구의 방향 및 방법, 여성단체의 정보화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 3) 설문조사: 여성단체 정보화 현황 및 on-line과 off-line상에서의 여성운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4) 심층면접: 사이버 공간 활용 여성운동 단체 및 기타 사이버 여성운동 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활동내용, 애로사항, 정책적인 요구사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 5) 홈페이지 분석: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단체활동이 활발한 여성단체 홈페이지와 여성관련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선정하여 홈페이지 구성과 여성운동 내용을 분석하였다.
- 6) 전문가 워크숍(key persons group study): 여성운동과 사이버 공간 접목 방안 모색, 여성운동과 사이버 활용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전문가 대상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3. 연구 절차

가. 연구 방향의 정립

본 연구는 연구 책임자가 원내 연구심의위원회에 연구 제안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침으로써 연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특별히 설문조사는 중앙 및 시·도 여성단체 300개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된 바 있으나, 이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우편조사로 계획을 변경하되, 조사대상을 전수로 확대하여 최종 630개 단체로 확정하였다.

나. 설문조사 실시

설문지는 본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사영역을 결정한 후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하였다.

1) 설문지 개발

관련된 문헌연구와 기존조사에서 제시된 결과들을 반영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1차 설문지(안)를 개발한 후 이를 토대로 여성단체 실무책임자 및 단체장, 학계, 통계전문가, 사이버 여성운동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과 사전조사를 통한 3차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 조사대상 여성단체 선정 및 설문조사 실시

가)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범위: 중앙 및 시·도 단위 여성단체로 결정하였다.

나)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선정: 중앙여성단체는 보건복지부 발간 『여성단체 명부』(2001년)를 참조하여 각 부처 등록단체로 선정하였다. 시·도 단위 여성단체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사회(여성)복지과에 의뢰하여 해당 지역 단체명단(주소·전화번호)을 조사하여, 이 가운데 630개 여성단체를 선정하였다.

다) 조사대상 여성단체 섭외: 각 시·도에 의뢰하여 파악한 630개 단체의 명단·주소·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단체에 공문으로 조사 협조를 의뢰하였으며, 조사 기간 중 전화로 2·3차 조사협조를 당부하였다.

라) 설문조사: 2002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우편조사로 이루어졌다.

4) 통계 분석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틀을 설계한 후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editing/grouping⇒keying⇒programing)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PC+(version 11.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방형 질문(여성운동 관련 사항/정보화교육 실시 현황/사이버 공간을 활용치 않은 이유/사이버 공간 활용 여성운동 현황/연대활동내용, 주관여부, 연대활동 단체 종류/on-line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을 분류(grouping)하여 응답 단체의 특성별 변인에 따라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 심층면접 실시

심층면접 조사 대상단체 선정은 on-line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한 여성단체 및 사이버 여성관련 사이트를 선정하여 단체 관계책임자를 심층면접 하였다.

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현황조사 및 내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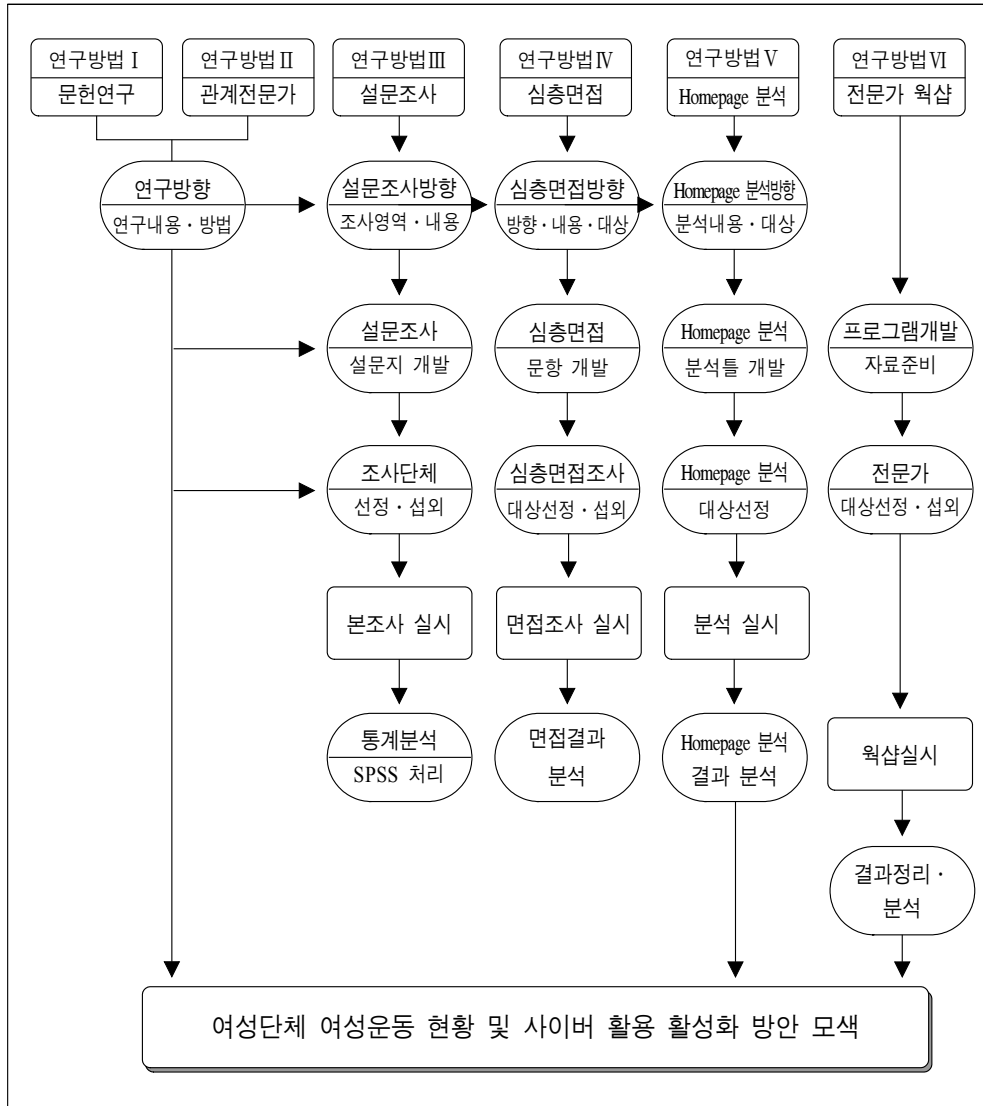
on-line에서 단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여성단체와 여성관련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선정하여 홈페이지 구성, 홈페이지 활용 내용 및 여성운동 내용을 조사·분석하였다.

마. 전문가 워크숍(Key persons group study) 실시

여성단체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심층면접,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내용분석 등의 자료를 정리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단체의 사이버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Key persons group study)을 실시하였다.

바. 연구보고서 발간

연구 보고서(안)를 연구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과정을 거친 후 수정 보완하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상의 연구절차를 정리한 것은 <그림 I-1>과 같다.



<그림 I -1> 연구 절차

4.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현장 경험,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반영하여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는 현실 공간에서의 제반 여건-단체의 인적·물적 토대와 단체의 성격, 활동 및 여성운동 내용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현실 공간에서의 여성운동이 활성화되어야 사이버 여성운동 역시 활성화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목표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일반적인 특성, 정보화 현황(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 현황), 활동내용, 여성운동 현황 등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여성단체 지도자 및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화와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의 인적·물적 기반과 정보화 현황, 단체활동 실태, 현실 공간(off-line)과 사이버 공간(on-line)에서의 여성운동 현황 및 여성운동 활성화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을 시도하였다.

우선 실태 파악 측면에서

첫째, 여성단체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둘째, 여성단체의 정보화 현황을 조사하였다.

셋째, off-line에서의 여성운동 현황을 조사하였다.

넷째, 사이버 공간(on-line)에서의 여성운동 현황을 조사하였다.

다섯째, UN이 여성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천하고 있는 바, 여성단체간 및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발전을 위한 연대활동 현황을 파악하였다.

여성단체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첫째, 여성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둘째, 여성단체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셋째,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넷째,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간 연대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다음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현황 및 조직의 여성운동 인식 파악과 여성단체 정보화의 문제점 및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수행시의 걸림돌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심층면접, 홈페이지 분석, 전문가 워크숍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첫째, 정보 인프라 문제를 파악하였다.

둘째, 조직 구성원의 정보화 마인드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셋째, 조직 구성원의 사이버 공간 활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넷째, 단체 홈페이지 활용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어서 여성운동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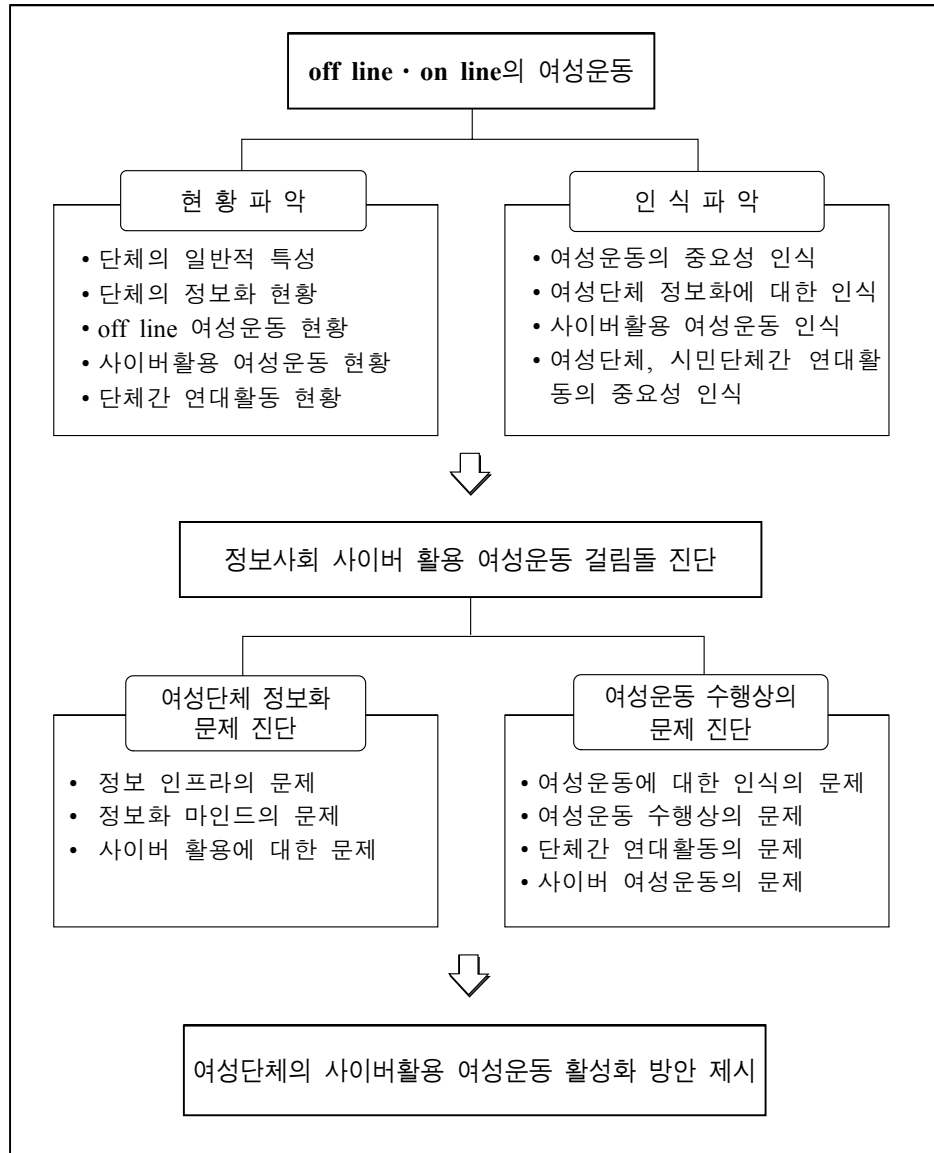
첫째,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 상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둘째, 여성운동 수행 상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셋째, 여성단체간,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간 연대활동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넷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문제를 진단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제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I-2>와 같다.



<그림 I-2> 연구의 분석틀

Ⅱ

.....

이론적 논의

1. 여성단체에 대한 개념 정의	17
2. 여성조직활동의 중요성 및 활동 방향	19
3. 여성운동에서의 단체간 연대활동의 중요성 및 현황	22
4.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중요성	25
5. 정보사회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	28
6. 여성단체에 관한 선행 연구	32

여성운동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여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운동을 지칭한다. 특히 여성운동이 조직운동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여성의 발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여성조직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장에서는 여성단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토대로 여성조직운동의 일환으로서 여성단체 활동에 내포된 중요성을 살펴보고, 여성운동의 효과적 방안으로서 연대활동이 갖는 의미와 현황 나아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중요성과 정보사회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을 논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1. 여성단체에 대한 개념 정의

여성단체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여성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정립함에 있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단체를 정의하기를 일반적으로 여성이 참여하여 조직한 구성체, 곧 여성이 조직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단체를 여성단체로 분류해왔다(보건복지부, 1996).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남녀평등적 의식과 여성운동적 시각이 확산됨에 따라 여성단체에 대한 개념도 연구자와 사용주체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형(1984)은 ‘여성단체를 남녀평등사회 구현이라는 여성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조직체’로 본 반면, 서명선(1985)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여성집단의 관심사를 추구하기 위한 여성들의 자발적인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1994)은 ‘여성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직활동을 통해 여성문제와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려는 자발적인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한정자(1999b)와 허성우(1997)는 여성문제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함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발전을 추구하는 조직체로 정의하고 있다.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고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기존의 입장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여성단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제1호)”와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정무장관 제2실이 인정하는 단체(제2호)”로 명시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단체의 설립 목적을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목표와 동일하게 정의함으로써 여성단체의 개념을 여성문제 해결, 여성의 삶의 질과 여성지위 향상, 그리고 여성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특화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단체 개념은 여성단체의 기준을 조직체에 두기보다는 사업목적에 두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만하다.

따라서 여성단체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문제 해결, 여성의 사회참여·여성복지 증진,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여성단체의 범위를 엄밀히 규정하기보다는 다소 광범위하게 “여성이 주체가 된 조직체”로 보았다. 그 이유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여성단체를 선정하는 작업이 중앙 및 지역의 행정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목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단체의 범주를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한정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2. 여성조직활동의 중요성 및 활동 방향

한국사회는 기본적으로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남성중심의 지배질서는 사회화과정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성차별적 인간상을 내면화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사회화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여 성차별로 인한 희생적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자신감을 상실한 채 체념적이고 순응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한정자, 1999b).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사회구조적 모순과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들 스스로 당당한 인간으로서 권익을 찾고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여성들간에 협동·단결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야 하고 그 힘을 결집하여 여성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용해야 한다. 곧 여성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는 여성조직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나아가 조직의 힘을 통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81).

이들 조직활동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동활동을 함으로써 협동심을 함양함은 물론, 나와 이웃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또한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각종 사회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 사이에 정보교환의 장을 갖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집단활동을 통하여 해결하는 지혜를 얻기도 한다(이금옥, 1994).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개인 및 집단적 수준에서 성원간의 관계에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성숙은 물론 사회발전에 도 기여하게 된다(한정자, 1990).

손경년(1991)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실제 수행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사회참여의 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여성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여성조직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

고 있다. 이 점에서 여성조직의 활성화는 곧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성단체를 위시한 여성조직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지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로는 조직 구성원의 여성의식을 계발시키는 효율적인 기제로서의 교육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곧 조직 구성원인 여성들로 하여금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남녀평등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성차별을 개선하려는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성의식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바로 여성단체이다. 여성의식교육을 통해 여성들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의식을 키우고 평등적인 여성의 자화상을 형성하는 재사회화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Mihailo Markovic, 1984; 한정자, 1999b).

다른 하나로는 보다 구조적인 접근으로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조직적인 대응으로서의 조직활동이 요구된다. 종속집단인 여성들이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녀평등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조직화에 성공한다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다렌도르프, 1980; 김정동, 1990). 이를 여성의 상황에 적용해보면, 여성들 스스로 성차별적 상황에 대한 의식화가 이루어지고, 여성단체를 통해 조직화된다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평등한 사회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예측해 볼 수 있다.

결국 여성단체 활동이 여성지위 향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 스스로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단체의 이념과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함은 물론, 여성단체의 조직적 활동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한편 조직 차원에서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탐색해보면, 무엇보다 민주적인 조직운영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윤석인, 2000). 더불어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여성운동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들 요건이 현실에서 균형을 맞추어 작동

할 때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Ethel Klein, 1984: 9-31).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여성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작업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보다는 여성단체들의 조직적 활동을 통한 압력행사로부터 의미있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여성조직들간의 연계망이 확대되면서 여성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는 결과가 야기되었음은 물론, 여성조직과 국가 간에도 새로운 관계가 정립됨으로써 여성정책의 제정 및 집행에 여성조직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음은 고무적이라 하겠다(공성민, 1999).

그동안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온 여성운동은 성차별 개선 및 여성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어 왔다. 실제로 여성운동으로 인해 여성관련법 개정·제정이 이루어졌고, 성차별 극복을 위한 새로운 법안 및 제도 마련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 가족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음은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는 동시에 여성공무원 할당제가 실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성단체를 통한 조직적 활동은 성차별적 사회제도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이로 인한 남녀 불평등의 문제 및 여성능력 개발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단 여성단체 활동의 의미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이념과 활동이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여성문제 해결,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는 동시에 조직적 차원의 활성화가 요구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여성단체의 조직적 차원에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회원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묘를 기하고 단체의 재정 기반을 공고히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여성운동에서의 단체간 연대활동의 중요성 및 현황

여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 간 연대활동과 더불어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간 연대활동이 여성 세력화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은 앞서도 강조한 바 있다. 곧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남녀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성(gender)평등 운동을 전개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안으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모니터 활동 및 여성정책 실현 촉구활동, 의회 의정감시 활동 및 성차별제도 개선 촉구활동,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및 피해여성 지원활동 등 여성의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연대활동의 강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제안된 여성운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간 연대활동은 물론, 중앙과 지역의 시민단체와 남녀 지도자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한정자, 1999b).

그러나 여성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체간 연대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단체간,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간 연대활동 수준은 매우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녀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성(gender)평등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간 연대활동을 적극 전개해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한정자 외, 2002).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을 기점으로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온 이후, 현재 활동 중인 시민사회단체 수가 40,0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음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파급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시민의 신문, 2000). 이처럼 단기간에 시민사회단체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운동의 목표와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단체들이 하나의 이슈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연대하

여 대응하는 특수한 형태의 시민단체들간 활동이 힘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김남석, 2000).

이 분석은 향후 여성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연대활동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함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이 자리에서는 남녀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연대활동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여성·시민단체간 연대활동의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단체간 연대활동의 중요성과 그 효과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시민단체 연대활동의 대표적 사례로는 2000년 1월 12일 여성단체를 포함한 전국의 41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2000년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들 수 있다. ‘2000년 총선 시민연대’ 활동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낳았는데, 총선연대의 성과에 대해서는 운동주체 뿐 아니라 제도언론에서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다(정대화, 2000). 낙천·낙선운동의 직접적 효과로는 구정치인들의 은퇴를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천과정에서 대상인사들 다수를 탈락·낙선시켰다는 점이 꼽히고 있고, 더불어 선거법 개정과 선관위의 전향적 활동을 유도한 것 등이 긍정적인 결과로 지목되고 있다(김남석, 2000).

한편 2000년 여성단체가 주축이 된 연대활동 사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여성 정치참여 운동 - 여성단체는 연대활동을 통해 평등·민주·평화의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정치분야에서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을 통해 비례 대표제에 여성 할당 30%를 명시토록 하여 16대 국회에서 17명(6.2%)의 여성의원들을 진출시키는데 기여했으며, 또한 여성정책전담기구를 강화하기 위한 여성부 설치를 주장하여 이를 이루어내는데 기여했다.
- ② 여성 빈곤의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활동 - 여성단체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대활동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운동,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및 유급 육아휴직 확보를 위한 법 개정활동,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

지법의 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 ③ 호주제 폐지 운동 -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가부장제적 가치관의 근원인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여기서는 단순한 제도개선의 차원을 넘어 남성우월적인 사회 구조 및 문화 전반에 대한 의식 변화를 촉구하였다.
- ④ 여성노동자 권익보호 운동 -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급속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노동, 시민단체와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제도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 국회에 청원하였으나 법 개정까지 이루지는 못했다. 반면, 특수고용 형태의 여성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 ⑤ 여성문화 운동 - 부모 성(姓) 같이 쓰기 운동, 안티 미스코리아 축제, 월경페스티벌 등 문화분야에서 성차별 극복 활동을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 ⑥ 군가산점제 폐지운동 - 군가산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사회단체간 연대운동 결과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는 기회의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 같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판결을 내렸고, 정부·여당은 2000년 1월 6일 군가산점제 개선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 ⑦ 미성년자 매매춘 추방 운동 - 1992년 경찰청은 ‘미성년 율락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국 53개 율락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뒤이어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주도하고 시민단체들이 합류하여 ‘매춘 상대자 신상공개 5천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매매춘을 근절하기 위한 한소리회’는 매매춘 여성을 옹아매는 차용증 없애기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 ⑧ 법·제도적 차원의 남녀평등 실현 및 평가 - 2000년 여성운동은 법·제도적 차원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평등 실현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시행, 여성부 신설 등은 획기적인 성과로 볼 수 있고, 아울러 여성단체의 연대 활동으로서 주변화된 여성 장애인, 여성 동성애자, 영

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등 주변화된 여성 이슈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되어 공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 역시 큰 성과였다 할 수 있다(김동춘, 2001). 반면 여성 우선 정리해고,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등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이전보다 더 하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비(非)예산 여성정책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예산이 요구되는 여성정책은 거의 발전이 없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현 정부의 여성정책을 ‘돈 안들이고 전시효과를 높이는 방법만을 선택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제도개혁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미디어·정보화운동, 교육·문화운동 등 총체적인 접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나아가 세계화·정보화에 따라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권 확보운동에 대한 요구도도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상에서 여성단체간 혹은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간 연대활동은 NGO의 중요성이 확대되어 가는 시민사회에서, 특별히 성 평등운동이 연대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운동의 파급효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여성단체 차원에서 연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운동 이슈 선택에서부터 운동을 조직화하는 방법 및 효과 검증에 이르기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4.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중요성

정보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중요성은 본 연구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우선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운동의 중요

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의 활용은 여성운동의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Gillian Youngs(2000)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여성운동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및 개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주체를 향해 보다 쉽게 접근해감으로써 운동의 효과를 적극 확대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정보혁명 시대인 21세기는 여성 연대와 공존·평등을 도모함에 있어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이 여론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정보통신혁명 이전 시대에는 일반 여성들이 여성운동에 직접 참여하는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많은 현실적 제약이 따랐으나 오늘날은 정보공유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많은 여성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여성운동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은 일방통행의 한계를 벗어나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여성의 참여를 더욱 폭넓게 이끌어 내는 동시에 실천 효과의 가시성을 더욱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나아가 정보화로 인한 상황변화는 여성운동 영역의 다원화는 물론 지역별·이슈별로 전지구적 연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21세기 여성운동은 단체간·지역간·국가간·국제기구와 NGO간의 연대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리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 여성단체도 앞으로 전개될 여성운동의 방향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부응하는 활동 내용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Wendy Harcourt(2000)의 사례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웹망을 통해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고 폭력을 근절하며, 여성들간의 연결망을 구축하면서 조직화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국제적인 여성운동 연대활동을 활발히 전개해가고 있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진성(2000)은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운동을 전개해감에 있어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남성에 비해 뒤떨어진 정보격차, 선진국과 후진국간 정보화 수준 차이, 그리고 여성집단 내부의 계층 간 차이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 여성운동을 활성화시키려면 여성단체의 정보통신 이용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단체 실무자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정보화 교육을 여성 대중에게도 파급시켜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이 따라야 할 것이며, 나아가 연대활동을 위해 국·내외 단체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이버 운동 현황을 살펴보면, 사이버 상에서 전개되는 시민운동은 대체로 2000년 4.13 총선을 기점으로 변모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곧 인터넷을 통해 시민단체 활동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의 참여를 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인터넷의 파급 효과에 대한 경험은 이후 다른 시민단체 및 지역단체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들 시민사회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홈페이지 구성에 있어서도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 이를 운동적 차원과 접합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던 단체들이 인터넷 상에 총선시민연대를 조직하면서 이들 단체간 연대활동이 시작되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그 동안 전개되어온 사이버 시민운동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기존의 온라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통신상의 검열에 대한 반대운동을 비롯, 과거의 진보적 경향을 띤 이슈를 제기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인터넷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시작되었다. 네티즌 운동은 이들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여론 전파력에 주목하여 각종 안티 사이트 개설을 통해 사이버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운동양식으로 지금은 사이버 공간 상에서 보편성과 대중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시민단체들은 2000년을 기점으로 홈페이지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웹진 창간이나 뉴스 페이지 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거나, 다양한 콘텐츠 개발, 커뮤니티의 활성화, NGO 관련 포털사이트 운영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시민단체의 사이버 운동 현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곧 2000년 9월의 『시민행동』 워크숍 자료에 의하면 81.0%의 시민단체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시민운동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곳은 2.1%에 불과한 반면, 63.8%의 단체가 홈페이지를 “단체 홍보”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버 공간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가 의사소통의 쌍방향성과 익명성으로 효과적인 여론수렴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 각 시민단체의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윤영민, 2000).

이상에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여성운동 현황은 전반적인 현실 공간에서의 여성운동과 비교해볼 때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리라 예측된다. 현재 여성단체의 사이버 여성운동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정보사회에서의 여성운동의 현주소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5. 정보사회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본 연구에서 사이버 공간 내 여성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먼저 사이버 공간에서 구성되는 공동체의 특성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정리하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해보기로 한다.

사이버 공동체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의미심장한 느낌’을 가지고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가상의 공간 안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해 가는, 컴퓨터 스크린 상에서 유일하게 접속 가능한 공동체로 정의되고 있다(Slevin, 2000).

사이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현대성과 일상성의 특징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서부터 시작되었다. 곧 ‘현대인은 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망 형성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가’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현대성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일상성의 특징을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다(Giddens, 1990). 현대인에게 일상이란 끊임없이 벗어나고픈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자 동

시에 그로부터 벗어나게 될까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복잡한 감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대인은 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것, 영원한 것, 균형 잡힌 것을 갈망하나, 해결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은 채 공허감과 소외감 그리고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성의 역설이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여 관계망 형성의 욕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저마다 삶의 의미를 스스로의 힘으로 새롭게 구성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대해갈 수 있는 사이버 공동체의 출현은 매혹적인 대안이 된다는 것이다(Giddens, 1990; Castells, 1997).

그렇다면 사이버 공동체는 기존 현실의 공동체와 본질적으로 다른 현상인가, 상호연장선상에 있는 현상인가에 대해서는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첫 번째 입장으로는 사이버상의 가상 공동체는 현실 공동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견해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동양식은 사이버 공동체 안에서나 실생활에서나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곧 사람들은 가상 공간이든 실제 상황이든 어느 공동체에서나 대화를 주고받고, 논쟁을 하며, 상거래를 하고,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음은 물론, 정서적 지원을 공유하기도 하고, 가십이나 음담패설을 나누기도 하며,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게임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이 무한대의 자유를 가져다주리라는 환상이나, 가상 공동체가 현실 공동체의 상호작용 패턴을 바꾸리라는 기대는 성급한 추측이라는 것이 이 입장에 서는 학자들의 주장이다(Slevin, 2000).

두 번째 입장으로는 가상 공동체와 현실 공동체의 차이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다. 이들은 주로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는 상호작용 패턴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 곧 사이버 공동체 안에서는 성과 세대, 인종과 민족, 사회경제적 지위 등 사회적 범주의 의미가 해체되면서 일단 형식적이긴 하나 “평등”한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여성다움·남성다움의 성역할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해주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며, 과격한 표현, 내밀한 고백, 그리고 엽기적 상상까지 불사한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이버 공동체는 역설적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느슨한 자기 규제(self regulation)의 고리를 타고 극단적 행동이 쉽게 표출되기에, 참가자들 사이에 단기간에 강력한 친밀감의 고리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익명성이 보장해주는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 내부에 더욱 강력한 권위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채팅 공간에서 사용자의 실명사용을 불허한다는 규범이 만들어지는 경우, 이 규범을 어기는 사용자는 가차없이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결국 사이버 공동체 성원들은 한편으로는 동일 코드를 공유하는데서 오는 강력한 연대의식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적대감을 격렬하게 표현하는 독특한 행동양식을 보이기도 한다(Castells, 1997; Slevin, 2000).

한편 사이버 공동체는 시연(simulation)의 문화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현실 공동체가 구현해오던 연산(calculation)의 문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 즉 기존의 규범을 전복하면서 반항적 쾌락을 맛보기도 하고, 하이테크 현실 속에 환상을 융합하면서 몽환적 쾌락을 즐기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이버 공동체는 포스트모던적 요소가 강하게 채색되고 있다는 것이다(Rheingold, 1993).

최근에는 가상 공동체와 현실 공동체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입장에 대해 신중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사이버 공동체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또한 다양해지게 되어, 이들간에 새로운 균열(cleavage)과 구별짓기가 형성됨으로써 평등의 이상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보기술의 발달이 무한대의 익명성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도 주목할만하다. 사이버 공간 안에서 급증하고 있는 E 메일 전송, 홈페이지 구축, 화상 채팅 등은 익명적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공감의 기반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상징적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사회구조적 맥락과 관계망의 본질을 간과하고서는 새로이 등장한 사이버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리라는 것이다. 이미 뿌리깊은 고정관념과 근거 없는 편견을 내면화한 개인들이 사이버 공동체에 들어갈 경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사실만으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해방적 의사소통을 담보해주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결국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티의 본질은 현실세계로부터 가상의 시·공간으로 들어가는 개인과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바 정보, 기술, 자원, 문화 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사이버 공동체가 사회운동이 표방하는 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희망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해 가는 공간으로서의 기능, 일상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장으로서의 노력, 정보와 지식을 확산시키는 통로의 다변화 실현, 그리고 권력행위에 대한 통제 및 견제 통로의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Slevin, 2000). 나아가 위험과 불확실성이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성찰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상호신뢰를 토대로 하는 연결망을 구축할 때만이 사이버 공동체는 존재 의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단체들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을 포함한 다수의 시민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성인지적(gender perspective)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상 생활 속에서 성차별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민주화와 남녀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이버 상에서의 가부장적인 권력행위와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통제와 추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세력화를 위해서는 여성운동에 여성의 동참은 물론 남성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바 여성단체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유발 요인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여성단체는 물론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단체간 네트워크의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6. 여성단체에 관한 선행 연구

우리나라에서 여성단체를 주제로 한 연구는 1975년 UN이 제정한 세계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여성조직활동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여성주의적 시각을 담은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를 통틀어 여성단체에 관한 연구는 희소하여 보건사회부에서 나온 여성단체 편람과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단체에 관한 보고서 정도가 나와 있고,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은 1980년대 초 “여성단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한정자, 1983; 1984)로부터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여성단체에 관한 연구는 여성단체 발달사, 단체 현황과 역할, 구조 및 조직현황, 여성단체와 여성정책, 여성단체의 사회교육,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지역여성단체 현황 분석 등을 주제로 수행되어 왔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성차별로부터 여성의 인간화를 모색하는 여성해방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며,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는 여성들의 연대활동과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여성운동이 발전되어갔다. 이러한 변화 발전과정 속에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운동의 인적, 물적 기반의 저변 확대 또한 이루어졌다. 곧 1980년대 한국의 여성단체는 양적인 면의 확대는 물론이고 활동영역에 있어서도 전문화, 다양화를 실현하면서 질적인 도약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체활동을 통해 여성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여성들의 기대수준을 높여 주는 동시에 단체활동에 대한 실질적요구도를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지방자치로 대변되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단체 또한 점차 중앙조직 중심의 활동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지역문제와 여성문제를 연계하여 해결하려는 전문단체의 활동도 증가하게 되었다(정현숙, 1997).

이처럼 여성운동의 중심이 중앙단체로부터 지역단체로 옮겨감에 따라 여성단체에 대한 연구도 중앙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연구 일변도에서 지역여

성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확대되어 갔다. 중앙여성단체에 대한 연구는 정부부처에 등록된 52개 단체의 교육활동 현황과 교육내용을 여성중심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분석한 연구(한정자, 1983, 1984)가 있으며,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단체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 재정을 중심으로”(1985),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평가 및 대안에 관한 연구”(1998) 그리고 12개 부처에 등록된 61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조직과 특성, 임직원 현황, 프로그램 및 재정에 관한 분석과 함께 여성단체활동 활성화방안을 모색한 김미경의 연구(1989) 등이 있다.

여성단체 정보화와 관련된 연구는 김교정(1999)의 38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기기 보유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와 장하경(2001)의 200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 전부이며, 기타 연구내용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선언적 수준에서 언급되는 소수의 연구들이 있을 뿐이다.

여성단체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미경(1989)의 “여성단체활동의 저해요인과 활성화 방안”연구에서는 여성단체 활동의 저해요인으로서 회원확보와 회원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점, 여성 스스로 전통적 고정관념 속에 안주하여 의식화되지 못한 점, 회장단의 장기운용으로 인해 조직이 침체되고 있는 점, 그리고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조직의 측면에서 회원의 저변확대, 지부 조직의 확충, 회원관리의 체계화를 기하고, 둘째 단체 운용의 측면에서 민주적인 지도체제 정비를 통한 회원 의견 수렴, 교육을 통한 실무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셋째 회원과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독창성을 제고하고, 넷째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재정자립을 도모하며, 다섯째 여성의 의식화를 통해 여성의 잠재력을 자원화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단체 재정과 관련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85; 김홍숙, 1999; 한정자, 2000)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지위 개선을 위해 조직활동의 중요성에 주목하면

서 여성단체의 활동 및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단체 재정은 세입 구성 항목에 있어 회원의 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찬조금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단체가 회원이나 임원으로부터 단체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고보조를 받는 여성단체는 소수에 불과하며, 보조금 액수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비 지출내역은 교육사업, 출판·홍보사업, 복지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의 재정은 여성의 지위개선을 위한 조직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단체는 재정형편이 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은 물론, 바로 이러한 소규모 예산과 재정적 빈곤으로 인하여 전문성과 독창력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할 전문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성단체의 교육활동을 성(gender)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 90%에 이르는 여성단체가 핵심사업으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성단체 교육은 여성들의 의식계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기서 여성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의 성격에 따라 성차별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남녀평등의식을 주제로 교육하는 여성단체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자, 1984). 1990년대 들어서도 여성단체의 교육사업은 단체의 핵심으로 존재하나 성 평등적인 성격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 우리의 여성단체 교육이 갖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한정자, 1999a; 2000).

유성혜의 “여성단체의 이중구조 연구”(1992)에 따르면 우리의 여성단체는 간부회원과 평회원 간에 참여목적, 참여방식, 재정부담에 있어 뚜렷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여성단체활동 내용분석을 통해 우리의 단체활동은 여성의 무보수노동을 활용하는 사업, 국가가 인정하는 사업, 건전가정의 수호자·소비자·환경의 감시자 등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기능에 충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유명주는 “한국여성단체의 실태와 그 정책형성 역할에 관한 연구”(1993)에서 이익단체로서의 여성단체가 6공화국 당시의 정책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

석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정책결정구조를 분석한 결과, 여성단체는 단체 외형과 실속간에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단체활동의 실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활동 내용에 있어 중복현상이 심각함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1998)에서 실시한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평가 및 대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은 1995년도에 90단체 165개 사업에 총 20억 원, 1996년도에 137단체 210개 사업에 총 23억 원, 1997년도에 160단체 247개 사업에 총 26억 원으로 나타나, 재정지원 대상 여성단체 수의 증가에 비해 지원액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좁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의 주제 면에 있어서도 여성, 가정, 사회로 분야를 나누었을 때, 여성을 주제로 한 사업의 지원율이 1995년도에 41.3%, 1996년도에 47.0%, 1997년도에 43.5%로 나타나 여성 지위향상을 목표로 하는 운동에 대한 지원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지역별 여성단체 활동 및 지역여성운동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방의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부산광역시의 4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김주희 외(1994)의 연구가 있고, 해방 이후부터 90년대 초까지 부산지역 여성단체 활동을 대상으로 50여년 간의 흐름을 추적한 공미혜(1996)의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 부산지역의 여성단체 활동은 80년대 말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볼 때 10년 정도 뒤떨어진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희 외(1996)는 대구지역의 여성단체 활동을 분석하였으며, 김귀현(1997)은 포항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정책 형성과정에서 단체의 영향력을 연구하였고, 허성우(1997; 1998)는 대전지역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정현백 외(1998)는 경기도 지역 여성단체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1998년도 여성단체활동 사례집”을 낸 바 있다. 또한 한정자(1999a; 1999b)는 중앙을 제외한 전국 시도단위 여성단체와 군(시)단위 지역여성단체를 대상으로 대도시 및 농촌지역 여성단체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여기서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여성단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항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한 김귀현(1997)의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익단체와 시민단체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에 이들 집단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익단체 및 시민단체의 역량에 근거하여 사회적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 바, 여성권의 보호차원에서 여성단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지역여성단체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향 아래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해온 결과 정부의 정책에 여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귀현(1997)은 조사자료를 토대로 지역여성단체가 지역사회발전과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건전한 시민단체가 되기 위한 전략으로, 여성단체 조직의 육성을 위해서는 전업주부의 조직화를 모색할 것, 지방의회 여성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간 연대사업으로 신세대 지도자를 육성할 것, 여성단체활동을 지역사회의 생활문제 해결과 접목함으로써 지역사회 활동으로 정착화할 것, 여성문제를 사회문제 차원에서 제기할 것,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시 여성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등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구지역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한 김선희 외(1996)의 “대구지역 여성단체 활동 분석”에서는 대구지역 여성단체의 문제점으로 첫째, 단체들간의 활동은 설립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설립목적과 무관한 활동이 많고, 지속적인 활동보다 일회성 행사나 당시의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행사가 주를 이루므로써 장기비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여성단체간 연대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봉사활동을 비롯하여 교육, 환경, 식량, 철도, 성폭력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몇몇 단체만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연대활동에 참가하고 있어 집중적인 활동력을 발휘하기가 어

려운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부산지역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김주희 외(1994)의 연구 “부산지역 여성단체활동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부산지역 여성단체의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여성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 가입단체로서 여협의 여성운동이 부산지역 여성운동과 동일시되고 있는 점,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여성문제에 대한 시각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여성단체 리더가 고령화되고 있고 운영방식 또한 권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여성 의식화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다른 교육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천되지 않고 있는 점, 시대적 변화로 인해 당초의 설립목적을 상실한 단체가 많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부산지역 여성단체를 하나의 틀로 묶을 수 있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 그리고 여성단체 스스로 구체적인 정체성을 결여하고 있기에 설립목적, 프로그램, 향후 방향 설정 등에 있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부산지역 여성단체의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연구 “부산지역 여성단체활동과 여성문제의 흐름”(공미혜, 1996)에서는 역사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1980년대를 부산지역 여성단체가 여성의 당면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한 시기로 보고, 이 시기는 각 부문별로 전문성은 부족하나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다각도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990년대는 여성문제가 매우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점차 전문성을 띤 소규모 여성단체들이 설립되면서 성폭력추방 연대운동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여성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연대운동 등에 비추어볼 때 당시의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연대운동이 점차 활성화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목하면서 지역의 여성단체활동은 해당 지역이 안고 있는 여성문제 해결의 주체자로 뿌리내려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의존적 성향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대중여성을 조직하는데 매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한 허성우(1997)의 “대전지역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전시에서는 1988년 대전지역 여성단체협의회가 결성되었고 1997년 현재 58개 여성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황이 반드시 타지역과 비교해볼 때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전지역에서의 여성단체 결성이 상당히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대전시 여성단체의 특성으로는, 첫째 1997년 현재 대전지역 58개 단체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31개 단체가 사단법인이며, 중앙조직의 지부로서 지역에 토대를 둔 조직은 그 수가 7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조직의 영향력 또한 극히 미약하다는 점, 둘째 대전지역에는 일정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능단체가 많아 일반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 셋째 사업 내용이 단체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여성유권자연맹을 제외하면 여성문제 해결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활동이 대체로 일회성 행사에 그침으로써 여성문제를 지역문제와 결부시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대전시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단체의 자립 능력을 함양시키고, 지역사회 일반여성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며, 홍보기능의 확대로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일정한 수의 실무자와 재정을 확보할 것, 여성단체 실무자들의 지도력 향상 교육을 실시할 것, 유사한 사업을 수행중인 단체들간의 연대를 모색할 것,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간 연대를 통한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것, 지방자치단체와 여성단체간의 연대를 통해 대전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발전을 도모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143개 지역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정현백 외, 1998)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여성단체의 설립이념으로는 ‘지역사회봉사’가 41.2%로 가장 높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이 26%인 반면 ‘남녀평등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여성단체의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50.6%

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성단체의 재정은 대체로 열악한 편으로 밝혀져 50% 이상의 단체들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역 여성단체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연대 활동의 필요성(82.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확대(45.6%), 상호의 견교환 관계 개선(19.9%)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정자(1999a)의 『농촌여성의 조직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여성들이 겪는 다중역할 수행과 과노동, 그리고 농촌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나타나는 성차별적 상황과 불평등은 여성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농촌여성을 주축으로 하는 조직활동을 통해 이들 사회구조적 문제를 풀어 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등장한 중앙단위 농촌여성조직들이 주도하는 사업과 연대활동은 현재로서는 미흡한 수준이지만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들 활동을 지방조직으로 파급·연결시키는 노력과 함께 지역농촌조직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농촌·농민여성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연구』(한정자, 1999b)에서는 중앙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 단위 400개 여성단체의 회장, 단체실무자,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여성단체의 활동 내용을 보면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은 매우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자원봉사활동은 매우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들 자원활동이 일정부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인정하나 자원봉사활동 중심의 편향성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 지적하고 있다.

둘째, 여성단체 수준에서 노력해야 할 개선 방안으로는 여성단체장의 리더쉽 제고, 여성단체의 교육사업 강화, “여성의식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 및 사업의 증대, 회원의 고령화 현상 해소를 위한 세대교체 및 젊은 회원 영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지역여성단체 회원들의 요구사항으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놀이문화에서부터 여성이 향유하는 문화, 남녀 평등적인 의미의 여성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남녀평등적 시각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선정하여 “강사은행(Bank)”을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 지역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여성단체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행정기관의 다양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여성의 세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여성단체간 적극적인 네트워크 형성, 정보화 시대의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써 정보화 체제를 갖출 것,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을 적극 모색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여성단체 정보화를 다루고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38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한 김교정(1999)의 연구 결과, 여성단체의 정보통신 기기 보유 현황은 극히 미약하고 첨단정보통신기기의 이용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단체의 정보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 단체장의 정보화 마인드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장하경(2001)의 전국 200여 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여성단체들은 정보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 마인드의 수준이 매우 뒤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제시된 바 여성단체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여성단체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점, 그로 인한 사업상의 특성이나 비전제시가 어렵다는 점, 나아가 여성단체의 재정부족, 여성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수행이 미진한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단체는 양적 증가와 더불어 단체간 힘의 결집을 통해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여성부 설치 등 남녀평등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앞으로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성차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의 이념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여성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단체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여성단체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정보화 마인드를 고양시키는 교육이 따라야 할 것이다.

Ⅲ



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45
2. 사이버 공간활용 여성운동 조사개요	46
3. 심층면접 개요	48
4. 현장전문가 워크숍 개요	51

1.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실시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단체는 중앙행정부처 등록의 중앙여성단체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그리고 도 단위 여성단체를 조사범위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도 행정기관에 시·도 단위 여성단체 현황을 파악하였다. 중앙여성단체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발행 『여성단체명부』를 참조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파악된 중앙 및 시·도 단위 지방여성단체 630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2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우편조사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각 단체의 사무국장에게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각 단체에 1-3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전화를 한 바 있다. 최종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단체는 모두 259개로 응답율은 41.1%를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통계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256개였다.

나. 설문조사 내용

본 연구의 설문조사 내용은 여성단체의 일반적 특성, 여성단체의 정보화 현황, 여성단체 사업 및 여성운동의 현황, 여성단체에서의 사이버를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부 질문 내용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III-1> 설문조사 내용

영역	세부설문내용
여성단체의 일반적 특징	· 법인등록 및 형태, 소재지, 설립목적, 협의체 가입유무 · 형태, 회원 · 상근직원 수, 예산규모
여성단체 정보화 현황	· 정보화 기반(인프라) · 여성단체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정보화를 위한 정책요구 · PC · E-mail · Homepage 활용여부 및 활용치 않는 이유 · 정보화 활용현황 · Homepage 활용 현황 · 정보화 교육현황
여성단체사업 · 여성운동현황	· 주요사업, 여성운동관련사업 · 사이버 공간 활용 여성운동현황 및 방법 ·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단체간 연대활동 ·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간 연대활동
활성화 방안	· 정보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 사이버 공간 활용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2. 사이버 공간활용 여성운동 조사개요

가. 사이버 공간 활용 여성운동 단체 및 사이트 조사대상 선정

본 조사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운동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여성단체와 여성운동 및 여성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사이트의 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여성운동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on-line에서의 활동이 활발한 20개 여성단체와 off-line에 근거하지 않고 온라인에서만 운영되는 여성발전지원과 관련된 13개 사이트 등 총 33개의 홈페이지로 하였다. 여기서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사이트의 경우는 여성단체 연합 사이트, 호주제 폐지를 위한 현안 사이트, 여성운동 사이트, 여성주의 웹진, 언론, 출판 여성문화 사이트와 그 외에 여성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선택하였다. 조사대상 여성단체와 관련 사이트 명 및 홈페이지 주소는 <표 III-2>와 같다.

<표 Ⅲ-2> 여성단체 및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명과 주소

여성단체 홈페이지		여성운동·여성발전 지원 사이트	
단체명	홈페이지	사이트명	홈페이지
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www.iwomen.or.kr	1 여자만세	www.womanv.net
2 한국여성단체연합	www.women21.or.kr	2 여성단체 연합 호주제 페지 운동본부	no-hoju.women21.or.kr
3 대한 YWCA연합	www.ywca.or.kr	3 탈호주제 대안사회 운동	www.tal-hoju.or.kr
4 전국주부교실중앙회	www.nchc.or.kr	4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antihoju.jinbo.net
5 전국여성노동조합	kwunion.jinbo.net	5 여성마당	www.womanplaza.or.kr
6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www.hotline.or.kr	6 살류주	www.salluju.pe.kr
7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www.kwfa.net	7 또 하나의 문화	www.tomoon.org
8 한국여성중앙회	www.jw21.org	8 여성신문	www.womennews.co.kr
9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9 주부문화연구소	www.jubu21.or.kr
10 한국여성유권자연맹	www.womenvoters.or.kr	10 위민넷	www.women-net.net
11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11 우리진	www.woorizine.or.kr
12 한국여성상담센터	www.iffeminist.or.kr	12 달나라딸세포	dalara.jinbo.net
13 한국여성정치연구소	www.feminet.or.kr	13 언니네	www.unninet.co.kr
14 서울여성노동조합	www.womencourt.or.kr		
15 한국여성정치연맹	www.womenrights.or.kr		
16 한국소비자연맹	www.consumersunion.or.kr		
17 김포여성민우회	kpwomen.org		
18 한국여성재단	www.womenfund.or.kr		
19 서울여성의 전화연합	hotline.jinbo.net		
20 성남 YWCA	snywca.or.kr		

조사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여성운동과 관련하여 연속해서 컨텐츠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2002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나. 사이버 공간 활용 여성운동에 대한 조사 내용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는 주요 운동종류, 운동내용, 접속건수, 운동 전개형태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이버 공간상의 여성운동 조사 내용 및 분석들은 다음 <표 Ⅲ-3>과 같다.

<표 III-3>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조사 내용 및 분석항목

홈페이지 분석 대상	분석항목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트 구성 및 사용자 편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뉴구성 파악 - 영문지원, 사이트 맵, 게시판, 공개자료실, Q&A, 상담실, 토론실, 회원가입, 검색기능 메뉴 중심으로 사용자 편의성 분석 · 콘텐츠 분석: - 신뢰성, 전문성, 홍보성 등 분석 · 여성운동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 개선운동·교육, 법제도 개선운동,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 등 - 게시판의 여성운동관련 내용 분석

3. 심층면접 개요

가.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실시

본 연구에서는 여성단체 현장의 상황을 보다 충실히 파악하고 나아가 설문 조사 방법으로는 파악하기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조사대상으로는 여성단체 가운데 on-line상에서 여성운동을 비교적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단체를 선정하였고, 이와 함께 off-line상에서 여성조직은 없지만 사이버 상에서 여성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사이트를 포함하였다.

심층면접 대상기관의 선정은 먼저 16개 시·도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단체 가운데 대체로 사이버 공간 활용이 활발한 중앙 18개 단체와 지역 4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또한 현실 공간에서 여성단체의 조직은 갖지 않았지만 가상공간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관련 사이트 3개를 선정하여 총 25개 단체 및 사이트 운영집단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대상 단체와 여성관련 사이트의 명단은 <표 III-4>와 같다.

<표 Ⅲ-4> 심층면접 대상 단체 면접자

구분	단 체 명	심층 면접 대상자 및 직위
협의체 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송성숙 (사무총장), 김문을 (정보화담당부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박병현 (정보화부장)
중앙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	오정아 (미디어 팀장)
	한국여성의전화	박은수 (정보화담당간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정순 (소장), 권미혜 (간사)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백인화 (사무총장)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임규선 (사무국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윤김선미 (간사)
	한국여성상담센터	손성실 (간사)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임경애 (간사)
	한국여성재단	이유미 (기획홍보부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용옥 (사무국장), 이경희 (정책부장)
	대한YWCA연합회	최정윤 (기획간사)
	한국여성중앙회	최병철 (조직간사)
	한국여성정치연맹	강정숙 (사무총장)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장우윤 (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정자영 (간사)
	또 하나의 문화	서하나 (간사)
지역 여성단체	대구여성회	최혜경 (조직부장)
	YWCA(서울)	김혜경 (간사)
	인천 여성의전화연합	박인천 (부소장), 김성미경 (정책부장)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김난희 (정책부장)
여성관련 사이트	부천여성네트워크	기선희 (부천시 여성회관 팀원)
	언니네	김현영 (운영진)
	달나라딸세포	신 지 (운영진)
	살류주	장정임 (사무총장)

심층면접기간은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연구진과 훈련된 면접원이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피 면접자의 양해를 얻어 기록과 녹취를 병행하였으며, 추가 면접이 필요한 경우는 전화로 보충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대상자는 각 여성단체의 실무책임자 또는 실무간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나. 심층면접 조사 내용

심층면접의 조사내용으로는 첫째,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단체내 직무·직위·근무년수·응답자 연령 등을 포함하였다.

둘째, 여성운동의 현황 및 on-line 활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off-line의 여성운동 내용과 연대활동의 내용 및 참여단체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다음, off-line의 여성운동 내용과 단체간 연대활동 현황 그리고 구체적인 참여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셋째, 사이버 공간 활용의 효과,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알아보았다.

넷째, 여기서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이 현실 공간에서의 여성운동과 깊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off-line과 on-line에서의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동시에 물어보았다. 이상의 심층면접 조사내용은 위의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심층면접 조사내용

영역	세부면접내용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 단체내 직무, 직위, 근무년수, 연령 등
조사단체의 특징	· 여성단체 설립목적 · 여성단체의 주요 활동내용 및 사업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게 된 시기와 계기
off-line/on-line의 여성운동 현황	· off-line의 여성운동내용 · off-line의 여성연대활동 내용 및 참여단체 · 사이버 활용 여성운동의 내용 · 사이버 활용 여성운동의 참여형태(역할) · 사이버 활용 여성연대활동 내용/ 연대한 단체 · off-line의 여성운동에 대한 on line 활용 실태
사이버 공간 활용의 효과와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사이버 공간 활용의 효과 사이버 공간 활용의 문제점 · 사이버 공간 활용의 현실적 어려움
활성화 방안 모색	· 여성단체의 off-line/on-line에서의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4. 현장전문가 워크숍 개요

본 연구에서는 여성단체 현장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수렴하여 여성단체의 사이버활용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을 보다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현장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참가 대상자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단체와 여성단체연대 사이버 여성운동 사이트의 운영실무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가 워크숍은 본 연구에서 그동안 수행한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홈페이지 조사분석 등의 결과를 연구자들이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보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여성단체 현장 실무자 및 실무책임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워크숍 회의 방법은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카드 퀴즈 토론법과 자유토론 형식을 병행하였다.

가. 참가대상자 선정

전문가 워크숍의 참석대상은 사이버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관련사이트의 실무책임자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1차 26개 대상 단체를 선정하여 참석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실제 워크숍에 참석한 여성단체 현장전문가는 10명으로 소속단체 및 명단은 <표 III-6>과 같다.

나. 워크숍 내용 및 진행절차

워크숍의 진행은 제 1부에서 연구진들이 연구결과를 요약·발표하고, 제 2부에서 카드를 활용한 포커스 그룹 집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제 3부에서 자유토론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표 III-7> 참조). 워크숍에서의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발표의 내용은 ①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및 사이버 공간 활용의 중

요성, ② 여성단체의 활동 및 사이버 공간의 활용 현황, ③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현황 및 활용사례 등이다.

토론내용은 ① off-line에서의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모색, ② on-line에서의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모색, ③ 참가자의 소속단체 사정을 고려한 여성단체 사이버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모색 등으로 토론방법은 카드퀴즈 토론방식과 자유토론방식을 병행하였다. 워크숍은 2002년 10월 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원 ‘공동의 장’ 5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표 III-6> 워크숍 참석자 명단

단 체 명	참가자	직 책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정선애	정책부장
한국성폭력 상담소	권주희	부장
또 하나의 문화	서하나	간사
한국여성정치연맹	강정숙	사무총장
한국여성민우회	조성아	정보담당부장
한국여성단체 연합	박병헌	정보화부장
대한어머니회	김신실	부장
여자만세	기선희	부천문화재단 팀원
여자만세	김경태	개발팀장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김문을	정보화부장
연구진	한정자	선임연구위원
	정숙경	전문연구위원
	고선주	위촉연구위원

<표 III-7> 현장전문가 워크숍 내용

<p><1부> 연구결과·발표- 연구진</p> <p><input type="checkbox"/>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및 사이버 공간 활용의 중요성</p> <p><input type="checkbox"/> 여성단체 활동 및 사이버 공간활용 현황</p> <p><input type="checkbox"/>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현황 및 활용사례</p> <p><2부> 토론- 참석자</p> <p><input type="checkbox"/> off-line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 모색 - 카드 퀴즈 토론</p> <p><input type="checkbox"/> on-line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 모색 - 카드 퀴즈 토론</p> <p><input type="checkbox"/> 종합토론: 여성단체의 사이버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 - 자유토론</p>

IV

.....

여성단체의 특성과 정보화 현황 －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일반적 특성	55
2. 여성단체의 주요사업	62
3. 여성단체의 정보화 기반	63
4. 여성단체 정보화 수준 평가 및 필요성 · 효과 인식	70
5.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 활용 및 운영 실태	78
6. 여성단체 정보화 교육실태 및 홈페이지 개설 요구	94

1.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일반적 특성

가. 여성단체의 법인 가입형태 및 소재지

최종 분석에 활용된 256개 응답 단체의 법인 등록 유무를 살펴보면, 205개 단체(80.1%)가 법인등록단체이며, 법인등록단체가 아닌 경우가 51개 단체(19.9%)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 단체의 소재지별 법인등록 형태는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소재지역별 법인형태 분포
단체 수(%)

법인등록형태		소재지				소계	
		서울	광역시	도청소재지	중소도시		
전국규모 등록단체	중앙단체	19(51.4)	17(18.9)	6(6.7)	4(10.0)	46(18.0)	153 (59.8)
	시도단위단체	6(16.2)	32(35.6)	36(40.4)	13(32.5)	87(34.0)	
	일반 시 단체	1(2.7)	4(4.4)	8(9.0)	7(17.5)	20(7.8)	
단독법인 단체	정부·지방 등록단체	3(8.1)	10(11.1)	7(7.9)	3(7.5)	23(9.0)	
기타 등록단체		5(13.5)	10(11.1)	9(10.1)	5(12.5)	29(11.3)	
법인미등록단체		3(8.1)	17(18.9)	23(25.8)	8(20.0)	51(19.9)	
합 계		37(100.0)	90(100.0)	89(100.0)	40(100.0)	256(100.0)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소재지는 서울이 37개 단체, 광역시가 90개 단체, 도청소재지가 89개, 그리고 중·소도시가 40개이다. 법인등록 형태를 보면, 전국규모의 등록단체는 중앙단체 46개 (18.0%), 시·도 단위 단체 87개(34.0%), 일반 시단위 단체 20개(7.8%)로 총 153개 단체 59.8%에 이른다. 이외 단독법인단체가 23개(9.0%), 기타등록단체 29개(11.3%)로 나타나고 있다.

나. 단체의 설립목적 및 협의체 가입 현황

첫째,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주요 설립 목적을 보면(<표 IV-2> 참조), ‘여성운동’이 78개 단체(30.5%)로 가장 많고, 다음은 ‘지역사회발전 도모’가 31개 단체(12.1%), 회원의 권익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직능단체’가 27개(10.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의 설립목적으로는 ‘회원복지 및 친목도모’가 20개 단체(7.8%), ‘자원봉사’가 17개 단체(6.6%), ‘교육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15개(5.9%), 그리고 ‘소비자운동’ 단체가 13개(5.1%) 등이다.

<표 IV-2> 여성단체의 설립목적

설립 목적	단체수(%)	설립 목적	단체수(%)
여성운동	78(30.5)	종합 시민사회운동	11(4.3)
지역사회발전 도모	31(12.1)	여성상담	9(3.5)
회원권익도모	27(10.5)	여성문화운동	6(2.3)
회원복지·친목도모	20(7.8)	환경운동	5(2.0)
자원봉사단체	17(6.6)	생활개선운동	4(1.6)
교육운동	15(5.9)	기타*	12(4.8)
소비자 운동	13(5.1)	무응답	8(3.1)
합 계		256(100.0)	

* 기타에 분류된 설립목적은 “국제단체/평화통일/국가보건사업향상/무료법률상담/의식개혁운동/여성장애인운동/민주주의 옹호발전” 등이다.

조사대상 여성단체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바 여성운동의 의미를 다소 유연하게 규정하여, ‘여성상담’ 단체 9개(3.5%) 및 ‘여성문화운동’ 단체 6개(2.3%)까지 여성운동 단체에 포함시킨다면 여성단체의 설립목표로 여성운동을 표방하는 단체가 36.3%로 1/3을 약간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사회발전 도모를 위시하여 소비자운동, 교육운동, 환경운동과 같이 “신 사회운동”의 성격을 갖는 단체 등 매우 다양한 설립목적 하에 활동을 전개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 여성단체가 가입해 있는 협의체 유형을 분류해보면, ‘지역

여성단체 협의체 가입단체'가 94개 36.7%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본회 및 회원단체'가 60개 23.4%이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본회 및 회원단체'가 42개 16.4%로 약 4/5에 이르는 대다수 단체가 협의체에 가입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협의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한 '단독단체' 또한 48개 18.8%로 나타나고 있다(<표 IV-3> 참조).

<표 IV-3> 협의체 가입 유형

협의체 유형	단체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본회/회원 단체	60(23.4)
한국여성단체연합 본회/회원 단체	42(16.4)
지역여성단체 협의회 가입단체	94(36.7)
협의체에 가입하지 않는 단독단체	48(18.8)
무응답	12(4.7)
합 계	256(100.0)

다. 단체의 규모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규모를 인력 면에서 상근직원 및 회원수를 통해 살펴 보았다. 전반적으로 인력 현황은 조사대상 단체별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 IV-4> 참조).

1) 여성단체 직원 규모: 유·무급인력 현황

먼저 조사대상 단체의 유급인력 규모를 보면, '1-2명'인 경우가 97개 단체로 37.8%에 이르고, 다음은 '3-5명'인 경우가 53개 단체 20.7%로 나타나 과반수 여성단체가 극히 소수의 유급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급인력 규모가 '6-10명'이라고 답한 단체가 16개(6.3%), '11-20명'이라고 답한 단체가 17개(6.6%)이며, '21명 이상'의 유급 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단체가 7개(2.7%)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유급인력이 없다'는 단

체가 56개로 21.9%에 이르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여성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무급인력 규모(자원봉사자)를 보면, ‘무급인력이 없다’는 경우가 138개 단체(53.9%)로 과반수에 이르고 있고, 다음은 무급인력이 ‘1-2명’ 있다는 단체가 50개(19.5%), ‘11-20명’ 정도의 무급인력을 확보한 단체가 16개(6.3%), ‘3-5명’이 14개 단체(5.5%), ‘21-50명’ 규모가 11개(4.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51명 이상’ 비교적 대규모의 무급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가 8개(3.1%)로 나타났다.

<표 IV-4> 직원 규모: 유급인력 및 무급인력

인력 인원 유 · 무급	유급 인력	무급 인력
	단체수(%)	단체수(%)
인력이 없는 경우	56(21.9)	138(53.9)
1-2명	97(37.9)	50(19.5)
3-5명	53(20.7)	14(5.5)
6-10명	16(6.3)	6(2.3)
11-20명	17(6.6)	16(6.3)
21명 이상/21-50명	6(2.3)	11(4.3)
51명 이상	1(0.3)	8(3.1)
무응답	10(3.9)	13(5.1)
합 계	256(100.0)	256(100.0)

* 유급인력의 경우는 최소 1명(61개 단체) - 최대 89명임(1단체)
무급인력의 경우는 최소 1명(33개 단체) - 최대 500명임(1단체)

2) 여성단체 가입회원

조사대상 여성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 수를 보면, ‘100명 이하’의 소규모 단체가 35개로 15.8%, ‘101명-500명 이하’가 65단체 21.4%인 반면, ‘1000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단체가 11개로 5.0%로 나타나 인력과 마찬가지로 회원규모에 있어서도 단체간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표 IV-5> 참조).

<표 IV-5> 가입회원의 수

가입회원 수	단체수(%)	응답단체(%)
100명 이하	35(13.7)	35(15.8)
101 - 500명 이하	65(25.4)	65(29.4)
501 - 1000명 이하	23(9.0)	23(10.4)
1001명 - 5000명 이하	85(33.2)	85(38.5)
5001 - 10000명 이하	2(0.8)	2(0.9)
10000명 초과	11(4.3)	11(5.0)
무응답	35(13.7)	-
합 계	256(100.0)	221(100.0)

* 가입회원 수는 최소인원 21명 - 최대인원 일백육만명임

라. 단체의 재정

1) 연간 회비납부 회원비율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재정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은 단체의 역량과 관련해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단체의 입장에서는 밝히기를 꺼려하는 주제이기에 조사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표 IV-6> 회비를 내는 회원의 비율

회비를 내는 회원의 비율*	단체수(%)	응답단체 (%)
0	48(18.8)	48(21.9)
10% 이하	16(6.3)	16(7.3)
11-30% 이하	24(9.4)	24(11.0)
31-50% 이하	23(9.0)	23(10.5)
51-70% 이하	17(6.6)	17(7.7)
71-90% 이하	20(7.8)	20(9.2)
91% 이상	71(27.7)	71(32.4)
무응답	37(14.5)	-
합 계	256(100.0)	219(100.0)

* (회비를 내는 회원의 수 /전체 가입회원)×100

우리나라 여성단체의 회비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회비를 내는 회원의 비율을 보면 <표 IV-6>과 같다. 회비를 내는 회원이 없는 단체가 전체 조사대상 여성단체 중 21.9%(48개 단체)이며, 10% 이하의 회원만 회비를 내는 단체가 7.3%(16개 단체), 11%에서 30%의 회원이 회비를 내는 단체가 11.0%(24개 단체), 31%에서 50%이 회원이 회비를 내는 단체가 10.5%(23개 단체), 51%에서 70%의 회원이 회비를 내는 단체가 7.7%(17개 단체)이며 90% 이상의 회원이 회비를 내는 단체가 가장 많은 32.4%(71개 단체)였다.

2) 단체의 예산규모

2001년 조사대상 여성단체에서 집행한 예산 규모를 보면 ‘1,000만원 이하’의 영세한 단체로부터 ‘3억 원 이상’의 대규모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정 상황을 보이고 있다. 단체의 예산 규모 역시 단체 유급직원 수 및 회원 수의 편차를 반영함은 물론이다.

<표 IV-7>에서 나타나는 바, 응답 여성단체 211개의 2001년 예산 규모는 ‘1001만원-3000만원 이하’가 20.4%, 다음은 ‘5001만원-1억 원 이하’가 19.0%, ‘1000만원 이하’가 17.5%, ‘3001만원-5000만원 이하’가 16.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 단체는 26.5%로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표 IV-7> 2001년 집행 예산 규모

집행 예산 규모	단체수(%)	응답단체(%)
1000만원 이하	37(14.5)	37(17.5)
1001만원 - 3000만원 이하	43(16.8)	43(20.4)
3001만원 - 5000만원 이하	35(13.7)	35(16.6)
5001만원 - 1억원 이하	40(15.6)	40(19.0)
1억 1만원 - 3억원 이하	30(11.7)	30(14.2)
3억 1만원 이상	26(10.2)	26(12.3)
무 응 답	45(17.6)	-
합 계	256(100.0)	211(100.0)

* 집행예산의 규모는 최소액 100만원부터 최대액 36억임

3) 정부보조금 현황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2001년 정부 보조금 지원 여부를 살펴본 결과, 114개 단체(44.5%)로부터 '정부 보조금이 없었다'는 답이 나왔다. 여기서 무응답을 제외하면 과반수의 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여성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 규모 또한 '500만원 이하'에서부터 '1억 원 이상'까지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곧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응답한 111개 단체 가운데는 '1001만원-3000만원 이하'가 29개 단체, 26.1%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0만원 이하'가 25개 단체로 22.5%, '501만원-1000만원 이하'가 20개 단체, 18.0%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다소 규모가 큰 보조금을 받은 단체로는 '3001만원-5000만원 이하'가 19개 단체, 17.1%이며 '5001만원-1억 원 미만'이 10개 단체, 9.0%, '1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6개 단체, 5.4%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단체의 정부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여타의 시민단체와 견주어봄으로써 지원 상황의 열악함 정도를 정확히 판가름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집행 및 보조금 규모만으로도 여성단체의 재정은 매우 영세할 뿐만 아니라 소기의 목적인 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표 IV-8> 참조).

<표 IV-8> 2001년 정부 보조금

보조금 규모	단체수(%)	응답단체수(%)
보조금 없음	114(44.5)	-
500만원 이하	25(9.8)	25(22.5)
501만원 - 1000만원 이하	20(7.8)	20(18.0)
1001만원 - 3000만원 이하	29(11.3)	29(26.1)
3001만원 - 5000만원 이하	19(7.4)	19(17.1)
5001만원 - 1억원 이하	10(3.9)	10(9.0)
1억 1만원 이상	6(2.3)	6(5.4)
무 응 답	33(12.9)	-
합 계	256(100.0)	111(100.0)

* 정부 보조금의 범위는 최소액 6만원부터 최대액 5억9천5백만원임

2. 여성단체의 주요사업

조사대상 여성단체가 지난 1년 간 비중을 두고 실시한 바 있는 사업내용을 순서대로 3개 제시하도록 하였다. 지난 1년 간 여성단체에서는 매우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전개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비중 있게 실시한 사업의 1순위의 사업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활동’ 19.5%(50개 단체)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성지위 향상 도모 활동’이 16.4%(42개 단체)로 뒤를 잇고 있다. 다음은 ‘회원의 권익증진 활동’이 11.7%(30개 단체), 그리고 ‘여성운동’이 10.2%(26개 단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사업을 보면, ‘여성지위 향상 도모 활동’이 15.2%(39개 단체)로 가장 높고, 다음 ‘환경보존 및 개선 활동’이 12.1%(31개 단체), 그리고 ‘여성상담 활동’과 ‘회원친목도모 활동’이 각각 10.5%(각 27개 단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로 제시된 활동 가운데 빈도가 높은 순서는 ‘여성지위향상 도모 활동’ 13.7%(35개 단체), ‘회원권익 증진 활동’ 12.5%(32개 단체),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11.3%(29개 단체)의 순이다(<표 IV-9> 참조).

조사대상 여성단체에서 비중 있게 실시한 사업으로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한다. 한편, 직능단체의 경우 회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음은 당연한 현상이다.

다만 여성단체의 영세한 규모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봉사활동에서부터 다양한 교양교육은 물론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백화점식 사업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 바람직한 것인지,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되며, 특히 설립목적에 자원봉사단체가 6.6%였음에도 지난 1년간 가장 비중있는 1순위 사업으로 19.5%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은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도 따라야 하리라 생각한다.

<표 IV-9> 지난 1년 간 실시한 비중 있는 사업

단위: 단체수(%)

사업내용	1 순위	2 순위	3 순위
여성지위향상 도모 활동/여성운동	68(26.6)	51(19.9)	51(20.0)
자원봉사 활동	50(19.5)	16(6.3)	29(11.3)
회원권익 증진 활동	30(11.7)	21(8.2)	32(12.5)
여성상담 활동	17(6.6)	27(10.5)	13(5.1)
직업 및 취업교육 활동	16(6.3)	13(5.1)	9(3.5)
소비자 보호 활동	12(4.7)	12(4.7)	9(3.5)
회원친목도모 활동	11(4.3)	27(10.5)	22(8.6)
생활개선 활동	10(3.9)	5(2.0)	6(2.3)
환경 보존 및 개선 활동	9(3.5)	31(12.1)	25(9.8)
취미 및 교양교육	9(3.5)	14(5.5)	17(6.6)
컴퓨터 교육 및 여성정보화 활동	3(1.2)	16(6.4)	6(2.3)
기타(회원보수교육/외국어교육/법률상담/여성건강 등)	14(5.5)	6(2.3)	7(2.7)
무응답	7(2.7)	17(6.6)	30(11.7)
합 계	256(100.0)	256(100.0)	256(100.0)

* 음영은 여성운동 및 여성지위 도모 사업임.

3. 여성단체의 정보화 기반

여성단체 또한 사회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여성단체가 정보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해가고 있는지 판단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목적의 하나인 단체의 사이버 공간 활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현황을 우선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자체 평가를 중심으로 정보 인프라구조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여성단체의 컴퓨터 보유현황

1) 여성단체 컴퓨터 보유여부 및 보유대수

먼저 정보사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 보유 현황을 보면(<표 IV-10-1> 참조), ‘펜티엄급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191개로 약 3/4에 이르고, ‘486이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28개로 10개 단체 가운데 1개 단체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 ‘컴퓨터를 보유하지 못한 단체’도 36개 14.1%에 이르러, 여성단체 정보 인프라의 현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486기종의 경우 인터넷 활용을 위시하여 사이버 공간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하는 바, 낡은 컴퓨터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상황도 사이버 여성단체 활동 및 여성운동을 활성화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많은 제약을 갖고 있으리라 판단된다.

<표 IV-10-1> 컴퓨터 보유 현황

구 분		단체수(%)
컴퓨터 없음		36(14.1)
486이하 컴퓨터 보유		28(10.9)
펜티엄급 이상	1대	87(34.0)
	2 - 3대	58(22.7)
	4 - 5대	20(7.8)
	6 - 10대	14(5.5)
	11대 이상	12(4.7)
	소 계	191
무 응 답		1(0.4)
합 계		256(100.0)

한편 펜티엄급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상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대’ 보유한 경우가 87개 단체 34.0%로 가장 많고, 다음은 ‘2-3대’ 보유한 경우가 58개 단체 22.7%로, 과반수가 넘는 단체가 3대 이하의

펜티엄급 컴퓨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양적으로 충분하다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펜티엄급 컴퓨터를 '4-5대' 보유한 경우가 20단체 7.8% '6-10대' 보유한 경우가 14단체, 그리고 '11대 이상' 보유한 경우가 12개 단체 4.7%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여성단체협의회 가입단체의 경우는 평균 1.48대로 컴퓨터 보유현황이 가장 열악하다.

2) 컴퓨터가 없는 이유

본 조사에서는 '컴퓨터가 없다'고 응답한 36개 단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해보았다. 그 결과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복수응답까지 포함하여 21개 단체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 다음은 '회장 집이나 주변 PC방에서 컴퓨터 이용이 가능하기에' 컴퓨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표 IV-10-2> 참조).

<표 IV-10-2> 컴퓨터가 없는 이유

이유	단체수(%)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서	16(44.4)
주변(회장 집) PC방에서 이용 가능해서	9(25.0)
컴퓨터 구입과 유지비용이 부담스러워서	3(8.3)
굳이 컴퓨터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2(5.6)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 다른 이유로 복수응답	5(13.9)
무응답	1(2.8)
합 계	36(100.0)

별도의 사무실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을 논의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들릴 만큼 우리나라 다수 여성단체의 여건과 정보화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하겠다. 다만 '굳이 컴퓨터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라 응답한 단체는 2개에 불과하여 정보화 마인드 자체를 결여하고 있는 단체는 거의 없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나. 여성단체의 인터넷 이용 현황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인터넷 현황을 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단체가 209개 단체 81.6%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단체도 46개 18.0%로 나타나고 있으나 컴퓨터가 없는 36개 단체를 제외하면 컴퓨터가 있는 대부분의 단체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단체의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통신방법으로는 ‘ADSL, ISDN, 케이블 등의 초고속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단체 209단체 중에서 150개 단체, 71.8%로 가장 빈도가 높고, 다음은 전용 LAN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30개 단체 14.4%, 그리고 일반모뎀(전화)을 활용하는 경우가 25개 12.0%로 나타나고 있다(<표 IV-11-1> 참조).

<표 IV-11-1> 인터넷 이용 현황

구 분		단체수(%)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6(18.0)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통신방법	일반모뎀(전화)	25(12.0)	209 (81.6)
	초고속망(ADSL, ISDN, 케이블 등)	150(71.8)	
	전용 LAN망	30(14.4)	
	기타	2(1.0)	
	무응답	2(1.0)	
	소 계	209(100.0)	
무 응 답		1(0.4)	
합 계		256(100.0)	

반면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46개 단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은 결과, <표 IV-11-2>에서 볼 수 있듯이 ‘컴퓨터가 없어서’와 ‘굳이 인터넷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라 답한 경우가 각각 14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서’ 자체 내 인터넷을 활용

하지 않는다는 단체가 8개, ‘컴퓨터는 있으나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해서’인 경우가 6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정보 인프라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단체가 36개이고, 컴퓨터가 있으나 이용이 불가능한 6개 단체를 제외하면 98.8%에 이르는 대다수 단체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여성단체의 정보화 도입 속도는 대체로 빠른 편이라 평가할 수 있다.

<표 IV-11-2>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이유

이 유	단체수(%)
컴퓨터가 없어서	14(30.4)
컴퓨터는 있으나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해서	6(13.0)
굳이 인터넷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14(30.4)
다른 곳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서	8(17.4)
기타	2(4.3)
무응답	2(4.3)
합 계	46(100.0)

인터넷 이용여부를 협의체 가입 형태별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11-3>에 따르면, 한국여성단체연합 본회 및 회원단체의 경우는 42개 단체 가운데 41개 단체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 이

<표 IV-11-3> 협의체 형태별 인터넷 이용 여부

단위: 단체수(%)

협의체 형태 인터넷 이용	전 체	한국여성단체 협의본회/ 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 연합본회/ 회원단체	지역여성단체 협의회가 입단체	협의체에게 입하지않는 단독단체	통계적 유의미도
이용한다	199(81.9)	49(83.1)	41(97.6)	68(72.3)	41(85.4)	$\chi^2=13.25$ df=3 p<.000
이용하지 않는다	44(18.1)	10(16.9)	1(2.4)	26(27.7)	7(14.6)	
합 계	243(100.0)	59(100.0)	42(100.0)	94(100.0)	48(100.0)	

용율이 97.6%로 나타나고 있고, 협의체에 가입하지 않은 단독단체 및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본회 및 회원단체의 이용율도 각각 85.4% 및 83.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여성단체협의회 가입단체의 경우 인터넷 이용율이 72.3%로 나타나 전체 여성단체의 인터넷 이용율 81.9%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여성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정보화에 취약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다. 정보통신비 규모

이상에서 살펴본 바 여성단체에서 정보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터넷을 위시한 다양한 정보화 기기를 활용할 경우 이는 필히 정보통신비용의 지출이 불가함을 의미한다. 실제 조사대상 여성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통신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PC통신 요금의 경우는 ‘해당 없는’ 단체가 42.6%로 가장 높아서 PC 통신 자체를 활용하지 않는 단체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PC통신을 활용하는 경우의 지출 규모를 보면, ‘지출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43개 단체(16.8%)로 가장 많고, 다음은 ‘3-5만원 미만’ 정도 지출한다는 경우가 37단체(14.5%), ‘3만원 미만’이 33단체(12.9%)로 나타나고 있고, ‘10만원 이상’ 지출하는 단체도 17개(6.7%)로 나타나고 있다(<표 IV-12> 참조).

<표 IV-12> 정보통신비 지출규모

단위: 단체수(%)

지출규모	PC 통신 요금	고속인터넷 접속요금
지출하지 않음	43(16.8)	32(12.5)
3만원 미만	33(12.9)	14(5.5)
3-5만원 미만	37(14.5)	88(34.4)
5-10만원 미만	17(6.6)	24(9.4)
10-15만원 미만	5(2.0)	9(3.5)
15만원 이상	12(4.7)	7(2.7)
해당 없는 경우	109(42.6)	82(32.0)
합 계	256(100.0)	256(100.0)

한편 고속 인터넷 접속비용은 ‘3-5만원’ 정도 지출하는 경우가 88개 단체 3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고속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82개 단체 32.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고속 인터넷 접속 요금을 지출하지 않는 경우’도 32개 단체 12.5%로 나타나고 있고, ‘10만원 이상’ 비용을 지출하는 단체는 16개로 나타나고 있다.

라. 정보화 주변기기 보유현황

정보 인프라 구축 실태와 관련해서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정보화 주변기기 보유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13>과 같다. 정보화 주변기기 가운데 보유율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스캐너’의 경우가 73개 단체 28.5%로 약 4개 단체 가운데 1단체가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카메라’가 48개 단체 18.8%로 약 5개 단체 가운데 1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디지털 캠코더’를 보유한 경우는 18개 단체(7.0%), ‘PC(화상) 카메라’를 보유한 경우는 15개 단체(5.9%), 그리고 기타 ‘zip 드라이브 등’은 1개 단체(0.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정보화 주변기기 보유 현황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3> 정보화 주변기기 보유 현황

단위: 단체수(%)

정보화 주변기기	없 다	있 다	계	전체 정보화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
PC(화상) 카메라	241(94.1)	15(5.9)	256(100.0)	9.7
디지털 카메라	208(81.3)	48(18.8)	256(100.0)	31.0
디지털 캠코더	238(93.0)	18(7.0)	256(100.0)	11.6
스캐너	183(71.5)	73(28.5)	256(100.0)	47.1
기타(zip 드라이브)	255(99.6)	1(0.4)	256(100.0)	0.6

* PC 보유 현황은 255개 단체 중 219개 단체(85.9%)가 보유하고 있다(<표 IV-10-1> 참조).

4. 여성단체 정보화 수준 평가 및 필요성·효과 인식

가. 응답자의 여성단체 정보화 수준평가

앞서 살펴본 바 여성단체 정보 인프라에 대해 구성원들은 스스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100점을 기준으로 주관적 평가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평균값은 56.58점으로 나타나 낮은 점수를 받았고, 표준편차는 22.40점으로 나타나 단체간 이질성의 정도가 큼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조사대상 여성단체가 지각하고 있는 정보화 점수 가운데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80-89점’ 정도로 양호한 점수를 준 경우가 47개 단체(18.4%), ‘70-79점’ 정도라고 평가한 경우가 41개 단체(16.0%), ‘50-59점’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40개 단체 (15.6%) 그리고 ‘60-69점’ 수준이라고 보는 경우가 39개 단체(15.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5개 단체는 소속 여성단체의 정보화 지수를 0점이라고 응답한 반면, 9개 단체는 ‘90-99점’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극단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50점 이상이라 평가한 경우가 176개 단체로 50점 미만이라 평가한 99개 단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IV-14> 참조).

<표 IV-14> 지각된 정보화 점수

정보화 지수	단체수(%)	정보화 지수	단체수(%)
0점	5(2.0)	60 - 69점	39(15.2)
1 - 19점	11(4.3)	70 - 79점	41(16.0)
20 - 29점	10(3.9)	80 - 89점	47(18.4)
30 - 39점	18(7.0)	90 - 99점	9(3.5)
40 - 49점	15(5.9)	무응답	21(8.2)
50 - 59점	40(15.6)	합 계	256(100.0)

나. 응답자의 여성단체 구성원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평가

정보화 일반에 대한 여성단체의 인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항목의 평균값이 3점을 넘어 여성단체의 정보화 마인드는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IV-15> 참조).

평균값이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째, ‘우리단체 실무자들은 정보화를 중요시한다’에 대해서는 평균값 4.23으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1.8%,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37.5%로 79.3%에 이르는 다수의 응답자에게 동의하고 있다.

둘째, ‘우리 단체의 회장, 임원은 정보화를 중요시한다’는데 대해서는 평균값이 3.91로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가 41.8%, ‘정말 그렇다’가 27.0%로 68.8%의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고,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 평가도 18.4%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5> 여성단체 구성원의 정보화 마인드

단위: 단체수(%)

정보화 마인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값**
우리 단체의 회장, 임원은 정보화를 중요시한다	4(1.6)	16(6.3)	47(18.4)	107(41.8)	69(27.0)	13(5.1)	3.91
우리 단체 실무자들은 정보화를 중요시한다	0(0.0)	10(3.9)	31(12.1)	96(37.5)	107(41.8)	12(4.7)	4.23
우리 단체 회원들은 정보 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4(1.6)	17(6.6)	80(31.3)	94(36.7)	46(18.0)	15(5.9)	3.67
우리 단체 실무자들은 컴퓨터를 잘 다룬다	5(2.0)	10(3.9)	76(29.7)	111(43.4)	39(15.2)	15(5.9)	3.70
우리 단체 회원은 대부분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	11(4.3)	45(17.6)	114(44.5)	55(21.5)	17(6.6)	14(5.5)	3.09

* 전체 응답자 256개 단체를 100%로 한 것임. 평균값 계산은 무응답 단체 제외함.

** 평균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주어 응답자 수로 나눈 값임.

셋째, ‘우리 단체의 실무자들은 컴퓨터를 잘 다룬다’에 대해서도 평균값 3.70으로 ‘대체로 그렇다’는 동의율이 43.4%로 가장 높고 ‘매우 그렇다’ 15.2%를 합하면 58.6%의 응답자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 더불어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 인식도 29.7%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우리 단체의 회원들은 정보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 대해서는 평균값 3.67로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동의율이 각각 36.7%, 18.0%로 나타나 과반수가 이에 동조하고 있고,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 태도도 31.3%로 약 1/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우리 단체의 회원들은 대부분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평균값이 3.09로 5개 항목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회원들의 컴퓨터 능력은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44.5%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적 평가인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28.1%, 부정적 평가인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21.9%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성단체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은 일정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단체 회원 및 실무자의 정보화 능력에 대한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회장 및 임원의 정보화 마인드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정에서 단체 회원들의 컴퓨터 능력이 필수적 요건임을 고려하여 이들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다. 사이버 공간 활용에 대한 필요성 인식

먼저 사이버 공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응답단체 246단체 중에서 사이버 공간 활용에 대해 ‘대체로 필요성을 느낀다’는 비율이 110단체, 44.7%, ‘매우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비율이 98개 단체, 39.8%로 84.5%는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9.3%,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경우는 6.1%로 나타나고 있다(<표 IV-16> 참조).

<표 IV-16> 사이버 공간 활용의 필요성 인식

활 용 정 도	단체수(%)	응답단체(%)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2(0.8)	2(0.8)
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13(5.1)	13(5.3)
그저 그렇다	23(9.0)	23(9.3)
대체로 필요성을 느낀다	110(43.0)	110(44.7)
매우 필요성을 느낀다	98(38.3)	98(39.8)
무응답	10(3.3)	-
합 계	256(100.0)	246(100.0)

라. 사이버 공간 활용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실제 활용의 상관관계

더불어 사이버 공간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와 실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간 상관관계를 검증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곧 사이버 공간 활용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할수록 실제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의식과 실제 행동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표 IV-17> 참조).

<표 IV-17> 사이버 공간 활용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실제 활용 유무

단위: 응답단체수(%)

실제 활용여부 활용 필요성 인식	전체	활용함	활용않함	통계적 유의미도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2(0.8)	0	2(2.3)	$\chi^2=39.99$ ($p<.000$)
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13(5.3)	2(1.3)	11(12.5)	
그저 그렇다	23(9.3)	7(4.4)	16(18.2)	
대체로 필요성을 느낀다	110(44.7)	70(44.3)	40(45.5)	
매우 필요성을 느낀다	98(39.8)	79(50.0)	19(21.6)	
합 계	246(100.0)	158(100.0)	88(100.0)	

마. 사이버 공간 활용에 대한 효과 인식

한편 사이버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 그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 공간 활용이 실제 여성단체 활동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질문해 보았다.

여기서 평균값이 5점에 가까울수록 사이버 공간 활용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평균값이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살펴보면(<표 IV-18-1> 참조), ‘관련자료를 소개하는데 도움이 된다’가 가장 높아서 4.36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적극적인 동의율이 48.4%로 가장 높고 다음이 ‘대체로 그렇다’는 동의율이 40.9%로 나타나 85.3%의 대다수 응답자가 사이버 공간 활용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평균값이 높은 항목은 ‘단체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로 평균값 4.11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율이 55.3%, ‘매우 그렇다’는 적극적 지지가 28.9%로 84.2%의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로는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다’로 이 항목의 평균값은 3.92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의 정도도 높아서 ‘대체로 그렇다’ 44.2%, ‘매우 그렇다’ 27.6%로 71.8%의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네 번째로는 ‘다른 단체와 연대하는데 도움이 된다’로, 평균값은 3.68점을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동의율은 ‘대체로 그렇다’가 40.0%, ‘매우 그렇다’가 20.6%로 60.6%가 동의하는 가운데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 입장 또한 27.1%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회원들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으로 이에 대한 평균값은 3.51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체로 그렇다’는 비율이 45.5%, 55.9%가 동의하는 가운데 ‘그저 그렇다’로 31.2%가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별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도 11.0%로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 의견은 10.4%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간의 참여를 더욱 잘 이끌어낼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평균값 3.4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인 입장(7.8%), ‘대체로 그렇다’가 43.1%, 로 과반수가 지지하는 가운데 ‘그저 그렇다’는 태도가 35.9%를 보이고 있고, 앞서의 항목과 마찬가지로 ‘별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입장(11.8%)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8-1> 사이버 공간 활용 효과 인식

단위: 단체수(%)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값** (표준편차)
단체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0(0.0)	4(2.6)	20(13.2)	84(55.3)	44(28.9)	152(100.0)	4.11(0.72)
회원들간 참여를 더 잘 이끌어 낸다	2(1.3)	18(11.8)	55(35.9)	66(43.1)	12(7.8)	153(100.0)	3.44(0.85)
회원들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3(1.9)	17(11.0)	48(31.2)	70(45.5)	16(10.4)	154(100.0)	3.51(0.89)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다	2(1.3)	7(4.5)	35(22.4)	69(44.2)	43(27.6)	156(100.0)	3.92(0.89)
다른 단체와 연대하는데 도움이 된다	2(1.3)	17(11.0)	42(27.1)	62(40.0)	32(20.6)	155(100.0)	3.68(0.97)
관련자료를 소개하는데 도움 된다.	0(0.0)	3(1.9)	14(8.8)	65(40.9)	77(48.4)	159(100.0)	4.36(0.72)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163개 단체를 대상으로 함. 합계는 무응답 단체 제외

** 평균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주어 응답자 수로 나눈 값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할 경우 여성단체 활동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는데 대한 동의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지해주는 유의미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들 문항 가운데 특별히 관련자료 소개 및 단체홍보 그리고 정보 공유 등의 경우는 사이버 공간 활용 효과와 관련해서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음이 주목되는 바, 이미 효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양적 확대 못지 않게 질적 수준의 제고를 도모하는데 주력해야하리라 생각한다.

반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할 경우의 단체간 연대활동이나 회원들과의 의사소통 및 참여의식 고취는 그 효과에 대한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앞으로 현재의 여성단체 사이버 공간 활용이 단체간 연대활동과, 회원들 의사소통 및 참여의식 고취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단체들이 노력함은 물론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 활용의 효과가 낮게 평가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그 원인을 진단해봄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따라야할 것이다.

바. 사이버 공간 활용효과 인식과 정보화 태도간의 상관관계

사이버 공간 활용의 효과에 대한 인식 여부와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IV-18-2> 참조), 이들 문항 사이에는 일련의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항목들이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표 IV-18-2> 사이버 공간 활용에 따른 효과 인식과 정보화 태도간의 상관관계^a

정보화 태도 사이버 공간활용 효과 인식	우리단체의 회장, 임원은 정보화를 중요시 한다	우리단체의 실무자들은 정보화를 중요시한다	우리단체의 회원들은 정보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단체의 실무자들은 컴퓨터를 잘 다룬다	우리단체의 회원들은 대부분 컴퓨 터를 다룰 수 있다
단체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170*	.311***	.113	.269**	.205*
회원 참여를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다	.281**	.294***	.381***	.293***	.407***
회원들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277**	.283**	.362***	.249**	.274**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다	.040	.171*	.161	.117	.015
다른 단체와 연대하는데 도움이 된다	.036	.087	-.040	.151	-.128
관련자료를 소개하는데 도움이 된다	.146	.254	.016	.222**	-.010

* p<.05, ** p<.01, *** p<.001

^a 사이버 공간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163단체만 분석 대상으로 함.

전반적으로 볼 때, 사이버 공간 활용의 효과를 측정한 6개 문항과 정보화 마인드를 측정한 5개 문항간의 상관관계는 0.423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을 보이고 있다($p<.000$). 이들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단체의 회장 및 임원들의 정보화 마인드가 충실할 경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운동의 효과 가운데 ‘단체홍보에 유리하다’, ‘회원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 ‘회원들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서 긍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실무자들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경우 단체홍보, 회원들의 참여 제고, 회원들의 의사소통 활성화 그리고 정보 공유에 있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운동의 효과가 크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단체 회원들의 정보화 마인드가 잘 갖추어질 경우는 회원들의 참여 제고 및 의사소통 활성화에 사이버 공간 활용이 유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단체 실무자들이 실제로 컴퓨터를 잘 다룰 때, 단체홍보와 회원의 참여, 회원들간의 의사소통 활성화 그리고 관련자료 소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운동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증가하며, 단체 회원들의 정보화 능력이 높을 때 또한 단체 홍보, 회원들의 참여 제고 그리고 회원들의 의사소통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정보화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단체간 연대활동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있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할 경우 관련 자료 소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단체 실무자들의 컴퓨터 능력과 유일하게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단체 회장, 임원, 실무자, 회원들이 정보화를 중요시하고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운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도 높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사이버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단체활동을 이끄는 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마인드 제고 및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 활용 및 운영 실태

가. 사이버 공간 활용여부 및 활용하지 않는 이유

1) 사이버 공간 활용여부

사이버 공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만큼 실제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해본 결과, ‘활용한다’는 단체가 163개 63.7%, ‘활용하지 않는다’는 단체가 90개 35.2%로 나타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84.5%)에 비해 실제 활용 수준(63.7%)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 활용에 대한 인식을 더욱 제고하는 동시에 인식 수준과 실제 활용 수준의 괴리를 좁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표 IV-19-1> 참조).

<표 IV-19-1> 실제 사이버 공간 활용 여부

사이버 공간 활용여부	단체수(%)
활용한다	163(63.7)
활용하지 않는다	90(35.2)
무응답	3(1.2)
합 계	256(100.0)

2)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이에 응답한 여성단체가 모두 90개로 나타나 전체 응답 단체의 3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90개 여성단체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보므로써, 향후 사이버 공간활용을 활성화함에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성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서는 모두 65개 단체에서 87개 항목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IV-19-2>와 같다. 여성단체에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서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제시해보면, 사이버 공간을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7개 단체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제시되고 있는 걸림돌은 ‘회원의 정보화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과 ‘PC가 없어서’라고 답한 경우가 각각 14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보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앞으로 기본적인 정보기기의 마련과 정보 마인드 고양 작업이 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19-2> 여성단체에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65개 단체의 복수응답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체수(%)
회원의 정보화 수준 미흡	14(16.1)
예산부족/경제력 부족/운영비 없음	8(9.2)
컴퓨터 활용회원이 적어서 /이용도 낮음/이용불편	8(9.2)
(무상)교육기간의 부족/정보화 교육수준 미흡	1(1.1)
독립된 사무실이 없어서	10(11.5)
PC가 없어서	14(16.1)
전문상근직원 없음	3(3.4)
실무자부족/실무자시간부족/실무자 과다업무/실무자능력부족	12(13.8)
필요성이 적기 때문	17(19.5)
합 계	87(100.0)

* 본 설문문항은 개방형으로 이루어졌음.

한편 여성단체가 사이버 공간활용에 있어 실무자의 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12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곧 ‘실무자가 부족하고 실무자의 과다업무로 인해 시간도 부족하며, 실무자가 사이버 운동을 추진할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독립된 사무실이 없어서’ 사이버 공간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경우도 10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걸림돌은 앞서의 정보 인프라 미비와 더불어 사이버 공간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토대가 매우 열악함을 보여준다. 이 이외에도 ‘예산 부족과 경제력 부족 그리고 운영비 부족’을 지적하는

경우와 ‘컴퓨터를 활용하는 회원 수가 적고 이용도가 낮으며 이용 또한 불편함’을 지적하는 경우가 각각 8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여성단체에서 사이버 공간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요인들은 정보화의 기본 토대가 충실하지 못한 것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PC와 같은 기본기기 및 정보사회에 대한 마인드 구축 나아가 회원들의 낮은 정보화 수준 및 실무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나. 사이버 공간 활용정도

다음 실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 163개를 대상으로 활용 정도를 질문해보았다. 그 결과 ‘대체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높고 다음은 ‘매우 많이 활용한다’는 응답이 22.1%로 나타났고,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단체는 없었던 반면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함으로써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는 6개 단체(3.7%)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표 IV-19-3> 참조). 이렇게 볼 때 활용 정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사이버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해도 좋을리라 생각된다.

<표 IV-19-3> 실제 사이버 공간 활용 정도

활용정도	단체수(%)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0(0.0)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6(3.7)
그저 그렇다	26(16.0)
대체로 활용하는 편이다	94(57.7)
매우 많이 활용한다	36(22.1)
무응답	1(0.6)
합 계*	163(100.0)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163개 단체를 대상으로 함.

다. 사이버 공간 활용형태

사이버 공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대상 여성단체에서 실제 어떠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단체가 97개 63.8%로 가장 높고 다음은 ‘본 회나 다른 네트워크와 링크해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단체가 49개 32.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온라인 동호회’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는 단체도 6개 3.9%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0-1> 참조).

<표 IV-20-1> 사이버 공간 활용형태

활용형태	단체수(%)
홈페이지 개설형	97(63.8)
네트워크에 링크형	49(32.2)
사이버 커뮤니티형	6(3.9)
무응답	11(6.7)
합 계*	163(100.0)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163개 단체를 대상으로 함.

사이버 공간 활용 유형은 협의체 형태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20-2>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 활용에 가장 소극적인 단체는 지역여성단체협의회 가입단체로 나타나 이들의 경우는 56.5%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홈페이지 개설 및 네트워크 링크 형태의 사이버 공간 활용은 여성단체연합 본회 및 가입단체로부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협의체에 가입하지 않은 단독단체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본회 및 가입단체의 경우도 홈페이지 개설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커뮤니티형은 6개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3개의 단독단체, 2개의 여연 그리고 1개의 여협 관련 단체에서 운용되고 있다.

<표 IV-20-2> 협의체 형태별 사이버 공간 활용 유형

단위: 단체수(%)

협의체 형태 사이버 공간 활용유형	전체	여협본회/ 회원단체	여연본회/ 회원단체	지역협의회 가입단체	협의체 미가입 단독단체	통계적 유의미도
사이버 공간 활용 안함	89(38.0)	21(38.2)	3(7.5)	52(56.5)	13(27.7)	$\chi^2=48.12$ df=9 p<.000
홈페이지 개설형	92(39.3)	27(49.1)	24(60.0)	17(18.5)	24(51.1)	
네트워크 링크형	47(20.1)	6(10.9)	11(27.5)	23(25.0)	7(14.9)	
사이버 커뮤니티형	6(2.6)	1(1.8)	2(5.0)	0	3(6.4)	
합 계	234(100.0)	55(100.0)	40(100.0)	92(100.0)	47(100.0)	

라. E-mail 이용현황

1) E-mail 이용여부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E-mail 이용 현황을 보면, 현재 'E-mail을 이용하는 경우'가 154개 단체로 60.2%,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91개 단체 35.5%로 나타나고 있고 11개 단체는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E-mail 활용율이 60.2%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전 국민 E-mail 주소 갖기 운동이라든가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통신망 보유율 등 우리나라의 각종 정보화 지표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평가된다. 앞으로 약 1/3이 넘는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 활용을 활성화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출발이 될 수 있는 E-mail 활용 수준을 적극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표 IV-21-1> 참조).

<표 IV-21-1> 여성단체의 E-mail 이용 여부

구 분	단체수(%)
E-mail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91(35.5)
E-mail을 이용하는 경우	154(60.2)
무응답	11(4.3)
합 계	256(100.0)

2) 여성단체 E-mail 이용율

한편 E-mail을 이용한다고 답한 154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제 E-mail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E-mail 이용 비율을 측정해보았다. E-mail 이용율은 전체회원 가운데 E-mail을 발송하는 회원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단체 회원 전원에게 E-mail을 발송한다’는 응답이 58개 단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10% 이하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33개 단체 21.4%로 나타났다. 이어서 ‘31-50% 수준’이라는 응답이 20개 단체로 13.0%, ‘11-30% 수준’이라는 응답이 15개 단체로 9.7%, ‘51-70% 수준’이라는 응답이 14개 단체 9.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V-21-2> 참조).

<표 IV-21-2> 여성단체의 E-mail 이용 비율

이용률*	단체수(%)
10% 이하	33(21.4)
11-30% 이하	15(9.7)
31-50% 이하	20(13.0)
51-70% 이하	14(9.1)
71-99% 이하	5(3.2)
100% (전원)	58(37.7)
무 응 답	9(5.8)
합 계	154(100.0)

* 이용율은 E-mail을 보내는 단체회원/전체 회원을 의미함.

이들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E-mail 이용율은, 전반적으로 볼 때 E-mail 발송이 활발한 단체와 저조한 단체가 비슷한 비율로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인프라 구축 못지 않게 실제 구축된 인터넷을 보다 적극 활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 여성단체의 E-mail 이용율에서 나타나는 바 인터넷 활용 현황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3) 협의체 가입형태 별 E-mail 이용정도

여성단체의 E-mail 이용 여부를 협의체 가입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한국여성단체연합 본회 및 회원단체의 경우 이용율이 87.8%로 여성단체 전체의 평균 이용율 62.8%보다 월등히 높고, 다음은 협의체에 가입하지 않은 단독 단체의 이용율이 63.8%,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본회 및 가입단체의 이용율이 61.8%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여성단체협의회 가입 단체의 경우는 이용율이 51.5%를 보이고 있다(<표 IV-21-3> 참조).

<표 IV-21-3> 협의체 가입형태별 E-mail 이용 여부
단위: 응답단체수(%)

협의체 형태 E-mail 이용여부	전체	여협본회/ 회원단체	여연본회/ 회원단체	지역협의회 가입단체	미가입 단독단체	통계적 유의미도
이용한다	147(62.8)	34(61.8)	36(87.8)	47(51.6)	30(63.8)	$\chi^2=$ df=3 p<.000
이용 안 한다	87(37.2)	21(38.2)	5(12.5)	44(48.4)	17(36.2)	
합 계	234(100.0)	55(100.0)	41(100.0)	91(100.0)	47(100.0)	

4) E-Mail 활용내용

이번에는 이들 154개 단체를 대상으로 주로 어떠한 용도로 E-mail을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IV-21-4> 참조). 조사대상 여성단체에서 가장 빈번히 활용하고 있는 E-mail은 ‘단체활동 및 사업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104개 단체 67.5%가 이들 용도로 E mail을 활용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때’ 활용하는 경우가 74개 단체로 48.1%를 차지하고 있고, ‘회원관리’시 E-mail을 활용한다는 경우가 64개 단체의 41.6%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소식을 전달할 때’ E-mail을 보낸다는 단체도 60개로 39.0%이다.

이렇게 볼 때 여성단체의 E-mail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알려야할 정보 및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는 의사소통의 질적 측면에도 관

심을 기울여, 회원들과 얼마나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아가 회원들로부터 피드백이 있는지, 회원들의 피드백은 여성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원활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보는 동시에, 인터넷의 장점인 양방향·수평적 의사소통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IV-21-4> 여성단체의 E-mail 활용 내용

단위: 단체 수(%)

E-MAIL 활용내용	활용치 않음	활용함	무응답	계	전체활용 내용 중 비율
새 소식 제공	92(59.7)	60(39.0)	2(1.3)	154(100.0)	19.8
단체활동 및 사업안내	48(31.2)	104(67.5)	2(1.3)	154(100.0)	34.3
회원 관리	88(57.1)	64(41.6)	2(1.3)	154(100.0)	21.1
정보 제공	78(50.6)	74(48.1)	2(1.3)	154(100.0)	24.4
기 타	144(93.5)	6(3.9)	4(2.6)	154(100.0)	0.3

마. 홈페이지 운영 현황

조사대상 여성단체 가운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97개 단체(전체 조사단체의 63.8%)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여성단체 홈페이지 제작방식

먼저 홈페이지 제작방식을 보면(<표 IV-22-1> 참조), ‘홈페이지 제작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외주’ 형식으로 제작한 단체가 50개(51.5%)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단체간사와 프리랜서가 의논하여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가 24개 단체(24.7%)로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는 현직으로 있는 ‘단체 간사가 제작’한 경우가 12개 단체(12.4%)이고, ‘전문가를 새로 채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한 경우가 4단체(4.1%), 그리고 ‘기타 회원이 제작하거나 타 단체와 연계한 ’경우(4.1%) 등이 있다.

<표 IV-22-1> 홈페이지 제작 방식

홈페이지 제작 방식	단체수(%)
홈페이지 제작 전문가에게 외주 의뢰	50(51.5)
전문가를 새로 채용해서 홈페이지 제작	4(4.1)
단체간사와 프리랜서가 의논해 공동제작	24(24.7)
기존의 단체 간사가 제작	12(12.4)
기타(중앙본부/회원이 제작/타단체와 연계)	4(4.1)
무응답	3(3.1)
합 계*	97(100.0)

* 조사대상 여성단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97개 단체를 분석함.

2) 홈페이지 제작시 재정마련 형태

여성단체 홈페이지 제작 시 재원 마련 방법을 보면(<표 IV-22-2> 참조), ‘단체의 재정’으로 제작했다는 단체가 가장 많아서 65개 67.0%에 이르고, 나머지는 ‘정부의 지원과 단체 재정’으로 충당한 경우가 7개 단체(7.2%),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홈페이지를 제작한 경우가 5개 단체(5.2%)이며, 기타 ‘직원 개인의 지원’이나 ‘후원금을 조성’하여, 혹은 ‘자원봉사자의 무료 봉사’로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2-2> 홈페이지 제작 지원

홈페이지 제작 재원	단체수(%)
정부의 지원으로	5(5.2)
단체의 재정으로	65(67.0)
정부보조와 단체부담	7(7.2)
기타(직원 개인지원/후원금조성/자원봉사자/무료)	10(10.3)
무응답	10(10.3)
합 계	97(100.0)

* 조사대상 여성단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97개 단체를 분석함.

3) 여성단체 홈페이지 운영자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운영은 ‘상근 간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61개 단체(62.9%)로 가장 많고, 다음은 홈페이지만을 ‘전담해서 운영하는 담당자’를 두고 있는 경우가 18개 단체(18.6%)로 나타나고 있고, 홈페이지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가 12개 단체(12.4%) 있다. ‘자원봉사자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3단체 있다(<표 IV-23-1> 참조).

<표 IV-23-1> 홈페이지 운영자

홈페이지 운영	단체수(%)
전담 운영담당자	18(18.6)
상근 간사	61(62.9)
위탁 운영	12(12.4)
자원 봉사자	3(3.1)
기타(회장 등)	2(2.1)
무응답	1(1.0)
합 계*	97(100.0)

* 조사대상 여성단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97개 단체를 분석함.

4) 여성단체 홈페이지 운영비 규모

조사대상 여성단체 홈페이지 운영비 규모를 보면, 37개 단체(38.1%)가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운영비 액수를 밝힌 여성단체 가운데는 ‘1-5만원 이하’가 18개 단체, 30.0%로 가장 많고, ‘11-30만원 이하’가 13개 단체, 21.7%, ‘6-10만원 이하’가 10개 단체, 16.7%의 순이며, ‘운영비가 없다’는 단체가 6개, 10.0%이다. 또한 ‘101만원 이상’이라 응답한 단체 또한 6개 단체 10.0%로 나타나고 있어 홈페이지 운영비 규모에 있어서도 큰 폭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표 IV-23-2> 참조).

<표 IV-23-2> 홈페이지 운영비 규모

홈페이지 운영비	단체수(%)	응답단체(%)
운영비 없음	6(6.2)	6(10.0)
1- 5만원 이하	18(18.6)	18(30.0)
6-10만원 이하	10(10.3)	10(16.7)
11-30만원 이하	13(13.4)	13(21.7)
31- 50만원 이하	4(4.1)	4(6.7)
51-100만원 이하	3(3.0)	3(5.0)
101만원 이상	6(6.1)	6(10.0)
무응답	37(38.1)	-
합 계*	97(100.0)	60(100.0)

* 조사대상 여성단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97개 단체를 분석함.

5) 여성단체 홈페이지 회원 및 이용자 규모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회원 수는 <표 IV-23-3>에서 볼 수 있듯이 앞서 운영비 규모와 마찬가지로 무응답 단체가 39개에 이르는 가운데, 회원 규모를 밝힌 단체의 경우는 '30명 이하'로 극히 소규모인 경우가 15개 단체, 25.9%로 가장 많고, 다음은 '1001명-10000명 이하'로 비교적 대규모인 경우가 14개 단체, 24.1%로 나타나고 있고, 이어서 '101명-300명 이하' 규모가 11개 단체, 19.0%, '10001명 이상'의 단체가 8개 단체 13.8%등이다.

<표 IV-23-3> 홈페이지 회원 수

홈페이지 회원 수	단체수(%)	응답단체수(%)
30명 이하	15(15.5)	15(25.9)
31-100명 이하	5(5.2)	5(8.6)
101-300명 이하	11(11.3)	11(19.0)
303-1000명 이하	5(5.2)	5(8.6)
1001-10000명 이하	14(14.4)	14(24.1)
10001명 이상	8(8.2)	8(13.8)
무응답	39(40.2)	-
합 계*	97(100.0)	58(100.0)

* 조사대상 여성단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97개 단체를 분석함.

홈페이지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 규모를 보면(<표 IV-23-4> 참조), 방문자 수를 밝힌 조사대상 59개 여성단체의 경우 ‘11-50명 이하’가 26개 단체, 44.1%로 가장 많으며, ‘10명 이하’ 및 ‘101명 이상’이라 응답한 단체가 각각 12개 단체, 20.3%로 나타나고 있으며, ‘51-100명 이하’가 9개 단체, 15.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저조한 수준에 있다.

<표 IV-23-4> 홈페이지 하루 평균 방문자 수

하루 평균 방문자 수	단체수(%)	응답단체수(%)
10명 이하	12(12.4)	12(20.3)
11-50명 이하	26(26.8)	26(44.1)
51-100명 이하	9(9.3)	9(15.3)
101명 이상	12(12.4)	12(20.3)
무응답	38(39.2)	-
합 계*	97(100.0)	59(100.0)

* 조사대상 여성단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97개 단체를 분석함.

6) 홈페이지 서비스 내용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일별 해보면 여성운동에서부터 회원관리 및 여가활동 정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가운데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표 IV-23-5> 참조), ‘각 단체의 사업소개(프로그램 포함)’가 19.2%로 74개 단체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음은 ‘회원 관리(메일 보내기 등)’가 13.8%로 53개 단체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여성운동의 토론장으로써 게시판 운영’이 45개 단체로 1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여성운동 콘텐츠 제공’ 서비스 및 ‘여성교육 관련 정보 제공’이 각각 1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각각 42개로 나타나고 있다. 36개 단체(9.4%)에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여성상담’을 하고 있고, 32개 단체(8.3%)에서는 ‘지역사회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 이외에 여성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

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21개 단체 5.5%),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19개 단체 4.9%)하기도 한다.

여성단체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서비스 내용 가운데 넓은 의미의 여성운동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활동에 다수의 여성단체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특별히 여성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여성운동의 이슈가 될 수 있는 여성문제 콘텐츠를 제공하고, 관련해서 게시판 운영을 통해 토론의 장을 제공해주고 있음은 앞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여성상담 및 여성교육 정보 제공 또한 사이버 공간의 유효 적절한 서비스 내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해도 활용도가 낮을 경우 그 파급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것이 확실하다. 현재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회원 수나 방문객 수 규모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앞으로 사이버 공간 활용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23-5> 여성단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단위: 단체수(%)

서비스 내용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한다	무응답	전체서비스 중 점유비율
회원관리(mailing list/mail 보내기)	34(35.1)	53(54.6)	10(10.3)	13.8%
여성운동(여성문제) 콘텐츠 제공	45(46.4)	42(43.3)	10(10.3)	10.9%
여성운동(여성문제) 토론장(게시판) 운영	42(43.3)	45(46.4)	10(10.3)	11.7%
여성상담	51(52.6)	36(37.1)	10(10.3)	9.4%
여성건강정보	81(83.5)	6(6.2)	10(10.3)	1.6%
지역사회활동소개	55(56.7)	32(33.0)	10(10.3)	8.3%
사업소개(프로그램 포함)	13(13.4)	74(76.3)	10(10.3)	19.2%
구인/구직 정보	68(70.1)	19(19.6)	10(10.3)	4.9%
여성교육정보 제공	45(46.4)	42(43.3)	10(10.3)	10.9%
여가활동 정보	77(79.4)	10(10.3)	10(10.3)	2.6%
소비자 보호정보	66(68.0)	21(21.6)	10(10.3)	5.5%
기타	82(84.5)	5(5.2)	10(10.3)	1.3%

* 조사대상 여성단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97개 단체를 분석함.

7) 홈페이지 상에서의 의견전달 방법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상에서의 의견전달방법과 관련된 활용도를 살펴보았다(<표 IV-23-6> 참조). 홈페이지 상에서의 의사전달방법으로 가장 적극 활용되는 방법은 ‘게시판에 글 쓰기’로 나타나, 이 방법은 평균값이 4.18로 ‘대체로 잘 활용’하는 단체가 41개, ‘매우 잘 활용’하는 단체가 31개로 대부분의 단체에서 이를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전자메일 보내기’로 이 방법의 평균값은 3.65를 나타내고 있고, ‘대체로 잘 활용’하는 단체가 26개, ‘약간 활용’하는 단체가 22개, ‘매우 잘 활용’하는 단체가 21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너 달기’의 경우도 평균값 2.69로, 이 방법을 일단 활용하는 단체의 수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단체보다 다소 많다.

반면 ‘전자우편을 활용한 서명활동’(평균값 2.14) ‘전자 엽서 보내기’(평균값 2.12), ‘온라인 투표’(평균값 2.07), ‘플래쉬 전파하기’(평균값 1.75) 그리고 ‘전자 포스터’(평균값 1.74) 등의 방법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거의 활용하지 않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3-6> 여성단체 홈페이지 상의 의견전달방법 활용도

단위: 단체수(%)

활용방법	전혀 활용안함	거의 활용안함	약간 활용	대체로 잘활용	매우 잘 활용	무응답	평균값**
온라인 투표 (스티커 붙이기)	27(27.8)	16(16.5)	5(5.2)	7(7.2)	4(4.1)	38(39.2)	2.07
전자 포스터	28(28.9)	17(17.5)	3(3.1)	4(4.1)	1(1.0)	44(45.4)	1.74
배너 달기	15(15.5)	11(11.3)	17(17.5)	14(14.4)	4(4.1)	36(37.1)	2.69
전자 메일 보내기	7(7.2)	3(3.1)	22(22.7)	26(26.8)	21(21.6)	18(18.6)	3.65
플래쉬 전파하기	28(28.9)	15(15.5)	3(3.1)	6(6.2)	0(0.0)	45(46.4)	1.75
전자우편서명활동	22(22.7)	22(22.7)	10(10.3)	9(9.3)	1(1.0)	33(34.0)	2.14
전자엽서 보내기	22(22.7)	16(16.5)	12(12.4)	7(7.2)	1(1.0)	39(40.2)	2.12
게시판에 글쓰기	1(1.0)	1(1.0)	11(11.3)	41(42.3)	31(32.0)	12(12.4)	4.18

* 조사대상 여성단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97개 단체를 분석함.

** 평균값은 ‘전혀 활용 안 한다’ 1점부터 ‘매우 잘 활용한다’ 5점까지 주어 응답자 수로 나눈 값임.

앞으로 여성단체에서는 홈페이지 상에서의 의사소통방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기존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게시판 활용 및 전자 메일의 경우는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동시에 전자우편 서명이나 배너 달기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통체계를 홍보하고, 나아가 활동내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사소통방법을 찾아내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운영은 협의체 형태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여(<표 IV-23-7> 참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98개 단체 중 한국여성단체연합 본회 및 회원단체의 경우는 63.4%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협의체에 가입하지 않은 단독단체의 경우는 홈페이지 운영 여부가 50 대 50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본회 및 회원단체의 경우는 40 대 60의 비율로 홈페이지 운영율이 떨어지는 한편으로 지역여성단체협의회 가입단체의 경우는 26 대 74로 홈페이지 운영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3-7> 협의체 형태별 홈페이지 운영 여부

단위: 단체수(%)

협의체 형태 운영 여부	전체	여협본회/ 회원단체	여연본회/ 회원단체	지역협의회 가입단체	협의체 미가입 단독단체	통계적 유의미도
운영한다	98(40.8)	24(40.0)	26(63.4)	24(26.4)	24(50.0)	$\chi^2=18.25$ df=3 p<.000
운영하지 않는다	142(59.2)	36(60.0)	15(36.6)	67(73.6)	24(50.0)	
합 계	240(100.0)	60(100.0)	41(100.0)	91(100.0)	48(100.0)	

다음은 협의체 회원단체로서 본회의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다고 응답한 49개 단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활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IV-24>에 따르면, 본회의에 링크된 홈페이지를 ‘약간 활용한다’는 단체가 15개로 가장 빈도수가 높고 다음은 ‘그저 그렇다’는 단체가 13개, 그리고 ‘매우 많이 활용’한다고 응답한 단체가 10개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4> 링크된 본회의 홈페이지 활용 정도

활용 정도	단체수(%)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1(2.0)
대체로 활용하지 않는다	3(6.1)
그저 그렇다	13(26.5)
약간은 활용한다	15(30.6)
매우 많이 활용한다	10(20.4)
무 응 답	7(14.3)
합 계*	49(100.0)

* 조사대상 여성단체 중 본회의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다고 응답한 49개 단체를 분석함.

이어서 본회의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을 경우, 해당단체의 정보를 얼마나 원활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해보았다. <표 IV-25>에 따르면, ‘한 달에 1-2번’정도 해당단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18개 단체로 가장 높은 빈도 수를 보이고 있고, 이보다 자주 격주 혹은 일주일에 1-2번 아니면 거의 매일 해당단체의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응답한 단체가 각각 5개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링크된 본회의와의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단체가 5개로 나타나고 있고, 무응답 단체도 11개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표본 수가 적어 객관적 판단은 신중히 해야할 것이나 본회의 홈페이지를 링크해서 활용하는 단체의 경우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소통체계는 마련되어 있다고 알 수 있다.

<표 IV-25> 링크된 본회의 홈페이지에 해당단체 정보제공 정도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단체수(%)
전혀 제공하지 않음	5(10.2)
한 달에 1-2번	18(36.7)
격주로 1-2번	5(10.2)
일주일에 1-2번	5(10.2)
거의 매일	5(10.2)
무응답	11(22.4)
합 계*	49(100.0)

* 조사대상 여성단체 중 본회의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다고 응답한 49개 단체를 분석함.

바. 동호회 운영 현황

조사대상 여성단체 가운데는 특별히 온라인 상에서 동호회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모두 6개로 나타났다. 이들의 운영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표 IV-26> 참조), 먼저 동호회 회원 수는 22명, 30명, 210명, 500명이라 답한 단체가 각 1개씩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호회 안에서의 의견교환 및 전달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과 ‘월 2-3회 정도’라 응답한 단체가 각각 2개씩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1회 이상 의견을 교환하고 전달한다는 단체도 1개 있다. 역시 6개 단체의 응답내용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여성단체의 동호회 활동은 대체로 규모도 작고 의견교환도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리라 본다.

<표 IV-26> 동호회 회원 수 및 동호회 내 의견교환 정도

동호회 회원 수	단체수	의견교환 정도	단체수
22명	1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2
30명	1	월 1회 정도	1
210명	1	월 2-3회 정도	2
500명	1	주 1회 이상	1
무응답	2	무응답	1

* 조사대상 여성단체 중 사이버 공간을 동호회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 6개 단체를 분석함.

6. 여성단체 정보화 교육실태 및 홈페이지 개설 요구

가. 정보화 교육 실시여부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여성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보화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여성단체 가운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모두 76개 단체로 전체 응답자의 29.7%에 불과하며, 나머지 180개 단체 70.3%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하

고 있다(<표 IV-27> 참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몇 가지 종류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1종류의 교육을 담당한다는 경우가 35개 단체(46.1%)로 가장 많고, 2종류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22개 단체(28.9%), 3종류의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가 13개(17.1%)로 나타나고 있고, 5종류의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도 5개(6.6%)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7> 정보화 교육 실시여부 및 교육 종류수

단위: 단체수(%)

정보화 교육 유무	교육 종류수	전체 대상단체	교육실시단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단체	0	180(70.3)	-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1	35(13.7)	35(46.1)
	2	22(8.6)	22(28.9)
	3	13(5.1)	13(17.1)
	4	1(0.4)	1(1.3)
	5	5(2.0)	5(6.6)
	합 계	256(100.0)	76(100.0)

나. 정보화 교육실시 내용 및 교육대상

다음으로 정보화 교육 내용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현황과 교육 대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IV-28>과 같다.

표에 따르면, 여성단체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내용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은 ‘인터넷 기초’ 교육으로 여기에는 E-mail 만들기 및 인터넷 검색 교육이 포함된다. 인터넷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모두 45개로 30.6%에 이르며, 이 가운데 24개 단체가 주로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임원과 실무자 회원과 자원봉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도 10개에 이른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윈도우 운영, 컴퓨터 사용법, 컴퓨터 기초’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모두 25개 단체(17.0%)에서 실시

하고 있다. 윈도우 운영을 위시한 교육 또한 회원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주를 이루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도 6개이다.

셋째로 빈도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은 ‘한글, MS-Word, 등 문서편집 기능 교육’으로 모두 18개 단체(12.2%)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회원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10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4회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이외에 ‘MS 파워 포인트, 엑셀, 회계 프로그램 교육’과 ‘홈페이지 만들기 및 홈페이지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가 각 13개로 나타나고 있고, 두 교육 모두 주로 회원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나 후자의 교육은 실무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단체 가운데 ‘일반정보교육, 경영 마인드, 정보화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9개 단체, ‘전자 상거래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7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고, 이 이외에 보다 실용적인 교육으로서 ‘텔레마케터, 그래픽 교육’이나 ‘사이버 성폭력상담원 교육’, ‘컴방문교사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표 IV-28> 여성단체의 정보화 교육 실시 현황

단위: 단체수(%)

교육 내용	교육 실시 여부		정보화 교육 실시 대상						
	교육 없음	교육 실시	임원	실무진	회원/자원봉사	임원+회원	임원+실무진	실무진+회원	전체
윈도우운영/컴퓨터 사용법/컴퓨터기초/PC기초	231	25(17.0)	1	1	15	1	1	-	6
인터넷기초(e-mail 만들기, 인터넷 검색등)	211	45(30.6)	3	2	24	3	1	2	10
한글, MS-word 등 문서 편집기	238	18(12.2)	-	2	10	-	1	1	4
MS 파워포인트/엑셀/회계교육	243	13(8.8)	-	2	6	-	1	2	2
홈페이지만들기/관리	243	13(8.8)	-	5	6	1	-	1	-
전자상거래	249	7(4.8)	1	1	2	1	-	-	2
일반정보교육/경영마인드/정보화 마인드	246	9(6.1)	-	-	5	1	-	1	2
기타(텔레마케터(TM)/그래픽/사이버성폭력상담원교육/시험준비/컴방문교사)	238	17(11.6)	-	4	7	-	-	2	4
합 계		147(100.0)	5	17	75	7	4	9	30

이들 정보화 교육의 대부분은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고,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정보교육은 정보사회에서 여성의 적응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하여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정보화 교육의 방향으로서는 특별히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고려하여 정보화 교육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작업,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사회변화 수준에 맞추어 신속하게 업그레이드하는 작업, 정보화 교육과 여성의 정치적 지위 및 경제력 향상을 직접 연결시키는 노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자체 홈페이지가 없는 여성단체의 요구도

1) 독자적 홈페이지가 없는 이유

한편 이번에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은 하되 독자적 홈페이지가 없다고 응답한 55개 단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은 이유와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될 경우 원하는 형태를 질문해 보았다.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은 이유로는(<표 IV-29> 참조) 설혹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해도 ‘유지 관리할 인력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단체가 25개로 가장 빈도수가 많았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개설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단체가 12개로 나타났다. 17개 단체는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표 IV-29> 독자적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는 이유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은 이유	단체수(%)
경제적 이유 때문에	12(21.8)
유지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25(45.5)
다른 통신망(천리안, 다음 등)의 게시판 활용이 가능하기에 불필요해서	1(1.8)
기 타	0(0.0)
무응답	17(30.9)
합 계*	55(100.0)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되 독자적 홈페이지가 없는 55개 단체를 분석한 것임.

2) 향후 홈페이지 개설형태

만일 향후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될 경우 원하는 형태를 질문해본 결과(<표 IV-30> 참조), 21개 단체가 뚜렷한 아이디어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경우가 17개 단체로 가장 많았고,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경우가 9개 단체 그리고 ‘위민넷, 진보넷 등과 같은 비영리 사이트를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은 경우가 8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적은 샘플이긴 했지만, ‘민간기업의 후원’을 원하거나 ‘상업적 사이트를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표 IV-30> 홈페이지 개설 형태에 따른 요구사항

홈페이지 개설 요구사항	단체수(%)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싶다	17(30.9)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고 싶다	0(0.0)
독자적으로 개설하고 싶다	9(16.4)
‘위민넷’ ‘진보넷’ 등의 비영리 사이트를 활용하고 싶다	8(14.5)
상업적인 사이트를 활용하고 싶다	0(0.0)
기타	0(0.0)
무응답	21(38.2)
합 계*	55(100.0)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되 독자적 홈페이지가 없는 55개 단체를 분석한 것임.

결국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나 독자적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경우 그 이유는 재정적 문제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에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현황 － 설문조사 결과

1. 여성단체의 현실 공간(off-line) 여성운동 현황	101
2. 여성단체의 연대활동 현황	109
3. 여성단체의 사이버 활용(on line)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 및 현황	124

1. 여성단체의 현실 공간(off-line) 여성운동 현황

가.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실시현황

현실 공간(off-line)에서 여성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여성운동 현황을 살펴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성차별의 극복과 여성 발전을 목표로 하는 여성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조사대상 여성단체의 49.2%인 126개 단체로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130개 단체(50.8%)는 여성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표 V-1> 참조).

<표 V-1>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참여현황

단위: 단체수(%)

여성운동	운동의 종류수	전체여성단체	여성운동단체
여성운동을 하지 않는 단체	0	130(50.8)	-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	1	50(19.5)	50(39.7)
	2	46(18.0)	46(36.5)
	3	18(7.0)	18(14.3)
	4	7(2.7)	7(5.6)
	5	3(1.2)	3(2.4)
	6	1(0.4)	1(0.8)
	7	1(0.4)	1(0.8)
합 계	-	256(100.0)	126(100.0)
전체 단체의 평균	0.98	여성운동단체의 평균	2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126개 단체를 대상으로 몇 가지 종류의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평가해보도록 한 결과 1개부터 7개까지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 따르면 1개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단체가 50개(39.7%)로 가장 많고, 다음은 2개 여성운동에 참여한다는 여성단체가 46개(36.5%)로 76.2%에 이르는 대부분의 여성단체가 1-2개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개

이상의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18개(14.3%), 4개 이상의 여성운동에 참여한다는 단체가 7개(5.6%)로 나타나고 있고, 5개 이상 7개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5개 여성단체(4.0%)로 밝혀지고 있다.

나. 여성운동 범주별 참여 여성단체

다음 <표 V-2-1>은 여성단체가 현실 공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운동 내용을 9개의 운동범주로 나누어 참여 단체를 정리한 것이다.

<표 V-2-1> 여성운동 내용별 참여 여성 단체명

단위: 단체수(%)

여성운동	여성운동참여 단체 명
성차별개선 운동49개 (19.4%)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창원YWCA/안산여성노동자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 생활개선회/(사)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김해 여성회/울산광역시여성의용소방대/(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부천가정법률상담소/부산YWCA/전주 여성의전화/(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주부전문인클럽인천지부/(사)성남 여성의전화/(사)부천 여성의전화/(사)성폭력피해상담소/부천 YWCA/(사)대구여성회/춘천시자원봉사회/(사)광주여성노동자회/새마을부녀후원회(춘천시)/익산 여성의전화/대한조산협회 경남조산사회/군산 여성의전화/춘천시고부회/햇순여성상담센터/춘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재향군인여성회/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경상북도 새마을 부녀회/(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사)전북여성장애인연대/(사)한국성폭력상담소/광주YWCA/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안양YWCA/(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김포여성민우회/수원 여성의전화/한국자유총연맹/(사)한국 여성의전화연합 광주지부/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남구지회/(사)한국 여성의전화연합/전북 여대생대표자협의회
성차별개선 교육43개 (17.1%)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창원YWCA/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광명YWCA/(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광역시/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인천여성노동자회/김해여성회/(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사)전국주부교실 울산광역시지부/부천 가정법률상담소/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전주 여성의전화/(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주부전문인클럽 인천지부/(사)성남 여성의전화/(사)부천 여성의전화/(사)성폭력피해상담소/(사)대한조산협회 부산광역시 조산사회/전국주부교실 경상남도지부/익산 여성의전화/(사)한국알트루사/두레방/군산 여성의전화/고양 여성민우회/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경상북도새마을부녀회/원불교 전북여성회/(사)여성자원봉사연맹 전북지부/(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사)여성사회교육원/(사)한국성폭력상담소/전라남도 여성단체협의회/(사)경남여성회/전주YWCA/성남YWCA/울산YWCA/김포 여성민우회/수원 여성의전화/(사)한국 여성의전화연합 광주지부/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남구지회/(사)한국 여성의전화연합/부천여성노동자회

(계 속)

여성운동	여성운동참여 단체 명
법제도 개선운동32개 (12.7%)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광주 전남여성단체연합/창원YWCA/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광역시/의정부YWCA/김해여성회/(사)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사)김포 여성의전화/울산광역시여성이용소방대/부산YWCA/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사)성남 여성의전화/(사)부천 여성의전화/부산광역시 간호조무사회/(사)대구여성회/수원YWCA/(사)금화여성회/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마산YWCA/(사)경기가정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 청주지부/(사)부산 가정법률상담소/(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사)전북여성장애인연대/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성남YWCA/울산YWCA/(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수원 여성의전화/(사)한국 여성의전화연합/한국보육교사회 부산지부(부산보육교사회)
경제적지위 개선운동10개 (4.0%)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안산 여성노동자회/마창 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사)대구여성회/(사)광주 여성노동자회/(사)전북 여성노동자회/수원 여성의전화/(사)한국 여성의전화연합/한국보육교사회 부산지부(부산보육교사회)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24개 (9.5%)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남양주YWCA/(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울산지부/(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광역시/부산YWCA/대전 여성환경포럼/(사)21C여성발전위원회/(사)부천 여성의전화/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부산지부/부천YWCA/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제주도 여성단체 협의회/경상남도여지회/안산YWCA/고양 여성민우회/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전지부/대한간호협회 경상남도간호사회/(사)여성정책연구소/광주광역시 새마을부녀회/대구광역시 새마을부녀회/(사)농가주부모임 충북도연합회/한국여성지도자연합/(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사)한국 여성의전화연합
여성취업 증진사업17개 (6.7%)	남양주YWCA/(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광역시/인천여성노동자회/의정부YWCA/(사)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주부전문인클럽인천지부/ (사)광주 여성노동자회/대한어머니회서울시연합회/광주YWCA/전주YWCA/성남YWCA/울산YWCA/안양YWCA/(사)한국 여성의전화연합
회원자질 향상교육29개 (11.5%)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연합/부산여성 자원활용센터/광명YWCA/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사)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한국 어린이 육영회/(사)김포 여성의전화/전라남도 생활개선회/부산광역시 간호조무사회/(사)한국간호조무사회회 경기도회/경상북도 생활개선회/새마을부녀후원회(춘천시)/전국주부교실 경상남도지부/한국가정법률상담소 청주지부/전라남도새마을부녀회/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한국여성지도자연합 대전지부/하남YWCA/원불교 전북여성회/(사)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사)한국부인회 울산광역시지부/광주YWCA/(사)경남여성회/울산YWCA/(사)농가주부모임 충북도연합회/(사)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광주지회/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남구지회
상담실 운영21개 (8.3%)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안산여성 노동자회/한국여학사협회 부산지부/대구 여성장애인연대/인천여성노동자회/(사)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의정부YWCA/전주 여성의전화/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사)성남 여성의전화/(사)부천 여성의전화/(사)광주 여성노동자회/익산 여성의전화/두레방/하남YWCA/(사)여성자원봉사연맹 전북지부/(사)전북 여성노동자회/안양YWCA/수원 여성의전화/(사)한국 여성의전화연합/부천 여성노동자회
기타27개 (10.7%)	(사)한일여성친선협회/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연합/안산 여성노동자회/마창 여성노동자회/(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광역시/(사)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의정부YWCA/한국어린이육영회/(사)김포 여성의전화/(사)전국주부교실 광주광역시지부/전주 여성의전화/대전 여성환경포럼/한국 여성의전화연합 진해지부/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사)성남 여성의전화/경신대문제대책 부산협의회/한국통일여성협의회전북지부/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사)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사)농가주부모임 충북도연합회/(사)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 의모임 광주지회/대한조산협회 광주광역시지부/전북 생활개선회/전북여대생대표자협의회
합 계	252개 단체 (100.0%)

여성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운동의 내용을 범주별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사업은 “성차별 개선운동”으로 49개 단체(19.4%)가 활동하고 있고, 다음은 “성차별 개선 교육” 사업을 벌이는 단체가 43개(17.1%), “성차별적 법제도 개선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32개(12.7%), “회원 자질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가 29개(11.5%), “여성의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에 참여하는 단체가 24개(9.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여성관련 문제를 상담해주는 “상담실 운영” 사업을 벌이는 단체가 21개(8.3%), “여성취업 증진 사업”을 벌이는 단체가 17개(6.7%), 그리고 기타 다양한 종류의 여성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모두 27개(10.7%)를 보이고 있다.

다.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내용

여성단체에서 전개하고 있는 여성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범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의 <표 V-2-2>와 같다.

첫째, “성차별 개선운동”(19.4%)의 내용으로는 ‘성차별 극복토론회·워크숍·간담회·전국여성대회’가 15개 단체로 가장 많고, ‘평등가족실천운동·딸 사랑 운동·부부공동가사참여운동’이 12개 단체, ‘성희롱·성폭력추방운동’이 9개 단체, ‘여성인권세미나·캠페인’이 4개 단체, ‘성차별반대캠페인·운동(안티미인대회·성상품화 반대)’가 3개 단체, ‘가정폭력피해자 구명운동·쉼터 운영’이 3개 단체, ‘태아성감별금지 운동·출산문화’가 2개 단체 그리고 ‘여성재산갓기 운동’이 1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성차별 개선 교육”(17.1%)의 내용으로는 ‘남녀평등의식교육·교재제작’이 18개 단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9개 단체, ‘성교육강사 대상 교육’이 6개 단체, ‘자아인식교육’이 5개 단체, ‘남녀평등부모교육(딸 사랑운동·남녀평등한 자녀교육)’이 3개 단체, ‘부부대학’이 2개 단체 그리고 성폭력 및 성희롱예방을 위한 상담원 교육이 1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성차별적 “법제도 개선운동”의 내용으로는 ‘호주제폐지 설명회·서

<표 V-2-2>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내용(개방형 설문, 중복응답)

여성운동종류 단체수(%)	여성운동 내용(참여단체수)
성차별개선운동 49단체 (19.4%)	성차별극복토론회·워크숍·간담회·전국여성대회(15)/성차별반대캠페인·운동(안티 미인대회·성상품화 반대)(3)/여성인권세미나·캠페인(4)/성희롱·성폭력추방운동(9)/평등가족실천운동·딸사랑 운동·부부공동가사참여운동(12)/여성재산갓기운동/태아성감별금지 운동·출산문화(2)/가정폭력피해자 구명운동·쉼터 운영(3)
성차별개선 교육 43단체 (17.1%)	남녀평등의식교육·교재제작(18)/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9)/남녀평등부모교육(딸 사랑운동·남녀평등한 자녀교육)(3)/상담원 교육(성폭력/성희롱 예방/성교육강사)(6)/부부대학(2)/자아인식교육(5)
법제도 개선운동 32단체 (12.7%)	호주제폐지 설명회·서명·캠페인(22)/여성장애인 보호제도 도입운동·장애인인권아카데미(5)/여성차별제도 개선운동/제도적 여성권익증진(2)/가정폭력방지법개정운동/영유아보육법 개정운동·캠페인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 (경제적 성차별 개선) 10단체 (4.0%)	여성 최저임금인상운동(서명, 캠페인)(2)/비정규직 여성차별철폐·권익증진운동(4)/모집·채용시 성차별 모니터링/최저임금위반 신고센터/부부공동명의제(2)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 24단체 (9.5%)	여성정치지도자 할당제 운동·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여성임명운동(2)/여성정치지도자교육(4)/정치세력화운동·참여운동·캠페인·워크숍(12)/권익신장운동(3)/의정감시·모니터링(3)
여성취업증진사업 17단체 (6.7%)	직업교육·방과후 교사 교육·가사도우미(6)/직종개발사업·인력개발(6)/취업알선(4)/직업의식강화교육
회원자질향상교육 29단체 (11.5%)	정보화교육(7)/기술교육/교양교육(8)/자원봉사교육·취미교육(2)/회원복지증진교육(2)/지도자교육(8)/법률·정치교육
상담실 운영 21단체 (8.3%)	성차별(여성)상담(7)/성희롱상담·성폭력상담(7)/취업상담/가정문제상담 및 가정폭력상담(4)/법률상담
기타 27단체 (10.7%)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개발·운영(2)/조사사업(성차별실태)·남녀평등정착모니터링(8)/단체회원사업(8)/지역사회문제(4)/발간사업/국군간호학교철폐 반대운동/환경운동(2)/발전기금운동
합 계 252개 단체 (100.0%)	

명·캠페인’이 22개 단체로 가장 높고, 다음은 ‘여성장애인 보호제도 도입운동·장애인 인권아카데미’가 5개 단체, ‘제도적 여성권익증진’이 2개 단체, ‘여성차별제도 개선운동’, ‘가정폭력방지법개정 운동’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운동·캠페인’이 각 1개 단체씩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회원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는 일반적인 ‘교양교육’과 ‘여성 지도자교육’이 각각 8개 단체로 가장 빈도수가 높고 다음은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정보화교육’이 7개 단체로 뒤를 잇고 있다. 이 이외에는 ‘자원봉사교육·취미교육’과 ‘회원복지증진교육’이 각 2개 단체, ‘법률·정치교육’과 ‘기술교육’이 각 1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여성의 정치적 지위 개선 운동”으로는 ‘정치세력화운동·정치참여운동·캠페인·워크숍’ 등이 12개 단체로 가장 많고, 다음은 ‘여성 정치지도자교육’이 4개 단체, 여성을 위한 ‘권익신장운동’ 및 ‘의정감시·모니터링’이 각 3개 단체, 그리고 ‘여성정치지도자 할당제 운동·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여성임명운동’이 2개 단체로 기록되고 있다.

여섯째, 여성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상담실 운영”으로는 ‘성차별(여성)상담’과 ‘성희롱상담·성폭력상담’이 각각 7개 단체로 주를 이루고 있고, 다음은 ‘가정문제상담 및 가정폭력상담’이 4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상담’과 ‘법률상담’을 주로 하는 경우가 각각 1개 단체로 기록되고 있다.

일곱째, “여성취업 증진 사업”으로는 ‘직업교육·방과후 교사 교육·가사도우미’ 등 구체적인 취업으로 연결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와 ‘직종개발사업·인력개발’ 등 잠재적인 경제력을 증진시켜주는 사업이 각각 6개 단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취업알선’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4개 단체 그리고 ‘직업의식강화교육’이 1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여덟째, 경제활동에서의 성차별을 극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으로는 ‘비정규직 여성차별철폐·권익증진운동’이 4개 단체로 가장 많고, ‘여성 최저임금인상운동(서명, 캠페인)’과 ‘부부공동명의제’ 추진이 각 2개 단체, 그리고 ‘모집·채용시 성차별 모니터링’과 ‘최저임금위반 신고센터’ 운영이 각 1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이외에 여성운동으로는 ‘조사사업(성차별실태)·남녀평등정착 모니터링’과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각각 8개 단체로 많은 여성단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가 4개 단체, ‘환경운동’과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개발·운영’이 각 2개 단체, 기타 ‘발간사업’ ‘국군간호학교철폐반대운동’ ‘발전기금운동’ 등이 각 1개 단체로 기록되고 있다.

다음 협의체 형태별로 여성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운동 관련 사업 현황을 보면 운동 내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표 V-2-3> 참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여성운동을 하고 있다고 답한 여성단체 113개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 본회 및 회원 단체에서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76.2%로 가장 높고 다음은 협의체에 가입하지 않은 단독 단체의 참여율이 60.4%로 뒤를 잇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본회 및 회원 단체 그리고 지역여성단체협의회 가입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협의체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운동영역으로는 성차별 개선운동, 성차별 개선교육, 법제도 개선운동, 경제적 지위 개선 운동, 상담실 운영 그리고 기타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각 운동영역별로 한국여성단체연합 본회 및 회원단체의 참여율이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나고 있긴 하나,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단체의 절대적 숫자가 미미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표 V-2-3> 협의체 형태별 여성단체에서 실시한 여성운동 관련 사업
단위: 단체수(%)

운동영역	협의체형태 운동참여 여부	전체	여협본회/ 회원단체	여연본회/ 회원단체	지역협의회 가입단체	협의체미가 입단독단체	통계적 유의미도
성차별 개선운동	참여함	47(19.3)	10(16.7)	21(50.0)	8(8.5)	8(16.7)	$\chi^2=32.97$ df=3 p<.000
	참여안함	197(80.7)	50(83.3)	21(50.0)	86(91.5)	40(83.3)	
	소계	244(100.0)	60(100.0)	42(100.0)	94(100.0)	48(100.0)	
성차별 개선교육	참여함	41(16.8)	8(13.3)	17(40.5)	10(10.6)	6(12.5)	$\chi^2=20.55$ df=3 p<.001
	참여안함	203(83.2)	52(86.7)	25(59.5)	84(89.4)	42(87.5)	
	소계	244(100.0)	60(100.0)	42(100.0)	94(100.0)	48(100.0)	
법제도 개선운동	참여함	32(13.1)	9(15.0)	11(26.2)	5(5.3)	7(14.6)	$\chi^2=11.59$ df=3 p<.009
	참여안함	212(86.9)	51(85.0)	31(73.8)	89(94.7)	41(85.4)	
	소계	244(100.0)	60(100.0)	42(100.0)	94(100.0)	48(100.0)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	참여함	9(3.7)	1(1.7)	7(16.7)	0	1(2.1)	$\chi^2=24.55$ df=3 p<.000
	참여안함	235(96.3)	59(98.3)	35(83.3)	94(100.0)	47(97.9)	
	소계	244(100.0)	60(100.0)	42(100.0)	94(100.0)	48(100.0)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	참여함	23(9.4)	4(6.7)	4(9.5)	6(6.4)	9(18.8)	무의미
	참여안함	221(90.6)	56(93.3)	38(90.5)	88(93.6)	39(81.3)	
	소계	244(100.0)	60(100.0)	42(100.0)	94(100.0)	48(100.0)	
여성취업 증진사업	참여함	15(6.1)	5(8.3)	2(4.8)	2(2.1)	6(12.5)	무의미
	참여안함	229(93.9)	55(91.7)	40(95.2)	92(97.9)	42(87.5)	
	소계	244(100.0)	60(100.0)	42(100.0)	94(100.0)	48(100.0)	
회원자질 향상교육	참여함	27(11.1)	8(13.3)	3(7.1)	11(11.7)	5(10.4)	무의미
	참여안함	217(88.9)	52(86.7)	39(92.9)	83(88.3)	43(89.6)	
	소계	244(100.0)	60(100.0)	42(100.0)	94(100.0)	48(100.0)	
상담실 운영	참여함	21(8.6)	2(3.3)	12(28.6)	1(1.1)	6(12.5)	$\chi^2=32.13$ df=3 p<.000
	참여안함	223(91.4)	58(96.7)	30(71.4)	93(98.9)	42(87.5)	
	소계	244(100.0)	60(100.0)	42(100.0)	94(100.0)	48(100.0)	
기타	참여함	26(10.7)	7(11.7)	9(21.4)	4(4.3)	6(12.5)	$\chi^2=9.40$ df=3 p<.024
	참여안함	218(89.3)	53(88.3)	33(78.6)	90(95.7)	42(87.5)	
	소계	244(100.0)	60(100.0)	42(100.0)	94(100.0)	48(100.0)	
전체	참여함	113(46.3)	24(40.0)	32(76.2)	28(29.8)	29(60.4)	$\chi^2=30.21$ df=3 p<.000
	참여안함	131(53.7)	36(60.0)	10(23.8)	66(70.2)	19(39.6)	
	합계	244(100.0)	60(100.0)	42(100.0)	94(100.0)	48(100.0)	

2. 여성단체의 연대활동 현황

가. 여성단체간 연대 활동 현황

1) 여성단체의 연대활동 참여 여부

남녀 평등운동과 관련해서 여성단체의 연대활동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의 수가 79개인 30.9%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177개 단체 69.1%는 연대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평등을 주제로 하는 여성단체들의 연대활동 현황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표 V-3-1> 참조).

<표 V-3-1> 여성단체 연대활동 현황

단위: 단체수(%)

연대활동유무	연대의 수	전체 단체	연대활동단체
연대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	0	177(69.1)	-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1	30(11.7)	30(38.0)
	2	21(8.2)	21(26.6)
	3	16(6.3)	16(20.3)
	4	9(3.5)	9(11.4)
	5	3(1.2)	3(3.8)
	합 계	256(100.0)	79(100.0)
전체 단체의 연대활동 평균	0.67	연대활동별 참여 평균단체 수	2.16

* 여성단체들이 추진한 연대활동 사업수는 171개임.

2) 연대활동 빈도별 참여 단체

남녀 평등운동과 관련해서 연대사업을 벌인 79개 여성단체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개 종류의 연대활동을 한 경우가 30개 단체(38.0%)로 가장 많고, 다음은 2개 종류의 연대활동을 한 경우가 21개(26.6%), 3개 종류의 연

대활동을 한 경우가 16개(20.3%)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4개 종류의 연대활동을 한 경우가 9개(11.4%), 5개 종류의 연대활동을 한 경우가 3개 단체(3.8%)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남녀평등운동 관련 연대사업 수에 따른 단체 명단은 다음 <표 V-3-2>와 같다.

<표 V-3-2> 여성단체 연대활동 빈도 및 참여단체

단위: 연대활동수(참여단체수)

연대활동 수	참여여성 단체명
1개 (30개 단체)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부산 여성장애인연대/안산 여성노동자회/고양 주부 모임/광주광역시 생활개선회/충주시 여성단체협의회/부천 가정법률상담소/ 대전 여성환경포럼/(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주부전문인클럽 인천지부/ (사)부천 여성의 전화/(사)성폭력피해상담소/한국어린이육영회 대전광역시 어린이육영회/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사)경기 가정상담소/한국가정법률 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 청주시부/(사)부산 가정법률상담소/두레방/춘천시교부회/전국주부교실중앙회 충남도지부/(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사)여성정책 연구소/인천광역시 생활개선회/(사)전북 여성장애인연대/한국전레원 경북지원, 경북 예절다도교육회/광주광역시 새마을부녀회/가정법률상담소 울산 지부/(사)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전주 YWCA/생명회의 생명사랑/ 부천 여성노동자회
2개 (21개 단체)	남양주 YWCA/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대전광역시 새마을부녀회/(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울산지부/대구여성 장애인연대/한국 여자의사회 경남지회/인천 여성노동자회/(사)전국주부교실 광주광역시지부/대한간호협회 울산 광역시 간호사회/(사)대구 여성회/(사)한국알트루사/전라남도 새마을부녀회/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지도자연맹 대전 지부/전라남도 여성단체협의회/(사)경남여성회/(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사) 한민족통일 여성 강원도협의회/수원여성의 전화/(사)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광주지부
3개 (16개 단체)	마창 여성노동자회/한국 교회여성연합회/울산광역시 여성의용 소방대/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부산광역시 간호조무사회/정신대문제 대책 부산협의회/새마을부녀회후원회(춘천시)/익산 여성의 전화/군산 여성의 전화/햇순 여성 상담 센터/고양 여성 민우회/김해 여성의 전화/대한조산협회 광주광역시 지부/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남구지회/(사)한국 여성의 전화연합/한국보육교사회 부산지부(부산보육교사회)
4개 (9개 단체)	한국부인회 충남도지부/(사)대한 주부클럽연합회 부산광역시/김해 여성회/ 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진해지부/사)광주 여성노동자회/(사)부산광역시 영양사회/(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전북 여대생대표자협의회
5개 (3개 단체)	(사)한국성폭력상담소/울산 YWCA/안양 YWCA

* 연대활동 수에 따른 참여단체 수 및 참여단체 명으로 정리함.

3) 연대활동내용 별 단체참여 현황

한편 여성단체에서 실시한 연대활동 또한 앞서 살펴본 여성운동 현황과 마찬가지로 협의체 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이 관찰된다. <표 V-3-3>에 따르면, 연대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여성단체 78개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 본회 및 회원단체의 경우 59.5%로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협의체 형태에 따른 연대활동의 경우는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V-3-3> 협의체 형태별 여성단체에서 실시한 연대활동
단위: 단체수(%)

운동영역	협의체 형태 운동여부	전체	여협본회/ 회원단체	여연본회/ 회원단체	지역협의회 가입단체	협의체 미가입 단독단체	통계적 유의미도
성차별 개선운동	참여함	41(16.8)	6(10.0)	18(42.9)	11(11.7)	6(14.5)	$\chi^2=24.77$ df=3 p<.001
	참여안함	203(83.2)	54(90.0)	24(57.1)	83(88.3)	42(87.5)	
	소계	244(100.0)	60(100.0)	42(100.0)	94(100.0)	48(100.0)	
성차별 개선교육	참여함	15(6.1)	4(6.7)	0	10(10.6)	1(2.1)	무의미
	참여안함	229(93.9)	56(93.3)	42(100.0)	84(89.4)	47(97.9)	
	소계	244(100.0)	60(100.0)	42(100.0)	94(100.0)	48(100.0)	
법개정 운동	참여함	20(8.2)	7(11.7)	8(19.0)	2(2.1)	3(6.3)	$\chi^2=12.38$ df=3 p<.006
	참여안함	224(91.8)	53(88.3)	34(81.0)	92(97.9)	45(93.8)	
	소계	244(100.0)	60(100.0)	42(100.0)	94(100.0)	48(100.0)	
경제/노동	참여함	6(2.5)	2(3.3)	4(9.5)	0	0	$\chi^2=12.51$ df=3 p<.006
	참여안함	238(97.5)	58(96.7)	38(90.5)	94(100.0)	48(100.0)	
	소계	244(100.0)	60(100.0)	42(100.0)	94(100.0)	48(100.0)	
정치관련	참여함	38(15.6)	7(11.7)	11(26.2)	13(13.8)	7(14.6)	무의미
	참여안함	206(84.4)	53(88.3)	31(73.8)	81(86.2)	41(85.4)	
	소계	244(100.0)	60(100.0)	42(100.0)	94(100.0)	48(100.0)	
전체	참여함	78(32.0)	16(26.7)	25(59.5)	24(25.5)	13(27.1)	$\chi^2=17.76$ df=3 p<.000
	참여안함	166(68.0)	44(73.3)	17(40.5)	70(74.5)	35(72.9)	
	합계	244(100.0)	60(100.0)	42(100.0)	94(100.0)	48(100.0)	

나아가 성차별 개선운동, 법개정운동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의 경우 협의체 형태별로 연대활동 참여율에 있어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본회 및 회원단체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차별 개선교육 및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에 있어서는 협의체 형태별로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간 연대활동 현황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간 연대활동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표 V-4-1> 참조), 먼저 연대활동의 내용 가운데는 “성차별 개선운동”이 171개 사업 가운데 65개를 차지하여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 관련 운동”이 55개 사업에 32.2%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서 각종 성차별적 “법개정운동”이 22개 사업 12.9%, “성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이 18개 사업 1.1%, 그리고 경제 및 노동 분야 관련 사업이 10개로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시민단체 연대 성차별 개선운동

가) 여성·시민단체연대 성차별 개선운동 현황

성차별 개선운동을 목표로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의 현황을 보면(<표 V-4-1> 참조),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단체가 42개 단체로 16.4%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개 단체와 연대하는 경우가 25개(59.5%), 2개 단체와 연대하는 경우가 11개(26.2%) 그리고 3개 단체와 연대하는 경우가 6개(14.3%)로 나타나고 있다.

<표 V-4-1> 성차별 개선을 위한 여성·시민단체 간 연대활동 현황
단위: 단체수(%)

연대활동유무	연대의 수	전체 단체	연대활동단체
성차별 개선운동 연대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	0	214(83.6)	-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1	25(9.8)	25(59.5)
	2	11(4.3)	11(26.2)
	3	6(2.3)	6(14.3)
	합 계	256(100.0)	42(100.0)
전체 평균 연대활동 수	0.25	연대활동 참여 단체 수 평균	1.55

나) 여성·시민단체 연대 성차별 개선운동 내용

“성차별 개선운동” 사업의 내용으로는 여성대회 및 여성주간 행사 그리고 성상품화 및 안티미인대회가 22개 단체로 가장 빈도수가 높다. 이 사업은 주관하는 경우가 3개 단체, 참여하는 경우가 15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단체와 연대하는 경우가 18개 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경우가 2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은 사업은 성폭력, 성희롱 및 가정폭력추방 운동이 17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경우가 6개 단체, 참여하는 경우가 7개 단체이다. 아울러 연대의 대상은 여성단체가 12개 단체 시민단체가 4개 단체로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비교적 활발함을 볼 수 있다.

뒤 이어 빈도수가 높은 사업은 여성의 인권보호운동으로 여기에는 장애인 차별철폐운동 및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대책위원회 활동,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운동이 포함된다. 참여단체 수가 9개인 이 사업은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경우가 3개 단체, 참여하는 경우가 6개 단체이고, 여성단체와 연대하는 경우가 8개 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경우가 4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어 역시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V-4-2>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 활동 현황

단위: 중복응답 단체수(%)

연대활동	내 용	수행 사업수*	연대활동 주관 여부		연대에 참여 단체 수*		
			주관	참여	여성 단체	시민 단체	무 응답
성차별 개선운동	여성대회/여성주간행사/성차별극복대회/ 간담회/성상품화와 안티미인대회(4)	22	3	15	18	2	
	성차별 개선사이트 운영	2	1	1	2		
	여성인권보호(장애인철폐/군산 개북동 화재참사대책위(4)/외국인노동자)	9	3	6	8	4	
	성폭력·성희롱·성차별등의 상담	4	2	1	2		1
	평등가족운동/평등문화운동	5	3	2	4	1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추방/ 피해자구명	17	6	7	12	4	1
	지위향상운동(여성가장네트워크)	6	2	2	2	1	1
	소계	65(38.0)	20	35	48	13	3
정치관련	정치참여/유권자교실/정치개혁	18	7	10	12	6	2
	통일/북한알기/6.15 공동선언행사추진위	7	3	3	4	4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초청 토론회	7	3	3	4	3	
	지도자교육/지도자대회	12	1	9	10	1	
	정책평가세미나/정책포럼/의정평가회	7	4	3	4	3	
	기타(양성평등위원회/민주시민양성연대/ 예산분석/지방선거여성기금	4	2	2	1	3	
	소계	55(32.2)	20	30	35	20	2
법개정 운동	호주제 폐지	16	6	9	11	6	2
	모성보호	2		2	2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	4	2	2	4	1	
	소계	22(12.9)	8	13	17	7	2
성차별 개선교육	여성·사회참여확대·의식함양·지위향 상·남녀평등 교육	12	3	7	8		2
	성교육/성희롱 예방교육	2	2		1		1
	기타(정보화·실무자·여학생 진로· 여성사회 교육)	5	2	3	3	2	
	소계	19(11.1)	7	10	12	2	3
경제/노동	비정규직권리찾기 운동본부	7	4	2	2	5	
	기타(파견근무/취업알선/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운동)	3		2	2	1	
	소계	10(5.8)	4	4	4	6	
연대활동 참여 79개 단체의 수행사업 수		171(100.0)	59	92	116	48	10

다음의 <표 V-4-3>은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를 연대활동 빈도 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 V-4-3> 성차별 개선운동 연대활동 빈도 및 단체명
단위: (참여단체수)

연대활동 수	연대참여 여성단체명
1개 활동 (25개 단체)	부산 여성장애인연대/대전광역시 새마을부녀회/한국부인회 충남도 지부/마창 여성노동자회/대구 여성장애인연대/한국 여자의사회 경남지회/광주광역시 생활개선회/인천 여성노동자회/부천 가정법률상담소/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사)부천 여성의 전화/익산 여성의 전화/두레방/군산 여성의 전화/춘천시 고부회/햇순 여성상담센터/한국여성지도자연합 대전지부/(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사)전북 여성장애인연대/한국전례원경북지원, 경북예절 다도교육회/김해 여성의 전화/생명회의 생명사랑/대한조산협회 광주광역시 지부/전북 여대생대표자협의회/부천 여성노동자회
2개 활동 (11개 단체)	한국 교회여성연합회/김해 여성회/(사)전국주부교실 광주광역시지부/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진해지부/(사)광주 여성노동자회/(사)한국알트루사/전라남도새마을 부녀회/(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수원 여성의 전화/(사)한국 여성의전화연합 광주지부/한국보육교사회 부산지부(부산보육교사회)
3개 활동 (6개 단체)	정신대문제 대책 부산협의회/(사)한국성폭력상담소/울산 YWCA/안양 YWCA/(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사)한국여성의 전화연합

2) 여성·시민단체연대 여성정치지위 개선운동

“여성의 정치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의 사업 내용을 보면(<표 IV-4-1> 참조),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사업, 유권자 교실 그리고 정치개혁 운동 관련 사업이 18개 단체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주관하는 경우가 7개 단체, 참여하는 경우가 10개 단체, 여성단체와 연대하는 경우가 12개 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경우가 6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여성 정치지도자 교육 및 여성 정치지도자 대회가 12개 단체의 참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가 1개 참여하는 단체가 9개로 나타나고 있다. 연대활동을 하는 경우는 대상이 여성단체인 경우가 10개 단체, 시민단체인 경우가 1개 단체로 여성단체간 연대사업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우호적인 남성과의 연대

가 매우 유효한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간 연대를 적극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대활동 현황을 보면(<표 V-4-3> 참조), 3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전체 응답단체의 15.2%에 불과하다. 연대활동 단체의 규모를 보면, 1개 종류의 단체활동에 연대하는 경우가 25개 단체(6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개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12개 단체로 30.8%, 그리고 3개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2개 단체(5.1%)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 성차별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에 비해 정치세력화 운동에 연대하는 단체 수가 다소 높은 것이 눈에 띈다. 중요한 사실은 동일한 목표를 가진 운동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에서 여성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단독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때보다 연대해서 운동을 전개해 나갈 때, 운동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밝히고 있어 앞으로 효율적인 단체 간 연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V-4-4> 여성의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연대활동 단체
단위: 단체수(%)

연대활동유무	연대의 수	전체 단체	연대활동단체
정치관련 연대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	0	217(84.8)	-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1	25(9.8)	25(64.1)
	2	12(4.7)	12(30.8)
	3	2(0.8)	2(5.1)
	합 계	256(100.0)	39(100.0)
전체 단체의 평균	0.21	연대 활동 단체의 평균	1.12

다음은 지난 1년 간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대활동에 참여해온 단체명단을 연대활동 빈도별로 정리한 것이다(참조 <표 V-4-5>).

<표 V-4-5>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대활동 빈도 및 단체명
단위: (참여단체수)

연대활동 수	연대 참여 여성단체명
1개 활동 (25개 단체)	남양주 YWCA/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고향 주부모임/마창 여성노동자회/ 한국 여자의사회 경남지회/인천 여성노동자회/김해 여성회/울산광역시 여성 의용 소방대/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대전 여성환경포럼/대한간호협회 울산광역시 간호사회/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진해지부/(사)성폭력피해상담소/ (사)대구여성회/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익산 여성의 전화/햇순 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지도자연합 대전지부/(사)여성정책연구소/인천광역시 생활개선회/ 광주광역시 새마을부녀회/(사)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전주 YWCA/ (사)충북 여성장애인연대/한국보육교사회 부산지부(부산보육교사회)
2개 활동 (12개 단체)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울산지부/새마을부녀회후원회(춘천시)/(사)부산 광역시영양사회/군산 여성의 전화/김해 여성의 전화/(사)경남여성회/울산 YWCA/안양 YWCA/(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사)한민족통일여성 강원도협 의회/대한조산협회 광주광역시 지부/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남구지회
3개 활동 (2개 단체)	부산광역시 간호조무사회/고양 여성민우회

3) 법개정운동 - 여성·시민단체 간 연대활동

셋째, “법 개정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표 V-2-2> 참조) 지난 1년 간 호주제 폐지, 모성보호, 성매매방지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운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법 개정운동 사업 가운데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호주제 폐지는 응답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경우가 6개 단체 참여하는 경우가 9개 단체이고,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11개 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경우가 6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성차별적 법 개정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연대활동 현황을 보면(<표 V-4-6> 참조), 참여단체 수가 20개(7.8%)로 10개 단체 중 1개 단체에도 못 미치고 있다. 아울러 20개 단체 가운데 18개 단체가 1개 단체와 연대활동을 펴고 있고 2개 단체가 다른 2개 단체와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차별적 요소를 함의하고 있는 법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정할 경우 차별적 현실을 평등한 현실로 변화시키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하게됨은 서

구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익히 검증된 바 있다. 따라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연계해서 벌이는 법 개정운동은 성 평등사회를 구현해감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 개정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매우 희소함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단기적 성과를 내는데도 유리하고 장기적 효과에 있어서도 남녀평등구조를 정비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법개정운동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표 V-4-6> 법 개정운동 연대활동 단체

단위: 단체수(%)

연대활동유무	연대의 수	전체 단체	연대활동단체
법 개정운동 연대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	0	236(92.2)	-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1	18(7.0)	18(90.0)
	2	2(0.8)	2(10.0)
	합 계	256(100.0)	20(100.0)
전체 단체의 평균	0.09	연대 활동 단체의 평균	1.1

지난 1년 간 성차별적 법개정운동을 위한 연대활동에 참여해온 단체는 다음의 <표 V-4-7>과 같다.

<표 V-4-7> 법개정운동 연대활동 빈도 및 단체명

단위: (참여단체수)

연대활동 수	여성단체명
1개 (18개 단체)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남양주 YWCA/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한국교회 여성연합회/(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광역시/대구 여성장애인연대/충주시여성단체협의회/김해 여성회/울산광역시 여성의용소방대/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북지회/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진해지부/(사)경기 가정상담소/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익산 여성의 전화/(사)부산 가정법률상담소/햇순 여성상담센터/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전라남도 여성단체협의회/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3개 (2개 단체)	(사)한국성폭력상담소/전북 여대생대표자협의회

4) 성차별 개선교육 여성·시민단체 연대활동

“성차별 개선 교육”에는(<표 V-2-2> 참조) 여성의 의식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사회교육이 포함되는 바, 이 가운데 빈도수가 높은 사업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교육, 의식함양교육, 지위향상교육, 남녀평등교육 등 전반적인 여성의식 고취를 지향하는 교육사업이 12개 단체, 성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이 2개 단체 그리고 최근 들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과 실무자교육, 여학생 진로교육 등 여성의 경제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 5개 단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들 성차별 개선교육은 연대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도 여성단체간 연대가 주를 이루고 시민단체와의 연대는 희소한 실정이다.

남녀가 평등하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해감에, 최근 여성의 의식 변화는 빨리 이루어지나 남성의 의식변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남녀간 갈등의 폭이 증폭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성차별 개선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시민단체와 보다 활발히 연계하여 다양한 남성집단을 교육 대상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성차별 개선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연대활동 현황을 보면(<표 V-4-8> 참조), 응답 여성단체 중 15개 단체만이 참여하고 있어 5.9%라는 미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15개 단체 가운데 1

<표 V-4-8> 성차별 개선교육 연대활동 단체

단위: 단체수(%)

연대활동유무	연대의 수	전체 단체	연대활동단체
성차별 개선교육 연대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	0	241(94.1)	-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1	12(4.7)	12(80.0)
	2	2(0.8)	2(13.3)
	3	1(0.4)	1(6.7)
	합 계	256(100.0)	15(100.0)
전체 단체의 평균	0.07	연대 활동 단체의 평균	1.27

개 단체와 연대활동을 하는 경우가 12개 단체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2개 단체와 연대하여 성차별 개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2개, 3개 단체와 연대한다는 여성단체가 1개로 나타나고 있다.

성차별 개선교육을 통해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다음의 <표 V-4-9>과 같다.

<표 V-4-9> 성차별 개선교육 연대활동 빈도 및 단체명

단위: (참여단체수)

연대활동 수	여성단체명
1개 (12개 단체)	대전광역시 새마을부녀회/울산광역시 여성의용소방대/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주부전문인클럽 인천지부/대한간호협회 울산광역시 간호사회/새마을부녀회 후원회(춘천시)/한국어린이 육영회 대전광역시 어린이육영회/한국가정법률상담소 청주지부/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전국주부교실 중앙회 충남도지부/전라남도 여성단체협의회/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남구지회
2개 (2개 단체)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광역시/(사)부산광역시 영양사회
3개 (1개 단체)	한국부인회 충남도지부

5) 경제분야 여성지위 개선운동 - 여성·시민단체 연대활동

“경제/노동 분야” 사업에서는(<표 V-2-2> 참조)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주를 이루는 바, 여기에는 비정규직권리찾기 운동본부(7개 단체), 취업 알선, 파견근무,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운동(각 1개 단체) 등이 포함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권리찾기 운동본부의 경우 여성단체와 연대하는 단체수(2개 단체)보다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단체수(5개 단체)가 높다는 사실은 특기할만하다. 그러나 경제/노동 영역에서의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연대활동 현황을 보면(<표 V-4-10> 참조), 전체 응답단체 가운데 7개라는 극히 소수의 단체만이 이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5개 단체가 다른 1개 단체와 연계해서 활동을 전개해가고 있다.

<표 V-4-10> 경제분야 여성지위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단체

단위: 단체수(%)

연대활동유무	연대의 수	전체 단체	연대활동단체
경제/노동관련 연대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	0	249(97.3)	-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1	5(2.0)	5(71.4)
	2	1(0.4)	1(14.3)
	3	1(0.4)	1(14.3)
	합 계	256(100.0)	7(100.0)
전체 단체의 평균	0.04	연대 활동 단체의 평균	1.43

경제분야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리스트는 다음의 <표 V-4-11>과 같다.

<표 V-4-11> 경제분야 성차별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빈도 및 단체명

연대활동 수	여성단체명	응답단체수
1개	안산여성 노동자회/(사)대한 주부클럽연합회 부산광역시/ (사)대구여성회/전북 여대생대표자협의회/마창 여성노동자회	5
2개	(사)광주 여성노동자회	1
3개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1

다음의 <표 V-5>는 남녀평등을 목표로 하는 연대활동의 내용과 연대의 대상이 여성단체인지 시민단체인지를 정리한 목록이다. 여기서 여성단체들이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사업의 형태를 살펴보면 지역에서 성차별 극복을 위한 여성대회 공동개최, 여성인권보호운동(군산 화재사건, 외국인 여성노동자, 장애인 성폭력 방지운동) 성폭력·성희롱예방운동, 정신대문제 대책, 평등문화운동, 호주제폐지운동, 비정규직 권리찾기운동 등이다.

<표 V-5> 연대활동의 내용 및 참여단체

활동영역 및 내용		연대활동: 주관·참여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단체
성차별 개선운동	여성대회/ 여성주간행사/ 성차별극복대회/ 간담회/ 성상품화와 안티미인대회	대전광역시 새마을부녀회/한국부인회 충남도지부/ 한국 여자의사회 경남지회/광주광역시생활개선회/ 인천 여성노동자회/김해 여성회/(사) 전국주부교실 광주광역시지부/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진해지부/ (사)부천 여성의 전화/전라남도 새마을부녀회/한국 여성지도자연합대전지부/울산YWCA/안양 YWCA/ 대한조산 협회 광주광역시지부/(사)한국 여성의전화 연합/한국보육교사회 부산지부(부산보육교사회)/마 창여성노동자회/(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	마창 여성노동자회/ (사)충북여성장애인 연대
	성차별 개선 사이트 운영	부천 가정법률상담소/부천 여성노동자회	-
	여성인권보호(장애 인철폐/군산개복동 화재참사대책위/ 외국인노동자	한국 교회여성연합회/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북지회/ 익산 여성의 전화/(사)한국성폭력상담소/(사)한국 여성의 전화연합/부산여성장애인연대/두레방/군산 여성의 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두레방/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성희롱/ 성차별 상담 등	(사)한국알트루사/김해 여성의 전화	
	평등가족운동/ 평등문화운동	춘천시 교부회/전라남도 새마을 부녀회/(사)한국 여 성의 전화연합 광주지부/한국보육교사 회 부산지부 (부산보육교사회)	한국 교회여성 연합회
	성폭력/성희롱/ 가정폭력추방/ 피해자구명	햇순 여성상담센터/(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사)한 국성폭력상담소/울산 YWCA/생명회의생명사랑/ (사)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광주지부/(사)한국 여성의 전화연합/전북 여대생대표자협의회/(사)한국여성단 체협의회/안양YWCA/(사)충북 여성장애인연대/수 원 여성의 전화	(사)한국여성단체협 의회/안양YWCA/ (사)충북여성장애인 연대/수원여성의전화
	지위향상운동(여성 가장 네트워크)	(사)전북여성장애인연대/한국전레원 경북지원, 경북예절 다도교육회	정신대문제대책 부산협의회
성차별 개선교육	여성교육/사회참여 확대/의식함양/ 지위향상/남녀평등	대전광역시 새마을 부녀회/한국부인회 충남도지부/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여 성의용소방대/새마을부녀후원회(춘천시)/한국어린 이육영회 대전광역시어린이육영회/인천광역시 여성 단체협의회/전라남도여성단체 협의회	-
	성교육/성희롱 예방교육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청주지부	-
	기타(정보화교육/ 실무자교육/ 여학생진로교육/ 여성사회교육)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광역시/(사)부산광역 시 영양사회/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남구지회	(인천지역사회교육협 의회)주부전문인클럽 인천지부/전문직여성 클럽광주

(계 속)

활동영역 및 내용		연대활동: 주관·참여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단체
법 개 정 운 동	호주제 폐지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 대구여성 장애인연대/ 충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햇순 여성상담 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여성단체협의회/ 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남양주 ywca/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사)대한 주부클럽연합회 부산광역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울산광역시여성의용소방대/(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남양주YWCA/한국교회여성연합회/(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광역시
	모성보호	김해 여성회/전북 여대생대표자협의회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진해지부/(사)한국성폭력상담소/전북 여대생대표자협의회/익산 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경 제 / 노 동	비정규직권리 찾기 운동본부	전북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안산여성노동자회/마창여성노동자회/(사)대구여성회/(사)광주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기타(파견근무/취업알선/최저임금인상을 위한운동)	(사)대한 주부클럽연합회 부산광역시/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정 치 관 련	정치참여/유권자교실/정치개혁	고향주부모임/김해 여성회/부산광역시 간호조무사회/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사)부산광역시 영양사회/(사)여성정책연구소/(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대한조산협회 광주광역시 지부/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남구지회/인천여성노동자회/안양 YWCA/(사)충북 여성장애인연대	군산여성의전화/고양여성민우회/(사)경남여성회/인천여성노동자회/안양 YWCA/(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
	통일/북한알기/6.15공동선언행사 추진위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 강원도협의회/한국보육교사회 부산지부(부산보육교사회)/남양주YWCA/안양 YWCA	(사)대구여성회/전주YWCA/남양주YWCA/안양 YWCA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초청토론회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울산지부/(사)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익산 여성의 전화	햇순여성상담센터/김해여성의전화/익산여성의전화
	지도자교육/지도자대회	한국여자의사회 경남지회/울산광역시 여성의용소방대/부산광역시 간호조무사회/ 새마을 부녀후원회(춘천시)/(사)부산광역시 영양사회/한국여성지도자연합 대전지부/인천광역시 생활개선회/광주광역시 새마을부녀회/대한조산협회 광주광역시 지부/(사)성폭력피해상담소	(사)성폭력피해상담소
	정책평가세미나/정책포럼/의정평가회	대전 여성환경포럼/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진해지부/울산 YWCA/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남구지회	고양여성민우회/김해여성의전화/(사)경남여성회
	기타(양성평등위원회/민주시민양성연대/예산분석/지방선거여성기금	울산 YWCA	대한간호협회울산광역시간호사회/군산여성의전화/고양여성민우회

3. 여성단체의 사이버 활용(on line)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 및 현황

가. 사이버 공간 활용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

인식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즉 사이버 여성운동에 대해 현재 여성단체 구성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향후 사이버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예측해보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여성단체들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6개 항목을 질문 한 결과는 다음 <표 V-6-1>과 같다. 표에 따르면 6개 항목의 평균값이 4.40점부터 3.76점까지 분포되어 있어 모든 항목에 대한 인

<표 V-6-1>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
단위: 단체수(%)

사이버 여성운동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값
여성단체의 정보화는 여성 지위를 강화시킬 것이다	1(0.4)	3(1.2)	28(10.9)	123(48.0)	90(35.2)	11(4.3)	4.22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 연대활동은 '여성의 세력화'를 효과적으로 이룰 것이다	2(0.8)	4(1.6)	39(15.2)	127(49.6)	72(28.1)	12(4.7)	4.08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단체 활동은 여성회원의 정보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0(0.0)	4(1.6)	23(9.0)	111(43.4)	104(40.6)	14(5.5)	4.30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 운동은 여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0.4)	10(3.9)	76(29.7)	117(45.7)	41(16.0)	11(4.3)	3.76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 운동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때 효과적이다	2(0.8)	8(3.1)	50(19.5)	105(41.0)	80(31.3)	11(4.3)	4.03
여성운동을 위해 사이버 공간(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활용은 필요하다	1(0.4)	4(1.6)	14(5.5)	102(39.8)	124(48.4)	11(4.3)	4.40

*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주어 응답자 수로 나눈 값으로 3점을 기준으로 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응답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응답임.

** 전체는 응답 단체수 256개를 100%로 한 것임.

식 정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평균값이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구체적인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여성운동을 위한 사이버 공간(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활용은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평균값 4.40으로 ‘매우 그렇다’는 적극적 동의가 48.4%, ‘대체로 그렇다’는 동의가 39.8%로 나타나 88.2%의 대다수 응답자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 사이버 여성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둘째,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단체 활동을 위해서는 여성 회원의 정보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항목의 경우 평균값이 4.30으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즉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43.4%, ‘매우 그렇다’ 40.6%로 84.0%의 응답자가 지지를 보이고 있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과 관련된 정보 마인드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여성단체의 정보화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것이다’에 대해서는 평균값 4.22로 ‘대체로 그렇다’ 48.0% ‘매우 그렇다’ 35.2%를 합하면 모두 83.2%의 역시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정보화와 여성의 지위 향상 사이에 긍정적 관계를 설정하고 있음은 향후 사이버 여성운동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향을 제공해줄 것이다.

넷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 연대활동은 ‘여성의 세력화’를 효과적으로 이룰 것이다’에 대해서는 평균값 4.08로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49.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매우 그렇다’는 적극적 지지가 28.1%로 7.7%가 동의를 보이고 있다. 반면 ‘그저 그렇다’는 평가도 15.2%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은 여성단체간 연대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해줄 것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역시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때 효과적이다’에 대해서는 평균값 4.03으로 ‘대체로 그렇다’가 41.0%, ‘매우 그렇다’가 31.3%로 나타나 72.3%가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19.5%의

응답자는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단체와 여성단체간의 연대활동을 통해 여성운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4 이상의 응답자가 이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은 여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항목으로 이에 대한 평균값은 3.76으로 6개 항목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는 태도가 45.7%, ‘매우 그렇다’가 16.0%로 찬성하는 입장이 61.7%에 이르나,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 태도도 29.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문제의 해결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입장에 주목하여, 앞으로 그 원인을 탐색해 봄으로써 여성문제를 사이버 여성운동을 통해 적극 해결할 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 사이버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과 정보화 태도간의 상관관계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과 정보화에 대한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V-6-2> 참조), 정보화 마인드가 높을수록 사이버 여성운동에 대해 긍정적 인식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정보화 마인드를 측정하는 5개 문항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운동 인식을 측정하는 6개 문항간의 상관관계는 0.308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p < .000$)으로 밝혀졌다. 흥미로운 사실은 단체 실무자 및 단체 회원이 정보화를 중요하다고 인식할 경우 사이버 여성운동의 모든 항목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체 실무자와 회원의 정보화 마인드는 앞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활성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반면 단체 회장 및 임원의 정보화 마인드가 높을수록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운동이 여성 지위의 강화, 여성연대를 통한 여성의 세력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고, 사이버 여성운동을 위해서는 회원의 정보화 능력이 필히 요구된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사이버 공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 폭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단체 실무자들의 컴퓨터 능력과 관련해서는 3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운동이 여성연대를 통한 여성의 세력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 사이버 여성운동을 위해서는 회원의 정보화 능력이 필히 요구된다는 인식,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 공간 활용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등 긍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단체 회원들의 컴퓨터 능력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인식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V-6-2> 사이버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과 정보화 태도간 상관관계

정보화 태도 사이버 공간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	우리단체의 회장, 임원은 정보화를 중요시한다	우리단체의 실무자들은 정보화를 중요시한다	우리단체의 회원들은 정보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단체의 실무자들은 컴퓨터를 잘 다룬다	우리 단체의 회원들은 대부분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
여성단체의 정보화는 여성지위를 강화시킬 것이다	.224***	.238***	.177**	.113	.075
사이버 여성연대활동은 '여성의 세력화'를 효과적으로 이룰 것이다	.244***	.349***	.231***	.220**	.119
사이버 여성단체활동은 여성회원의 정보능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259***	.318***	.176**	.153*	.066
사이버 여성운동은 여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23	.227***	.200**	.126	.089
사이버 여성운동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때 효과적이다	.104	.219**	.169**	.045	.085
여성운동을 위해 사이버 공간의 활용은 필요하다	.255***	.351***	.231***	.129*	.093

*p<.05, **p<.01, ***p<.001

이상에서 추론해볼 수 있는 바, 단체의 회장, 임원, 실무자 그리고 회원의 정보화 마인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에 비추어볼 때, 향후 여성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컴퓨터를 실제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화 마인드와 비교해볼 때 사이버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운동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실무자 및 회원의 컴퓨터 조작 능력임을 고려하여, 특별히 회원들의 컴퓨터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 여성단체의 사이버 활용 여성운동

여성단체에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고 응답한 단체는 모두 56개로 전체 응답 여성단체의 21.9%로 나타나 약 5개 가운데 1개 여성단체에서 사이버 여성운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7-1> 참조).

<표 V-7-1>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현황

단위: 단체수(%)

구 분	운동의 종류	분석대상 전체 단체	응답단체
무응답	0	13(23.2)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종류 수	1	16(28.6)	16(37.2)
	2	15(26.8)	15(34.9)
	3	7(12.5)	7(16.3)
	4	5(8.9)	5(11.6)
	합 계	56(100.0)	43(100.0)
분석 대상 전체 단체의 사이버 여성운동의 평균	1.55	응답한 단체의 사이 버 여성운동의 평균	2.02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운동을 하고 있다고 답한 56개 단체 가운데 무응답 13개 단체를 제외하고 모두 43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운동의 중

류를 질문해본 결과, 1종류라고 응답한 경우가 16개 단체, 2종류라고 응답한 경우가 15개 단체로 각각 약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종류의 사이버 운동에 참여하는 단체가 7개, 4종류의 사이버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5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현황은 협의체 가입 형태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V-7-2> 참조).

표에 따르면 사이버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34개 단체 가운데 한국여성단체 연합 본회 및 회원단체의 경우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다른 형태의 협의체 단체와 비교해볼 때 월등히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이 눈에 띈다.

<표 V-7-2> 협의체 형태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현황
단위: 단체수(%)

협의체 형태		전체	여협본회/ 회원단체	여연본회/ 회원단체	지역협의회 가입단체	협의체 미가입 단독단체	통계적 유의미도
여성운동 실시유무	한다	34(18.5)	7(11.7)	19(45.2)	8(8.6)	11(22.9)	$\chi^2=28.42$ df=3 p<.001
	안 한다	198(81.5)	53(88.3)	23(54.8)	85(91.4)	37(77.1)	
	합 계	243(100.0)	60(100.0)	42(100.0)	93(100.0)	48(100.)	

한편 언제부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을 시작했는지 살펴보면(<표 V-8> 참조), 1995년부터 현재까지 고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2000년부터 시작했다는 단체가 13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2002년에 시작한 단체가 11개, 1999년에 시작한 단체가 10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2000년대 사이버 운동을 시작한 단체가 32개로 2000년 이전에 시작한 단체 17개보다 많다.

<표 V-8>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시작 연도

년 도	단체수(%)	년 도	단체수(%)
1995년	1(1.8)	2000년	13(23.2)
1996년	1(1.8)	2001년	8(14.3)
1997년	3(5.4)	2002년	11(19.6)
1998년	2(3.6)	무응답	7(12.5)
1999년	10(17.9)	합계	56(100.0)

* 조사대상 단체 중 사이버 공간 활용 여성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56개 단체를 분석함.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역사는 1995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다수의 여성단체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현상임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이 영역은 잠재적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 V-9-1>과 같다.

<표 V-9-1>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내용

(중복응답)

여성운동의 내용	단체수(%)	여성운동의 내용	단체수(%)
성폭력/성차별 상담	9(10.3)	성차별신고센터	1(0.1)
가족상담	1(0.1)	시의회 활동모니터	2(0.2)
가정폭력상담	4(4.6)	단체활동정보제공/소식정보	8(9.2)
남녀평등의식/여성인권의식	8(9.2)	성상품화 반대운동/성매매 반대	3(3.4)
성차별법개정운동	11(12.6)	소비자운동·상담·불매운동	5(5.7)
남녀평등문화정착운동	13(14.9)	기타	22(25.3)
합 계 87(100.0)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실태를 내용별로 해당 단체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열거해보면, ‘남녀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 13개 단체, ‘성차별적 법 개정운동’ 11개 단체, ‘성폭력 및 성차별 상담’ 9개 단체, ‘남녀평등의식 및 여성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과 ‘단체활동 정보 제공과 다양한 여성관련 소식 제공’이 각각 8개 단체, ‘소비자 운동 및 상담 그리고 불매운동’ 5개 단체, ‘가족폭력 상담’ 4개 단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성 상품화 및 성매매 반대 운동’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무료법률 상담’이 각 3개 단체, ‘시의회 활동 모니터링’ ‘전자우편 보내기 및 e-mail 갖기 운동’ ‘취업훈련’ 등이 각 2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고,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 안내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사이버 여성운동으로는 ‘교육자치, 신지식인 여성농업인 안내 및 홍보, 태아 성감별 금지, 무료법률상담(3개 단체), 다이어트 바로 알기, 여성장

애인문제 토론(2개 단체), 노동관련 자료제공, 유기농산물 먹기, 전자우편 보내기 및 e-mail 갖기 운동(2개 단체), 여성정신건강을 위한 홍보·상담·교육, PC중독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사이버 폭력, 취업훈련(2개 단체), 정치참여 및 사이버 선거, 성폭력사건 서명서 및 서명지 배포, 1366 배너달기'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실제 여성운동을 진행중인 여성단체 56개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운동방법을 살펴보면,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전자 메일 보내기'(31개 단체 55.4%), '전자 엽서 보내기' 및 '배너 달기'(각 16개 단체 28.6%) 그리고 '전자 우편을 통한 서명활동'(14개 단체 25.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V-9-2> 참조).

이 밖에도 '온 라인 투표'를 실시한 경우가 8개 단체(14.3%), '플래쉬 전파하기'의 경우가 2개 단체(3.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여성단체에서 실시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운동 방법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축적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 V-9-2>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구체적 방법

단위: 단체수(%)

방법	해당 없음	해당됨	무응답	합계*	여성운동방법**
온라인 투표 (스티커 붙이기 등)	41(73.2)	8(14.3)	7(12.5)	56(100.0)	8(8.6)
전자 포스터	48(85.7)	1(1.8)	7(12.5)	56(100.0)	1(1.1)
배너 달기	33(58.9)	16(28.6)	7(12.5)	56(100.0)	16(17.2)
전자 메일 보내기	18(32.1)	31(55.4)	7(12.5)	56(100.0)	31(33.3)
플래쉬 전파하기	47(83.9)	2(3.6)	7(12.5)	56(100.0)	2(2.2)
전자우편 서명활동	35(62.5)	14(25.0)	7(12.5)	56(100.0)	14(15.1)
전자엽서 보내기	33(58.9)	16(28.6)	7(12.5)	56(100.0)	16(17.2)
기타	43(76.8)	5(8.9)	8(14.3)	56(100.0)	5(5.4)
합 계					93(100.0)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56개 단체만을 분석하였음.

** 사이버 공간에서 활용한 여성운동방법 전체 93개 중 각각의 방법이 차지하는 비율임.

라. 여성단체의 사이버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이상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다음에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이버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단체는 모두 112개로 전체 256개 가운데 43.7%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과반수에 이르는 144개 단체(56.3%)는 응답하지 않았다. 112개 여성단체가 사이버 활용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 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 V-10>과 같다.

<표 V-10>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제시 내용

영역별	단체수(%)	내 용(단체수)
정부지원	43(21.6)	재정(6)/홈페이지 제작 보급(정보공간마련)(4)/여성단체 정보 교류 공동사용 프로그램 개발·다양한 콘텐츠 개발 보급(10)/소그룹 국가 지원(차별지원)(2)/PC 보급·기반환경(9)/여성단체간 network 구축(7)/기반환경조성·정보화시스템(3)/공간 지원/기타
정보화 교육 실시	41(20.6)	빈곤·저소득·저학력층·PC활용교육(13)/연령별PC교육(4)/사이버 공간활용증진교육(6)/여성단체정보화교육(17)/사이버 여성운동증진교육
여성운동 활성화 촉진	29(14.6)	재산갯기 운동(3)/소모임운동·동아리 운동·커뮤니티 운동(4)/여성운동 사이버 공간 마련(on-line과 off-line여성운동 일치시키기)(6)/여성운동홍보(11)/주제토론장 마련·배너투표·서명(5)
여성정보제공	20(10.0)	정보제공(10)/정보공유(10)
남녀평등 의식교육	17(8.5)	성차별 인식제고(남녀평등의식)교육(10)/여성권익증진교육(4)/단체장교육/정신적 지주·리더쉽 훈련(2)
상담 프로그램 운영	8(4.0)	성차별(3)/성희롱·성폭력(2)/가족상담/사이버 활용상담(2)
전담 실무자 두기	7(3.5)	전담 실무자 두기(7)
on-line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3.0)	의식향상교육(6)
회원 정보화 능력 향상	4(2.0)	회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e-mail 갖기·활용(3)
단체활동 참여의식고양	3(1.5)	단체참여·운동 참여(2)/공감대형성
소모임 활동 활성화	3(1.5)	커뮤니티, 동아리 모임(3)
남녀평등 문화형성	2(1.0)	청소년·가족·직장문화(2)
기타	16(8.0)	연대활동(8)/내용의 전문화 및 다양화(3)/여성취업알선/ 여론조사/전국단체본부 홈페이지의 포털화/기타(2)
합 계	199(100.0)	

* 112개 단체의 중복응답임.

첫째, 21.6%(43개 단체)가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성단체 간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있어서의 지원 요구가 가장 많았고(10개 단체), 다음은 ‘PC 보급 및 정보화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9개 단체)가 뒤를 이었으며, ‘여성단체간 network 구축 지원’(7개 단체) 및 ‘재정지원’에 대한 요구도(6개 단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정보공간 마련의 차원에서 홈페이지 제작 및 보급’을 지원해 줄 것(4개 단체), ‘정보화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의 지원’(3개 단체), 그리고 ‘특별히 재정과 정보화 기반이 열악한 소그룹에 대해서는 국가가 차별적으로 지원해줄 것’(2개 단체)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둘째 여성단체 주관 하에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20.6%(41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여성단체의 정보화 교육을 주제로 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17개 단체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은 ‘빈곤층·저소득층·저학력층을 대상으로 하는 PC활용교육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13개 단체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사이버 공간활용증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개 단체, ‘연령별로 PC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개 단체로 나타났다.

셋째, 14.6%(29개) 단체에서 “여성운동 자체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운동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운동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보다 활발히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11개 단체로 가장 많았고, ‘on-line과 off-line의 여성운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6개 단체에서 제기되었다. 다음은 ‘주제토론장을 마련하고 배너투표를 실시하며 서명을 받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가능한 운동 형태를 개발하자는 의견이 5개 단체, ‘소모임 운동·동아리 운동·커뮤니티 운동’ 등 여성운동의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4개 단체, 그리고 ‘여성 재산 갖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의견이 3개 단체로 나타났다.

넷째, 20개 단체(10.0%)에서 “여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견해와 제공된 정보는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각 10개 단체가 지적하였다.

다섯째, 17개 단체(8.5%)가 “남녀평등을 위한 의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의식교육의 주제로는 ‘성차별 인식을 제고하는 남녀평등의식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10개 단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4개 단체, ‘정신적 지주·리더쉽 훈련’이 2개 단체 그리고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1개 단체 나왔다.

이 이외에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제안하는 의견이 4.0%(8개 단체), “사이버 여성운동을 전담할 전문 요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3.5%(7개 단체), 여성의식 향상을 위해 “on-line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3.0%(6개 단체), “회원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2.0%(4개 단체), “여성단체의 참여의식 고양”과 “소모임 활동의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각각 3개 단체, “남녀평등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2개 단체이다.

VI



사이버 활용 여성운동 사례 연구 － 홈페이지 분석

-
1.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 활용 및 여성운동 현황 137
 2.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의 홈페이지 현황 및
여성운동 사례 179
 3.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요 현안별 여성운동 사례 206

1.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 활용 및 여성운동 현황

본 연구에서는 여성단체 사이버 공간의 활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여성단체 홈페이지 구성 및 운영현황을 살펴 본 다음, 홈페이지를 활용한 여성운동 현황과 함께 구체적인 홈페이지 활용사례를 살펴보았다.

가. 여성단체 홈페이지 구성 현황

본 조사에서는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구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① 사이트 맵 개설 유무 ② 게시판 개설 유무 ③ 토론실 개설 유무 ④ Q & A 개설 유무 ⑤ 상담실 개설 유무 ⑥ 공개자료실 개설 유무 ⑦ 회원가입 기능 유무 ⑧ 영문지원 여부 ⑨ 검색기능 유무로 나누어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여성단체 홈페이지 구성이 전반적으로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되어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각 메뉴의 형식 및 구조를 살펴보았다.

여성단체의 홈페이지가 메뉴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만으로 반드시 해당 여성단체가 사이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 활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함에 있어서는 우선 홈페이지 구성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홈페이지 상의 9가지 구성 요소가 갖는 특징 및 사이버 여성운동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사이트 맵 개설 유무: 사이트 맵은 홈페이지의 구조를 보여주고 사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며 지도가 된다. 따라서 사이트 맵 개설 유무는 해당 홈페이지의 개요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게시판 개설 유무: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과 의사소통의 성격이 쌍방향적이고 민주적이라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곳이

게시판이라 할 수 있다.

- ③ 토론실 개설 유무: 토론실은 해당 여성단체가 관심을 집중하는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논쟁의 장 및 네티즌의 의견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 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하는 바, 토론실 개설 유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운동의 성격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Q & A 개설 여부: 사용자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 게시판과는 별도로 Q & A가 개설되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⑤ 상담실 개설 유무: 여성단체 홈페이지상에서는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상담실 개설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단, 메뉴상에 상담실 분류가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⑥ 공개자료실 개설 유무: 여성단체의 홈페이지는 단순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끊임없는 정보의 축적을 통해 새로운 정보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단체가 자체내 정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단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 환경에서 해당단체의 자료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성단체의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제공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단체의 정보가 확산되어 새로운 정보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에 여성단체 홈페이지에서의 공개 자료실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 ⑦ 회원 가입 가능 유무: 여성단체의 효율적 운영과 광범위한 회원확보와 이에 따른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회원 가입 및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 사이버 공간에서의 회원모집, 회원관리, 회원간 정보교류 등 회원관리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 ⑧ 영문지원 여부: 전 지구촌이 인터넷을 통해 하나로 묶이게 되면서 영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주요 언어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여성단체활동에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연대활동은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 및 교류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의 영어지원 여부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세계 각국의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볼 것이다.
- ⑨ 검색기능 유무: 홈페이지가 아무리 잘 구성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이 어렵다면 이용빈도가 감소할 것이다. 검색기능은 사용자의 편리함을 배려하는 주요 메뉴로서, 고정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홈페이지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라면 검색기능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단체의 전체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 유무와 상담실 및 자료실 등 특정 메뉴에 대한 검색 기능 유무를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상 9가지 메뉴에 따라 20개 여성단체의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1>과 같다. 우선 모든 여성단체에서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기능은 검색기능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단체의 전체 콘텐츠 검색이 가능한 경우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3단체(15%)에 불과했고, 나머지 단체의 검색 기능은 게시판 검색과 같이 일부 기능에 한정되어 있었다. 다음 게시판과 공개자료실의 경우는 95%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 여성단체 홈페이지 내용 구성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한편 홈페이지 상에 회원가입기능을 갖춘 곳은 11개 단체(55%), 상담실을 운영하는 곳은 10개 단체(50%), 사이트 맵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9개 단체(45%), 영문지원을 하고있는 곳은 7개 단체(35%), 토론실을 운영하는 곳은 3개 단체(15%), 그리고 Q&A를 운영하는 곳은 2개 단체(10%)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1> 여성단체 홈페이지의 구성현황

단위 : 단체수(%)

단체명	구성현황	사이트 맵	게시판	토론실	Q&A	상담실	공개 자료실	회원 가입	영문 지원	검색기능*
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o	o	-	o	o	o	-	o	◎
② 한국여성단체연합	o	o	o	-	-	o	o	o	o	◎
③ 대한YWCA연합회	o	o	-	-	전화상 담안내	o	-	-	-	o
④ 전국주부교실중앙회	o	o	-	-	o	o	off-line 회원가 입안내	-	-	o
⑤ 전국여성노동조합	-	o	-	-	o	o	노조 가입	o	o	o
⑥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	o	-	-	-	o	o	-	-	o
⑦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o	-	-	-	o	-	-	-	o
⑧ 여성중앙회	o	o	-	-	-	o(칼럼)	o	-	-	o
⑨ 한국여성민우회	-	o	o	-	o	o	o	-	-	o
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o	o	-	-	-	o	o	-	-	◎
⑪ 한국성폭력상담소	-	-	-	-	o	o	-	-	-	o
⑫ 한국여성상담센터	-	o	-	-	o	o	-	-	-	o
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o	o	-	-	-	o	off-line 회원 가입	o	o	o
⑭ 서울여성노동조합	-	o	-	o	o	o	o(조합 원안내)	o	o	o
⑮ 한국여성정치연맹	-	o	-	-	-	o	o	-	-	o
⑯ 한국소비자연맹	-	o	-	o	o	o	o	o	o	o
⑰ 김포여성민우회	o	o	-	-	o	o	off-line 회원 가입	-	-	o
⑱ 한국여성재단	o	o	-	-	-	-	o	o	o	o
⑲ 서울 여성의 전화	-	o	-	-	o	o	off-line 회원 가입	o	o	o
⑳ 성남YWCA	o	o	-	-	-	o	o	-	-	o
계		9(45.0)	19(95.0)	3(15.0)	2(10.0)	10(50.0)	19(95.0)	11(55.0)	7(35.0)	20(100.0)

* ◎ : 전체 정보나 기사 검색 o : 상담내용이나 게시판 검색

이상에서 대부분의 여성단체 홈페이지는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고 게시판과 공개 자료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정보 제공 및 상담을 주로 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제외한 모든 단체에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마련을 주목적으로 하는 한국여성재단을 제외한 전 단체에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운영이 사용자들에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 상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능은 회원가입으로 온라인에서의 회원가입 기능을 갖춘 경우가 11개 단체로 나타났고, 오프라인에서의 회원 가입을 안내하는 경우도 6개 단체가 있었다. 한편 양방향 소통의 상담실 기능을 갖춘 경우가 10개 단체로 나타나 Q & A 기능보다는 사이버 상담실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상담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사이버 상담실 운영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용자의 편의를 보다 충실히 배려하는 사이트 맵 기능이나 세계화의 흐름에 적극 부응하는 영어 지원 메뉴의 경우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단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대에서 우리의 단체를 홍보하는 일과 세계 각국과의 연대활동을 통한 여성운동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 홈페이지의 영문지원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영문 지원 기능 마련이 어렵다면, 단체간 연대를 통한 해결 방안이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덧붙여 토론실 및 Q & A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가 극히 희소함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들 기능은 사이버 여성운동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 기능을 갖춘 단체 홈페이지가 각각 3개 및 2개 단체에 불과함은 여성단체 사이버운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지표라 생각된다. 향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양적 활성화 및 질적 제고의 관건은 토론실 및 Q & A 기능의 확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두 기능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

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나. 여성단체 홈페이지 운영현황

본 연구에서는 여성단체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여성단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운영과 관련해서 신뢰성, 전문성, 홍보성을 살펴보았다(<표 IV-2> 참조).

홈페이지의 신뢰성이란 홈페이지 상에서 구체적인 단체의 조직구성과 기능,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담당자의 직책과 이름을 찾을 수 있는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업무를 계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 및 통계가 충실히 갖춰져 있으며 출처가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의미한다. 전문성이란 각 단체 특성에 맞는 콘텐츠가 확보되고 있는지, 더불어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의미하며, 홍보성이란 해당 단체의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새로운 소식을 알릴 때 뉴, 핫 등의 아이콘을 활용하여 단체가 당면한 현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지, 단체 발행 소식지가 있을 경우 이를 온라인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단체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살펴봄에 있어, 신뢰성 요인은 단체를 공개하고 있는지 더불어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으며, 전문성 요인은 단체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나아가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았고, 홍보성요인은 새로운 소식이 눈에 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운영현황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았다.

20개 여성단체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신뢰성의 경우 단체 공개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여성단체가 모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16개 단체(80%)에서 신뢰할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여성재단은 자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성남 YWCA는 자료실의 사진자료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한국여성상담센터는 자료실에 off-line 판매를 위한 지침서 요약만을 소개하고 있고, 한국여성중앙회는 자

<표 VI-2> 여성단체 홈페이지의 운영현황

단위: 단체수(%)

단체명	운영현황	단체공개	자료실의 신뢰성	단체특성 반영	독창적 컨텐츠	홍보성	정보의 형태
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o	o	o	o	-	단체제공자료, 사진자료등
② 한국여성단체연합		o	o	o	o	-	혼합(기사, 모니터 보고서등)
③ 대한YWCA연합회		o	o	o	o	new	선언문, 상담원 교육, 포럼자료등
④ 전국주부교실중앙회		o	o	o	o	hot news	월간지, 상담관련자료
⑤ 전국여성노동조합		o	o	o	o	hot news	사례안내, 지부소식, 외국노조
⑥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o	o	o	o	news	성명서
⑦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o	o	o	o	-	신문기사, 연구 보고서, 슬라이드
⑧ 여성중앙회		o	-	o	o	-	기사, 컬럼, 그림해석등
⑨ 한국여성민우회		o	o	o	o	-	판결문, 기자회견문, 성명서, 모니터, 보고서, 프로그램등
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o	o	o	o	-	세미나, 모니터링 자료
⑪ 한국성폭력상담소		o	o	o	o	news	단체제공자료
⑫ 한국여성상담센터		o	-	o	o	palm up	상담, 프로그램 안내
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o	o	o	o	-	컬럼
⑭ 서울여성노동조합		o	o	o	o	-	법률자료, 성명서, 교육자료등
⑮ 한국여성정치연맹		o	o	o	o	-	웹진내용
⑯ 한국소비자연맹		o	o	o	o	new	소비자 관련법률, 뉴스 등
⑰ 김포여성민우회		o	o	o	o	-	상담사례
⑱ 한국여성재단		o	-	o	o	new	기부캠페인/기사
⑲ 서울여성의 전화		o	o	o	o	-	통계자료, 소식지
⑳ 성남 YWCA		o	-	o	o	-	사진자료
합 계		20(100.0)	16(80.0)	20(100.0)	20(100.0)	8(40.0)	-

* 정보형태를 제외한 5가지 요인의 합계

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형태로 정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더욱 다양한 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이용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둘째, 전문성의 경우 단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와 독창적인 콘텐츠로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가를 본 결과 모든 여성단체가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홍보성의 경우는 다소 미흡하여 새로운 소식을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상에 배려하고 있는 단체는 20개 중 8개 단체(40%)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단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의 사업을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효과를 내기 위한 기술적인 활용 능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단순한 홍보보다는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홍보방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여성단체 홈페이지는 각 단체의 성격을 충실히 반영한 정보와 다른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여성단체의 특성상 유사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많으나, 여성운동에서의 연대활동 참여를 고려한다면 다소의 중복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여성단체의 홈페이지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이버 공간 활용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높은 관심과 노력의 결과임은 물론, 향후 활발한 사이버 여성운동을 기대할 수 있는 지표라 하겠다.

다. 여성단체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여성운동 현황

여성단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여성운동의 내용을 분류한 결과 성차별 개선운동 및 교육, 법제도 개선운동,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 그리고 사이버 상담실 활동 등의 5가지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체별로 홈페이지를 활용한 여성운동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VI-3>과 같다.

<표 VI-3>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여성운동 현황

단위: 단체수(%)

단체명	여성운동현황	성차별개선 운동 및 교육	법제도개선 운동	경제적지위 개선운동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	상담실 운영	비고
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0	0	0	0	0	성명서를 통한 여성운동지원
② 한국여성단체연합		0	0	0	0	-	효율적인 자료실 이용
③ 대한YWCA연합회		-	-	0	0	off-line 상담실만 안내	-
④ 전국주부교실중앙회		0	-	0	-	0	-
⑤ 전국여성노동조합		0	0	0	-	0	직장내의 여성인권문제
⑥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0	-	0	0	-	-
⑦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0	0	0	0	-	여성농민을 위한 사이트
⑧ 여성중앙회		0	-	0	-	-	-
⑨ 한국여성민우회		0	0	0	0	0	환경문제에 관심 : 여성환경센터와 생협 사이트 운영.
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0	-	-	0	-	여성정치연대*
⑪ 한국성폭력상담소		0	-	-	-	0	성폭력 중심 자료제공과 상담
⑫ 한국여성상담센터		0	-	-	-	0	상담사이트
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	-	0	-	여성정치세력화
⑭ 서울여성노동조합		0	0	0	-	0	여성노동조합페이 지/가상법정사이 트 분리 운영
⑮ 한국여성정치연맹		-	-	-	0	-	-
⑯ 한국소비자연맹		-	-	-	-	0	소비자 문제 관련 사이트
⑰ 김포 여성민우회		0	0	-	-	0	-
⑱ 한국여성재단		딸들의 현주소에서 여성관련 뉴스/여성계소식 제공				-	재단기금 모금 사이트
⑲ 서울여성의 전화		0	0	0	-	0	가정폭력, 성폭력 중심 상담
⑳ 성남 YWCA		-	-	0	0	소비자 관련법규 /자료	사회문제부 운영
계		15(75.0)	9(45.0)	13(65.0)	11(55.0)	10(50.0)	-

*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각 단체별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므로 여기서는 전반적인 경향만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여성단체 홈페이지 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운동 가운데는 성차별 개선운동 및 교육이 가장 빈도가 높아서 전체 20개 단체 중 15개 단체(75.0%)가 참여하고 있다. 성차별 개선운동 및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 이외에도 성명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에 13개 단체(65.0%)가 참여하고 있는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은 11개 단체(55.0%), 상담실운영은 10개 단체(50.0%), 법제도 개선운동은 9개 단체(45.0%)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여성단체별 여성운동현황을 보면, 연합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이 여성운동에 활발히 관여하고 있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및 한국여성민우회가 모든 영역에서 여성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의 전화가 4개 영역에서 여성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한국여성정치연구소나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소비자연맹 등에서는 각기 단체의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정치영역과 소비자 상담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서울여성노동조합, 대한YWCA연합회, 성남YWCA, 한국여성중앙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과 같은 경우도 단체의 성향이 분명히 드러나는 소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사이버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논함에 있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여성단체의 특성과 운동의 지향점, 운동의 성과 등 보다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라.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활용 사례

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iwomen.or.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후 여협) 홈페이지 메뉴는 상위메뉴로 Home, 여협 소개, 월간여성, 상담실, 성명서/건의문, 자료실, 게시판, 관련사이트가 있으며 좌측 메뉴에 올해의 핵심사업, 회원단체마당, 여성의 눈으로, 후원자를 모십니다,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혼합되어 있다.



<그림 VI-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홈페이지

여협 홈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운동관련 내용을 보면 여성관련 뉴스를 제공하는 ‘주요 뉴스’ 외에 여협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성명서 발표’와 다양한 유형의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상담실’이 있다. 게시판 서비스를 통한 성차별 개선운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루어진 ‘주요 뉴스’는 모두 55건인데, 뉴스에서는 다양한 조사, 청문회 결과, 논평 등을 통해서 다양한 여성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협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2002년 1월 이후부터 8월 31일까지 발표된 16건의 성명서 중 여성운동과 관련된 12

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야 비례대표 30% 할당에 관한 논평 1건, 군산 개북동 유홍업소 화재사건에 관한 논평 1건, 제주 우지사 성추행에 관한 논평 1건, 사내부부해고무효판결에 관한 논평 1건, 국회법 개정에 관한 논평 1건, 성차별적 주택공급에 관한 논평 1건, 여군학교폐지에 관한 논평 1건, 지방선거에 관한 논평 2건, 장상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논평 2건, 장대환 신임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논평 1건 등이 있다.

‘상담실’ 메뉴를 통해서는 고용평등상담실, 사이버 성폭력상담실(<http://www.wmonitor.or.kr/> 사이버 성폭력 신고센터로 연결), 호주제 피해 상담실 (<http://www.tal-hoju.or.kr/>탈호주제 대안사회운동으로 연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용평등상담실이 가장 활발한 상담활동을 보이고 있다.

여협 게시판은 ‘이러쿵 저러쿵’, ‘이슈 토론방’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슈 토론방’의 경우 특정 이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특정 이슈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어 두 게시판의 기능이 차별화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시된 글의 수는 ‘이슈 토론방’의 경우 2002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456개이며 ‘이러쿵 저러쿵’은 1,850개로서 ‘이러쿵저러쿵’에 더 많은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이용자들이 부담없이 쉽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연합(이후 여연)의 홈페이지 이름은 ‘한국여성단체연합뉴스 매거진’으로 실제 구성 역시 단체의 홈페이지 기능과 매거진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상위 메뉴에서는 매거진의 기능(경제·복지/인권/정치세력화/문화·미디어/평화·국제/정책·운동동향)을 그리고 왼편의 메뉴는 주로 단체 활동과 관련된 메뉴(여성연합은 지금 -성명서/건의문/보도자료/여성연합 캘린더/회원단체 행사/참여마당 - 나눔마당: 회원전용, 열린마당/토론실/여성운동 자료실- 여성정책 자료실/여성연합 간행물/사진 자료실/신문속 여성 기사/종합 자료실)를 담고 있다. 더불어 간단하지만 영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VI-2>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전반적으로 여연 홈페이지는 단체의 정보제공, 각종 관련 성명서 발표 등 자료실의 운영과 다양한 여성운동 관련 정보 제공의 기능을 하고 있다. 매거진의 기능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새로운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편리한 구조이며 각 메뉴에서는 관련 신문기사나 정책자료들을 함께 제시해주고 있어 이용자들이 관심있는 정보를 찾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매거진의 메뉴를 보았을 때 작은 분류로 나타나는 메뉴들(경제·복지의 경우 경제·복지 일반/노동/복지·보건/가족/농민의 하위메뉴 표시)은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분류로서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시점에서 개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게시판은 토론실, 나눔터(회원전용), 열림터 3종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2002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열림터에 게재된 글은 2,423건으로 나눔터에 게재된 150건에 비해 16배정도 많은 편이다. 이는 열림터의 경우 비회원의 참여가 가능하나 나눔터의 경우는 가입회원에게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토론실의 경우는 아직까지 활용 정도가 미진한 수준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토론이 이루어진 이슈는 <여성할당제, 잠정적 우대조치인가? 역차별인가?>를 주제로 2001년 12월 28일부터 2002년 2월 16일까지 1개월 반 동안 토론실에 글을 올린 사람의 수는 5-7명 정도에 불과했고, 조회수는 473회로 기록되어 있다.

여연 홈페이지에서의 여성운동은 각 메뉴와 관련하여 찾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의 경우는 경제·복지란 메뉴(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찾기 등, 최저 임금보장)에서,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의 경우는 정치 세력화 메뉴(최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평가와 과제 토론회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성명서에서는 여성운동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2년 1월 이후 8월 15일까지 발표된 성명서 56건 중에서 여성운동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군산 매매춘 지역 화재사건 관련 성명서 총 8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 관련 성명서 5건, 제주도 우지사 성추행 사건 관련 성명서 5건, 한미 정상회담 관련 성명서 3건, 보육사업 관련 성명서 3건, 미군 퀘도차량에 압사 당한 여중생사망사건 관련 성명서 2건, 산재보험, 남녀평등, 사내부부 해고 무효소송, 남북여성통일대회, 세계 여성의 날 관련, 노동시간단축, 주 5일제 근무, 성 매매 방지법 관련 성명서가 각각 1건 씩이었다.

3) 대한YWCA연합회 <http://www.ywca.or.kr>

대한YWCA연합회 홈페이지 메뉴는 회원YWCA, 부속시설, YWCA 은학의 집, 상담실, 도우미, 자유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뉴는 주로 전반적인 YWCA의 사업이나 관련단체 등을 안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회원YWCA]는 경기, 북부, 동부, 서부, 중부지역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회원YWCA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부속시설]은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등에서 하는 일과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YWCA 은학의 집]은 YWCA에서 실시하는 노인복지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상담실]에서는 가정문제 상담, 소비자 상담, 청소년 상담, 취업상담, 성폭력 상담, 기타 문의로 구성되어 오프라인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전

화번호를 안내해 주고 있다. 영문지원은 되지 않으나 사이트 맵과 자료실 게시판 등을 갖추고 있다.



<그림 VI-3> 대한YWCA 연합회 홈페이지

여성관련 콘텐츠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경제적 지위 개선과 세계 평화와 여성연대자료제공을 통한 정치적 지위개선 노력을 엿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4) 전국주부교실중앙회 <http://www.nchc.or.kr/>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홈페이지 주요 메뉴는 단체소개, 주요사업, 주부대학, 월간주부교실, 소비자상담실(소비자 관련규정/ 주요 고발 사례, 소비자 고발센터/ 소비자 상담관), 일하는 여성의 집, 게시판, 추천사이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인 홈페이지 구성에 주로 소비자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 관련 활동이 주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영문지원은 되지 않으나 사이트 맵은 제시되어 있고 소비자 문제와 관련된 상담실 및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실의 경우 『월간 주부교실』의 내용을 과월호를 포함하여 열람



<그림 VI-4> 전국주부교실중양회 홈페이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회원가입]은 단체의 회원가입을 안내하는 것이며 검색기능이나 토론실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상담실]의 경우 소비자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데 상담을 의뢰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체의 실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이트에 나타난 여성운동 내용은 주로 월간주부교실을 통한 여성의 인권의식교육과 함께, 일하는 여성의 집 메뉴를 통한 여성인력개발사업을 안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소비자 상담의 경우 단순 상담뿐 아니라 관련규정을 안내하고 필요한 파일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사례 등을 자세히 제시한 점이 소비자로서의 여성 의식고양에 긍정적 기능을 하리라 판단된다.

5)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www.kwunion.jinbo.net/>

전국여성노동조합의 홈페이지 메뉴 [전국여성노조]는 일정, Hot News, 상담실, 자료실, 가입안내, 노보, 만화, 상담사례, 투쟁사례, 게시판, 비정규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는 전반적으로 실제 사례중심의 컬

럼이 많이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고, 특히 만화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독특하며 간단한 영문사이트가 지원되고 있다.



<그림 VI-5> 전국여성노동조합 홈페이지

전국여성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여성운동관련 부분은 주로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에 집중되어 있다. [비정규직 권리 찾기 운동본부]가 하나의 게시판으로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 8월 15일 기준으로 3건의 글(‘우리시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현주소’ ‘내 권리 이렇게 찾았어요2 사례집 발간’,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에 관한 건의문’, ‘방송사 구성작가 등의 근로자성관련 여성계 의견서’)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상담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상담사례와 투쟁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례들의 경우 2002년 이후의 것은 없어서 최근의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또한 최신의 뉴스를 전하는 Hot News 역시 2002년 이후 17건의 노조관련 뉴스가 있으나 8월 15일 기준으로 7월 12일 이후 새로이 등록된 내용은 없었다. 별도의 토론실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담실 사이트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회원들의 의사소통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홈페이지 메뉴는 단체 소개, 중점사업, 후원신청, 지부마당, 자유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점사업으로 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폭력가정내 성학대, 성매매, 지역여성운동, 여성의 정치의식향상으로 자세히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뿐이다. [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의 경우에는 실태조사, 토론회, 사례조사, 캠페인뿐 아니라 Q & A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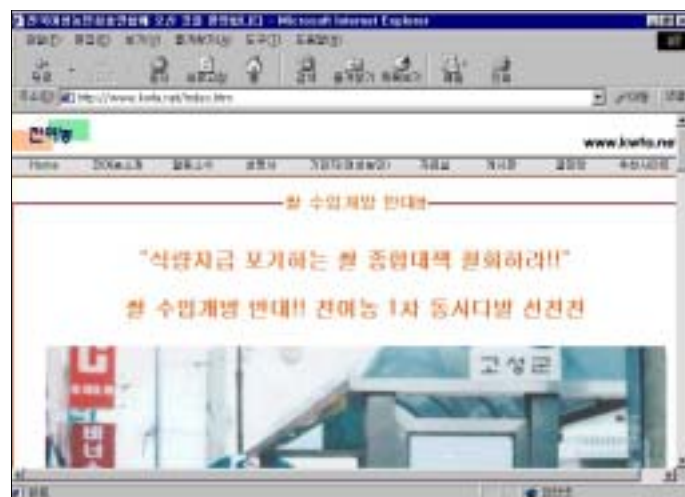
<그림 VI-6>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홈페이지

자료실과 간행물은 독자적인 메뉴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료실의 경우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반면 간행물 메뉴에서는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토론회의 경우 상당히 진지한 내용의 글이 올려져있지만 주로 토론회보다는 각 상황에 대한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게시판의 경우에는 여성의 전화에서 알리는 글의 내용과 함께 사이트의 성격과 전혀 상관없는 광고성의 글도 다수 게재되어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운동 관련 콘텐츠는 앞서의 [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뿐 아니라 [성명서] 메뉴를 통한 입장 발표 및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성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처음 글이 등록된 2002년 6월 8일 이후 등록된 테스트를 제외한 12개의 성명서는 각기 담임교사에 의한 제자 성폭력사건 1건, 한국 시그네틱스 노사문제 관련 3건, 효성용역경비에 의한 성폭행사건 1건, ‘함께 여는 e-세상’ 네티즌 릴레이 1건,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내용 1건,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사건’에 대한 성명서 1건, 최초 여성총리 지명에 관한 내용 2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해사건 관련 성명 1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당방위 사건 1건 등이다.

7)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http://www.kwfa.net>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 홈페이지 메뉴는 Home, 전여농 소개, 활동소식, 성명서, 기관지(여성농민), 자료실, 자유게시판, 글마당, 추천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전여농의 설립목적, 주요연혁, 주요활동, 역대임원을 소개하고 있는 전여농 소개와 추천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단일 게시판 형식으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깔끔한 구조로 이용자의 입장



<그림 VI-7>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홈페이지

에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관지 여성농민의 경우 메뉴는 소개되어 있는데 비해 실질적인 콘텐츠는 제공되는 바가 없었고, 영문지원이나 사이트 맵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게시판 부분은 글마당과 자유게시판 2종류로 운영되며, 글마당은 특정한 글을 올리면 네티즌이 이에 관련된 의견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방식의 의견교환보다는 마음을 터놓는 글이나 알림을 위한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자유게시판은 공고문이나 신문기사 책자 안내 등 다양한 글이 게시되어 있으며 광고성 글은 거의 없는 편이다. 전여농의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는 성명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2002년 2월 5일부터 8월 2일까지 게재된 총 9개 중에서 군산화재참사 성명서 1건,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에 따른 성명서 1건, 미군 장갑차에 의해 숨진 두 여중생에 관한 성명서 1건, 농업정책에 관련된 내용 5건, 기타가 1건이었다.

8) 한국여성중앙회 <http://www.jw21.org/>

한국여성중앙회(이하 여성중앙회) 홈페이지 메뉴는 우리소개(인사말, 걸어온 발자취, 찾아오시는 길, 각 지부 소개, 역대회장 연혁, 여성중앙앨범) 주요사업(여성복지증진사업, 영유아 보육사업, 여성인권향상사업, 생활, 환경운동, 부설기관), 인력개발(성북여성인력개발센터, 울산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소개, 구인구직등록방법), 키즈키즈(아이들천국, 미술교실, 중앙어린이집, 육아교실, 보육센터 현황, 애니메이션, E-카드, 게임), 나눔터(Net-women, women in world, 법과 여성, 생활 속의 삽화, 유영주의 패션제안, 이두영 선생님의 디지털 미술, 링크 사이트), 알뜰장터(아나바다장터, 내고향 특산물, 주부손 장터), 후원회원, 동영상강좌(전통의상강좌),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시판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중앙회의 홈페이지는 매우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주요사업이나 인력개발에서는 사업이나 관련 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며 키즈키즈에서는 교육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아이들의 그림에 대한 해석까지 구할 수 있다. 또한 나눔터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고 장터가 개설된 점도 독특한 점이다. 다른 여성단체 홈페이지와 달리 동



<그림 VI-8> 한국여성중앙회 홈페이지

영상 강좌가 가능하다는 것도 특기할만한 점이다. 전반적으로 여성중앙회에 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나 나눔터의 내용, 동영상강좌까지 고려한다면 홈페이지에서 여성교육기능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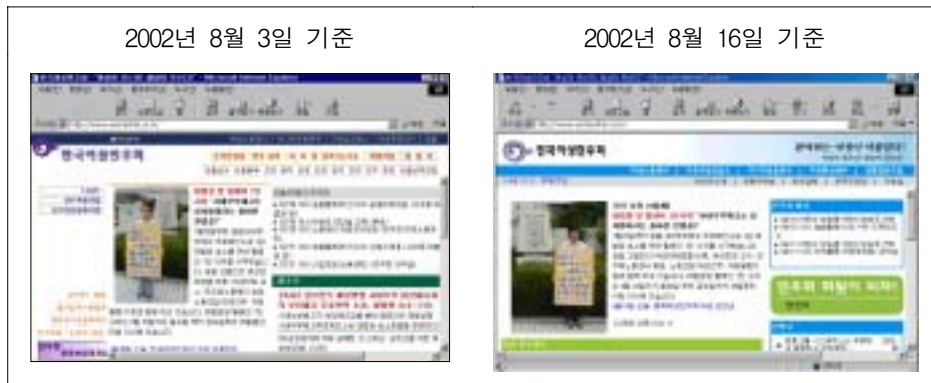
여성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여성운동은 주로 성차별개선운동 및 교육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거나 여성인권사업에 대한 소개 등을 통해서 성차별 개선운동 및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이외에도 인력개발사업을 통한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한국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 홈페이지는 8월 중반에 개편이 이루어졌고, 본 연구의 조사 또한 8월 16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편 이전과 이후의 홈페이지를 함께 분석하였다.

민우회 홈페이지의 상위메뉴에는 여성노동센터, 미디어운동본부, 가족성상담소, 여성환경센터, 생협이 메뉴가 있어 직접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 상담, 민우 달력, 자료실, 함께 가는 여성, 회원마당, 열림터의 자체 메뉴가 마련되어 있으며 다시 11개 지역별 홈페이지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좌측메뉴로는 웃어라 명절, 즐거운 게시판 문화, 한 부모 가족 홈페이지, 걷기 대회, 웃어라 여성이 있으며 좌측 위편에 회원가입, 온라인 공동체가입, 로그인 메뉴가 자리잡고 있다. 영문지원 메뉴는 있지만 실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각 메뉴의 구조가 동일하지 않아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와 직접 콘텐츠를 제시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었다.



<그림 VI-9>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민우회의 게시판 문화는 독특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즐거운 게시판 문화’라는 메뉴를 독립시킴으로써 다양한 게시판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곧 ‘네티즌의 즐거운 게시판 문화 만들기’ 메뉴가 하나의 독립된 사이트를 구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각각의 하위메뉴로 게시판 여론문화 사이버 활동가 포럼(회원만 이용가능), 여기 방문해보세요, 토론방, Net-Poll, 사이버 캠페인 등의 메뉴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활동은 의도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토론방의 경우 의제는 비교적 활발히 올라오는 편이나(2002년 5월을 기준으로 11건의 의제가 올라왔음) 실제로 이에 대한 반응이 있었던 경우는 한 건에 불과했다. 또한 투표제의

경우도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너무 저조해서 실제로 이 결과를 토대로 여론 수렴 기능을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우회 홈페이지의 가장 큰 특징은 다원화된 게시판이 운영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인 바와 같이 즐거운 게시판 문화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을 하는 동시에 한부모나 명절 등 특정한 주제에 대해 다시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그 안에서 게시판이나 토론실을 운영하고 있다. 관심 영역이 분명한 이용자라면 관련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시판 참여율은 저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2002년 8월 16일 조사시점의 여성민우회 홈페이지는 개편작업을 거쳐 앞서 지적인 영문지원 메뉴를 정비하였으며 상위메뉴는 다른 사이트와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게시판 문화를 비롯한 게시판 연결메뉴들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앞선 구조에 비해 정돈된 형태로 다른 연결 사이트와 각 지역별 민우회간의 연결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히 민우회 홈페이지는 자료실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자료실은 노동, 환경, 지역과 생활정치, 생활협동조합, 성(Sexuality), 가족, 상담, 미디어, 정보통신, 기타, 정기간행물, 교육프로그램, 성명서 등이 구비되어 있다.

민우회에서 발표된 성명서를 보면 2002년 1월 이후 8월 15일까지 발표된 36개 성명서 중 생명공학 및 생명윤리법 제정 관련 8건, 씨그네틱스 부당해고 관련 7건, 알리안츠 제일생명·농협등 사내부부 부당해고 관련 6건, 경희의료원 여성조합원폭력사태 1건, 성폭력추방운동역고소 공동대책 1건, 제왕절개 분만증가 관련 1건, 죽암휴게소 성희롱 관련 자료 1건, 성차별적 뉴스보도에 관한 자료 1건, 정자난자 매매금지 및 대리모 관련 1건, 최저임금현실화 촉구 관련 2건, 제 3차 남녀고용평등계획 관련 1건,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사건 관련 2건, 기타 등이다. 이중 민우회의 성명서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생명공학 및 생명윤리에 관한 성명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10) 한국여성유권자연맹 <http://www.womenvoters.or.kr/>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홈페이지 메뉴는 단체소개, 연맹뉴스, 여성의 소리, 지부공간, 포토갤러리, 관련단체 링크, 연맹달력, 공지사항, 인터넷 평등세상, 설문조사, 여성유권자 관련뉴스, 소식지(계간지), 여성정치인DB, 홈페이지 만들기, 자료실, 채팅방, 쪽지 보내기, E-card, 회원가입, 후원하시려면, 자원봉사 신청하기, 자유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이트에서는 사용자들을 위한 배려가 충분함을 엿볼 수 있으며, 채팅이라든가 쪽지 보내기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이 사이트는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토론방이나 상담실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10>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홈페이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펼치는 여성운동으로는 ‘인터넷 평등세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지위 개선관련 운동이 가장 중점적인 내용으로 나타났고, 여성유권자 관련 뉴스를 통해 여성정치와 밀접히 연관된 내용을 알려주고 있고, 여성정치인 DB도 한국여성유권자연맹만의 독

특한 정보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 메뉴에서도 관심영역을 반영하고 있는 바 일례로 2002년 8월 13일을 기준으로 그동안 설문조사는 7개 문항에 응답자는 635명으로 나타났다.²⁾

또한 ‘여성의 소리’에서는 한국유권자연맹에서 성명서를 통해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2002년 1월 이후부터 8월 2일까지 발표된 성명서 내용을 보면, 11건의 성명서 중에서 여성총리 관련 내용 2건, 제주도 지사 성추행사건 1건, 여성유권자 헌장 1건, 여성유권자 결의문 1건, 정당법 및 개정법안에 관한 입장 1건, 나머지는 공천이나 선거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다.

11)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메뉴를 보면, 홈으로, 상담소 소개, 자료와 강사, 계간 나눔터, 성폭력 필수정보(성폭력이란/잘못된 통념/피해자 권리/피해 후유증/대응방법/도움기관/법률정보/성폭력관련기사), 유형별 성폭력(어린이/친족/직장내/대학내/데이트/사이버), 다시 보는 성, 이런 생각, 상담게시판, 이웃 사이트, 토론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뉴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부분 ‘성폭력상담소’라는 사이트의 정체성에 맞도록 성폭력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영문지원이나 사이트 맵은 없고 토론 게시판 등도 메뉴는 있지만 아직 내용은 없다.

2)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설문조사 현황 (2002. 8. 13 기준)

설문제목	답변수
총리 인준안 부결에 관하여	64건
최초여성총리	99건
여성주간을 아시나요	24건
월드컵 우승여부	95건
세계인의 축제 2002 월드컵	172건
국민경선제에 대하여	67건
올해 대권선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114건



<그림 VI-11>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서는 주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들 자료는 질문과 답변 형식부터 직접 상담을 받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적어도 성폭력에 관한 한 다른 사이트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상담통계분석(2002년 8월 16일의 경우 2002년 상반기 상담통계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폭력상담 게시판의 경우 2002년 2월 14일에 등록된 이후 2002년 8월 17일까지 1,105의 글(답변 포함)이 게시되어 있어 활발한 이용현황을 보인다.

12) 한국여성상담센터 <http://www.iffeminist.or.kr/>

한국여성상담센터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는 센터 소개, 전문인력 소개, 상담실 안내, 가해자 상담 안내, 프로그램, 지침서/자료집, 관련 상담실, 후원 자원봉사로 구성되어 있어 상담에 주력하고 있는 홈페이지임을 알 수 있다. 자료실은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자료집의 내용을 설명하는 수준으로서 자료집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내용을 검토하는 선에서 도움이 되도록 되어 있다. 사이트 맵이나 영문지원, 토론실의 운영은 없고 단순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VI-12> 한국여성상담센터 홈페이지

여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여성운동은 주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에 집중되어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직접적인 상담실 이용에 앞서 Q & A형식으로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상담실의 경우 8월 13일 기준으로 1,093건의 글이 게재되어 있어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상담 요청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이용자가 불만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도 올라와 있다. 한국여성상담센터 홈페이지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다른 단체와 달리 가해자 상담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성폭력 상담뿐만 아니라 성폭력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상담과 더불어 예방과 교육에까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13) 한국여성정치연구소 <http://www.feminet.or.kr/>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홈페이지는 전반적으로 한국여성정치연구소를 홍보하는 기능에 충실한 편이다. 메뉴를 보면 단체소개, 자료실, 대화마당, 여성칼럼, 회원가입, 행사안내, 링크 사이트, 공지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문

으로 된 사이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사이트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링크시켜 놓고 있다.



<그림 VI-13>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홈페이지

여성운동 관련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여성칼럼’을 보면 2002년 1월 이후 게재된 글에서 ‘6.13지방선거의 여성참여 현황’, ‘여성총리시대 열린다’, ‘월드컵과 여성과워’ ‘도덕성에 무너진 첫 여성총리’ 등으로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대화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게시판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방명록의 기능에 더 가깝고 여성정치와 직접 관련된 내용보다는 다녀가는 사람들이나 주제와는 상관없는 상업적 문구가 빈번하게 올라와 있는 편이다. 따라서 페미넷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게시판이나 토론실을 활발하게 운영함으로써 이를 통해 여성정치의식을 고양시키고 정치에 대한 여성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14) 서울여성노동조합 <http://www.womencourt.or.kr>

서울여성노동조합의 홈페이지는 다양한 메뉴-노조소개, 바로 지금, 온라인

상담실, 만든 책들, 자료창고, 함께 하세요, 열린 게시판-로 사용자들의 편리한 이용을 돕고 있다. 우선 영문지원이 가능하며 게시판이나 공개자료실의 경우도 원활히 운영하고 있는 편이다. 또한 첫 화면에 이용이 많은 공지사항과 온라인상담실, 뉴스, 자료창고를 배치하였으며, 상담실 역시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편지상담 그리고 공개상담을 분리하여 이용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게시판 역시 여성노조 뉴스나 공지사항 등을 전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체 성격을 충실히 전달하는 내용이 다수 제공되고 있다. 자료실 또한 여성노동법률, 여성노동정책, 여성노동문헌, 여성노동통계, 성명서 등 기타 관련 자료로 나누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체에서 제작한 책에 대한 안내도 상세히 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VI-14> 서울여성노동조합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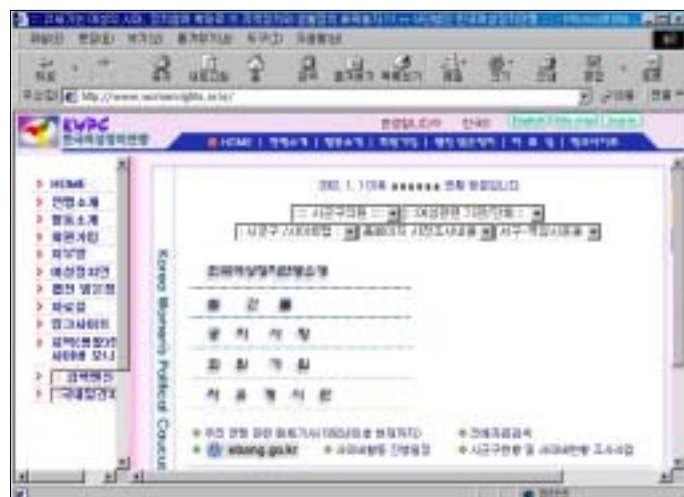
서울여성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여성운동분야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이에 연관된 여성노동정책 및 여성인권보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상담실에서는 부당 해고를 위시하여 임금 및 승진에서의 차별,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이후의 여

성노조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정기총회나 특강, 집회 안내뿐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예방 매뉴얼, 사이버 성폭력, 여성대회 안내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여성노조의 관심이 전반적인 여성운동 영역에 걸쳐 폭넓게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한국여성정치연맹 <http://www.womenrights.or.kr/>

한국여성정치연맹 홈페이지는 완성된 사이트라기보다 구축 중에 있어, 게시판과 사이트 맵은 갖추어져 있지만 자료실, 상담실, 토론실 기능은 현재 준비중에 있다. 단체 소개는 비교적 잘 되어 있어 단체의 성격을 알리는 역할은 충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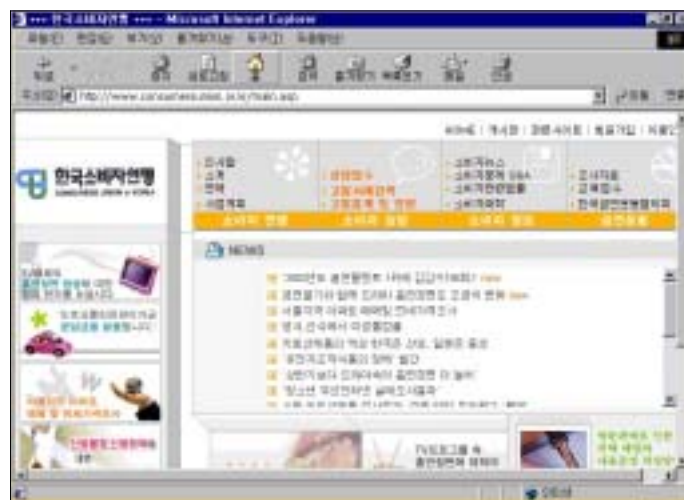
한국여성정치연맹 사이트의 여성운동은 주로 웹진 밝은 정치에서 제공하는 여성의 정치적 지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밝은 정치의 경우 1997년 1월의 9호부터 1999년 4월의 16호까지 내용 열람이 가능하며, 주로 여성정치인 소개나 지방선거결과, 여성관련 정책, 여성의 정치 세력화 등 여성의 정치적 지위향상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자료실이 전체적으로 완성되면 체계적인 정보 소스로 활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VI-15> 한국여성정치연맹 홈페이지

16) 한국소비자연맹 <http://www.consumersunion.or.kr>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 메뉴는 소비자 연맹, 소비자 상담, 소비자 정보, 금연운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상담]에서 상담접수, 고발사례 검색, 고발통계 및 경향을 찾을 수 있고, [소비자 정보]에서는 소비자 뉴스, 소비자 문제 Q & A, 소비자 관련법률, 소비자 대학을 찾을 수 있으며, [금연운동]에서는 조사자료, 교육접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홈페이지로의 연결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 보호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역시 단체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영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의 편리성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다만 방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로 사이트 맵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림 VI-16>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연맹의 홈페이지를 통한 주력 사업은 소비자보호 관련사업이기에, 여성이 소비를 주도하는 소비자 운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여성운동과 직접 관련된 콘텐츠를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

비자 상담과 관련된 게시판 이용은 매우 활발한 편으로 상담사례 검색 기능도 갖추고 있다. 단지 게시판 이용과 소비자 상담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은 앞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17) 김포여성민우회 <http://www.kpwomen.org>

김포여성민우회 홈페이지 메뉴는 소개 및 활동안내, 상담안내, 회원안내,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게시판, 청소년 성상담실, 게시판, 금물결 여성소식지, 연계기관, 찾아오시는 길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다양한 상담방법, 게시판을 통한 청소년 상담실과 성폭력, 가정폭력관련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영문지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대신 사이트 맵을 통해 홈페이지 전체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상담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림 VI-17> 김포여성민우회 홈페이지

김포여성민우회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여성운동은 주로 성폭력, 가정폭력에 연관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곧 김포여성민우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성교육 및 딸 캠프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소식지인

‘금물결 여성’을 통해 다양한 여성계 관련 소식을 안내하는 동시에 여성인권 보호와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나아가 호주제 폐지 게시판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001년 8월 18일에 2개의 글이 올라와 있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김포여성민우회의 호주제 폐지 활동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포여성민우회 홈페이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상담게시판으로 이는 다시 상담게시판과 청소년 성 상담실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상담게시판의 경우 2002년 8월 15일 기준으로 답변을 포함해서 50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답변은 대체로 당일 아니면 적어도 2-3일을 넘기지 않고 이루어져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청소년 성 상담실의 경우 157개의 글이 올라와 있어 청소년들의 성에 관한 고민과 관심이 높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18) 한국여성재단 <http://www.womenfund.or.kr/>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의 상위 메뉴는 한국여성재단소개, 건강한 기부문화, 기부합시다, 나눔 장터, 이벤트, 딸들의 소리로 구성되어 있고, 우측에는 기부금 관리와 연관하여 이렇게 쓰여집니다, 기부자의 전당, 회원가입, 희망



<그림 VI-18>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의 세상이 열립니다, 나도 쏜다 희망으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위메뉴는 주로 기부문화나 기부금조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우측 메뉴는 직접적인 기부금관리나 다양한 기부형식에 관한 구체적 방법이 명시된 메뉴들로 되어 있다. 또한 영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이트 맵도 갖추어져 있다. 한국여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단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홈페이지 구성에 전반적으로 분명히 반영되어 있는 한편, 다양한 기금모금방식 이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메뉴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게시판 운영은 특징적으로 여성계 전반적인 소식을 알리는 [여성계소식], 한 사람의 어머니와 딸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나 이렇게 살아요], 여성재단 자유게시판에 해당되는 [여성재단에 바란다] 3개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여성계소식]의 경우 2001년 12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해서 2002년 8월 13일까지 모두 71개의 소식이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되는 [나 이렇게 살아요]의 경우 2001년 12월 29일 최초의 글이 올라온 이후 8월 13일 기준으로 149개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여성재단에 바란다]는 2002년 1월 이후 40개의 글이 올라와 있어 다른 게시판에 비해서는 이용이 저조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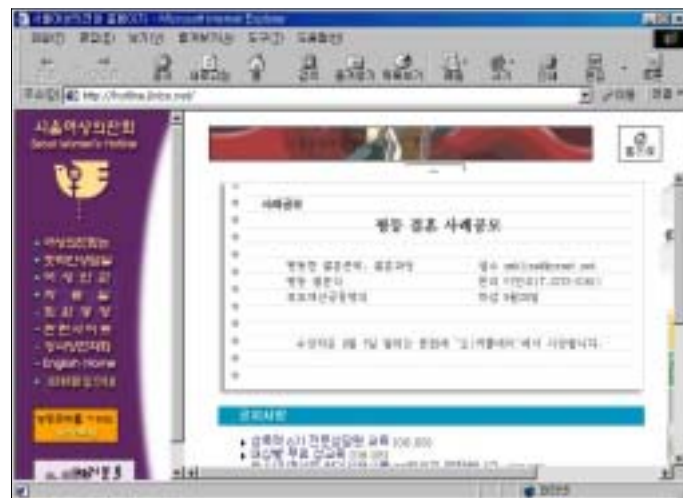
한국여성재단에서는 게시판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딸들의 소리라는 메뉴로 각기 성격을 달리하여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타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해 광고성 글이 거의 없으며 대신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의 글이 주를 이루는 장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한국여성재단에 관한 문의사항을 담고 있는 글은 관리자가 바로 바로 응답을 하고 있어, 게시판에 올라온 글 편수가 많지는 않지만 성의 있게 운영되고 있다.

이 사이트의 여성운동내용은 주로 딸들의 소리 게시판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계 소식]에서 성차별 개선운동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 이렇게 살아요] 게시판에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더불어 기부문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건강한 기부문화] 내 딸들의 현주소 게시판을 통해서도 여성취업문제 및 여성장애인문제 등이 다루어지

고 있다.

19) 서울여성의전화 <http://hotline.jinbo.net/>

서울여성의전화 홈페이지 역시 단체의 성격이 잘 표현되어 있는 편이다. 메뉴를 보면 여성의 전화는, 핫라인 상담실(여성주의 상담이란/가정폭력/성폭력/이혼/기타/상담기관안내/이메일 상담), 여성인권(성명서/여성인권사항/서명운동방/부부재산공동명의/호주제), 자료실(상담통계/소식지/발간자료), 회원광장, 관련사이트, 강서양친사회, 영문지원과 회원활동안내로 되어 있다. 서울 여성의전화는 단체의 관심분야에 메뉴를 집중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정보와 더불어 편리한 이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VI-19> 서울여성의전화 홈페이지

게시판 서비스는 ‘회원광장’ 메뉴 하에서 모임게시판/ 자유게시판/ 여성의 전화에 바란다/ 대화방의 4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에서 여성의 전화에 바란다와 대화방, 모임게시판은 회원이 로그인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유게시판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자유게시판에는 일부 타 여성단체에

서 발견되는 바 단체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나 홍보성 글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관리자의 노력이 돋보인다.

서울여성의전화 홈페이지 상의 여성운동분야는 대체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혹은 이혼과 관련된 상담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여성인권전반에 걸쳐 폭넓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성명서 메뉴 상단에 발표된 내용 가운데는, 이정환씨 사건/ 이수남씨 사건/ 가정폭력, 죽음으로 내몰린 필사의 탈출에 경찰의 안일한 수사태도를 규탄한다!/ 황혼기일지라도 부당한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무는 없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인권을 무시한 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항의 성명서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부부재산공동명의 운동과 호주제 폐지운동에서는 운동의 필요성과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주고 있다.

20) 성남YWCA <http://www.snywca.or.kr>

성남YWCA 홈페이지 메뉴는 YWCA 소개, 성남 YWCA, 도우미 파견, 소비자상담실, 어린이집, 회원안내, 게시판, 행사자료실, 주소록, 방명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이트 맵은 메뉴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그림 VI-20> 성남YWCA 홈페이지

영문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료실은 사진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성남 YWCA의 조직 및 사업이 충실히 소개되고 있다.

성남YWCA 홈페이지의 특징은 게시판이 2종류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유게시판과 Y TEEN 게시판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배려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인다. 그러나 두 개의 게시판을 분리한 의미 있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곧 자유게시판의 경우 2002년 5월에 문을 연 이후 8월 13일을 기준으로 총 26개의 글이 올라와 있을 뿐이고, Y TEEN 게시판의 경우는 2002년 5월 10일에 첫 글이 등록된 이후 더 이상 등록된 글이 없는 실정이다.

성남 YWCA의 여성운동 관심영역은 도우미 파견을 통한 경제력 확보 부분과 북한 바로 알기 교육을 통한 정치적 지위 개선부분을 들 수 있다.

마. 여성단체의 사이버 여성운동 내용

지금까지 살펴본 바 각 여성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성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여성운동의 내용은 성차별 개선운동 및 교육, 법제도 개선운동,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 상담실 운영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성차별 개선운동 및 교육

여성단체 홈페이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성차별 개선운동은 거의 모든 여성단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운동영역으로, 구체적으로는 성희롱 실태조사, 문화와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차별 사례 조사, 여성의식 향상, 성명서·건의문을 통한 성차별 시정운동, 명절의 여성차별문화 극복운동, 사내 부부해고 반대운동, 미인대회 반대운동, 성교육, 군산화재사건에 대한 성명서 발표, 평등한 결혼문화 운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지침서 제공, 가정폭력예방운동, 인터넷을 통한 남녀평등 세상운동 등을 들 수 있다.

2) 법제도 개선운동

법제도 개선운동은 주로 연합 홈페이지 이외에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여성 단체나 농업정책관련 사이트와 연관이 있는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호주제 폐지운동, 여성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운동,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 모성보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3)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 역시 연합 홈페이지 이외에 관련 메뉴를 운영하는 곳이나 노동조합연관 단체에서 찾을 수 있는 운동 영역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평등에 관한 내용이나 비정규직의 권리 찾기, 부부재산공동명의, 여성인력개발 등의 내용이 있다.

4)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의 경우는 주로 연합 홈페이지 이외에 정치 관련단체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성정치인에 관한 소개, 여성의 정치세력화 관련 컬럼, 정치 관련 설문조사나 뉴스, 여성정치인 DB, 여성 정치 관련 자료 제공이나 북한 바로 알기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상담실 운영

상담실 운영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여성상담 분야가 제공되고 있고, 더불어 특정 상담을 특화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노동조합과 관련된 홈페이지의 경우 직장내 문제 상담, 성폭력관련 단체에서의 성폭력상담, 소비자 보호 단체의 소비자 관련 상담 등으로 특화된 영역의 상담을 통해 여성운동을 전개해가는 방식이라 볼 수 있다.

<표 VI-4>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 활용여성운동

여성운동영역 단체명	성차별개선운동 및 교육	법제도개선운동	경제적지위 개선운동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	상담실 운영	비고
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iwomen.or.kr/	성명서, 건의문 통한 운동 (여야 비례대표 할당 관련 1, 군산화재사건관련 1, 제주 우지사 성추행 관련 1, 사내부부해고무효판결 1, 정당법과 국회법개정 관련 1, 성차별적 주택공급관련 1, 여군학교 폐지관련 1, 지방선거 관련 2, 여성총리임명관련2, 신임 국무총리관련 1)				고용평등상담실 사이버 성폭력상담실 호주제 피해상담실	성명서를 통한 여성운동 지원
2.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	성희롱 실태조사 문화와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여성차별, 여성 인권의식향상등, 신문 속 여성관련기사 제공	성매매방지법 등	경제·복지 재산공동명의 등	정치세력화 등	-	효율적인 자료 실 이용
3. 대한YWCA연합회 http://www.ywca.or.kr/	-	-	여성개발인력 센터운영 및 안 내	세계평화와 여성연대 자 료제공	off-line 상 담실만 안내	-
4. 전국주부교실중앙회 http://www.nchc.or.kr/	지도자 대회 안내	-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	-	소비자 상담	-
5.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kwunion.jinbo.net	성희롱 상태 해결을 위 한 공동 기자회견등 직 장내 여성인권보호, 직 장내 여성차별	모성보호 법률상식 제공	고용안정 비정규직 권리 찾기 운동본부 게시판 운영	-	직장내 문제 상담사례 형 식으로 상담	직장내의 여 성인권문제- 모성보호, 고 용안정, 평등 세상 추구
6.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자료실 군산화재사건성명서 성폭행사건 등	-	부부재산공동 명의 운동	자료실-여 성총리지명, 지방선거결과 와 논평등	-	연결되지 않는 메뉴 있음
7. 전국여성노동조합 총연합 www.kwfa.net	군산화재참사 성명서, 성추행 사건 관련등 성 명서	쌀 중장기 대책 등 농업관련정 책 성명서	농업관련 내용 에 관한 성명서	민족통일대 회참가	-	여성노동자를 위한 사이트
8. 한국여성중앙회 http://www.jw21.org/	여성인권향상사업소 개, 여성/세계의 여성, 여성과 법 안내	-	여성인력개발 센터운영	-	-	-
9. 한국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웃어라 명절 홈페이지 한부모가족 홈페이지 여성관련 뉴스와 성명 서 미디어운동본부 성교육 및 책자 발간. 지역미인대회 문제점 토론회	성명서 고양: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	여성노동센터 고용평등추진 본부	성명서: 비례대표제 어떻게 생각 하세요등	가족·성상 담실 여성노동상 담실 한부모 상담 실	환경문제에 관심: 여성환 경센터와 생 협 사이트 운 영/ 전자상거 래가능
10. 한국여성유권자연맹 http://www.womenvoters.or.kr	남녀가 함께 만드는 인터넷 평등세상	-	-	정치관련 설 문조사 여성유권자 관련뉴스 여성정치인 DB	-	여성정치관 련 사이트 여성정치연 대(한국여성 정치연맹, 한 국여성유권 자연맹, 여성 정치세력민 주연대)

(계 속)

여성운동영역 단체명	성차별개선운동 및 교육	법제도 개선운동	경제적지위 개선운동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	상담실 운영	비고
11.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성폭력관련 자료(유형별성폭력, 대처법 등 필수정보 와 상담 제공	-	-	-	게시판을 통한 성폭력상담	성폭력 중심 자료제공과 상담
12. 한국여성상담센터 http://www.iffeminist.or.kr/	자료실에서 성폭력 가정폭력지침서 제공	-	-	-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사례제공, 비밀상담	상담사이트
13. 한국여성정치연구소 http://www.feminet.or.kr/	-	-	-	정치연구소에서 하는 다양한 여성정치참여활동 안내 여성정치관련 자료실 운영 여성정치관련 컬럼운영 행사안내	-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해 다양한 메뉴 운영
14. 서울여성노동조합 http://www.womencourt.or.kr/	성희롱, 미디어여성차별등에 관한 판례제공, 가상법정	생리휴가 폐지론등	주부재산권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자료제공	-	온라인 상담실(FAQ, 공개상담실, 편지상담실 운영)	여성노동조합홈페이지와 가상법정 사이트를 분리 운영
15. 한국여성정치연맹 http://www.womenrights.or.kr/	-	-	-	사이버 모니터링 및 각종 정치관련자료 제공	-	8/6일 현재 미완성
16. 한국소비자연맹 http://www.consumersunion.or.kr/	-	-	-	-	소비자 관련 공개, 비공개 상담실 운영	소비자 문제 관련 사이트
17. 김포여성민우회 http://kpwomen.org	성교육, 팔캠프등 관련 사업 안내. 가정폭력, 성폭력 정보제공. 생활속의 여성학 게시판 운영	호주제 폐지 게시판	-	-	상담게시판 운영	-
18. 한국여성재단 http://www.womenfund.or.kr/	딸들의 현주소에서 여성관련 뉴스 제공 여성계 소식 제공				-	기금 모금
19. 서울여성의 전화 http://hotline.jinbo.net/	평등한 결혼 가정폭력, 성폭력	호주제 폐지	부부재산공동명의	-	가정폭력, 성폭력 이메일 상담, 상담통계, 사이버 성폭력자료 집 등	가정폭력, 성폭력 중심 상담
20. 성남 YWCA snywca.or.kr	-	-	중장년층, 저소득층 직업교육	북한바로알기 교육	소비자 상담실 관련법규 안내	사회문제부 운영

바. 소결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운동 관련 현황을 보기 위하여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20개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메뉴구성 및 운영현황 그리고 여성운동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여성단체 홈페이지 구성 및 운영 현황: 대부분의 여성단체 홈페이지는 주로 게시판과 공개 자료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방문자들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더불어 여성단체 홈페이지 구성 및 운영에서 해당 단체의 특성이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고 나름대로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각 단체와 관련된 정보를 유효적절히 제공하고 있으며, 단체에 따라서는 타 여성단체 사이트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 2) 여성단체 홈페이지 보완 사항: 앞으로 여성단체 홈페이지가 지니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여성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이트 맵, 영문 지원, 전체 정보의 검색 기능 구비 등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도록 한다. 사이트 맵과 같이 기획단계에서 쉽게 갖출 수 있는 기능도 있으나 검색과 같이 여성단체의 의지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기능도 있다. 따라서 후자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외부의 지원이 필히 요청된다 하겠다. 또한 최근의 여성운동 추세가 국내외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간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바 여건이 가능한 단체에서는 영문지원 기능을 필수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활동인력 및 재정, 기술력이 부족한 여성단체는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둘째,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어떤 홈페이지든지 사이버 공간에

서의 생명력은 신속하게 주기적으로 새로운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여성운동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여성단체의 자료실은 홈페이지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인 바, 각 여성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나간다면 정보 사용자나 정보 제공자 모두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자료실의 효율성 또한 훨씬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학술적인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자료실의 다양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도록 한다.

- 3) 여성단체의 사이버 여성운동 현황: 조사대상 여성단체 홈페이지의 대부분은 여성운동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다수 여성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나 연대단체의 연합 사이트는 전 여성운동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 사이트들 대부분은 성차별 개선운동 및 교육, 법제도 개선운동,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체 특성에 따라 전문분야에서의 여성운동을 모색하고 있고, 특히 off-line에서의 전문적인 여성운동단체들이 on-line에서도 여성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대부분의 여성단체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여성운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이용자가 이들 정보에 접속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요망된다. 홈페이지 현황 분석에서 나타난 바 여성단체는 앞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가능성에 대해 많은 기대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 바, 사이버 공간 활성화를 위한 더욱 많은 지원이 요망된다 하겠다.

2.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의 홈페이지 현황 및 여성운동 사례

가.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의 홈페이지 구성 현황

여성단체라는 실제적인 조직은 없지만 온라인에서 여성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도 여성단체 분석시 활용했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홈페이지 구성과 운영 현황, 여성운동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작업은 여성단체의 사이버 여성운동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분석대상으로는 호주제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현안 사이트, 여성단체들의 온라인 연합 사이트, 여성주의 웹진, 주부들의 의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오프라인의 언론기관인 여성신문사와 여성주의 출판 문화사이트, 여성문학 동인지 사이트 등이 포함되었다.

위민넷과 우리진의 경우 여성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라고 볼 수는 없으나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이트와 참조 내지 비교를 하기 위해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위민넷은 정부가 여성 인권 신장, 정보 교류, 사이버 교육 등 여성들의 사회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역의 핵심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익분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자기개발과 성취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바, '여성운동'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역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상 13개 여성관련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모든 사이트에 게시판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담내용 및 게시판에서의 검색기능 또한 갖추어져 있었다. 반면 본문 전체의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은 20%의 단체만 마련되어 있었다. 이 이외에 회원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50%, 공개자료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45%, 토론실과 상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35%, 사이트 맵과 Q & A를 운영하는 경우가 20%이며 영문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1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여성단체와 비교해보면, 공개자료실이나 사이트 맵을 제공

하거나 영문지원이 가능한 경우의 비율은 감소한 대신, 토론실을 운영하는 경우는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표 IV-5> 참조).

<표 VI-5>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의 홈페이지 구성현황

단위: 단체수(%)

사이트명	구성현황	사이트 맵	게시판	토론실	Q&A	상담실	공개 자료실	회원가입	영문 지원	검색기능
① 여자만세 ^a		o	o	o	-	o	-	o	-	o
② 탈호주제 대안사회운동		-	o	o	-	o	o	-	-	o
③ 여성연합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	o	-	o	o	o	-	-	o
④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	o	-	o	o	o	o	o	o
⑤ 여성마당 사이버 성폭력 추방 네트워크 ^b		o	o	o	o	-	o	o	-	◎
⑥ 살류주		-	o	o	-	-	-	o	-	o
⑦ 또하나의 문화		-	o	o	-	-	o 회원전용	동인가입 안내/전 자상거래 이용사회 원가입	-	o
⑧ 여성신문		-	o	-	-	o(Q &A)	-	o	o	◎
⑨ 주부문화연구소		o	o	o	-	o	o	o	-	o
⑩ 위민넷		o	o	o	o	o	o	o	o	o
⑪ 우리진		-	o	-	-	-	o	-	-	◎
⑫ 달나라딸세포		-	o	-	-	-	-	메일링 리스트 가입	-	o
⑬ 언니네		o	o	-	-	-	o 회원전용	o	-	◎
합 계		4(30.7)	13(100.0)	7(53.8)	4(30.7)	7(53.8)	9(69.2)	10(76.2)	3(23.0)	13(100.0)

◎ : 전체 정보나 기사 검색 o : 상담내용이나 게시판 검색

a : 부천 가정법률상담소, 부천 여성노동자회, 부천시 여성복지과, 부천 여성인력개발센터, 부천 여성의 전화, 부천 여성회관, 부천 YWCA, 새소망 모자원, 모퉁이 쉼터

b : 여성정보문화21,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정보원

나.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의 홈페이지 운영 현황

여성단체 이외의 여성관련 사이트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살펴봄에 있어, 단체공개 여부, 자료실의 신뢰성, 단체특성 반영, 독창적 콘텐츠, 홍보성, 정보의 형태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단체 이외의 여성운동 사이트의 운영 현황을 신뢰성과 전문성, 홍보성의 3요인을 토대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와 마찬가지로 신뢰성 요인은 단체를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와 자료실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으며 전문성 요인은 단체특성 반영여부와 독창적인 콘텐츠

<표 VI-6>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의 홈페이지 운영현황

단위: 단체수(%)

사이트 명	운영현황	사이트 공개	자료실의 신뢰성	사이트 특성 반영	독창적인 콘텐츠	홍보성	정보의 형태
① 여자만세		o	-	o	o	new	취업관련정보제공
② 탈호주제 대안사회운동		o	o	o	o	new	호주제에 관한 연구, 조사자료등
③ 여성연합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o	o	o	o	hot	호주제, 호주제 피해사례, 연구자료, 기사등
④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	o	o	o	-	기사, 사진, 다른 사이트 안내
⑤ 여성마당 사이버 성폭력 추방 네트워크		o	진보넷 자료실	o	o	-	진보넷자료실
⑥ 살류주		o	-	o	o	-	게시판
⑦ 또하나의 문화		o	o	o	o	-	도서소개
⑧ 여성신문		o	-	o	o	-	여성신문기사
⑨ 주부문화 연구소		-	o	o	o	new	토론회 자료
⑩ 위민넷		o	o	o	o	o	컬럼, 뉴스
⑪ 우리진		o	o	o	o	new	뉴스, 컬럼, 통계
⑫ 달나라딸세포		mail	-	o	o	-	컬럼
⑬ 언니네		o	o	o	o	update 목록	컬럼, 논문, 기사등
합 계		11(84.6)	9(69.2)	13(100.0)	13(100.0)	7(53.8)	

츠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홍보성은 새로운 소식 제공 시 눈의 떨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정보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운영현황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표 IV-6> 참조).

먼저 신뢰성 요인을 보면, 사이트를 공개하고 있는 경우가 84.6%, 자료실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가 69.2%로 대체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과 주부문화연구소의 경우 관리자와 이메일로만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자료실의 신뢰성은 자료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영역에서는 모든 사이트가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는 off-line에 기반이 없기에 on-line에서의 전문성 영역이 확실히 보장되어야만 사이트가 의도했던 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단지 홍보성 부분에서는 53.8%의 사이트가 새로운 정보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었다.

여성단체 이외에 주로 온라인에서만 운영되는 사이트의 경우, 운영 주체에 따라 각 사이트의 특성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었다. 특히 호주제 철폐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3개 사이트(탈 호주제 대안사회운동, 여성연합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의 경우는 전반적인 콘텐츠가 호주제 폐지에 집중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이트의 특성이 분명히 반영되는 경우는 사이트 운영의 일차적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다.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의 여성운동 현황

여성단체 이외의 여성운동 사이트의 여성운동 현황 분석 또한 여성단체의 경우와 동일한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성차별 개선운동 및 교육, 법제도 개선운동,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 상담실 운영의 5가지 영역에서 살펴보았다(<표 VI-7> 참조).

<표 VI-7>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의 여성운동 현황

단위: 단체수(%)

여성운동영역 사이트명	성차별개선 운동 및 교육	법제도개선 운동	경제적지위 개선운동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	상담실 운영	비고
① 여자만세	0	0	0	0	0	상담실/게시판 중심의 운영
② 탈호주제 대안사회운동	-	0	-	-	호주제 관련 상담	-
③ 여성단체 연합 호주제 폐지운동	-	0	-	-	호주제 관련 상담	-
④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	0	-	-	-	-
⑤ 여성마당	0	-	-	-	-	진보넷의 자료실 연결
⑥ 주부문화연구소	0	-	-	-	0	토론실의 효율적인 운영
⑦ 살류주	0	-	-	0	-	게시판운영 활발
⑧ 또 하나의 문화	0	-	-	-	-	전자상거래
⑨ 여성신문	0	0	0	0	-	기사 제공
⑩ 위민넷	0	-	0	-	0	여성포탈사이트
⑪ 우리진	0	0	0	0	-	경기여성정보웹진
⑫ 달나라 딸세포	0	0	0	-	-	웹진
⑬ 언니네	0	0	0	0	-	자료창고 운영
합 계	10(76.9)	7(53.8)	6(46.2)	5(38.5)	5(38.5)	-

여성단체 이외에 여성운동 사이트에서 펼쳐지는 여성운동 영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성차별 개선운동 및 교육으로서 전체 13개 사이트 중에서 호주제 철폐를 위한 사이트 3개를 제외한 10개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어 76.9%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법제도 개선운동이 7개 사이트(53.8%)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이 6개 사이트인 46.2%, 정치적 지위 개선 운동과 상담실 운영이 각각 5개 사이트 38.5%를 점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만 여성운동을 하는 여성운동 사이트는 전문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경우와 전반적인 여성운동 영역을 포괄하는 경우의 2개 부류로 나뉜

다. 예를 들어 부천의 9개 지역 여성단체가 연합해서 결성한 ‘여자만세’의 경우 성차별 개선운동 및 교육, 여성을 차별하는 법제도 개선운동, 경제·정치 지위 개선운동, 상담실 운영 등 모든 여성운동 분야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웹진의 형태로 운영되는 언니네와 우리진, 달나라 딸세포의 경우도 축적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양한 여성운동을 사이버 공간에서 전개하고 있다. 우리진과 여성신문의 경우도 상담실 운영을 제외하고 전 여성운동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반면 호주제 폐지운동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3개 사이트(여성단체 연합 호주제 폐지운동, 탈호주제 대안사회운동,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의 경우 호주제 폐지와 직접 연관된 자료 및 상담만을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분명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주부를 위한 사이트인 주부문화연구소의 경우에도 주부들의 의식교육을 위한 콘텐츠와 상담에 집중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문학 동인지 사이트인 살류주의 경우 주로 토론 및 게재된 글의 내용 속에서 자신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다른 사이트와 달리 일반적인 성차별 개선운동이나 교육 이외의 정치 영역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문화는 주로 성차별 개선운동 및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여성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위민넷은 포털사이트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성격보다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들간 네트워킹에 주력하고 있는 편이다. 여성마당의 경우에는 성차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더불어 진보넷과 연결하여 자료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라.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의 여성운동 사례

1) 여자만세 <http://www.womanv.net>

여자만세는 부천지역 여성들의 커뮤니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천의 9개 여성단체(부천 가정법률상담소, 부천 여성노동자회, 부천시 여성복지

과,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부천 여성의 전화, 부천 여성회관, 부천YWCA, 새소망 모자원, 모퉁이 쉼터)가 연합으로 만든 사이트이다.



<그림 VI-21> 여자만세 홈페이지

주요 메뉴는 회원가입과 클럽 만들기 이외에 기관소개, 교육/행사, 성공취업, 톡톡 상담실, 우리들의 이야기, 추천사이트, 여성 문화제, 벼룩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 자격에서 부천지역 거주라는 지역적 제약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부천의 여성단체가 주축을 이루고 있기에 행사 일정 등을 조정할 때에 부천시 여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사이트 맵은 있지만 영문 지원은 없다. 그러나 전반적인 구조가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배려해주고 있다. 특히 상담실은 가정폭력, 법률상담, 노동상담, 취업상담, 소비자 상담, 시설입소상담, 교육상담, 청소년상담 등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어 이용자 중심의 사이트 운영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각 상담실의 이용현황을 보면, 가정폭력/성폭력과 시설입소상담의 경우 이용률이 가장 저조하여 상담내용이 없는 반면, 법률상담의 경우 빈도가 가장 많아 84건(답변을 포함한 글의 게재 수)에 이르고 있고, 노동상담이 34건, 취업상담이 28건, 소비자 상담이 11건, 교육상담이 6건, 청소년상담이 41건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 이외에 ‘성공취업’ 메뉴의 경우 8월 18일을 기준으로 총 961건의 취업안내 목록이 있어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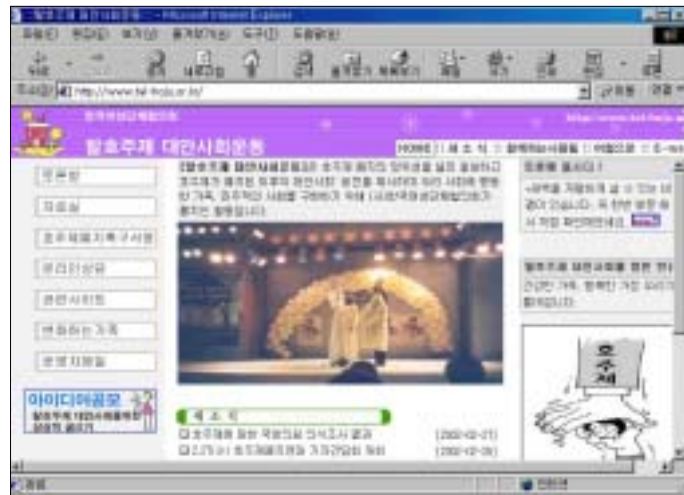
여자만세 사이트에서 사용자들과의 상호작용과 사이트의 성격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게시판은 이슈 칼럼방, 내 마음을 열어봐, 권리 찾기, 자원봉사, 생활의 지혜, 영화이야기 등 6가지 게시판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중 여성운동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은 ‘권리 찾기’ 게시판이다. 권리 찾기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2002년 5월 7일 첫 번째 글이 실린 이후 8월 18일 기준으로 46개의 글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여성운동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은 대략 성매매 피해여성에 관한 내용, 미군장갑차 여중생사망관련 시위, 여성비하 광고, 호주제 폐지, 부부공공재산제, 부부재산계약제, 미인대회반대, 여성장애인의 권리 등으로 다양한 여성운동 영역에 걸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2) 탈호주제 대안사회운동 <http://www.tal-hoju.or.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탈호주제 대안사회운동’(이하 탈호주)의 메뉴는 토론방, 자료실, 호주제폐지 촉구 서명, 온라인 상담, 관련사이트, 변화하는 가족, 운영자메일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문지원이나 사이트 맵은 존재하지 않는다.

토론방의 경우 최근에는 호주제 관련 내용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홍보성 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토론이 이루어진 경우는 토론방이 개설된 직후인 2001년에 2개의 글에 대한 답이 올라온 이후 다른 글에 대해서는 반응이 있는 경우가 전혀 없었고 최근에는 답이 없는 것에 대한 항의 글도 있었다.

자료실의 경우에도 2002년 8월 20일 기준으로 전부 20개의 글이 있으나 이 중에서 2002년 2월 27일까지 등록된 14개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실제 자료라고 보기에 어려운 내용이며 6월에 등록된 2개의 글은 관련 없는 홍보성 내용인데도 관리자가 삭제하지 않고 있었다. 호주제 폐지서명은 2002년 8월 20일



<그림 VI-22> 탈호주제 대안사회운동 홈페이지

기준 278명의 서명자가 있었고 온라인 상담의 경우 답변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너무 길어 20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http://www.no-hoju.women21.or.kr>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사이트의 경우 분명한 운영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이트에 비해 구조는 단순한 편이다.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의 메뉴는 호주제란, 호주제 피해사례, FAQ, 호주제 관련자료실, 여성노래 자료실, 호주제 온라인 상담, 호주제 폐지 서명/서명참여자명단/서명참여자주장/시민참여게시판, 쓰레기통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서명참여자 주장의 실제 내용은 없다. 호주제 피해사례는 호주제에 따른 다양한 피해사례를 사이트 운영자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개설된 시기인 2000년 7월 3일에 등록된 12개의 사례로서 이혼, 재혼시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없어 겪는 피해 6사례와 아들선호, 남성중심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겪는 6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F A Q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글이 2000년 7월 3일과 12월 5일에 7개 등록되어 있다. 자료실에는 호주제



<그림 VI-23> 여성연합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홈페이지

폐지와 관련해서 서명용지나 의견서, 국회의원 의식조사 등의 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며 2002년 이후 2개의 자료가 보완되었다. 온라인 상담의 경우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 서명도 현재 참여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www.antihojuje.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주요 메뉴는 첫페이지, 폐지서명, 털어놓기, 우리들의 이야기, 자유게시판, 회원가입, 로그인으로 이루어진 상위메뉴와 호주제 폐지, 자료실, 영문으로 된 원편의 메뉴를 가지고 있다.

호주제 폐지 서명의 경우 2002년 8월 19일 기준으로 4404의 글이 올라와 있어 유사한 성격의 다른 사이트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일상 생활에서의 호주제도 문제,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마음을 털어놓는 편안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털어놓기’의 경우 게재된 글이 80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주로 안내해주거나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1100건을 넘어서고 있고 답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게시판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림 VI-24>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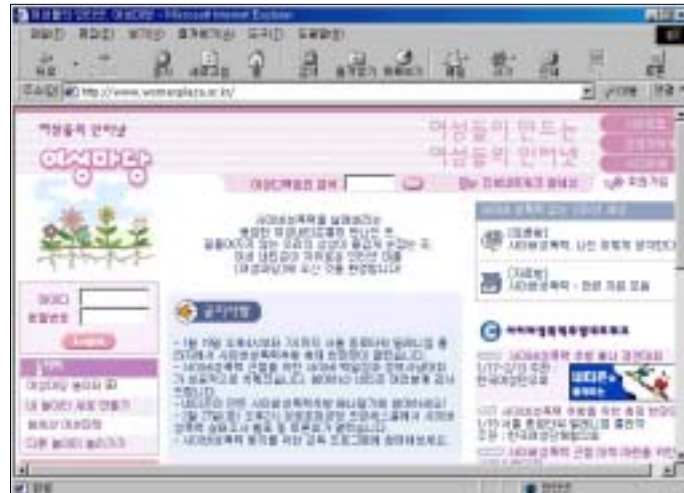
한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글의 목록이 9000건을 넘어서는 등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역시 다양한 게시판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곳이다.

5) 여성마당 <http://www.womanplaza.or.kr>

여성마당은 사이버 성폭력 추방 네트워크로서 여성정보문화21, 진보네트 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정보원의 단체가 관여하고 있다.

여성마당의 주요메뉴는 커뮤니티 형성을 할 수 있는 ‘놀이터’(여성마당놀이터/ 내 놀이터 새로 만들기/ 참세상 여성마당/다른 놀이터 놀러가기)와 여성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안내해주는 ‘여성이용자길라잡이’(읽고 따라하기/ 묻고 답하기/왕초보를 위하여/바이러스 달력/사이버 공간과 여성),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여성정보모음’(주간 여성뉴스/알림판/여성 뉴스 스크랩/자료실/ 여성이 만드는 잡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게시판은 아직 이용이 활발하지 않다. 각 메뉴마다 독자적인 콘텐츠(주로 여성이용자 길라잡이와 놀이터)를 제공하거나 진보넷으로 연결되는 메뉴(자료실, 여성이 만드는 잡지 등)등이 제공되고 있다.



<그림 VI-25> 여성마당 홈페이지

여성마당에서 관심을 갖는 여성운동분야는 주로 사이버 성폭력추방운동 전개 및 관련 여성뉴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여성뉴스 스크랩에 등록된 글이 하나밖에 없으며, 알림판에는 8개의 글이,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토론방의 글은 없고 자료실의 경우 2001년 3월에만 등록된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자료가 10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사이트에 대한 홍보와 최신 정보의 주기적인 제공이 요구된다. 사이버 성폭력추방네트워크가 말해주듯이 주로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자료제공이나 토론 이외에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이버 백일장, 정보사냥대회등 다양한 형태로 사이버 성폭력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6) 살류주 <http://www.salluju.pe.kr/>

‘살류주’는 여성주의 문학도들이 서울중심, 남성중심, 제도권 중심의 문학 지형도를 지역과 여성중심으로 바꾸려는 목적으로 만든 문화동인모임이다. 연 3회 『살류주』를 발간하고 있고 ‘살류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살류주 홈페이지’는 이런 연 3회 발간되고 있는 『살류주』의 내용을 올리고 있고

살류주에서 여성운동에 관한 내용은 주로 ‘쟁점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지사항’이나 ‘살류주 소식’에서도 다루어지기는 하나 주로 많은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은 ‘쟁점 토론’을 통해서이다. 다른 여성단체들의 홈페이지에서도 여성운동에 관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반응을 보기 힘들었던 것에 비해 살류주에서는 살류주의 입장에서 여성운동에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관심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게시판 참여로 여성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루 평균 5건 이상의 글이 올라오는 활발한 이용을 보이는 ‘쟁점토론’에서는 2002년 7월과 8월에 가장 민감한 주제였던 ‘장상 총리 지명’에 관한 토론을 보면 대략 250건의 글이 게재되는 등 활발한 독자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7) 또 하나의 문화 <http://www.tomoon.org>.

‘또 하나의 문화’는 남녀 평등적인 인간적 삶의 양식을 담은 대안적 문화를 만들고 이를 실천해가는 동인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남녀가 진정한 벗으로 협력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특히 하나의 대안문화를 사회에 심음으로써 유연한 사회체계를 향하는 문화동인을 위한 동인모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성운동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화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는 또문소개/ 동인 간행물/ 또문대학 / 소모임/ 관련사이트/ 자유 발언대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하나의 문화 역시 살류주와 마찬가지로 대상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편이므로 사이트맵이나 영문지원처럼 일반인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요소는 구비되어 있지 않으나, 대신 동인 간행물과 소모임을 통해 또 하나의 문화 성격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인 간행물’의 경우 또 하나의 문화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소개하고 있는 메뉴이다. 특히 동인지의 소개란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또문소녀』는 각기 독립적인 사이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곳에서 다양한 간행물을 소개하고 직접 주문도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기능도 추가되어 있다. 또문대학의 경우 게시판과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게시판의 경우 개인이 올린 내용보다는 단체에서 단체의 활

동이나 소식을 게재한 경우가 더 많은 편이며, 자료실 이용은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그림 VI-27> 또 하나의 문화 홈페이지

특히 이 사이트 홈페이지의 특징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모임’은 통일소모임, 여성과 인권연구회, 17호 동인지, 여성주의 행동모임 소란이 있으나 이중 통일소모임은 아무런 내용이 실려 있지 않은 상태이다. 자유발언대의 경우 토론방과 자유발언대,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실과 토론방의 활동은 아직 활발하지 못하나 자유발언대의 경우 여러 홍보성과 글과 더불어 성폭력 등 다양한 글이 게재되어 있다. 특히 간행물을 직접 온라인 상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기능이 첨가되어 있는 부분은 여성단체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생존방안을 논할 때 반드시 참조할만한 사례이다.

8)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

여성신문의 홈페이지는 2주에 한번 발간되는 여성신문의 모든 기사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요 기사메뉴는 뉴스·이슈/ 기획·칼럼/ 사람들·인터뷰/ 여성소식/ 생활·경제·건강/ 교육·환경/ 문화/ 10,20/ 지역·통일·세계/ @zooma 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여성신문 알리미/ 만남행사 그리고/스페셜 콘텐츠(시대를 앞선 여성들, 여성운동하는 사람들, 대중문화 속의 여성)/ 정보 도우미(문화정보, 창업도우미, 취업정보, 노동법률Q&A, 여성건강Q&A)/사진&그림 세상(김동주의 포토기행, 반쪽이의 가족일기, 박희정의 세상읽기)/ 여성신문사 소개/ 주요행사(평등부부상, 가족문화상, 아줌마 축제, 아줌마 마라톤)/ 도서출판 여성신문/ 관련기관 및 제휴사/ Contact us/ 추천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문지원도 가능하다. 여성신문의 모든 기사는 상위에 위치한 메뉴의 구성대로 나누어진 섹션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지난 호의 기사도 역시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들과 어떤 여성운동 현안에 관한 직접적인 이슈를 논의하거나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는 않고 있으나 여성주의 시각에서 접근한 신문사 홈페이지답게 매우 방대한 양의 기사가 제공되어, 이를 통해 성평등의식을 고양시키고,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토록 이끌고 있다.



<그림 VI-28> 여성신문 홈페이지

9) 주부문화연구소 <http://www.jubu21.or.kr>

주부문화연구소란 주부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의 고민을 나누고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이다. 이름은 연구소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off-line의 조직은 없으며 on-line에서만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림 VI-29> 주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

‘주부문화연구소’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주부 층이 주요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요 메뉴는 연구소 소개, 뜨거운 감자, 사이버 강의, 사이버 생활상담, 생활 속의 이야기, 주연생각, 동아리방, 자유게시판, 자료실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사이트 맵은 제공되고 있지만 영문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뜨거운 감자’는 일종의 토론방인데 지금까지 다뤄진 주제는 첫 번째 주제인 ‘친정어머니와의 관계’를 필두로 ‘주부, 특히 전업주부, 돈을 안 벌어서 억울했던 경험, 순간, 느낌’, ‘아들은 꼭 있어야 하는가’, ‘기혼자의 이성친구’, ‘애들은 크고, 시간은 남는데’, ‘남성들의 회식문화’, ‘사교육 열풍’, ‘부부싸움 이

렇게 해결한다’, ‘명절과 주부’이다.

2002년에 제시된 주제별 토론 상황을 살펴보면, ‘주부, 특히 전업주부, 돈을 안 벌어서 억울했던 경험, 순간, 느낌들’의 경우 9개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아들 꼭 있어야 하나’같은 경우는 70개가 넘는 글이 게재되었으며 ‘기혼자의 남자친구’는 41개, ‘애들은 크고 시간은 남는데’의 경우는 6개의 글로서 주제에 따라 토론의 활발한 정도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강의는 ‘가사노동론’ ‘주부론’ ‘가계 경제론’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 상담은 법률/의료, 육아/자녀교육, 가족문제, 소비생활, 가사노동, 생활설계, 일반적인 가정생활문제와 기타로 크게 9 분야로 이루어지는데 2002년 8월 21일 기준으로 답변 포함 767편의 글이 실려 있어 사이버 상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 속의 이야기에서는 ‘이런 가족 저런 가족’을 통해 육아와 가사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가족의 모습 등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주부문화연구소의 경우 메뉴는 단순한 편이지만 주부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분명한 설립목적이 있고 관련 콘텐츠 역시 일관된 성향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 위민넷 <http://www.women-net.net>

위민넷은 여성 인권 신장, 정보 교류, 사이버 교육 등 여성들의 사회활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의 핵심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익분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자기개발과 성취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여성부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여성포털 사이트다.

위민넷의 주요 메뉴는 여성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여성마당(가정/직장/문화/봉사/해외네트워킹/지킴이 네트워크)을 상위메뉴와 원편에 배치하여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상담채널에서 사이버 멘토링과 여성폭력사이버 상담과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채널, 정보채널, 정책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영문지원이나 사이트 맵 등을 잘 갖추고 있고 상당히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편이다.



<그림 VI-30> 위민넷 홈페이지

위민넷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운동분야는 각종 상담과 취업을 위한 온라인 교육, 그리고 여성을 위한 각종 교육정보 제공을 통해 성차별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활발한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다. 상담의 경우 여성폭력사이버 상담실은 가정폭력관련, 성폭력관련, 성매매 관련, 휴일 및 야간 상담실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문가 상담의 경우에도 가정법률, 육아, 직업, 여성의학, 가족상담으로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상담모두 활발한 이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위민넷에서는 상담분야에서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현재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여성자원을 활용한 미래의 여성인력양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 우리진 <http://www.woorizine.or.kr/>

우리진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여성웹진으로 다양한 정보를 담아내고 있다. 우리진의 주요메뉴는 HOME, 여성뉴스, 여성통계, 여성문화, 갤러리, 여성 & 여성, 토크토크, 실버토크, 시사 돋보기, WOORI 교실, 뛰는 경제, 나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과 관련된 뉴스뿐 아니라 다양한 소식이나 교육까지 제공하고 있다. 영문지원이나 사이트 맵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전반

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고 게시판이나 토론실등과 같이 이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메뉴는 부족한 편이다. 통계에서 문화정보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를 정리해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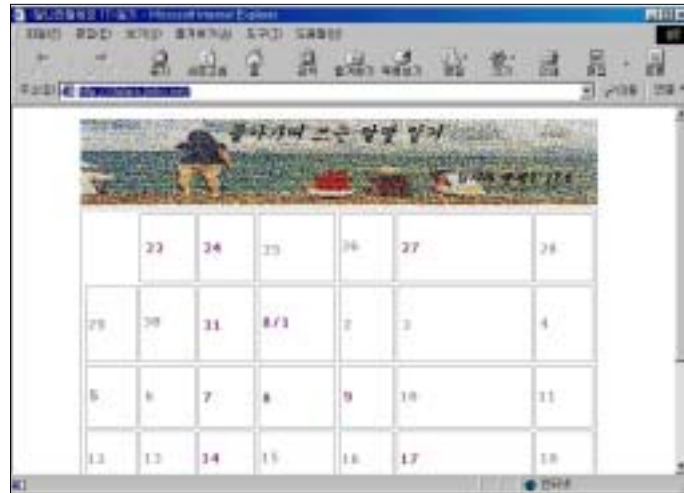


<그림 VI-31> 우리진 홈페이지

우리진에서 다루어지는 여성운동은 성차별 개선교육, 법제도 개선교육, 경제저 지위 개선운동,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 전반에 걸쳐 찾을 수 있다. 특히 호주제 철폐나 모성보호등에 관한 칼럼 이외에도 다양한 관련 자료등을 외국과의 비교자료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지위의 당위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특성중의 하나이다.

12) 달나라 딸세포 <http://www.dalara.jinbo.net/>

달나라 딸세포는 여성주의 웹진으로서 매호마다 다른 주제로 구성된다. 메뉴 구성 또한 달라진 주제에 맞춰 약간의 변화가 있다. 고정된 메뉴는 주로 게시판 형식의 메뉴나 기본 정보(뉴스 게시판, 여성학 게시판, 주제 게시판, 수다떨기(여성전용), 수다떨기(누구나), 링크, 만든 사람들, 웹마스터, 과월호, 메일링리스트, 이소리, 후원)가 있다.



<그림 VI-32> 달나라 딸세포 홈페이지

달나라 딸세포에서는 각 호에서 다루는 특별 주제 이외에도 달나라 영화관, 달딸미팅, 만화형, 번역글 모음, 서평, 정치적으로 올바른 과학, 연재 소설, 호호 아줌마, 호호 아가씨, TV 부인의 경우 컬럼 형식으로 연재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호도 있다. 달나라 딸세포의 경우 고정된 메뉴보다는 각 호의 특성에 맞는 탄력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트의 특징은 지속적인 콘텐츠의 제공과 더불어 게시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홈페이지에 비해 문화 관련 콘텐츠가 눈에 띄게 많은 것이 특징이다. 매스미디어 비판부터 페미니즘 관련 번역글 소개, 순정 만화 비판, 영화평까지 다양한 문화코드를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해석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다.

2002년 8월 기준으로 0호부터 16호까지 있는데 각 호에서는 여성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여대생 취업문제, 군 가산점 문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성폭력에 대한 주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로 컬럼을 게재하는 형식으로 여성운동 내용을 다루고 있다.

13) 언니네 <http://www.unninet.co.kr/>

언니네의 메뉴는 기획특집, 광장, 자기만의 방, 커뮤니티, 카페, 방송국, 자료창고, 채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니네는 컬럼 형식의 콘텐츠가 많은 편이다. 특히 매거진 형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자료실의 경우에도 노동/가사노동, 정치/정책/법, 과학/기술/환경, 사이버/사이버성폭력, 가족/결혼/육아, 문화/미디어/비평, 성/육체/성교육/의학, 섹슈얼리티/동성애,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성노예/포르노, 역사/여성사, 여성운동/진보운동, 페미니즘이론, 국제/해외여성, 기타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료실 내에서 자료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어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특히 동호회를 통한 커뮤니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상호작용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림 VI-33> 언니네 홈페이지

언니네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운동 영역은 주로 성차별 개선운동 및 교육이나 호주제 폐지운동같은 법제도 개선운동,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인 지위를 개선하는 데에도 부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의 여성운동 내용

이상 여성단체 이외의 사이버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여성관련 사이트의 여성운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차별 개선운동 및 교육

여성운동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 개선 운동 및 교육은 호주제 철폐를 위한 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여성관련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여성운동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게시판이나 사이버 강좌, 관련 뉴스 소개, 초경파티, 성폭력 사건 서명운동, 교육정보 제공, 성차별 신고센터 소개, 여성주간 소개,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남성주의 문화 비판, 사이버 여성학, 성교육, 매스 미디어 비판, 서평이나 만화평, 고정관념 타파, 인터뷰 기사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법제도 개선운동

법제도 개선운동은 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관련 3개의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운동형태이다. 이외에도 우리진의 모성보호법 실시나 달나라 딸세표의 군가산점 논란, 언니네의 성매매 방지법에 관한 내용 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3)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을 살펴보면, 우선 여자만세에서 구인구직게시판을 운영하는 형태로 여성취업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위민넷과 같이 취업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또한 우리진에서는 여성의 취업률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제시하거나 여성취업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비율을 제시한다거나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국가별로 비교한다든가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제적 지위 개선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4)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을 펼치는 여성운동 사이트는 많지 않은 편이다. 여자만세의 경우 일반적인 권리 찾기 게시판을 통해서 다루고 있으며 살류주의 경우 여성총리임명에 대해 게시판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었다. 또한 우리진은 여성정책사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언니네는 여성총리인준부결에 대한 기사로 다루고 있다. 여성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우리진을 제외한다면 여성단체 홈페이지에 비해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상담실 운영

다양한 분야의 상담실을 운영하는 사이트는 여자만세, 주부문화연구소, 여성신문, 위민넷 등을 들 수 있으며 호주제 폐지 관련 3개의 사이트에서 호주제 관련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탈호주제 대안사회운동의 경우는 공개된 상담을 여성연합호주제 폐지 운동본부에서는 비공개 상담을 그리고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에서는 ‘털어놓기’라는 메뉴로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관련 사이트의 상담실 운영은 상담실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다양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경우와 관련 상담으로 특화된 곳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I-8>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의 사이버 여성운동 현황

여성운동 영역 사이트명	성차별개선운동	법제도 개선운동	경제적지위 개선운동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	상담실	비고
① 여자만세	권리찾기 게시판		권리찾기 게시판, 구 인구직/직 업/부업/자 격증 게시 판 운영	권리찾기 게 시판	가정폭력, 성 폭력/법률/ 노동/취업/ 소비자/시설 입소/교육/ 청소년 상담 실 운영	부천시 소재 9개 단체 연합 사이트
② 여성연합 호주제폐지 운동본부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사이트	-	-	비공개 상담	-
③ 탈호주제 대안사회 운동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사이트	-	-	호주제 관련 상담	-
④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사이트	-	-	호주제 관련 상담	-
⑤ 여성마당	성폭력추방운동 여성관련뉴스 제공	-	-	-	-	진보넷과 대부분 의 자료실 연결
⑥ 주부문화 연구소	사이버 강의로 주부 의 권리찾기 가사노동론 주부론	-	-	-	법률·의료/ 육아·자녀 교육/가족문 제/소비생활 ·가사노동/ 생활설계/일 반적인 가정 생활문제	토론실의 효율적 인 운영
⑦ 살류주	여성관련뉴스나 컬 럼제공	-	-	여성총리임명 에 대한 반응	-	게시판의 활발한 이용
⑧ 또하나의 문화	초경파티 성폭력 사 건 서명운동, 성폭력 추방운동, 여성과 인 권등	-	-	-	-	관련 소모임의 효 율적 링크
⑨ 여성신문	기사와 칼럼을 통한 다양한 여성운동 전개				노동·법률 Q & A 여성건강 Q & A	2주에 한번씩 모 든 기사가 update
⑩ 위민넷	여성을 위한 교육정 보제공	-	취업 위 한 온 라인 교 육	-	사이버멘토 링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상담	여성 포털사이트
⑪ 우리진 (창간호 ~8호)	성차별신고센터 설 치 소개/여성주간의 의미와 행사내용 소 개/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에 관한 칼럼/새 움터인터뷰/남성위 주의 성문화 비판/사 이버 여성학 등	호주제 폐지 칼 럼과 서명운동/ 개정 통과된 모 성보호 관련 법 률에 관한 소개/ 모성보호법 통과 와 이후 과제에 대한 칼럼 게재	여 성 관 련 각종 통계 (취업률, 벤 처 비율, 남 녀 직업분 포등을 남 녀 국가별 비교	각종 여성정 책 소개와 더 불어 정부위 원회나 행정 직등의 여성 참여율, 국가 별 비교, 여성 정책 등 소개		여성계 소식 제공 /역사속의 페미니 스트 소개/적성 탐색기회 제공/경 기도 여성단체들 의 활동을 달력으 로 제공

(계 속)

여성운동 영역 사이트명	성차별개선운동	법제도 개선운동	경제적지위 개선운동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	상담실	비고
⑫ 달나라 팔세포 (0호~16호)	성교육/순정만화비 판/성희롱교수 항변 책 비판, 성폭력/번 역글/사이버 페미니 즘들 소개/메스미디 어비판/영화평/아프 카니스탄 여성탄압 반대서명/여성영화 제/성매매/성희롱/ 여성에 대한 고정관 념/대학입시에서 성 퀴터제 비판/모성/수 학의 성차에 대한 고 정관념/여성과학자/ 외모에 대한 고정관 념/월경 페스티벌 2000/여성의 정체성 찾기/성폭력 뿌리뽑 기 100인 위원회' 계 시판 링크/남녀 평등 의식 등	군 가산점 논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정보제공	YH 여공 사건 여성 취업 문제 『서울여성 노조』의 의 의 제시			게시판 추가 장애여성공감'인 터뷰 장애여성 성폭력 관련인터뷰
⑬ 언니네(지난 호별로 콘텐 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음)	'성매매' 문제 관련 책 소개/남성지식인 들에 대한 비판글 소 개/ 우지사 성희롱 판정 기사 게재/社內 부부사직강요부당 판결기사/성폭력/명 절 지내기/여성운동 의 현재/낙태에 대한 다양한 글 게재/여성 단체 소개/비혼자에 대한 차별 소개/공창 발언 관련 논란 소 개/웃어라, 명절' 토 론회 내용 소개/청소 년 성범죄자 신상공 개 관련 토론회/월경 페스티벌' 후기 소개	모성보호법 관 련 논쟁과 자료 소개/아시아 성 산업 근절을 위 한 네트워크 결 성과 성매매 방 지 특별법 제정 을 위한 국제 심 포지엄' 소개	여 성 인 력 키 우 기'수 자 장난'	'여성계, 총리 인준 부결'기 사 게재		자료창고에서 여 성관련 자료 제공 · 노동/가사노동 (76) · 정치/정책/법 (120) · 과학/기술/ 환경(19) · 사이버/사이버 성폭력(28) · 가족/결혼/ 육아(29) · 문화/미디어/ 비평(28) · 성/육체/교육/ 의학(28) · 성폭력/ 가정폭력(23) · 기타(170)

바. 소결

이상에서는 여성관련 사이트의 운영 및 여성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3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메뉴 구성 및 운영 현황 그리고 여성운동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단체 이외의 여성관련 사이트의 홈페이지 구성 및 운영 현황 : 여성운

동 사이트의 홈페이지 구성 및 운영현황은 여성단체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홈페이지 구성을 보면, 게시판 중심의 한 운영은 동일하지만 공개자료실이나 사이트 맵, 영문지원이 가능한 비율은 적고, 토론실을 운영하는 경우는 오히려 많은 편이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에서도 여성단체에 비해 사이트를 공개하거나, 사이트 운영 담당자와의 접근성 통로 개방 등에서 자료실의 신뢰성 확보측면이 조금 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 2) 여성운동 사이트의 보완 사항 : 각 여성관련 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 앞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약간의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보았다.

첫째, 사이트 공개와 신뢰성 구축이 부족한 사이트의 경우 이를 더 구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완이 요구되는 사이트들도 보이고 있다.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사이트의 경우 신뢰성 확보와 사이트 접근이 용이하도록 사이트 운영자 및 관리자와의 연락할 수 있는 통로를 충분히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관련 사이트 역시 여성단체와 마찬가지로 더 신속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off-line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고 주기적인 정보제공이 되지 않을 경우 사이트의 정체로 쇠퇴할 가능성이 크게 될 것이다. 회원이나 이용자와의 유일한 상호작용 통로는 사이버 공간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적인 이용자의 방문을 위해서도 사이트의 운영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3) 여성관련 사이트의 사이버 여성운동 현황 : 사이버 공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이트의 경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은 매우 활발한 편이며, 여성단체보다 더욱 뚜렷하게 양분되는 성향이 있었다. 즉, 여자만세나 여성주의 성향의 웹진 같은 경우 전반적인 여성운동의 전 영역에 걸친 콘텐츠를 찾을 수 있지만 호주제 관련 사이트나 여성마당, 21세기 주부문화 연구소의 경우 사이트운영목적에 따라 전문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등의 사이트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요 현안별 여성운동 사례

앞에서 제시한 여성단체 사이버 공간 활용 및 여성운동 사이트들의 조사분석 결과를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각 여성단체와 여성운동 사이트의 구성 및 운영현황과 여성운동의 전개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각 여성단체나 사이버 공간에서 다루어진 여성운동 중에서 많은 단체들의 호응을 받았던 이슈를 중심으로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여성운동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사례별로 살펴보았다.

가. 호주제 폐지운동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호주제 폐지운동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호주제 폐지라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만들어진 현안 사이트에서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여성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호주제 폐지를 여성운동의 하나로서 다루고 있는 경우이다.

먼저 호주제 폐지를 목적으로 한 사이트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축이 된 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노호주)와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의 탈호주제대안사회운동(탈호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안티호주) 3개의 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현안 사이트에서는 호주제 관련 자료나 조사결과 등을 자료실에 게재함으로써 호주제의 부당성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실제 호주제 피해에 대한 상담을 병행하고 있었다.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3개의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에서는 주로 호주승계를 묻는 질문이나 어머니의 성을 함께 쓰는 방법에 대한 문의 등이 많았다. 이런 상담은 상담을 요청한 이뿐 아니라 사례를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호주제 철폐의 당위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호주제 철폐 운동방안으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문) 지금 호적에 엄마 성을 붙여 넣을 수 있는 방법 아세요?

저는 올해로 19살, 고3이 되는데요. 지금에 와서 호적에 엄마 성도 함께 넣을 수 있나요? 제 생각에, 이건 성명을 개정하기 전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 싶어서요. 저는 지금 아빠의 성인 ‘최’를 쓰고 있는데 엄마의 성인 ‘이’도 함께 넣어 ‘최이00’으로 하고 싶거든요..그냥 이름을 통상적으로 쓸 때는 제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만, 저는 호적에도 손을 대고(?) 싶은데 말이죠.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답) 부계성을 아주 안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아버지가 있는 아이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호주제를 폐지하면서 함께 폐지해야 할 조항입니다). 아버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바와 같이 ‘부모성 함께 쓰기’의 방식으로 이름자의 첫자에 어머니의 성을 임의로 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름의 길이는 전에는 무제한이었는데 현재 7자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는 어떤 글자를 쓰든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새로 태어날 아이의 경우 아예 이름을 지을 때에 성을 부계성으로 쓰고(부계성 강제조항이 있는 한 이는 변할 수 없음) 이름의 첫자를 모계성을 붙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만,님과 같이 이미 성과 이름을 호적에 등록시킨 경우, 개명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름이 부르기에 어감이 지나치게 이상하거나 혐오감을 줄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허락하므로 개명이 거의 불가능하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부모성함께 쓰기를 하는 분들도 법적인 성명이 아닌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통용하는 경우로 동참하고 있으며, 신생아의 경우에 위와 같은 방식(성은 부계성, 이름의 첫자에 모계성을 붙이는 방식)으로 호적에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개명허가가 있지 않는 한 성인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사례 2> 문) 난데없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더욱 어이없더군요. 재작년에 남편을 여윈 제 친구가 어제 주민등록본을 뺐습니다. 직장 다니는 큰딸이 필요하다고 해서였지요. 죽 살피다보니 호주가 연로하신 시아버지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친구는 사회인인 큰딸과 대학 재학 중인 막내 이렇게 딸 둘을 두고 있습니다. 시어른들과는 결혼 생활 내내 떨어져 살았고 아이들

도 장성하였으며 무엇보다 제 친구는 어엿하게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며 엄연한 가장 노릇을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시아버님이 호주라니요. 느닷없이 자리한 시아버님의 함자는 아직 채 아물지 않은 상처를 덧씌웁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누가 호주가 되는 거냐고. 말을 내뱉고보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그때는 누가 호주승계를 하게 될까요. 이러다가 결혼한 시동생이 멀쩡한 이 일가의 호주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이 실감나는 오후입니다. 친구처럼 딸만 둔 경우의 호주 승계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답변) Re..친구분의 경우 호주승계1순위는..

귀하의 친구분의 경우 현 호주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호주승계1순위는 친구분이 아닌 큰딸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호주승계가 발생할 당시(시아버지가 돌아가실 시기에) 큰딸이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호주승계1순위는 미혼인 둘째딸이 됩니다. 두 딸이 모두 결혼했을 경우야 친구분이 호주가 됩니다. 현행 호주제도의 호주승계는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딸들이 호주승계사유인 전 호주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호주승계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신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호주승계포기신고를 하면 친구분이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시동생의 경우, 별도의 하나의 가의 호주이므로 관계가 없습니다. “현 생활과 동떨어진 부계혈통 위주의 호주승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처: <http://antihouju.jinbo.net/>)

이상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건수는 많지 않지만 일부 답변의 경우 조회건수가 1000건을 넘고 있으므로 질문과 답변이 일반인에게 훌륭한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호주제 폐지를 목적으로 구성된 홈페이지가 아닌 일반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중에서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이트를 찾아보았다. 먼저 김포여성민우회의 경우 소식지를 통해서 사례를 여성의 눈과 남성의 눈으로 각기 제시함으로써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사례 3> 한 가구 두 호주 - 엄마도 호주, 초등학교 아들도 호주

저는 아들 둘을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38세의 여성입니다. 2년 전 남편의 모진 폭행에 견디다 못해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 역시 가진 것이 없기에 맨몸으로 아이들을 놔두고 집에서 혼자 나와 안 해 본 것 없이 하며 생활의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술을 그렇게 먹었으니 건강이 좋을 수가 없지요. 자연스럽게 꿈에도 그리던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같이 지내게 된 것만도 하늘에 감사하며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각오로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큰아들아이가 호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혼하면서 제가 호주로 되어 있고 아이는 아버지 사망으로 호주승계를 한 것입니다. 이제 겨우 열 살인 아이가 호주라니요. 어머니의 보호 밑에 양육되고 있는 아이가 나하고 무관하게 어떤 집안의 호주라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또 한 집안에 살고 있는데 두 호주가 웬말입니까.

<사례 4> 내 딸에게 내 돈 주기가 이렇게 어려워져야 - 보험금 지급상의 문제

얼마 전에 집안에 우환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큰병을 앓게 되자 집안의 걱정이 컸는데 다행히 보험을 들어두어 경제적인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보험설계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권하기에 듣게 되었습니다. 종신보험은 무조건 죽으면 현금으로 일시불 얼마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항상 아이들이 걱정이어서 횡단보도에서도 첫 번째로 건너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하는 차량을 경계해서이지요. 보험을 들도 나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를 큰 딸로 지정하자 친구가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이혼한 남편이 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살이 떨려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는 동안 가장 구실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여자와 바람이 나서 처자를 버린 사람에게, 이혼 후 10년 동안 한 번도 자식들에게 양육비는 커녕 안부인사조차 한 번도 없었던 남자에게 내가 다달이 적립한 피같은 돈이 고스란히 간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설계사인 친구는 그게 호주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가지고 있어도 호주제 때문에 애들 아버지에게 돈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상속인을 친정식구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친정 형제에게 상속했을 경우 친정 형제가 죽으면 그의 상속인들에게 간다니 선뜻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큰 아이를 상속자로 하고 별도의 공증을 해서 후견인을 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낳고 내가 기른 아이들에게 내가 번 내 돈을 주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야 합니까. 게다가 이제는 무관한 전 남편이 왜 끼어들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출처: <http://kpwomen.org/keumwave.htm>)

이외에도 서울 여성의 전화에서도 호주승계 순위등 호주제 자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호주제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사이버 호주제 폐지 운동은 호주제의 부당성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와 더불어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피해상담사례를 통해 호주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성차별적 법개정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군산 화재사건

여성단체 홈페이지에서 군산 대명동 지역 화재로 인한 매매춘여성 참사사건에 대해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방지라는 입장에서 많은 내용이 다뤄진 바 있다. 군산 화재사건의 경우 대명동과 개복동 2곳에서 유사한 형태의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1차 문제제기와 더불어 대응미비 등이 동일한 참사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경우 군산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사례 5> <군산 개복동 유흥업소 화재참사에 대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논평> 2002.1.31

정부는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책임 관계기관장을 즉각 처벌하라!!

지난 29일 군산 개복동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화재참사로 12명의 여성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특히 당시 감금이 없었다는 군산시의 사건경위 발표에도

불구하고, 1층과 2층의 통로가 철제문으로 잠겨져 있다는 사실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유홍업소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여성 종업원들이 업주에 의해 감금된 채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의 유홍업소 성매매 실태와 인권유린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대명동 사건이 일어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그것도 인접한 지역에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당국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대응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개복동은 군산에서 유명한 유홍업소 밀집지역이다. 군산시 당국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업소의 불법 내부구조를 파악하고 소방점검의무를 다하고, 불법 성매매업을 단속하였다면 이러한 참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군산시장과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의 책임을 명백히 가려서 이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란주점과 노래방, 비디오방 등으로 독버섯 같이 퍼져나가는 성매매 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 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출처 <http://www.iwomen.or.kr>)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경우 군산 화재사건에 대해 주로 정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시한 기사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기사로 게재된 글이다.

<사례 6> “군산 화재참사사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군산개복동 화재참사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기자설명회 장면 © 한국여성단체연합

4월 22일 오전 9시 30분시, 법원 기자실에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대책위와 여성연합, 유가족 일동은 유가족 대표 김00씨 외 23명의 이름으로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갖는데 이어 오전 11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장을 접수하였다.

손해배상청구의 요지는, 성매매업소 주인 이모씨 등은 평소 출입문에 특수 잠금장치를 하고 창문을 가리는 등으로 여성들을 감금하여 불법적 성매매를

강요하다가,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군산시는 소속 공무원이 소방점검을 통한 화재예방의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의무, 공중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참사를 피하지 못하게 한 점, 대한민국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여성들에 대한 불법감금과 윤락강요 등의 범죄행위를 예방, 진압, 수사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역으로 포주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으로 성매매를 묵인 방조한 점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각각 배상할 책임을 묻는 것이다.

▲ 유가족 대리인 중 한 명이며 여성연합 평등사랑변호사모임 대표인 최은순 변호사(한국여성단체연합)

특히 군산은 2000년 9월 성매매밀집 장소인 대명동에서 이미 5명의 여성이 감금매춘을 강요당하다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고, 대명동 사건 수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의 수뢰사실과 성상납 사실들이 드러나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군산시와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감금매춘 등을 예방하고 단속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다시금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도록 묵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개북동 화재참사 희생자를 끝으로 다시는 이 땅에서 감금매춘, 노예매춘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여성인권 유린 현실으로 방치해 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추궁하여 성매매 근절대책을 촉구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여성연합 평등사랑변호사모임 대표 최은순 변호사와 이정희 변호사, 김태선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유가족 대리인을 담당하고 공익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2002.04.22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처: <http://www.women21.or.kr/>)

이외에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에서 다룬 화재사건 관련 기사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6-1>

‘군산 매매춘 지역 화재참사 1주기 기념식 열려’ 여연 (2001.12.28)

‘군산 화재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 여연 (2002.1.10)

‘[속보]군산 매매춘 밀집지역 또 화재참사!!’ 여연 (2002.1.29)

‘감금에 의한 사망이다’ 여연 (2002.1.30)
 ‘참사책임자를 처벌하고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하라!’ 여연 (2002.2.4)
 ‘성매매 없는 세상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태어나소서’ 박병헌 (2002.2.5)
 ‘성매매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박병헌 (2002.5.17)
 ‘죽어간 어린 녀들을 생각하며’ 박병헌 (2002.2.20)
 ‘588 윤락가에는 비상구가 없었다’ 여연 (2002.4.11)
 ‘성매매 터널에서 밝은빛을 보게하리라’ 박병헌 (2002.6.27)
 ‘성매매 업소 방치, 국가 위자료 배상판결’ 여연 (2002.7.4)
 ‘대명동 화재참사 국가책임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박병헌 (2002.7.4)

이외에도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발표한 군산화재사건(대명동과 개복동 모두) 관련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사례 6-2>

‘전북경찰청의 군산화재사건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여연 (2000.11.14)
 ‘군산화재참사 1주년 성명서’ 여연 (2001.9.18)
 ‘군산 매매춘 지역 화재참사에 대한 긴급 규탄집회’ 여연 (2002.1.30)
 ‘군산개복동화재참사에 대한 여성연합의 입장(성명서)’ 여연 (2002.2.2)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
 여연 (2002.2.4)
 ‘군산 경찰서장님께 보내는 수사촉구서한’ 여연 (2002.2.4)
 ‘군산개복동화재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촉구 집회 성명서’
 여연 (2002.2.5)
 ‘군산화재참사 희생자 합동 여성장 / 서울노제 - 결의문, 식순’
 여연 (2002.2.8)
 ‘군산화재참사 희생자 합동 여성장 / 서울노제 - 추모시’ 여연 (2002.2.8)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판결에 대한 입장’ 여연 (2002.7.4)

이러한 성명서는 여성단체연합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이므로 여연에 가입한 다른 단체의 홈페이지 중 성명서 등을 통해 단체의 입장을 밝히는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성명서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전화 연합

에서 보면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 방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대명동 화재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인정 판결 환영: 군산시 책임면제 판결 유감 표명’ 성명서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을 밝힌 위의 성명서와 동일한 것이다. 또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지는 않지만 같은 주제의 성명서를 찾을 수 있었다.

<사례 6-3> ‘군산 개북동 화재참사’에 대한 성명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에 이어 이번에는 개북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업소에서 일을 마치고 잠을 자고 있던 여성들이 희생되었다. 군산 성매매 업소에서 화재참사가 일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그녀들의 죽음을 불러온 특수감금 장치, 빛 한줄기 들어오지 않는 쪽방, 집단수용, 취업 선불금이라는 명목 하에 쓰여진 ‘취업각서’, ‘현금보관각서’ 등의 현대판 노예각서는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그들의 생활을 보여주기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의 성산업이 관, 경찰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번 참사에서 관계기관은 사건의 결과를 속단하고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서 단지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어왔던 그 동안의 처벌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태도에 다름 아닌 것이다. 관계 당국은 책임정도를 철저히 가려내고 진상을 규명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한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발표하여야 한다.

성매매 알선업소들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심지어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이용업, 안마시술소, 노래방, 유리방 등 다양한 형태로 업소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성매매 알선업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규제를 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은 성산업의 급성장이라는 자탄할만한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다. 각종 업종으로 허가받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업소에서 피해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인신매매, 감금 상태에서 강요되는 성매매, 폭행, 협박, 갈취 등 이루 열거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규제할 아무런 장치도 없었던 것이다.

성매매 업소에서 당하는 인신매매, 성매매강요, 감금, 착취등의 피해는 사

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실로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그런 사실들이 늘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성매매의 문제는 단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만의 문제는 분명 아니다. 그 속에서 과급되는 성폭력, 협박, 갈취 등의 인권유린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의 문제로 돌아온다. 하기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대책위’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인신매매, 노예매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투명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 2002.2.5

(출처: <http://www.kwfa.net/>)

이상과 같이 군산 화재 참사사건의 경우 주로 여성단체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관련 기사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단체 회원 및 일반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성매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될 것이다.

다. ‘장상여성총리지명’ 관련 기사 및 성명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최초의 여성총리 지명과 국회에서의 인준거부에 대한 논란이다. 앞서의 두 경우와 다른 점은 호주제 폐지의 경우는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자료와 상담을 통해 홍보하는데 있고 군산 화재사건의 경우 여성의 인권유린과 더불어 성매매 방지라는 차원에서 성명서를 통한 세의 결집화와 주의환기에 있다면 여성총리지명은 이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표현을 통한 쟁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초의 여성총리지명에 관한 여성단체의 입장은 대체로 환영하는 편으로 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이나 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뿐 아니라 정치 관

런 단체들에서도 이에 관련된 성명서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여협의 경우 이에 관련한 성명서를 2002년 7월에 2개 발표한 바 있다.

‘새 국무총리에 장상 이화여대 총장 임명에 관한 성명서’ 여협 (2002.7.11)

‘장상 총리 임명 동의안 부결에 대한 성명서’ 여협 (2002.7.31)

여연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기사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신임 총리서리에 장상(張裳)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임명’ 여연 (2002.7.11)

‘장상 총리서리 논란 이렇게 생각한다’ 남인순 (2002.7.23)

‘첫 여성총리 인준 부결 유감, 철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되길...’

여연 (2002.7.31)

위의 기사이외에도 <최초 여성총리 지명의 의미를 나누는 여성모임>이라는 입장발표와 더불어 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서리 환영한다! 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최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평가와 과제’ 긴급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여성의 전화 연합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의 글을 찾을 수 있다.

단체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 이외에 네티즌의 의견을 묻는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엿볼 수 있다. ‘한국여성유권자 연맹’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넷 조사 결과와 ‘살류주’ 홈페이지 집중토론에서도 네티즌의 의견을 엿볼 수 있다. 한국여성유권자 연맹 홈페이지에서 여성총리 지명과 뒤이은 인준거부와 관련되어 2개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첫 번째 질문인 ‘신임총리(서리)에 장상 전 이대총장이 임명됨으로써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첫 번째 질문에 찬성이 69%(67명), 반대가 25%(24명), 모르겠다가 6%(6명)으로 대체로 찬성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두 번째 총리 인준안 부결에대한 질문인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상 총리 인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찬성’ 61%(48명), ‘반대’ 29%(23명), ‘관심없다’가 10%(8

명)로 나타났다.

또한 살류주의 홈페이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네티즌의 반응을 볼 수 있다. 앞서 살류주 홈페이지를 소개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게시판의 집중토론을 통해 약 250건이 넘는 글이 이에 관련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에서의 인사 청문회에 대한 반응 역시 뚜렷하게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쟁점토론에서 논란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 7-1> 장상총리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살류주 2002.8.4)

도덕성은 정책검증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된다.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장상씨에게 정책이 있을리 없다. 설사 있다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무위원들에게 넘길게 뻔한거 아닌가? 정치를 바라보며 우리는 늘 ‘정책’보다는 책임 있는 정치인을 원했다. 공직자의 책임성.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총리에게 정책을 검증한다는 건 우스운 소리다. 총리는 경쟁후보가 있는 것도 국회의원도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다. 또 총리가 정책을 세로 세우고 입안하는 자도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총리다. 총리후보에게 정책을 검증하자고 하는 그 글을 쓴 사람은 공연히 논리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정책이란 도덕이 엄격할 때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며 도덕적 자질은 총리에게 가장 최우선되는 정책덕목이다.

<사례 7-2> 장상문제의 불공정성... (살류주, 2002.8.1)

저는 이번 장상총리 인준부결엔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마음은 있지요. 현재 정치권에 있는 남성 의원들..장상보다 얼마나 깨끗하고 도덕적이기에 그녀에게 그토록 돌팔매질을 하는가..하는 것입니다. 장상은 사상 최초의 여성총리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 시키기에 충분했고, 그런만큼 문제가 많았던 그의 치부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상이 그저 어느 대학의 평범한 남성 총장을 지내다가 총리로 임명 되었다면 그렇게 시선이 집중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먼지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 청문회를 열기까지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장상인준 부결에 대해 씩씩함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장상 총리인준 부결을 계기

로, 남녀를 막론하고 좀더 도덕적으로 부적합한 인물은 국회에 진출할 수 없는 풍토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장상이 남성에 비해 여자로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여론이 일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행처럼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편법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특정인물을 향해, 우리는 괜찮았지만 너는 안된다 비난을 하고 죄인시 한다면- 그것도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편법을 누리던 사람들- 그것은 분명 불공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정치권에 비판적이고 더군다나 여자인 저로써는 이번 장상총리 인준 부결문제도 이러한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장상이란 인물이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고, 인준 부결에 수궁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례 7-3> 장 서리 언론검증 ‘성편견’ 없었다 자신할 수 있나
(살류주, 2002.7.24)

박정희 기자 / jhpark@dominilbo.com

언론은 여성 고위공직자를 어떻게 조명했을까

현정사상 첫 여성총리가 지난 11일자 개각으로 탄생한 후 장상총리 서리를 둘러싼 갖가지 도덕적 문제가 제기됐고, 오는 29~30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앞두고 도내 여성계에서도 ‘잘잘못은 가리되 첫 여성총리탄생’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데 의견일치를 본(본보 15일자 보도)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에서도 여성지도자들이 모였다.

장총리 서리에 대한 입장표명을 명분으로 모이기는 했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각종 논란 = 제3자의 흠집내기’ 정도로 가닥 잡은 상태. 이러한 여성계의 반응은 언론의 보도행태로 미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여하튼 이런저런 잡음을 불식시키고 또 오는 청문회가 ‘성(性)편견없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길’ 바라면서 여성지도자들은 주요 3당을 돌면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장총리서리를 계기로 고위직 여성공직자는 누가 있었고, 어떻게 옷을 벗었으며 그에 관한 보도행태는 어땠는지 거슬러 살펴보면, ‘언론의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잣대란 어떠해야 할 지 살펴봤다.<편집자>

▶역대 여성 장관 누가 있었나 = 이승만 정권때 임영신(상공부), 김활란(공보처), 박현숙(무임소)장관이 있었다. 최규하 정권때 김옥길(문교부), 전두환정권때 김정례(보건사회부), 노태우정권때 여성문제를 주로 다루는 정무2장관 자리에 조경희·김영정·이계순·김갑현 장관이 차례로 맡았다.

김영삼 정권 시절엔 정부2장관자리에 권영자·김윤덕·이연숙씨가 각각 지냈으며, 황산성(환경처), 송정숙(보건사회부), 김숙희(교육부)씨가 각 부처에서 활약했다. 현 김대중정권에서는 한명숙여성부장관과 김명자환경부장관이 있다. 김장관은 1999년 6월 손숙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후 3년 2개월째 장수하고 있다. 김 장관은 김정례 전 보건사회부장관이 세운 32개월 29일의 재임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수 여성장관에 올라있다.

- ▶ ‘물의’ 빚으며 옷벗은 여성장관들 =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황산성장관과 손숙장관. 김영삼정권때 황산성 환경처장관은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돼있다. 93년 국회답변 도중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언론에 호되게 비판을 받았다. 99년 5월 손숙 전 환경부장관은 러시아에서 연극을 공연하고 전경련으로부터 격려금 2만달러를 받은 것이 화근이 돼 취임 32일 만인 99년 6월 경질됐다. 김숙희 교육부장관은 비교적 장수했지만 ‘한국군 월남파병은 용병’이라는 말을 해서 물러났다. 이외 김영삼정권때 박양실 보사부장관이 부동산투기의혹으로 취임10일만에 물러났고, 김대중정부의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도 부동산투기의혹으로 56일만에 옷을 벗었다.
- ▶ 언론은 ‘남성’임이 분명해 =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 물러나게 한 경우와 달리 ‘언론의 눈은 남성’임을 반영하고 있는 보도행태가 많았다. 황산성장관이 바지에 손 넣고 있는 장면, 박양실 보사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 사진을 실은 것이 그러한데, 이는 ‘건방지거나 품위 없음’을 독자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황장관과 손숙장관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하기도 했다. 91년 프랑스 크레송 전 장관도 이런 부분을 불평하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장관이 되자 유력 논설위원이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 내가 남자였대도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차에서 내리면 카메라는 다리에 초점을 맞췄다. 남성엔 이런 일이 없다. 남성들은 뭔가 성취를 못해도 상관없었다.” 크레송은 다른 사유도 겹쳐 1년도 못돼 실각했다.

이런 보도태도는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장총리서리가 임명되자 다른 대학총장출신이 총리가 됐을 땐 나오지 않던 ‘전문성 우려’가 부각됐다. 기혼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시각은 더하다. 남편과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극복하고, 가족들이 어떻게 협력해왔는지가 초점이 아니고, ‘평소 집안일에 소홀함도 없었다’가 주제였다. 남편을 인터뷰하는 기사 어디에도 ‘서로 어떻게 도왔는가’에 대한 내용은 없고 ‘힘

든데도 집안일은 꼼꼼했고, 도시락도 잘 챙겨줬다’며 슈퍼우먼적 기질을 강조한 것. 이외도 의도성있는 대목으로 ‘장총리가 고민스러워하는’ 사진을 크게 실거나, 지난 제헌절 다른 집과 달리 장총리집에 태극기가 걸리지 않았다고 꼬집는 사진이 실리기도 했다.

- ▶ 따라서 이왕이면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중심인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평가의 잣대도 남성편향일 가능성도 높다. 특히 김영삼정권과 현정권에서는 여성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친분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진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여성의 고위직진출이 ‘시혜나 배려’의 차원에 머무른 감도 없지 않았고, 행정경험이 없어 ‘장수’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경험 없음은 여성의 잘못일 수만은 없고, 사회적 성숙도와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여성계 및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오는 29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덕적 A학점’에 비중을 두기보다(이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을 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최초의 여성총리라는 정치적 현안은 여성의 정치 세력화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여성단체의 환영 성명서로 시작되어 인준거부에 따른 여성계의 반응을 뜨겁게 살펴 볼 수 있는 문제였다.

라. 사이버 토론회: 평등한 결혼식, 여성의 재산권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서울 여성의 전화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결혼에서부터 재산관계까지, 남녀평등 OK!!> 사업의 일부인 사이버 토론회이다. 사이버 토론회는 2002년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2주에 걸쳐 인터넷 한겨레 토론방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의 2주 동안은 여성의 재산권에 대한 토론을 2002년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하였다.

게시판에서 처음에 ‘결혼식문화에 대한 토론방’임을 알리고 ‘결혼의 주인 되는 법’이라는 발제문이 이어진 후 토론이 시작되었다. 여기에서는 상호간의 대화가 회신(re)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단순한 비난성의 회신도 있지만 회

신을 쓴다는 것은 상대의 글을 주의 깊게 읽었다는 증거이고 특정한 상대를 의식해서 쓰므로 회신이 많이 올라온다는 사실은 토론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총 60개의 글 중에서 1 번의 시작하는 내용의 글과 2번 발제의 글, 3번 발제문임을 알리는 글, 사례를 공모하는 11번 글, 마지막에 토론을 정리하는 59번 글을 제외한 55개의 의견 중에서 회신이 하나라도 첨가된 의견은 29개로서 52.73%의 의견에 회신률을 보였다. 또한 회신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인 29개 의견의 총 회신건수는 112개로서 회신이 있는 경우의 평균 회신 건수는 3.86개, 전체 의견의 평균 회신건수는 1.96개였다.

이어진 ‘부부는 일심동체, 재산은 남편명의’의 경우 85개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앞서 평등한 결혼문화보다 더욱 토론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 토론 시작글과 발제문, 앞의 글이 발제문임을 알리는 글, 사례를 공모하는 공고문, 마감의 정리 글 5개 글을 제외한 80개의 내용 중에서 답이 이루어진 것은 44개로서 평균 55%의 의견에 응답하고 있다. 또한 회신(re)의 총수는 154개로 회신이 이루어진 44개의 글에 각기 평균 3.5개의 회신이 올라왔으며 전체 의견에 대한 평균 회신건수는 1.93개였다.

여성재산권의 경우 결혼문화에 비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에 대한 비방성의 글이 나타났다. 토론실의 여성재산권에 대한 비방성 글과 답변의 제목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1 마마보이들은 봐라 (2002.8.5)

회신1 : 이 암컷 년이... (2002.8.6)

회신2 : 정말 (2002.8.6)

회신3 : 누가? (2002.8.6)

150 <부부재산공동명의로에 대한 토론 정리글>

회신1 : 뭐야 이거! 이글 정리한사람이 여자잖아. 안티녀자 (2002.8.5)

회신2 : 누군진 모르겠으나 완전 도둑년 심보구만 왜 여자만 (2002.8.5)

회신3 : 지난번 정리처럼 짜증이구만 (2002.8.5)

회신4 : 정말 웃기는군! 가사노동의 가치라? (2002.8.7)

회신5 : 더러워서 결혼 안할란다... (2002.8.4)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글 150번의 토론을 정리하는 내용에 부가된 답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8> 인터넷한겨레 토론방 토론 예

회신1) 뭐야 이거! 이글 정리한 사람이 여자잖아.

회신2) 누군진 모르겠으나 완전 도둑년 심보구만

누구 마음대로 당신의 도둑놈 심보로 결론을 맺는 겁니까. 여성의 가사노동이 부부 재산권 행사에 인정된다면 남성 또한 가정생활 중 소모되는 노동에 대한 것도 실질적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마따나 가부장제 어찌고 하는데 가부장이란것은 남성만을 지칭하는것이 아닌 한 가의 부양자를 지칭하는 말일뿐이며 가정의 기본적 운영원천은 부양자에 의해 이루어짐에 그가의 중심을 인정하는 말일뿐며 그것은 절대 불평등한것이 아닌 실질적인 하나의 지칭일 뿐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자가 미국국민 모두가 아닌 그나라 대통령인것처럼 집단에 대한 중심적 존재의 지칭으로서의 가부장의 호칭<어떤 이익도 없는 단순한 호칭>그것은 원만하고 합리적인 가정의 운영과 사회참여를 원활화할 수 있는 진보적 명칭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통합적 평등성에 위반됨없는 하나의 가의 통칭일뿐이며 그러한 사고 방식은 어느 나라나 보편적으로 자리해 있는 의식인 것으로 혼자 가부장이란것이 틀린것인양 오도하고 주절대지는 마쇼.

또한 도둑놈 심보를 인정하는 재산 공동명의나 위자료 가사노동과 약육법과 같은 잘못되며 불평등한 여성중심적 이혼 재반 관련법은 정말 평등하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시대적 미개한 법률의 폐지를 이야기 하지는 못할망정 여성중심적 억지를 당연히 이야기 하는 도둑년 심보도 겉으로만 평등한 사회 어찌고 지랄떠는 모습 참 우끼지도 안는군요. 이봐 당신같은 인간이 당연히 억지쓸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평등을 넘어서 억지사회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도둑년 심보는 버리고 당신같은 도둑년들의 모습은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 평등과 형평성 능력에 따른 대우의 차등이란 기본적 명제에 대비해서 시인할건 시인하고 바로잡으며 이야기 하쇼.

회신3) 지난번 정리처럼 짜쪼이구만

여성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하대로 해줄려고 노력해도 꼭 이런 다 된밥에 코 빠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열 받는단니까.대략의 내용들은 부부공동명의

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견과 전혀 수용 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팽팽했던 것 같습니다. 호주제와 같은 논리군. 또한 남녀대결을 지독하게 교묘히 유지시키는구만. 내가 본 글 중에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글 본적이 없다. 폐지 아니면 존속, 백 아니면 흑, 0 아니면 x, 공동명의를 전혀 수용할수 없다가 아니라 기여도에 따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공동명의로 하자는 데(이 생각은 조숙현 변호사님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음) 어찌 그리 고집을 부리는지... 원... 합의점도 없이 무조건 지들 맘대로 하자는군.

오직. 타도 남성, 남성꺼도 여자것, 여성꺼도 여자것. 남의 것까지 손아귀에 쥐고 있어야 속이 시원하시겠다는 이기주의. 고민이다. 아내에게 주어진 명의로도 회수해야하나 진짜 고민이다. 너희들이 날 진짜 악마로 만드는 구나.

회신4) 정말 웃기는군! 가사노동의 가치라?

재산 부부 공동명의? 그것도 있는 녀년들의 이야기지. 쥐꼬리만한 소득으로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노후를 기약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전체 국민의 대다수다. 그런 가정의 경우 니꺼 내꺼 가릴 거리도 없다. 그런 가정의 주부는 가사노동 엄청나게 하지, 그러나 있는 녀년들이나 배부른 녀년들의 경우는 다르지. 남편 잘 만나서 남편이 돈 팡팡 벌어다 주는 녀년들이 가사 노동이라구? 손끝에 물하나 안물이고 가정부 고용하거나 파출부 불러서 가사일 모두 처리하고 지년은 헬스다, 에어로빅이다, 동창회다, 쇼핑이다, 계모임이다 하면서 흥청망청 돌아다니는데 그녀들이 어떻게 가사노동의 가치를 따질 수 있으며, 그녀들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쓸줄 만 아는 녀년들이 무엇을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부부 공동 재산 운운하는지.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다. 가사노동 가치? 그럼 남편은 ? 여자라는 족속들이 지들 혼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자한테 빌붙어서 피 빨아먹는 흡혈거미들 아닌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썩고생 하면서 벌어다 가족이라고 먹여 살려 왔는데 뭐. 가사노동 가치 운운? 예라 이 도둑녀들아. 그럼 그동안 먹여 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고 병나면 고쳐준 값도 계산해서 내놔.

회신5) 더러워서 결혼안할란다.....(냉무)

사이버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 여성의 전화가 단체 홈페이지보다 인터넷 한겨레 토론헤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토론이 진행되면서 서로의 의견이 합

의를 이루어가기 보다는 각자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비난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점은 안타까웠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사이버 성폭력에 가까운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점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이 확산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 토론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회신의 경우 특정한 아이디의 소유자가 집중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올리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상대의 글을 복사한 후 틀린 점을 지적하고나 오류를 지적하는 형식의 글인 경우 대체로 토론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사사로운 점을 들어 서로를 비난하거나 인격을 무시하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을 공론으로 위장하는 등 사이버 토론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비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바람직한 여론을 형성하고, 여성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런 폭력적 토론문화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올바른 사이버 토론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 폭력성은 비단 부부 공동재산제를 반박하는 입장의 글뿐 아니라 이런 반박을 비난하는 회신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올바른 사이버 토론문화의 정착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다.

마. 소결

위에서 살펴본 3가지의 현안과 사이버 토론회의 사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운동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운동은 대체로 단체나 사이트 운영자가 화두를 던지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법과 더불어 피해사례나 관련 실제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두 가지 운동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첫째,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운동은 여성단체나 사이트 운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서나 입장 표명을 통해서 전개될 수 있다. 군산 화재사건과 같이 하나의 이슈가 있을 때 관련 여성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네티즌들로 하여금 현안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군산 화재사건과 같이 특정한 하나의 사건중심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운동은 하나의 현안을 다루는데 있어 실제 피해사례 등을 제시하고 실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림으로써 법이나 제도 차원에서의 성차별의 문제를 인식시킴으로써 여성운동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호주제 폐지운동 같은 경우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고유의 전통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지닐 수 있는데 이를 관련자료나 조사자료 등을 제시하고 실제 호주제의 피해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어느 누구와도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을 폐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운동은 다양한 의견개진과 참여를 통해 여론형성의 기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장상총리지명에 대한 토론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최초의 여성지명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사건은 총리의 자질에 대한 논란, 여성에 대한 편견, 새로운 인사검증제도 도입 등 다양한 파장효과를 낳았는데, 이는 네티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난상 토론은 앞으로 여성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작은 규모의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개별단체의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여성단체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격에 맞는 특화된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서울여성의 전화의 평등부부에 관한 사이버 토론회에서 볼 수 있듯이 게시판을 통한 여론수렴이나 여성운동을 전개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해당단체의 홈페이지에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네티즌의 이용이 많은 다른 사이트를 빌리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VII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방안

<심층면접 및 전문가 워크숍 결과>

1. 심층면접 결과	229
2. 전문가 워크숍 결과	291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접 및 전문가 워크숍 결과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충실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사이버 공간(on-line)에서의 여성운동 실태와 활용에 나타나는 효과·문제점·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단체와 여성관련 사이트의 실무책임자 및 운영자를 심층면접 하였다³⁾. 또한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여성단체의 현실 공간(off-line)과 사이버 공간(on-line)에서의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⁴⁾

1. 심층면접 결과

가. 심층면접 대상 여성단체의 특성 및 사이버 공간 활용의 계기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정보화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정보화를 촉진시켰다. 특히 1999년 이후 정부의 민간기구에 대한 정보화 사업을 대폭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많은 여성단체들이 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심층면접조사 대상 여성단체들의 특성과 함께 사이버 공간 활용의 계기를 살펴보았다.

- ①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59년 12월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들의 협의체로 창립된 이래 현재 41개 회원단체와 16개 협동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단체들의 협의체이다. 여성단체간의 친선·협력과 정부 및 사회에 여성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 등을 꾸준히

3)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여성단체 22개(중앙18·지역4)와 여성운동 사이트(4개)의 실무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를 면접조사 하였다. 심층면접 조사대상의 26개 단체 및 사이트의 명단은 III장에 제시되어 있음.

4) 현장 전문가 워크숍에 참가대상자는 10명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여성단체 또는 공동네트 운영 실무 책임자를 선정함. 참가자 명단은 III장에 제시되어 있음.

시행해왔다. 1990년 후반부터 정보화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7년에 자체적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홈페이지(www.iwomen.or.kr)를 구축하였다.

- ②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남녀평등, 여성복지, 민주·통일사회 실현, 여성운동 단체간의 협력과 조직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1987년 2월 창립되었으며 현재 전국에 6개 지부, 27개 회원단체를 두고 있다. 남녀 평등사회, 남녀 공동참여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정보의 공유화와 회원 단체 네트워킹을 위해 1999년 중반 홈페이지(www.women21.or.kr)를 만들었다.
- ③ **한국여성민우회**는 남녀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되었으며 지역에 11개 지부를 두고 있다. 남녀 평등한 사회·여성의 세력화·지속 가능한 참여민주사회를 위해 여성운동, 성차별 개선운동, 법 개정운동, 가정폭력문제, 상담, 한 부모운동, 미디어 상에서의 성차별개선운동, 모니터운동을 해왔다. 이 단체는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만남의 장으로 1997년 처음 홈페이지(www.womenlink.or.kr)를 구축하였다.
- ④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은 현재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과 남녀평등을 목적으로 1983년 창립되었으며 25개 지부와 1개 지회에서 상담과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기관으로는 성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 1355위기의 전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피난처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며 심리, 법률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사이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00년 홈페이지(www.hotline.or.kr)를 만들었다.
- 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내 최초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기관으로 1991년 4월 설립되었고 현재 전국 49개 상담소를 두고 있으며, 피해자 면담 상담활동, 컴퓨터 운영, 남녀평등한 성문화운동·교육, 미디어 사업, 인터넷 상담과 사이버 토론회 개최, 홍보, 출판 자료집 발간 및 예방 비디오 제작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 단체는 정보제공과 상담을 위

해 1997년부터 사이버 공간(www.sisters.or.kr)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 ⑥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는 1958년에 설립된 여성사회교육단체로서 여성(어머니)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펴므로써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여성들의 자기개발과 자아의식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7년부터 기업의 도움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1999년에 천리안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주면서 사이버 공간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www.koreamother.or.kr)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 ⑦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가정주부로 하여금 주부의 가치관을 정립하여 바람직한 가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1966년에 결성되었고, 사회봉사 참여, 가정생활의 합리화, 자녀교육문제, 취미활동, 시사문제, 문맹퇴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정보화사업이 단체홍보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회장단이 홈페이지(www.jubclub.or.kr)를 만들기로 결정하였으며, 홈페이지 제작은 외부에 수주를 주어 제작하였고, 사이트 운영은 기업의 도움을 받았다.
- ⑧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969년 여성의 올바른 주권행사로 새 시대의 여성상을 부각시켜 민주발전을 이룩하고자 창립되었다. 현재 시·도 지부 13개와 75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여성정치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99년 9월~12월 공명선거를 위한 여성사이버선거를 실시하면서 연맹 홈페이지(www.womenvoters.or.kr)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여성사이버선거, 여성사이버칼럼, 여성의원캐릭터 공모, 사이버여성캐릭터 공모, 대화방 운영 등 남녀평등 의식확산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 ⑨ **한국여성상담센터**는 1998년 8월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법적·의료적·심리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주로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문제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6월 온라인 상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문제에 대한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 홈페이지(www.iffeminist.or.kr)를 개설하였다.

- ⑩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1971년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의 역할을 체득하고 실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에 232개 지회가 있다. 이 단체의 주요활동은 전국지도자대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센터 운영, 소비자교육, 환경보존운동, 식생활개선운동, 자원봉사 활동,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어린이집 운영,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 신용협동조합 운영 등을 하고 있다. 1998년 단체사업의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www.nchc.or.kr)를 구축하였으며, 주로 단체활동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⑪ **한국여성재단**은 남녀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모성을 보호하고, 훌륭한 여성지도자와 여성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124개 여성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2001년 발족하였고, 100억 원의 ‘여성운동 지원을 위한 여성 기금 조성’을 주요활동 목표로 하고 있다. 2001년 2월 홈페이지(www.womenfund.or.kr) 개설로 사이버 공간에 참여하였으며, ‘딸들의 이야기’라는 이벤트를 주최하고, 정신대할머니나 농촌여성을 비롯 소외계층여성을 위한 기부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 ⑫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WTO개방 체제에 맞서 우리농업 지키기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1989년 3월에 조직되었으며, 여성농민의 발전도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3개 군단위 조직이 있다. 홈페이지는 2001년에 개설하였으며 현실세계에서의 행사내용들을 홈페이지(www.kwfa.or.kr)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단체의 활동을 알림으로써 농촌여성과의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⑬ **대한YWCA연합회(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여권을 신장시키고자 1922년 4월 창설되었으며 현재 전국에 55개 지부를 통해, 88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1999년에 홈페이지(www.ywca.

or.kr)를 개설한 이래, 단체의 목적을 홍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회 운동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회원의 나이에 따라 어린이, Y-틴, 대학생, 성인 별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사 내용과 소식을 공지하고, 자료실 및 인트라넷을 통해 회원들 간의 의견과 정보의 공유는 물론 공문 등과 같은 사무처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고 있으며, 각 지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여 정보를 나누고 있다.

- ⑭ **한국여성중앙회**는 1953년 5월 5일에 6.25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여성들이 비전을 갖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2001년에 여성부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웹 호스팅을 사용한 홈페이지(www.jw21.or.kr)를 개설하였으며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였다.
- ⑮ **한국정치연맹**은 1990년 봄에 실시된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성이 전체 의석의 0.9% 밖에 당선되지 못한 참담한 선거 결과를 보고 여성들의 안일과 무관심·의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의회진출을 확대하고자 창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치의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건전한 정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활동(www.womenrights.or.kr)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2001년 여성부의 여성단체 정보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다.
- ⑯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여성의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정치 문화의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대학교수와 여성정치인이 주축이 되어 1989년에 설립되었고, 여성의 의회 진출을 위한 각종 교육과 여성정치 포럼을 실시하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국내외 여성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을 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여성정치』를 계간으로 발행하는 동시에 각종 연구 논문집과 보고서, 단행본을 출판하고 있다. 1998년 3월 홈페이지(www.kiwp.or.kr)를 개설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가들과 회원들 간에 소식을 공지하고 단체를 홍보하는 것 외에, 여성정치문화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2002년에는 ‘6·13 지방선거 통신원’ 사업과 ‘여

성정치인력뱅크' 구축사업을 담당하였다.

- 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에 창설되었으며, 법률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무료 법률 상담, 화해 조정, 무료대서, 소송구조를 통한 법적 권리 보장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국내 29개 지부와 미국의 6개 지부를 두고있다. 2002년 3월 홈페이지(www.lawhome.or.kr)를 처음으로 개설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법률 상담은 하루 20-30 건으로 전화나 면대면 상담 사례보다 많은 편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홍보와 보도 자료를 올리고 있으며 호주제폐지에 대한 온라인 서명 운동도 실시 중이다.
- ⑱ **또하나의 문화**는 1984년 8월 동인지 출판을 통해 남녀평등한 대안 문화를 제시하고자 결성되었고, 1999년부터 대외적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단체 활동의 홍보와 회원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홈페이지(www.tomoon.org)를 개설하였으며, 현재 게시판을 통해 정보교류와 행사홍보를 하고 있다.
- ⑲ **대구여성회**는 여성들이 받는 임금과 고용차별, 생존권 위협, 가사노동, 성차별적 환경에 저항하여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고 건강한 주체성을 자각시키기 위하여 1988년 1월에 창립되었다. 그후 실업자를 위한 지역공동망 구축사업,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실직가정돕기와 깨끗한 환경만들기 등의 운동(www.daeguwomen21.or.kr)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제도의 핵심인 호주제도 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대구여성>회지 발간을 통해 여성운동의 저변확대 및 홍보에 힘쓰고, 평화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⑳ **서울YWCA**는 1922년 12월 30여명의 신여성이 주축이 되어 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서울YWCA)로 창설되었으며, 초창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여성교육과 계몽에 앞장서 사회개선운동,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현재 여성운동, 소비자운동, 봉사활동, 청소년운동, 환경운동, 여성의 집운영, 바른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에 단체사업을 홍보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 회원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 ㉑ **인천여성의 전화연합**은 1994년 8월에 설립된 여성인권운동단체로, 2000년 4월 인터넷 홈페이지(www.hotlin21.or.kr)를 개설하여, 현재 여성인권 옹호사업을 주로 전개하며 알림판과 인권사건방을 통해 각종 피해사건과 행사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 서명운동과 경제적 도움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 ㉒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991년 광주전남여성문제특별위원회의 결성을 모태로 지속적인 활동을 해 오다가 1998년에 ‘광주전남민주여성단체협의회’로 개칭하였다. 이 단체는 비제도권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의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강한 조직적 연대를 가지고 있다. 주로 활동내용은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발간 및 여성제, 학교내 성폭력 근절, 공무원 남녀 차별 모집 항의, 여성부 추천, 평등문화제 등 사안에 따라 여성운동 쟁점을 이슈화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00년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광주전남지부조직으로 편입되었으며 현재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고 본회의 홈페이지(www.gjwau.or.kr)를 공유하고 전자메일을 통한 의견수렴 정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 ㉓ **부천여성네트워크**는 2001년 9월 부천지역의 9개 여성단체 등이 모여 통합 홈페이지(www.womenv.net) “여자만세”를 만들었으며 지역단체 간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부천 가정법률상담소, 부천 여성노동자회, 부천시 여성복지과, 부천 여성인력개발센터, 부천 여성의전화, 부천 여성회관, 부천 YWCA, 새소망 모자원, 모퉁이 컴퓨터가 이 홈페이지의 주체다.
- ㉔ **언니네**는 여성들을 위한 즐겁고 편안한 사이버 커뮤니티(cyber community)를 마련하고자 2000년 4월 창립된 여성주의 웹진으로 2001년 2월부터 본격적인 여성주의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다. 언니네(www.unninet.co.kr)는 웹진의 형태로, ‘특집’과 ‘동네’가 주요한 꼭지로, 특집은 말 그대

로 시기에 따라 페미니즘의 주요 논쟁 사안들을 다루는 코너이고, 동네는 영화·서적·만화 등 장르별로 페미니즘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콘텐츠 모음이다. 처음에는 여성주의 문화운동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으나, 2001년 10월 이후 컬럼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사이버 공동체의 성격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

- ㉕ **달나라딸세포**는 여해그림(‘여성 해방 그림’의 준말)이라는 소모임의 구성원들이 만든 페미니즘 웹진(www.dalara.jinbo.net)으로 1998년 7월에 개설되었으며, 15-20여 명의 동인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며, 따로 회원을 받거나 여성단체와 연대를 시도하지는 않고 있다. 여성을 상징하는 ‘달나라’에서 그 누구의 어머니나 아내가 아닌 여성 자신이자 딸로서의 목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 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기도 하고, 딸들의 눈으로 본 세상이야기나 딸들에게 즐거운 성생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㉖ **살류주**는 1997년 경남여성회에서 여성주의 문학 소모임으로 출발해서, 1999년 지역에서 일반 주부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중심, 지역중심의 문학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문학 동호인 단체이다. 2000년에 “살류주” 동인지를 처음 출간한 이래 현재 5회까지 무크지 형태로 발간하였다. 2000년 2월 살류주 홈페이지(www.salluju.or.kr)를 구축하였으며, 내용은 날마다 업그레이드하는 게 원칙이며, 사용자나 회원이 게시판에 직접 글을 쓰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고 있다. 김 경위 사건, 김정남 성폭력 사건, 박남철 성희롱 사건 등에 대한 사이버 투쟁을 주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네티즌들이나 일반인들 사이에게 이 단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상에서 여성단체들의 홈페이지는 단체활동의 홍보와 정보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한 경우가 가장 많은 가운데 일반 여성운동 단체들은 성차별 개선운동, 법개정운동, 성폭력 추방운동 등을 통한 남녀평등 사회구현 및 여

성사회 참여증진을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며 상담전문단체들은 피해여성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사이버 상담을 위해 홈페이지를 만든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성단체 설립목적에 따라 여성의 정치적 지위향상 도모, 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남녀평등의식 확산, 여성발전도모, 여성권리회복, 여성역할(소비자, 주부, 자녀교육 등)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조사대상 단체들의 홈페이지 개설 시기는 모두 1997년 이후이며, 26개 단체 중 3개 단체는 1997년 개설, 4개 단체는 1998년 개설, 6개 단체는 1999년 개설, 4개 단체는 2000년 개설, 6개 단체는 2001년 개설, 1개 단체는 2002년 개설로 나타나고 있다.

나. 여성단체 사이버 활동 현황

여성단체들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1) 사이버 성폭력 추방과 불건전한 정보에 대한 감시활동 전개

사이버 성폭력 추방운동과 모니터링, 조사활동 전개, 소책자 발간으로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있었다.

<사례 1> 사이버 성폭력 추방운동 전개 - “저희 단체는 사이버 성폭력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곧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 네티즌의 인권을 위해 사이버성폭력과 몰래카메라 동영상에 대한 심각성을 공론화시켜 정당과 정부에 특별대책을 마련토록 했고, 여성단체, 기업, 경찰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이버성폭력 추방에 앞장서고 있어요. 또 1999년 주부로 구성된 여성 사이버 모니터 팀을 구성하여 인터넷의 불건전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구요. 이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 추방을 위한 연구, 정책제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례 2> 사이버 성폭력 조사·연구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조사, 연구하여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소책자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례 3> 성폭력 추방운동 전개 - “2000년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평화로운 가정의 정착 및 형성을 위해 가정폭력 예방과 의식개혁의 장으로서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사이버토론회를 개최했어요. 네티즌들과의 친취적 만남 속에서 <사랑의 매>, <아내구타>, <아내강간>, <아내폭언> 등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의 전화)

<사례 4> 성폭력 문제의 공론화 - “우리단체는 온라인에서 올바른 성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사이버 성폭력 추방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성폭력상담 게시판도 운영하고, 사이버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사례 5> 가정폭력·성폭력의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가폭·성폭 피해자의 상담을 받고 있어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익명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인 대면상담보다는 간접적인 전자우편이나 화상상담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비단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포함하여 가족문제, 청소년문제, 성문제 등의 보다 광범위한 여성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이나 집단 상담이 온라인 상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성상담센터)

<사례 6>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웹 콘텐츠 개발 및 구축 -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웹 콘텐츠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현재 오프라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 근절 사업으로 축적된 자료를 온라인 상에서 웹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홍보 책자 유포와 거리 캠페인 등과 같은 활동을 사이버 공간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유해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상담실도 개설할 예정이에요.” (여성중앙회)

2) 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 전개

<사례 1> 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 사이버 토론회 개최 - “2000년 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을 위한 사이버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했어요. 가정폭력 상담을 받다보니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에 대해 이혼청구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문제들이 심각하여 이를 위해 99년부터 부부재산제도와 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차례 내부 토론을 가졌고, 2000년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을 주요사업으로 정하여 5월 구체적 법안을 가지고 내부워크숍을 했으며, 10월 “여성의 재산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어요. 인터넷 사이트 넷츠고, 우먼플러스(여성포털사이트)의 20대, 30대 여성들이 주축이 되었었고, 진보넷, 나우누리의 토론회에서도 내용이 많이 올라왔어요.”

(여성의 전화연합)

3) 사이버 여성운동 확대를 위한 교육활동

<사례 1-1> 사이버 여성 인권운동 워크숍 개최- “2001년 11월 사이버 여성 인권운동 워크숍을 주최하여 정보화 사회에서의 여성정보화의 개론과 방법, 사이버 운동 방법, 홈페이지나 게시판 운영원칙, 시민행동 연대나 사이버 운동을 잘하는 단체들을 모아서 분석한 강의를 듣고 단체에 적용시키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성의 전화연합)

<사례 1-2> 보도자료 게시와 필요시 토론 통한 의견 개진- “주로 사이버 상담업무와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이버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러 네티즌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슈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내는 데에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현재 각 지부들간의 사이버개념 인식에 대한 편차가 커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는 서울지부, 인천지부 정도와만 가능해요.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의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작년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을 했었고, 올해는 방법적, 기술적인 면의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배너를 하나 단다고 할 때 25개 지부의 홈페이지에 내용을 알리고 온라인 서명을 하기 위해 지부의 메인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링크시킬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성의 전화연합)

<사례 2> 오프라인 행사 홍보 및 온라인 상의 남녀평등 교육실시- “시간이 부족한 20대가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계층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행사 내용을 홍보하고, 온라인 상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인터넷 콘텐츠는 반복적으로 접속이 용이하며, 활용도가 높아서 온라인 상에서 교육을 받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후속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단계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어요. 기존의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여성학 이론, 여성관련 이슈고찰, 평가, 토론 등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점인 여성·교육·청소년·환경·통일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 개선점을 고찰함으로써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사이버젠더트레이닝”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중이며 2003년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성역할과 성인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하나의 문화)

4) 여성 정치참여 증진운동 전개

<사례 1> 정치의식화 프로그램 개발 - “2002년 4월부터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소외되고 방관자인 여성이 관심을 가지고 정치와 선거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고 참여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전국 10 대도시에서 모니터단을 모집하였고, 교육을 실시하여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또 사이트 상에서는 여성유권자 모임마당을 만들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변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부정선거를 고발할 수 있도록 의사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부클럽연합회)

<사례 2> 유권자와 지도자 교육 -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을 고취시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정권행사와 공명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도록, 유권자와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여성정치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또 세미나 및 공개토론회를 통해 정치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각급 선거 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와 건전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 16대 총선에 대비한 여성사이버선거에서 여성이 가상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했고, 이때 남·녀 대학생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이버 모니터 요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했어요. 또 송파구 보궐선거시 구청장으로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선거보도자료를 수록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

<사례 3> 남녀평등 문화 형성 - “우리나라 정치분야의 여성진출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는 한국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과 대등할 정도로 많이 높아졌으나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행정관리직 및 전문기술직)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비율이 매우 낮은 현실을 그대로 보

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써 남녀평등 이념 및 문화의 형성, 여성할당 30% 법제화에 따른 정당 내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현실화, 여성의 정치지도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개발 및 확대, 여성단체의 조직력 및 연대강화 등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정치문화연구소)

5) 가족법 개정운동 전개

<사례 1> 호주제 폐지 온라인 서명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법 개정 운동의 일환으로 “호주제 폐지운동”에 대한 온라인 서명을 받고 게시판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부터는 “호주제폐지운동”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 시민 연대 운동으로 확장해갈 방침이에요. 가정법률상담소 내 교육원의 강좌 내용을 온라인 자료실에 올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전 단계를 준비중이며, 온라인 법률 상담실을 개설하고, 각종 법률 서식지를 온라인 상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인쇄물들을 e-book화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쉽고 편하게 내용을 열람하게 할 계획입니다.” (가정법률상담소)

6) 소비자 보호 운동 · 모니터링 전개

<사례 1> 소비자 상담 - “여성부 IT사업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고발센터 및 지방정보화 지원을 하였고, 소비자보호활동으로 전국적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과 고발상담을 주로 하며, 인터넷 소비자고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사례 2> 사이버 감시단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 “올바른 전자 상거래를 위해 전자상거래 바로알기, 피해사례, 고발상담 등과 나눔터, 묻고 답하기 등의 코너를 만들어 활용했어요. 또 사이버 감시단을 교육하여 인터넷 쇼핑몰과 인터넷 게임사이트, 인터넷 교육사이트 등에 대한 사이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사례 3> 전자상거래 감시 · 교육 · 모니터링 활동 - “전자상거래 감시활동 및 전자상거래 정보제공과 교육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처

음에는 Off-line에서 한 행사의 자료를 게시하고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되던 사이버 사업이 여성인터넷지킴이(www.monitor.or.kr)에서의 사이버 모니터링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세력을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례 4> 여성 건강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여성건강증진운동을 위해 여성건강 저해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부클럽연합회)

7) 여성의식 개선운동 전개

<사례 1-1> 페미니즘 관련 이론과 소식 전달- “홈페이지를 통해 여성운동, 여성학, 페미니즘 관련 이론과 소식을 전달하고, 자료를 게시하며 나아가 여성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놓고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단 ‘여성 문제’에 대한 담론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여성의 삶에 대한 솔직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어요. 현재 20000여 명의 온라인 회원이 있습니다.” (언니네)

<사례 1-2> 여성의식 개선을 위한 사이버 공간제공- “여성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놓고 말하고, 대화하고, 글쓰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언니네에서 얻은 경험들이 많은 여성들에게 힘과 위안,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여성 단체나 여성학 관련 소모임들에게 서버 공간을 할당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사무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언니네)

<사례 2> 여성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여성들 사이에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의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면에서의 정신적 자립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달 도우미 교육과 포럼을 실시하며, 연 1-2회의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있어요. 대상은 20-60대에 이르는 폭넓은 연령층의 여성들로서, 여성의 문제를 구조적 모순이나 불평등에서 찾기보다는 여성 스스로 자신을 남성과 평등한 인간으로 자각함으로써 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게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전남여성연합)

8) 웹진을 통한 여성운동 전개

<사례 1>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이 주체가 된 토론활동 - “달나라딸세포는 20여 명의 동인이 홈페이지 운영과 콘텐츠 제작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편집장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달나라딸세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아버지 밑에서, 오빠의 뒤에서, 어머니와 함께 하는, 그래서 언제나 중심으로부터 비껴 난 아래쪽 주변부에 위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성은 사회로 진출하거나 결혼한 후에도 가족과 사회로부터 예측적인 관계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여성이 갖는 이러한 주변부적 속성은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지점들, 사회의 부분을 이루는 세포들과 수평적인 연대와 공존, 쌍방향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달나라딸세포는 ‘호호 아줌마’를 통해 성에 대한 자유로운 담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여러 진보 단체에서 일하는 일반인을 취재하여 그들의 일상적 삶을 들여다봄으로써 작지만 자유롭고 평등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어요.

달나라딸세포는 궁극적으로 ‘딸됨의 정치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딸됨의 정치학이란 거시적이고 패권주의적인 정치 활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변화로부터 대안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미시적이고 세포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어요.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어 제기할 수 있는 수다, 토론 같은 다양한 담론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달나라 딸세포)

9) 성평등 문화운동 전개

<사례 1> 성평등 쟁점 토론 및 글쓰기활동 - “살류주는 사이버 공간에서 글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투쟁을 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쟁점토론’을 통해 각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생생보고서’는 며느리이자 부인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시대 여성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곳이죠. 또 ‘다시보는 좋은 시, 유명글 똥침놓기, 책읽기, 영화읽기’를 통해 문학과 문화에 대해 토론하고, ‘열린 컬럼’을 통해 시사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 공간에서는 문학을 비롯한 각종 글쓰기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그때 그때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전개하고 있어요. 여성들의 인터넷 이용은 채팅·친교·쇼핑에 국한된 소극적인 활동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사이버 영토를 여성이 전유하려면 여성 스스로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론을 주도하며 토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특히 토론에 소극적이고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사이버 커뮤니티

에서는 남성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진지하게 의사소통을 시도함으로써 이들을 남성동지로 포섭해 내야 합니다.” (살류주)

<사례 2>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웹진 발행 - “2000년과 2001년에는 <남녀가 함께 만드는 인터넷 평등세상>을 주제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2001년에는 남녀평등의식 확산 및 네티즌들의 사회 참여의식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웹진 ‘하나 인터넷’을 총 10회 발행했어요.” (여성유권자연맹)

<사례 3> 가정폭력 예방 및 의식개혁을 위한 사이버 토론회 - “2000년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평화로운 가정의 정착 및 형성을 위해 가정폭력 예방과 의식개혁의 장으로서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사이버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네티즌들과의 친취적 만남 속에서 <사랑의 매> <아내구타> <아내강간> <아내폭언> 등 활발히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의 전화)

10) 사이버 교육운동 전개

<사례 1> 컴퓨터 교육실시 - “여성정보화 운동을 위해 컴퓨터 교육을 실시, 이메일 공모대회(2001. 10)도 실시했어요.” (주부클럽연합회)

<사례 2> 온라인 글쓰기 교육실시 - “여성부의 IT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01년 웹진 Women 21을 개통했어요. Women 21은 회원단체·전국 상근 활동가들·전문가 그룹들의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이버 상에서 제기되는 운동이슈들에 즉각적으로 뉴스매거진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온라인 상의 이슈 캠페인에 활용토록 배너·유모어 글·플래시에 대한 공모전도 열고, 사이버 글쓰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도 시작하고 있어요.”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례 3> IT 전문인력 양성 및 동영상 사이버 교육실시 - “2001년 8월~12월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활동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웹사이트 업그레이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IT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해 사이버 전담자가 리눅스 강의를 하고 있어요. 또 동영상 사이버 교육을 실시해 웹사이트 상에서 옷 만드는 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학원에 갈 수 없는 사람도 누구나 손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여성중앙회)

11) 여성단체 사업홍보

<사례 1> 단체 홈페이지 콘테스트 개최- “97년 7월 제1회 열린가족,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홈페이지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가정의 정보화와 여성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콘테스트를 통해 사회의 기반인 가정에서부터 정보화의 기초단위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열리게 되었으며, 이 공모로 인해 여성민우회의 위상과 역할을 크게 홍보하였습니다.” (여성민우회)

<사례 2> 단체사업 홍보- “YWCA 운동을 확산시키고, 자원봉사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회원들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고, 이를 통해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활동의 동기를 고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좀더 구체적으로 Y-틴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대학’이라는 가상 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YWCA)

<사례 3> 정보제공 · 사업홍보- “사이버 공간은 회원들에게 정보제공과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데에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사례 4> 단체사업 공지 · 홍보- “단체의 사업을 공지하고 홍보하고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간주부교실을 통해 웹진 자료를 발간하여 게재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각 소속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사례 5> 활동 행사 공지- “우리단체의 특성이 주로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이버 활동이 없고 다만 우리단체에서 하는 활동과 행사 등을 알리고 여성단체 혹은 여성운동에 관한 쟁점을 모으기 위해 토론과 게시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사례 6> 지역단체 활동상황 알림. 온라인 여성운동 전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성농민에게 사이버 공간의 활용은 매우 효과적이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성격상 운동단체이자 여성농민의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각 단위별, 지역별 여성농민의 상황을 알리고, 현재 단계에서 부딪치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서로 힘을 모으는 데에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데에 주로 각 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고,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시위장소나 일자 등에 관해서 사이버 공간에 게재하고, 온라인 시위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벌여졌던 시위나 활동을 사이버 공간에 그대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례 7> 단체사업 홍보 및 회원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용—“사이버 공간에서 사업에 대한 공지와 홍보를 하는 반면에 사이버 공간에서 조직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트라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여성연합)

12)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상담활동

<사례 1> 여성관련 상담활동—“또한 여성노동센터, 가족과 성상담소, 미디어운동본부, 여성환경센터, 생활협동조합으로 나누어서 상담을 받고 있고, 각 회원들에게 진보네트워크를 통해 아이디를 부여해 의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공개 게시판은 없애고, 회원들끼리의 소모임방을 만들어, 회원가입을 꼭 하도록 하였으며, 여성관련 자료들을 재편집을 해서 세분화되고 체계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도, 즉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여성민우회)

<사례 2> 가정폭력·성폭력 상담—“현재 이 단체는 서울보호관찰소, 수원보호관찰소, 서울가정법원과 연대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자 후속 조치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외 다른 여성단체들과의 직접적인 연대는 아직 없는 독자적인 활동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청과 여성부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서 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여성상담센터)

<사례 3> 온라인 법률상담 및 자료제공—“온라인 법률 상담실을 개설하여 상담하고 있고, 각종 법률 서식지를 온라인 상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이상에서 여성단체들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성차별 개선 활동, 사이버 성폭력 추방운동, 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 사이버 교육 실시, 여성정치참여 증진운동, 가족법 개정운동·호주제 폐지운동, 소비자

보호·모니터링 운동, 웹진을 통한 여성운동, 여성 정보교육 실시, 성평등 문화운동 전개, 상담활동, 단체홍보 활동 등을 하고 있다.

<표 VII-1> 여성단체 사이버 활동 현황

단체명	현황	사이버 활동 현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						
한국여성단체연합		○									○		
한국여성민우회												○	○
한국여성의 전화		○	○	○						○			
한국성폭력상담소		○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			
한국여성상담센터		○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	
한국여성재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YWCA(중앙)													
YWCA(서울)												○	
한국여성중앙회		○									○		
한국정치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								
또 하나의 문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부천여성네트워크								○					
광주전남여성연합												○	
대구여성회					○								
언니네								○					
달나라딸세포									○				
살류주										○			
합 계	응답수 34	6	1	2	4	1	2	2	1	3	3	6	3
	%	17.6	2.9	5.9	11.8	2.9	5.9	5.9	2.9	8.8	8.8	17.6	8.8

①사이버 성폭력 추방과 불건전한 정보에 대한 감시활동 전개 ②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 전개 ③사이버 여성운동 확대를 위한 교육활동 ④여성 정치참여 증진운동 전개 ⑤가족법 개정운동 전개 ⑥소비자 보호 운동·모니터링 전개 ⑦여성의식 개선운동 전개 ⑧웹진을 통한 여성운동 전개 ⑨성평등 문화운동 전개 ⑩사이버 교육운동 전개 ⑪여성단체 사업홍보 ⑫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상담활동

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단체 연대활동 현황

1) 사이버 성폭력 추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례 1> 사이버 성폭력 추방을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단체간 연대활동 - “98년 사이버 성폭력추방 네트워크를 함께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사업을 전개하자는 목적 하에 여성의 전화,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성폭력상담소의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인터넷 법 문제, 정보통신 윤리법, 사이버성폭력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틀만 합의를 하고 각 단체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민우회에선 사례공모와, 상담게시판 운영과 실태조사 등을 했고, 9.11 평화시위 등의 배너를 함께 띄웠습니다.” (여성민우회)

<사례 2> 사이버 성폭력 추방을 위한 연대회의 개최 - “1999, 2000년 사이버 성폭력추방운동을 위해 사이버성폭력 관련한 연대회의를 열어 함께 계획했습니다. 2000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사이버성폭력 예산을 받아서 같이 집행하는 형태로 사이버성폭력 추방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때 한국여성의 전화는 전국에 있는 상담원들의 교육을 담당했고, 민우회는 배너와 상담사이트관리, 여연은 토론회 준비, 여협은 오프라인에서의 캠페인, 여성정보문화21은 인지도 조사, 여성정보원은 정보사냥대회 등으로 각 단체들이 잘 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호주제 폐지운동, 정보통신 검열 반대운동에 연대하여 배너를 달고 사이트 링크하였습니다.” (여성의 전화연합)

2) 건전 생활 연대지원

<사례 1>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교실운영 - “2002. 6월~7월에 준비된 결혼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자는 취지아래 혼인준비교실을 개최하였는데, 주관은 가정생활개선진흥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청년여성문화원, 한국 YMCA 전국연맹에서 했으며, 결혼생활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시킴으로써 결혼생활에서 부딪치게 될 어려움과 갈등을 예방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건강한 부부관계 및 ‘행복한 가정만들기’에 기여하고자 개최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는 많지 않고, 거의 다 조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성민우회)

<사례 2> 건전생활 캠페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운동은 별로 없어요. 주로 건강을 돌보자, 흡연을 하지말자, 성매매를 하지말자 식의 캠페인 등의 운동이었습니다. 오프라인상의 사업으로는 청소년 건강능력 기르기교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무료 기능교육(한복, 양장, 홈페이지제작), 성북인력개발 센터를 여성부로부터 위탁, 운영. 영·유아 보육사업, 사회교육사업 등이 있습니다.” (여성중앙회)

3) 성매매 금지 연대운동

<사례 1> 청소년 성매매 근절 사이트 구축- “특히 청소년 성매매 거래가 사이버 공간(채팅, 화상 대화방 등)에서 늘어나고, 자작한 음란비디오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유포되고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 성매매 근절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와 청소년 사이버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담긴 웹 콘텐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률, 상담, 취업 등의 전문정보를 제공할 성매매 근절 사이트 구축을 2002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과 테스트를 통과한 4, 50대 주부들로 구성된 사이버모니터링 전담팀이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모니터해오고 있습니다. 전문 포르노 유통 조직들이 대형화, 전문화됨에 따라 작은 여성단체로서 이를 제재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어떠한 내용이 얼마나 빨리 유포되는지를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감염경로를 차단하고, 기성세대 남자들과, 어린이들까지를 홍보 대상으로 삼아 홍보물을 제작하여 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중앙회)

4)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연대활동

<사례 1> 온라인 서명운동- “한국여성민우회와 배너를 공유하고 있으며,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 고소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온라인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이러한 서명 내용은 향후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찰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

<사례 2> 가정폭력 사건의 사회적 이슈화- “여성신문, 전북여성단체연합, 인천 여성의 전화와 연대하여 ‘정선호 사건⁵⁾’을 한 달 안에 신속하게 해결한

5) 2000년 4월 9일에 인천에서 일어난 엽기적인 가정폭력사건으로 4월 26일 여성의 전화 및 5개 연대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을 올리자마자 조회건수가 6000-7000회를 기록하

바 있습니다. 이때 오프라인 중심의 단체들(예를 들어 민우회)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이들은 회의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김 경위 사건’을 일하는 직장 여성에 대한 가족의 몰이해로 해석하여, 활동가들이 팀을 이루어 신문사와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토론과 시위를 주도함으로써 600여 명의 네티즌들로부터 관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남 성폭력 사건’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300만원의 재판 비용을 모금함으로써 결국 재판을 승리로 이끄는 한편, 이로 인해 진중권 씨와 ‘살류주’가 모욕죄로 고발되었는데 그 벌금도 온라인 모금으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덮어두기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적 이슈로 끌어내어 고통받는 피해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살류주)

<사례 3> 사이버 성폭력 저지에 대한 연대운동— 사이버 공간의 활용은 주로 단체의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1999년에 결성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여성단체협의회에 참여하여 사이버 시대의 여성문제에 관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음란물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몇 개의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5) 여성운동 사안별 연대 및 행사에 소극적 참여

<사례 1> 건전 문화운동 · 여성운동에 동참— “민우회에서 회식문화 바꾸기 운동할 때 배너달고 사이트 링크를 했습니다. 호주제 폐지운동 배너달기, 사이버 성폭력 추방 네트워크 배너달고 링크하기, 잡지‘이프(IF)’에서 주관한 안티 미스코리아선발대회 배너달기 등에 참여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사례 2> 각종 국제학술회의와 워크숍 진행— “CAPWP와의 연대를 통해 1995년부터 각종 국제학술회의나 워크숍을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아태지역 삶의 질 향상과 여성정치지도자의 역할’이나 ‘북경 세계여성회의 NGO Forum 위

며 온 매스컴과 네티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해자의 중형처벌을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서명, 거리서명 및 수술비 모금운동에 들어갔고 그 때 그 때의 모금 작업 현황과 사건 경과 보고를 통해 현장을 그대로 네티즌들에게 전달했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단순기소되었던 가해자 정선호는 네티즌들의 강력한 항의와 지속적인 서명, 운동으로 인해 7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에게는 모금운동으로 모아진 성금 1,17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크숍'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의 결과물은 자료집의 형태로 출간되는 한편, 웹사이트의 라이브러리에 올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치문화연구소)

<사례 3> 사안별 연대하기·배너달기·링크하기- “직접적인 연대활동은 없습니다. 단지 사안별로 참여했지요. 예를 들어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모금 운동의 일환으로 기념물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여 한 적이 있고, 배너나 링크를 통해 다른 단체에서 하는 온라인 서명을 도와 준 정도입니다.” (달나라딸세포)

<사례 4> 온라인 서명활동- “오프라인 상에서는 117개 단체와 연대하여 호주제 폐지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또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모금 운동의 일환으로 기념물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자체 내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서명을 받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사례 5> 사이버 공간을 통한 행사참여- “특별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단지, 연대는 지역단체들, 하위단체들과 사이버 공간을 통해 행사에 대한 참여나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형태로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사례 6> 여성문제에 대한 연대활동- “각 지역의 여성농민과 연대활동을 할 뿐 아니라 전국단위의 농민단체와 연합해서 농업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대활동을 하고 있어요. 농민대회에 해년마다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농업문제의 해결차원에서 보면 여성문제가 다소 지엽적으로 접근되거나 고려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여성농민회가 서로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이상에서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연대활동은 사이버 성폭력 추방을 위한 연대활동과 사안별 연대(건전한 생활운동, 행복한 결혼 교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금연운동), 성매매 추방 캠페인, 호주제폐지운동, 현실 공간에서의 성폭력 추방운동, 여성정치 지도자 연대활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연대활동은 사안별 여성운동을 위한 모금참여, 서명하기, 배너달기

등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VII-2> 참조).

<표 VII-2> 여성단체 사이버 공간 활용 현황 및 연대활동 현황

단체명	현황	사이버 공간 활용현황												연대활동 현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②	③	④	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											
한국여성단체연합	○										○			○	○			
한국여성민우회												○	○	○				
한국여성의전화		○	○							○								
한국성폭력상담소	○																	○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								
한국여성상담센터	○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
한국여성재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
대한YWCA(연합회)																		
서울YWCA												○						
한국여성중앙회	○										○				○	○		
한국정치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													○
또 하나의 문화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
부천여성네트워크																		
광주전남여성연합회								○										
대구여성회																		
언니네								○										
달나라말세포									○	○								○
살류주	○													○				
합계 29/14		6	1	2	3	1	2	2	1	3	3	2	3	3	2	1	2	6

여성단체 사이버 공간 활용 현황: ①사이버 성폭력 추방 활동/②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③사이버 여성운동 확대를 위한 교육/④여성정치참여 증진운동/⑤가족법 개정운동/⑥소비자 보호·모니터링/⑦여성의식 개선운동/⑧사이버 교육운동/⑨성평등 문화운동/⑩사이버 교육운동/⑪활동홍보/⑫상담활동

연대활동 현황: ①성폭력 추방 네트워크 구축/②건강생활 연대지원/③성매매 금지연대/④성폭력·가정폭력 추방연대/⑤사안별 연대 및 행사참여

라. 사이버 공간 활용의 효과

여기서는 여성단체들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 정보소통의 원활함

<사례 1> 정보의 빠른 홍보와 소통- “정보들에 대한 홍보와 소통이 빨리 되고, 활동들이 바로 바로 홍보가 되다보니 일반시민들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여성민우회)

<사례 2> 자유로운 정보공유-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 자유롭게 글을 올리면 공유가 되므로 따로 전화나 우편으로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와 보면 무엇을 하는 어떤 단체인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주부클럽연합회)

<사례 3> 많은 사람에게 홍보가능- “좀 더 많은 사람에게 YWCA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알릴 수 있습니다.” (YWCA연합회)

<사례 4> 대중적인 단체홍보 가능-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단체를 알리고, 활동 내용에 대한 홍보를 대중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사례 5> 단체와 사업의 홍보시간 단축- “게시와 홍보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단체의 사업방향이나 진행사업 등을 손쉽게 알려낼 수 있습니다.” (여성중앙회)

<사례 6> 본회와 지부 및 회원간 용이한 정보전달의 효과- “70개 지부에다가 회원 수 만 31만이므로 매우 큰 단체입니다. 회원들을 활용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며, 지부들간의 네트워크는 점차 전화, 팩스, 우편위주에서 이메일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회들 중 20,30개 지회들은 소비자고발상담을 컴퓨터 상에서 받고 있으며 지회들의 상담자료를 컴퓨터로 정리해서 우리 단체에 이메일로 발송해주고 있는데 용이한 정보전달로 효과가 큼니다.” (여성중앙회)

2) 빠른 정보소통과 인식확산

<사례 1> 정보교류와 사업소개, 문제제기 및 신속한 피드백 - “회원간의 정보교류와 사업소개, 문제제기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하면 게시한 보도자료에 대한 피드백, 즉 직접적 반응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일방적이어서 보도자료를 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관심이 확산되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게 될 때에야 사람들의 관심 여부를 느낄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네티즌들의 글을 직접 볼 수 있으므로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식의 확산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례 2>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들을 사이버 투쟁과 온라인 성금을 통해 신속하게 도울 수 있음 -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자들을 사이버 투쟁과 온라인 성금을 통해 신속하게 도울 수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자들을 사이버 투쟁과 온라인 성금을 통해 신속하게 도울 수 있어서 좋았으며 특히 부산여대 웹진인 “월장”이 군사 문화에 대한 비판 기사를 실었을 때 전국의 예비군들이 이 사이트에 몰려와 사이버 테러를 감행했는데, 진중권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의 논객들이 이들을 차례로 논박하여 승리했을 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토론문화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는 데에 여성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여성민우회)

3) 인력, 시간, 돈의 절약

<사례 1> 게시판을 통한 공지와 메일을 통한 행사 홍보로 인력·시간·돈 절약 - “온라인을 활용하면 인력·시간·자금이 적게 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편이나 전화를 통한 질문 답변이나 행사 홍보는 시간과 돈, 인력이 많이 드는 반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공지와 메일링 리스트를 통한 행사 홍보는 편하고 노력이 적게 듭니다.”

(또 하나의 문화)

<사례 2> 쉬운 접근과 제작비용의 절약 - “접근이 용이하고 제작비용이 적게 듭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손쉽게 웹진을 볼 수 있고, 부수가 증가할수록 출판인쇄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달나라딸세포)

4) 상담 시 내담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솔직한 상담가능

<사례 1>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의 접근용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상담을 위주로 하는 단체들의 경우, 내담자가 직접 오고가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간접 상담은 직접적인 대면접촉에서는 꺼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보제공에 있어서 빠르고 편리하고 경제적입니다. 사이버 공간에 사람들이 쉽게 공간과 시간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조차도 노출되지 않는 익명성 때문에 상담요청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사례 2> 내담자에 접근 편의성과 상담약속 시간 잡기용이- “내담자가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이나 교육을 받으려면 오고가는 시간과 번거로움이 있는데, 사이버 상담은 이런 노력을 줄여 줍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담시간 약속을 잡기가 용이하죠.”

(여성상담센터)

5) 정치적 주제에 대한 접근 및 여론형성 용이와 참여가능

<사례 1> 정치세력화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용이- “인터넷은 거부감이 적어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라는 어려운 주제로 대중에게 다가서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성정치문화연구소)

<사례 2> 네티즌들의 적극적 참여와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냄- “선관위의 Off-Line 홍보와 위상으로는 새내기 유권자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상에서는 다양한 공모전과 온라인 대화방, 연례 여성인사와의 사이버 미팅 등을 통해 네티즌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참여와 이해도 무척 높았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

<사례 3> 사회적 이슈에 대해 보다 빠른 문제제기 가능- “게시판 토론이 활성화되어 여러 명이 참여하여 올바르게 진지하게 토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항상 한 발 앞장서서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짚어내고 여론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 단체간 신속한 정보교환과 지역적 연대의 공고화

<사례 1> 단체의견 신속하게 전국에 배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 단체의 의견을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다른 지역에서의 의견을 동시에 접할 수 있습니다.” (살류주)

<사례 2> 지역 여성을 위한 여성정보를 한 사이트로 일원화 함- “모든 여성 정보를 한 사이트로 일원화함으로써 one-click을 통해 모든 생활 정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단체의 행사 내용을 일목 요연하게 알 수 있어서 부천 지역 여성들의 활동에 여자만세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여성네트워크)

<사례 3> 연대 사이버성폭력 추방운동 전개- “연대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와 정당에 사이버 성폭력 관련 예산을 반영토록 촉구하여 예산 7억원을 받았으나, 배정절차가 원활하지 못하여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사이버성폭력 추방을 위해 200년 제 1기 여성 사이버 모니터 팀을 선발하여 육성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기업-민간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불건전 게시물 올린 회원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7) 다양한 정보의 이슈화와 짧은 시간에 많은 회원확보 가능

<사례 1> 사이버 공간에서는 네티즌간에 동등한 참여 가능- “현실 공간에서는 만나기 힘든 지역 거주자, 장애인, 남녀노소를 불문한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같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니네는 신속한 업데이트가 가능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금방 잊혀져서 사장돼 버리는 중요 사안들을 이슈화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단기간에 많은 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언니네)

8)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변화

<사례 1> 사이버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시킴- “연대활동으로 인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언론과 일반인들에게 심어지게 되었

고, 상담과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또 업체들에는 사이버성폭력신고 센터를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사이버 성폭력 상담센터 사이트가 200년 9월 오픈하여 사이버 성폭력 개념소개와 유형소개, 상담과 사이버모니터 활동 등이 계속되었습니다. 몰카 동영상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이 몰카 대상이 되었던 여성 연예인을 비하하던 의견들에서 점차 불건전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문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례 2> 사이버 연대·온라인 서명·공동성명서 발표 가능하며, 신속한 효과 나타남— “생리대에 가해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여러 여성 단체들이 배너를 공유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서명이나 온라인 공동성명서는 신속하게 확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언니네)

<사례 3> 여론을 통한 여성의 세력화— “여성들 사이의 여론을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세력을 형성할 수 있어요. 또한 이러한 토론이나 여론을 통해 보수적인 남성들의 의식 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살류주)

마. 사이버 연대활동 효과

1) 홍보 및 시너지 효과 증대

<사례 1> 홍보 및 시너지 효과— “함께 연대하므로 홍보의 효과가 컸습니다.” (여성민우회)
“전자우편을 통한 행사 내용 홍보가 효과적이었구요.” (YWCA연합회)

<사례 2> 온라인 상의 시너지 효과는 오프라인상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움— “온라인 상에서 같은 주제를 주장한 여성단체 각각의 힘이 집약되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에 대한 홍보 효과가 컸습니다. 각 단체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서 오프라인 상에서 활동할 때도 보다 쉬워졌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사례 3> 온라인 상의 커뮤니티가 오프라인에서 공동사업 수행함— “여자만세라는 커뮤니티 자체가 부천 지역의 9개 여성 단체가 연합한 하나의 사이

트입니다. 각 단체에서 교육을 받은 회원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여성 문화제를 열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부천여성네트워크)

<사례 4> 다른 사업 홍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연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역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이버 공간에서 연대활동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성단체 성매매 방지법안 입법청원, 여성유권자 권리찾기 등 여성운동 현안에 관해서 언제든지 사이버 공간을 통해 현안을 소개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연대활동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여성회)

2) 회원가입 증대 · 사업수준 고양

<사례 1> 온라인 상의 홍보를 통해 회원 증가와 사업수준을 높임- “예전보다 회원가입이 늘어나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서, 사업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모든 사업이 온라인상에 홍보가 되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사업계획을 함께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성민우회)

3) 연대감 증대, 중복사업 방지, 단체 및 회원간 정보전달 용이

<사례 1> 단체간의 내부사업 아이디어도 얻고 연대감도 생김- “온라인-여성단체 사이트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관심분야가 비슷하고, 그 사람들이 한 단체뿐 아니라 여러 단체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여러 여성활동단체가 연대하여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슈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아지고, 참여할 기회도 많아지게 됩니다. 오프라인-단체들과 연대회의를 하면서 단체들간의 내부사업 아이디어도 얻고 연대감도 생기고, 의사소통을 많이 하게 되어 돌아가는 사회 이슈에 대해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례 2> 여성단체간 중복사업 방지, 실무자들끼리 네트워크 형성- “온라인으로 연대하기 전에는 각 단체들 간의 사업이 중복되어 경쟁이 심했지만, 지금은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한 단체를 중점적으로 밀어 줄 수 있죠. 또 실무자들끼리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 일을 진행하기가 한결 수월해요.”

(부천여성네트워크)

“배너나 링크를 통해 다른 단체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었어요.”

(달나라딸세포)

<사례 3> 연대의식 형성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연대활동을 한 것은 사이버 성폭력여성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였는데, 이들 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이 안고 있는 사이버 관련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어요. 이들 단체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여성부나 정보통신부에 여성단체의 정보화나 사이버 공간의 활용에 관해서 공동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사례 4> 단체 및 회원간 정보전달 용이 - “소비자 상담과 고발 상담에 주로 활용하는데, 인터넷 상으로 소비자 고발 상담을 받아 답변을 해드리고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처리를 합니다. 특히 스팸메일 신고센터, 개인정보침해 신고 등을 받았을 때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신고하는 활동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주부클럽연합회)

<사례 5> 행사의 폭이 넓어짐 - 타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보다 쉽게 의견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각 지역에서 하는 회원단체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보다 광범위한 연대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YWCA)

이상에서 여성단체들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정보소통의 원활함과 홍보의 용이함, 신속한 정보 소통 및 인식확산, 인력·시간·돈의 절약, 상담의 경우 내담자의 접근용이, 정치문제에 대한 접근용이, 지역적 연대 공고화, 단시간에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이슈화와 많은 회원확보 가능, 지역단체간의 연대로 중복사업 방지 등을 들고 있다.

<표 VII-3>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 활용 및 연대활동 효과

단위: (중복)응답수

단체	사이버 공간 활용효과*									연대활동 효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		○			
한국여성단체연합		○										○
한국여성민우회	○	○								○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					○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한국여성상담센터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											
한국여성재단				○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			○		
대한YWCA연합회				○						○		
서울YWCA												○
한국여성중앙회				○								○
한국정치연맹						○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						
또 하나의 문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부천여성네트워크										○		○
광주전남여성연합회												
대구여성회										○		
언니네								○	○			
달나라딸세포			○									○
살류주							○		○			
계 24/15	2	3	2	4	2	4	3	1	3	8	1	6

* 사이버 공간 활용효과: ①정보소통원활/②인식확산 용이/③인력, 시간, 돈의 절약/④단시간 내 홍보가능/⑤상담시 내담자 접근용이/⑥정치적 주제접근 용이와 참여가능/⑦신속한 정보교환과 지역적 연대공고화/⑧다양한 정보의 이슈화와 단시간에 회원확보가능/⑨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변화

** 연대활동 효과: ①홍보 및 시너지 효과 증대/②회원가입증대·사업수준 고양/③단체간 연대감 증대, 중복사업 방지, 단체 및 회원간 정보전달 용이

바. 여성단체 사이버 공간 활용의 문제점

1) 실무자들의 업무량 증가

<사례 1> 많은 단체활동을 제때 온라인에 업데이트하지 못함- “단체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때 그 때마다 업데이트를 못해서 생동감이 없는 홈페이지라는 말을 듣게됩니다. 오프라인으로만 활동을 할 때에는 한 달에 한번 회원소식지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은 각 센터의 무슨 일이든지 하나하나 다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성민우회)

<사례 2> 적은 인력들이 과 업무 수행- “또 하나의 사이버 행사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이 많이 필요해 적은 인원이 과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

<사례 3> 예산·인력부족 연대활동 시 협력 부족의 문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가장 커요. 회원과 협의체에 홈페이지와 인트라넷을 구축해놓아도 이를 담당할만한 환경조성이 되지 않아서 홈페이지 개설, 운영과 실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문제점과 여성단체 간 연대하여 성폭력 근절 운동을 수행하는데 정부예산지원, 사업홍보 관계자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례 4> 인력·예산부족- 무엇보다 전문인력과 비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대다수 회원이 노령화 상태에 있으므로 인터넷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활성화가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2) 인터넷 사용을 못하는 계층 소외

<사례 1> 인터넷 이용에서 주부 소외-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 주부들이 컴퓨터 상에서 소외되어 있어서 아쉽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사업을 같이 진행하다보니까 바로바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들이 생겨서 일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또 한번 필터링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할 때 더 완벽성을 기해야 합니다.” (주부클럽연합회)

<사례 2> 정보 접근이 어려움- 전국에 거주하는 여성농민, 여성농민단체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우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접근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서로 기술적인 상태나 수준이 달라서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례 3> 일반여성의 참여문제- 우리단체의 경우 일반여성들의 어떻게 여성 문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자의 업무가 크게 증가한 것이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입니다.

(광주전남여성연합)

3) 홈페이지가 단순한 의사소통 이외의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되지 못함

<사례 1> 인력부족에 의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어려움 있음- “네터즌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하므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정리와 의미와 대안까지도 자료화해야 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렵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이 하나의 계획아래서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니까, 상담 자료집이나 인권백서 등의 출판자료집을 낸다고 할 때에는 오프라인에서 다시 자료를 모으고 다시 정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성의 전화 회원단체나 지부들간의 정보교류의 공간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서울지부와 인천지부를 제외한 단체에서는 홈페이지가 있어도 단체에 대한 소개와 공지사항에 모임과 사업계획 알리는 정도, 또 회원게시판에서 회원들 간의 의사소통의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례 2> 사이버 전담자들의 모임 부재- “사이트 링크와 배너달기 정도의 연대는 하고 있지만, 같은 이슈를 가지고 연대해 함께 운동을 하진 못했어요. 사이버 전담자들간에 오프라인 상에서의 모임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할텐데 전혀 모임이 없었습니다.” (여성중앙회)

<사례 3> off-line 상에서 활발한 연대활동이 on-line상에서는 부재- “오프라인 상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양한 연대 활동이 펼쳐지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해서 어떠한 연대 활동도 전혀 이루어지고 않고 있어요. 오프라인으로는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상담 및 고발·개선 운동을 하고 있으며, ‘민족 화

해협력 범 국민협의회'와 통일 운동을 같이 하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명 선거 운동을,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와 함께 식품업체나 유통업체를 연결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환경연대·환경사회단체연대회의와 환경 운동을 연대하고, 청소년단체협의회와 각종 청소년 상담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연대 활동이 온라인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YWCA연합회)

4) 사이버 상담 시 상담의 단절 및 객관성 확보 미흡

<사례 1> 상담의 단절 - “상담의 깊이가 얕다는 것이 문제예요. 심리상담으로 이어지기에는 사이버라는 공간 자체가 부적합하며, 사이버로는 지속적인 상담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상담센터)

<사례 2> 법률 상담시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 - “법률 상담은 기본적으로 면대면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게시판에 올린 글에만 의존할 경우 객관성이 떨어지고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상담은 결국에는 면대면이나 전화 상담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에 머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사례 3> 위기상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 “정말 위기상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상담원들이 일방적으로 상담을 해주고는 피드백이 없으니까 일회성으로 끝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상담원들이 보람을 못 느낄 때가 있죠.” (성폭력상담소)

<사례 4> 사이버 상담 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움 - “장난 글인지 진실인지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일반 게시판의 경우에 성폭력 상담과 관련이 없는 소모적인 답변(주로 학생들의 과제에 이용되는)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폭력상담소)

5) 홈페이지 악용 및 보안문제

<사례 1> 단체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고의로 시스템 장애초래, 잘못된 정보를 제공 - “우리 단체가 소비자운동과 환경운동, 위해 만화 모니터링운동을 펼치기 때문에 우리단체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고의로 시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하게 한다든지, 단체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네티즌들 사이에 퍼트리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YWCA연합회)

<사례 2> 익명성에서 오는 무책임한 발언- “사이버에서는 익명이 보장되다 보니 무책임한 발언을 많이 하고, 공약에 그쳐서 여성들의 힘을 제대로 결집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성단체 활동을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나갈 필요성을 느껴요.” (살류주)

<사례 3> 홈페이지 보안문제- “실명인지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보안 문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언니네)

<사례 4> 홈페이지 악용- “가부장적인 특성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내용에 대해서 회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현실적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구여성회)

6) IT기술 인력과 단체 활동가간의 갈등

<사례 1> IT기술 인력이 홈페이지운영을 주도함으로써 다른 활동가들을 소외시킴- “IT기술의 특이성 때문에 기술을 보유한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홈페이지가 중점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기술을 갖지 못한 활동가들은 성취욕이 떨어지고, 자신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체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달나라딸세포)

7) 콘텐츠의 내용과 질의 문제

<사례 1>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자료 수집에 어려움- “콘텐츠 기획과 생성은 자체 내 회의를 통해 진행되는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처럼 기존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내야 할 경우 국내외에 자료가 드물어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간과 인력 모두 부족합니다.” (여성상담센터)

<사례 2> 유해정보에 대항할 여력 부족- “대형 여성단체들도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여성중앙회에서도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보통의 많은 인터넷 가능 여성들이 대형 여성단체들의 정보만 쉽게 접할 수 있습니

다. 또 다른 사이트 관리자들은 왜 이런 여성단체들에서 또 모니터링을 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 사이트들을 모니터링 하는 사이트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퍼져나가는 유해정보는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 100개도 안 되는데, 유해정보는 하루에 10만 개 정도가 그물 망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폐쇄성을 고수하는 대형 커뮤니티와의 싸움도 힘듭니다.” (여성중앙회)

<사례 3> 인력부족으로 깊이 있는 내용의 콘텐츠 개발이 힘듦 - “컨텐츠를 생성하고 등록하는 담당이 한 명이라 다수의 의견이 수렴된 깊이 있는 내용을 만들기가 힘들며 그만큼 내용의 충실성도 떨어져요.” (또 하나의 문화)
“한 사람이 온-오프라인을 총괄하여 홍보하고 출판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YWCA연합회)

<사례 4> 여성들이 토론의 주체로 서지 못함 - “여성들은 사회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토론의 주체로 서지 못하고 남성들보다 자기 주장의 논거가 빈약한 경우가 많아요.” (살류주)

<사례 5> 정보 부족 - “부천 지역에 대한 정보와 각 여성 단체에 속하지 않은 주부나 일반 여성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부천여성네트워크)

<사례 6> 다양한 콘텐츠 부족 - “한 달에 1번 정도 콘텐츠를 업데이트 하는데, 게으름을 빼고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예산이 된다면 외부 집필진을 구해서 좀더 깊이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그게 아쉬워요.” (언니네)

<사례 7>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부족 - “홈페이지의 수준을 높여 이용자들이 들어오고 싶은 홈페이지가 되어야 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에나 들어오는 홈페이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네티즌들의 눈은 점점 높아지는 데, 디자인과 운영 면에서의 세련되기가 참 어려워요.” (성폭력상담소)

<사례 8> 인력부족으로 업데이트가 어려움 - “단체내 컴퓨터를 전담할 인력을 둔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상근활동가들의 컴퓨터 교육을 가끔씩 실시하고 있으며 웹호스팅 업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하니까 일이 많아지고, 중요한 사업을 전개하기보다는 새로

운 소식의 업데이트와 상담업무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사례 9> 콘텐츠 부족 -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콘텐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치연맹)

8) 정보화 마인드부족

<사례 1> 경영진의 정보화 인식부족 - “경영진에서 인터넷의 중요성과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인터넷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대한YWCA연합회)

이상에서 여성단체 사이버 공간 활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여성단체 실무자들의 업무량 증가와 여성단체 회원 중 인터넷(컴퓨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킨다는 점, 단체 홈페이지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장으로 밖에 활용 못하고 있는 점, 상담활동이 면대면으로 이뤄지지 못함으로 생기는 단절과 한계,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 보안문제 등과 IT기술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운영의 한계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현실 공간(off-line)에서 연대활동이 활발한 데 비해 사이버 공간(on-line)에서는 연대활동이 미비한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표 VII-4> 여성단체 사이버 공간 활용의 문제점

단위: (중복)응답수

단체 \ 문제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			○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한국여성상담센터				○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						
한국여성재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대한YWCA연합회			○		○		○	○
서울YWCA								
한국여성중앙회			○					
한국정치연맹							○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또 하나의 문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부천여성네트워크							○	
광주전남여성연합		○						
대구여성회					○			
언니네					○		○	
달나라딸세포						○		
살류주					○			
합계 28	4	3	3	3	4	1	9	1

①실무자 업무량 증가/②인터넷 사용 못하는 계층 소외/③홈페이지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장으로 이용/④사이버 상담 시 상담단절과 객관성 확보 미흡/⑤홈페이지 악용 및 보완문제/⑥IT기술인력과 단체활동가 간의 갈등/⑦컨텐츠의 내용과 질의 문제/⑧정보화 마인드 부족

사. 사이버 공간활용의 애로사항

1) 업무량 증가

<사례 1-1> 전문인력의 부재로 상근 활동가의 업무량 증가 - “기술적으로 단체 내에서 컴퓨터를 전담하는 인력을 둔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상근 활동가들의 컴퓨터 교육을 가끔씩 실시하고 있으며 웹호스팅업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하니깐 일이 많아지고, 중요한 사업을 전개하기보다는 새로운 소식의 업데이트와 상담업무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여성민우회)

<사례 1-2> 사이버 공간(on-line)과 현실 공간(off-line)의 동시활동으로 업무량 증가 - “본부의 전체 홈페이지 운영도 하면서 각 센터들과 지부의 홈페이지의 지원도 들어가야 하는데, 진행해야할 일과 사업을 하다보면 홈페이지 업 데이트를 못하고, 지부의 도움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안정적인 자원활동가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자원한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들의 실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일반 여성커뮤니티들의 카페 디자인 등과 비교해볼 때 많이 뒤떨어져요.” (여성민우회)

<사례 2> 전담인력 및 시간부족 - “정보 전달뿐 아니라, 새로운 자료들을 그 때 그 때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담당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그 정보를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하는데 그 일에 매달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성폭력상담소)

<사례 3> 전문인력의 부족, 적은 인원이 과 업무에 시달림 - “인터넷사업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는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행사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 일이 많아 적은 인원이 과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유권자연맹)

<사례 4> 실무자는 이중 업무로 일이 많고, 시간·인력 부족 - “외부의 지원과 각 단체의 실무자들이 협동하고는 있으나 업무량이 많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천여성네트워크)

<사례 5>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동시관리에 따른 업무 증가 -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에 사이버 공간을 통

해 단체도 알리고 서로 의사소통도 할 수 있어 좋아요. 지역의 경우 인터넷 이용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을 통해 단체의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이중적인 연락을 하고 조직관리도 두 분야 모두 신경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사례 6> 업무상 이중부담과 기술부족 “사이버 공간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이 있으며, 사이버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새롭고 보다 참신하게 사이버 공간을 꾸리고자 할 때, 기술적인 능력이 없어 적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사례 7> 온·오프라인 동시 운영 인력부족 “현재 상태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것이 커다란 부담이며 애로사항입니다. 단체의 실정상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버 공간의 활용을 위해서는 실무자의 부담이 무엇보다 큰 셈입니다.”

(대구여성회)

2) 예산 부족

<사례 1> 전문인력 유치와 홈페이지 운영의 예산부족 “인터넷사업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는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유권자연맹)

“기술적인 경우, 기자재 마련과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보강이 되더라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힘들어요.”

(여성상담센터)

<사례 2> 운영인력과 예산부족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가장 커요. 회원과 협의체에 홈페이지와 인트라넷을 구축해놓아도 이를 담당할 만한 환경조성이 되지 않고, 홈페이지 개설, 운영과 실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감당해내지 못해요. 정보의 전달에만 급급한 사이버 공간이 아니라 정보생성을 통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려면 기자개념의 인력이 필요하고, 단체 내부 사정에 맞춘 인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일반여성단체들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줘도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아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교육받은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례 3> 홈페이지 외주로 인한 비용부족 “초기에는 자원봉사자들에 의존하다가 지금은 웹디자인·웹프로그램 모두 외주에 의존하고 있어서,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사례 4> 기술적 업데이트의 비용부족 “기술적인 경우, 계속 생겨나는 기술적 업데이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금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언니네)

<사례 5> 비용과 인력의 문제와 업무부담 “여성의 세력화를 위한 특징적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데에 적지 않는 비용과 인력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성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나, 지원 자체가 한시적이어서 어떻게 특징적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의 세력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적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치연맹)

3) 홈페이지 관리의 전문인력 부족

<사례 1> 전문인력의 부족 “홈페이지 운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성 봉사자들은 IT기술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직업이 아니다보니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요. 그래서 담당자가 자주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전문 인력도 항상 부족한 편입니다.” (광주전남여성연합)

<사례 2> 실무자의 IT기술 부족 “상황이 열악한 여성 단체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려다보니 실무자들의 IT기술도 부족하고 콘텐츠 생성에도 문제가 많아요. 아직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데, 특히 부천 지역 소식은 계속적으로 채워 나가야 할 부분이에요.” (부천여성네트워크)

<사례 3> 전문 정보제공 부족 능력 갖춘 전문가 부족 “사이트 상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좀더 전문적이고 광범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관리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여성중앙회)

<사례 4> 단체 목적과 부합하는 인식과 기술적 자원을 가진 인력부재 “단순히 웹관리만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 자원을 가진 사람으로서 단체의 목적과 사업방향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계속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힘

들어요.”

(여성상담센터)

<사례 5> 자원봉사자의 사정에 따라 업데이트 시간 지연 - “기술적인 경우, 웹디자인과 웹프로그램을 한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그분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상담센터)

<사례 6> 전담자부재 - “홈페이지를 담당할 전담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YWCA연합회)

<사례 7> 자원봉사자의 책임감 부족 - “우리 단체는 모든 활동을 주로 도우미들에게 의존하는데 이들은 전업 주부들로 직업의식이 부족하고 책임감이 약하다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책임지고 해 나가는 전문 인력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전남여성연합)

<사례 8> 기술상의 어려움과 인력부족 - “초기에는 상위 관리자가 사이버 활용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으나, 최근에는 여성부 Women-Net의 전문가 상담을 맡으면서 사이버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홈페이지 전담자를 따로 두지는 못하는 형편이며, 현재 법률 전문가가 컴퓨터 학원에서 4-5개월 동안 나모웹에디터를 배운 수준으로 홈페이지를 운영을 겸하고 있으나, 기술상의 어려움과 인력부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정법률상담소)

4) 실무자의 기술부족

<사례 1> IT교육을 받지 않은 활동가의 홈페이지 운영 - “IT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아요.”

(여성상담센터)

<사례 2> 홈페이지 운영의 전문성부족 - “기본적인 홈페이지 제작 교육은 받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게 따로 의뢰할 수밖에 없으며, 간단한 콘텐츠 업로드와 게시판 답변 정도를 단체 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문화)

<사례 3> 체계적 교육부족 - “IT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단편적인 기술에 의존하다보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어려

움이 있어요.”

(여성정치문화연구소)

<사례 4> IT기술인력 부재- “단체 내부에 IT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웹디자인·웹프로그램 개발을 모두 외주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재정적 부담이 커요.”
(또 하나의 문화)

<사례 5> 여성의 인터넷 이용능력부족- “여성들은 인터넷 이용이 서투르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며, 특히 장기투쟁에 약해서 스스로 지쳐서 나가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살류주)

<사례 6> IT기술을 갖춘 실무자부재- “지금은 부천시역 정보센터에서 웹디자인이나 프로그램과 같은 IT기술과 서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향후에는 여성 단체들을 잘 알고 있는 실무자가 기술적인 측면도 전담하는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천여성네트워크)

<사례 7> IT기술 부족으로 역할 수행에 어려움- “웹진 동인은 원래 콘텐츠 기획에서부터 작성, 업로드까지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처음 웹진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서 IT기술이 뒷받침 안 되는 동인은 자신이 맡은 지면을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달나라딸세포)

<사례 8> 실무자들이 프로그램 사용을 어려워함- “상담 담당자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어려워하고 생소해합니다. 상담원들의 나이 차나 개인 상황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교육하기도 어려운데다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실 시간으로 인터넷 상에서 상담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성의 전화연합)

<사례 9> 상담자가 개발된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 “상담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어요. 주로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자 개개인들이 정보화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상담자가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지 못해요.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담당자와 상담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상담자가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주어도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므로 정보화 담당자가 원하는 포맷으로 제공을 해주지 못하는데, 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쏟을 시간이 없어요.”

(여성의 전화연합)

<사례 10> 오프라인 여성단체들의 웹 경험 부족 - “오프라인 여성단체들은 웹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며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해오던 기존의 기획과 내용을 웹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시키는 데에 미숙한 실정입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례 11> 새로운 기술 습득의 어려움 -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 이를 따라가기 무척 어려워요. 최근에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담인력과 콘텐츠 개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우리 단체의 경우 회원이 50대 이상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인터넷 접근이나 이용이 활발하게 되지 않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의 활용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사례 12> 기술적인 문제 - “무엇보다 기술적인 문제와 기자재 업그레이드에 드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워낙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위한 재정지원을 해주고 사이버 운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5) 하드웨어의 성능부족의 문제

<사례 1> 하드웨어의 속도 느림 - “서버를 운영하는데 하드웨어 자체가 속도가 너무 느리고, 전용선을 사용하는데 회원들이 너무 접속이 힘들다고 많이 불평해요.”

(민우회)

<사례 2> 서버·하드웨어의 속도 느림 - “인터넷 환경 자체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서버나,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가 힘들어요. 처음 인터넷 환경을 만들 당시는 앞서가는 단체였는데,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못하면서 다소 뒤처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6) 여성단체에 대한 인식부족

<사례 1> 일반인의 여성단체 인식 부족 - “회원들이 의사소통의 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자유롭게 공유하기가 힘들어요.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너무 사이트가 폐쇄적이라 하는데, 홈페이지를 찾아온 회원들

의 인식이 먼저, 여성단체라고 하면 무조건 비하하여 생각하는 회원들이 많고, 정확히 의견을 내어 수렴을 하려고 하거나,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의 전화연합)

<사례 2> 여성단체에 적극적인 회원참여 유도 어려움 “주로 사이버 공간의 활동은 단체 활동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게시판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회원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울YWCA)

이상에서 여성단체들은 애로사항으로 홈페이지를 전담할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실무자들이 기존의 업무와 병행하여 홈페이지 사업을 담당함으로써 업무량 증가와 시간부족, 기술부족의 어려움이 있으며,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예산부족, 전문인력부족, 하드웨어의 낮은 성능, 여성단체에 대한 인식부족, 콘텐츠 질의 문제, 정보화 마인드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VII-5> 단체의 사이버 활용 애로사항

단위: (중복)응답수

단체 \ 애로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			
한국여성단체연합		○	○			
한국여성민우회	○	○	○	○	○	
한국여성의전화		○		○		○
한국성폭력상담소	○		○	○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한국여성상담센터		○	○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			
한국여성재단				○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YWCA(중앙)			○			
YWCA(서울)			○			
한국여성중앙회			○			
한국정치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	○		
또 하나의 문화		○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		
부천여성네트워크			○	○		
광주전남여성연합			○			
대구여성회	○					
언니네		○				
달나라딸세포				○		
살류주			○	○		
합계	44	3	9	17	12	2
	100.0%	(6.8)	(20.5)	(38.6)	(27.3)	(4.5)

애로사항: ①업무량 증가/②예산부족/③홈페이지 관리의 전문인력부족/④실무자의 기술부족/⑤하드웨어의 문제/⑥여성단체에 대한 인식부족

아. 사이버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1) 사이버 공간의 이해·교육 및 참여유도

<사례 1> 정보교육의 확대 실시-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이 많은 여성들에게 친숙하려면 무료 교육장이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이나, 여성 단체나, 인력개발센터의 무료교육이 좀더 많은 지역에 보편화된다면 같이 참여할 네티즌들이 많이 늘어나 사이버 여성운동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중앙회)

“인터넷에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정치연맹)

“IT기술교육에 접촉할 기회가 적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IT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야 해요.”

(여성정치문화연구소)

<사례 2>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학습과 교육 필요- “운영자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가기에는 시간과 실력,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학습과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대구여성회/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사례 3> 정보화 대한 여성교육과 여성의식 개선필요- “사이버 공간의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 사회에서 일반 여성들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해야하며, 여성의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여성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사례 4> 정보화에 대한 일반여성의 계몽필요- 전업주부들의 경우는 IT교육을 받고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게 될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보화에 대하여 일반 여성들을 계몽하고 교육함으로써, 이들이 인터넷과 컴퓨터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주부클럽연합회/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사례 5> 사이버 공간에서 적극적 토론참여- “여성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폼 잡고 점잔만 빼지 말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토론에 참여하려면 그만큼 자기주장에 대한 확신과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많은 독서와 사고, 글쓰기 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 스스로 주체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인천여성의 전화)

<사례 6> IT여성전문인력 양성 - “사이버 공간의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문제는 IT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주부클럽연합회)

<사례 7> 여성의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한 정기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인력개발센터의 교육도 실지로 단체에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웹사이트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을 교육하는 정기적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의 일반적인 기술적인 정보들, 정보통신 능력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한 사이트로 통합한다든지 정기적으로 기술정보들에 관련된 메일을 보내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류쥬/가정법률상담소)

2) 여성단체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

<사례 1> 일반인 대상의 홍보 - “각 단체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 단체에 속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홈페이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여성들에게 단체를 알리고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주부클럽연합회)

<사례 2>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홍보 - “요즘은 이혼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재혼도 빈번해지고 있는데 자녀가 양아버지의 성을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족의 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단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호주제 폐지운동에 대한 홍보와 참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활성화 정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법률상담소)

3) 사이버 여성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사례 1> 새로운 여성운동 공간으로서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인식필요 - “사이버 공간에서 적합한 여성운동 쟁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이 여성운동의 새로운 공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성단체들 각자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며 또한 필요합니다.” (서울YWCA)

<사례 2> 여성단체 실무자들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 - “지금의 사이버 공간은 통제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전체사이트들 중의 작

은 부분으로서 인정받고 네티즌의 동조를 얻어낼 수 있으려면 기존의 거대한 장벽들과 부딪칠 때 효과적으로 뚫고 주체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하며, 지금의 사이버문화는 기존 여성운동에 대해서 별로 협조적이지 않고, 사이버 여론회가 조직화되고 집중화되어 있어서 자기들과 뜻이 맞지 않으면 공격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여성운동단체들의 사이버운동이 활성화되려면 먼저 기존 사이버 문화와 기존 사이버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례 3> 사이버 여성운동에 대한 이해와 여성단체 내에 공감대 형성 - “싸움을 할 때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하듯이 대상을 알고 정보를 알아야합니다. 만약 우리가 포르노 사이트에 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관한 배너를 띄우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의 어떤 물리적인 제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법적인 수단으로 이들 유해 사이트들이 근절이 되지 않는다면 작은 단체일지라도 단체에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활동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인정을 받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의 인식의 공감대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례 4> 사이버 공간을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 필요 - “사이버 공간을 통해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여성 정치가를 배출해야 합니다.”

(여성정치연맹/여성유권자연맹)

4) 정부의 기술인력 지원이 요구됨

<사례 1> IT전문 자원 활동가 영입 필요 - “많은 사례들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기 위해서 여성단체 실무자들이 하기 힘든 상황이고 능력도 부족하므로 전문적인 자원 활동가의 영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성부나 시·도 차원에서 전문적인 자원활동가를 육성하여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성폭력상담소)

<사례 2> 홈페이지 운영의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술인력 지원 - “계속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단체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력을 파견하여 홈페이지 운영을 도와주거나, 업 데이터하기, 아날로그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데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

<사례 3> IT 기술 · 예산지원 - “먼저 IT기술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홈페이지의 개편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YWCA연합회)

<사례 4> 사이버 운동을 전담할 전문가 확보 - “홈페이지와 사이버 운동만을 전담할 수 있는 IT기술을 보유한 상주 전문가 확보가 시급합니다.”
(여성민우회)

5) 정부 ·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례 1> 사이버 기반시설 · 전용선 사용의 비용 인하요구 - “기반시설에 대해서 요금을 인하하고, 전용선 사용할 때의 비용을 절감해주었으면 합니다. 한 달에 전화비, 통신비, 랜선 사용료만 7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부담이 됩니다.”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사례 2> 기자재 구입에 대한 재정지원 - “각 단체들에게 기자재들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재정을 지원해주고, 단체에서 온라인 운동을 할 때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례 3> IT 전문가 고용을 위한 재정지원 - “무엇보다 기존의 인원은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만으로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따로 IT교육을 받아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일단 재원이 마련되면 콘텐츠 개발과 홈페이지를 전담할 인력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전화연합)

<사례 4> 예산지원 - “먼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고 IT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구여성회)

<사례 5> 서버확장과 리뉴얼을 위한 예산지원 - “서버 확장이나 리 뉴얼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각종 기자제도 공급되어야 합니다.”
(여성민우회)

<사례 6> 예산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 - “예산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팀을 이루어 홍보와 활동을 해 나가게 해야 하며 ‘여성은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는 의식부터 바꾸어서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시간당 수당을 줌으로써 좀더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맡아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사례 7>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여성운동 기획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 -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여성운동에 대한 기획과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작업은 무엇보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 자체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중앙회)

<사례 8> 홈페이지 유지에 필요한 비용지원 - “여성부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들의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면, 홈페이지를 만든 이후에 업데이트와 운영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여성정치연맹)

<사례 9> 정부의 IT예산 지원으로 홈페이지 전담 인력확보 - “각 여성단체들은 홈페이지를 전담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쟁점과 운동을 기획하고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단체의 경우는 법무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데, 이것만으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홈페이지 개설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다른 여성 단체들도 자원 봉사나 기부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라 전문 웹디자이너나 웹프로그래머를 고용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각 여성 단체에 대한 IT예산 지원을 늘리거나, 기술자들을 지원해 주어야 사이버 여성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사례 10> 호스팅과 서버관리 무료임대 - “활성화를 위해 호스팅과 서버관리에 관한 무료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6) 홈페이지 전담 전문인력의 지원

<사례 1> 정보제공과 토론을 주도할 전문인력이 요구됨 -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이끌어갈 실력 있는 핵심 구성원이 필요합니다.”

(대구여성회/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사례 2>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전문가 필요- “사이버 공간에 여성관련 쟁점을 계속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전문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소모적인 상업성 글들을 삭제하는 등 계속 관리가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YWCA연합회)

<사례 3> 사이버 공간 여성운동 전담 전문인력 요구- “기존의 여성단체 간사들은 오프라인 활동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운동을 활성화하려면 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각 단체들에 더 보충되어야 합니다.” (여성상담센터)

<사례 4> 여성운동의 극대화를 위한 웹 전담자 지원- “웹 전담자가 따로 있어야 웹 환경이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여성운동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웹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폭넓은 안목에 입각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운동이 발전해 나아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성민우회)

7) 기술·재정·인력의 종합적 지원

<사례 1> on·off-line 모두에서 인력, 예산, 기술의 종합적 지원필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에서 인력, 예산, 기술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여성부나 기타 공공기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문화)

<사례 2> 콘텐츠 개발 전담인력과 사업비 지원요구- “지금은 각 여성단체의 실무자들에게 의존하여 각종 이벤트 사업을 진행하는데, 콘텐츠 개발을 전담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이 커요. 연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사무국을 두려면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부천여성네트워크)

<사례 3>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과 지방 여성단체의 온라인 활동 지원 필요- “중앙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방에 있는 여성단체들에게 온라인 활동은 더 많은 이점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여성단체들 간이나, 지방과 중앙 여성단체들 사이에는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 여성단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활동에 대한 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회/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사례 4> 정부의 사이버 여성운동에 대한 장기적·지속적 지원정책 필요-

“사이버 여성 운동이 실효를 거두려면 형식적·일회적·단기적·실적 위주의 계획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실천 가능한 계획과 투자를 통해서 뿌리깊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정책을 고려하고 이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구여성회/여성재단)

<사례 5> 전국 여성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위한 기술·자금 지원요

구- “풍부한 콘텐츠의 제공을 위해 국내 여성단체들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기술과 자금의 지원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성정치문화연구소)

<사례 6> 여성단체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과 재정지원이 요

망됨-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들의 의식을 개혁하려면 먼저 여성 단체들 스스로가 사이버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만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여성네트워크)

<사례 7> 쌍방향 의사소통과 주부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와 정부의 재

정지원 요망- 본 단체는 여성운동보다는 여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주로 단체의 소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들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부들을 교육시켜 보다 쉽게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 컴퓨터 교육, 인터넷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

8) 홈페이지의 독자성과 내용의 충실화

<사례 1> 단체간 차별화 된 독자적 영역 개발- “다른 여성단체의 활동과는 차별화 되는 독자적인 활동 영역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여성상담센터)

<사례 2> 풍부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홈페이지 관리 철저-

“일반적인 여성단체의 홈페이지들은 콘텐츠가 풍부하지 못하고 디자인이나 게시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만 만들어 두고 관리가 소

홀하면 또 다른 사이버 공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일단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각 여성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콘텐츠가 깊이 있고 풍부하게 사이버 공간에 게재됨으로써 각 단체의 활동이 더 잘 홍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경우 직접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례 3> 여성단체 공동사용 가능한 인증시스템 개발— “현재 여러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좀더 안정된 인증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성민우회)

<사례 4> 웹 기술의 뒷받침과 웹에 적합한 여성운동 모색— “튼튼한 웹 기술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웹에 적합한 여성운동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례 5> 성차별 성폭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 실시— “오프라인과 같이 온라인에서도 여성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심각한 실정이며 채팅이나 게시판, 동호회, 커뮤니티 등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욕설, 위협, 스토킹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차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여성 운동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합니다.”

(인천여성의 전화/한국여성단체연합/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9) 콘텐츠를 여성 삶에 도움되는 방향에서 흥미롭게 개발

<사례 1> 성인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개발— “온라인은 재미가 있어야 흥미를 자극하고 사용자의 눈길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 내용이라도 게임이나 놀이의 형식을 취해야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용자가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찾아서 체크 한 후 결과보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함으로써 젠더에 대한 고정 관념을 고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성민우회/언니네)

<사례 2> 여성문제 토론을 위한 온라인 상의 장 마련과 이를 통한 정보제공— “여성들에게 올바른 삶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이 논의되어

야 하는데 여성들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장을 통해 기존에 논의돼 온 자료들을 배포해야 합니다. 각 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안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내용의 업 데이트가 중요합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사례 3> 자료개방, 신속한 업데이트, 보기 좋은 디자인 - “일반인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방하고, 매일 내용을 업 데이트하고 있으며, 디자인을 보기 좋게 수시로 개편하는지를 보게 해야 합니다.” (여성재단)

10) 여성들이 온라인을 통해 여성운동에 참여토록 콘텐츠 개발

<사례 1>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 활동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제공 - “...단체활동 내용이나 목적을 단순히 공지하거나 홍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운동에 참여하고, 여성들의 요구와 비판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의 활동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여성 운동의 유의미함과 보람을 대중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계기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화)

<사례 2> 구체적인 여성운동 주제를 다룰 것 - “호주제 폐지운동을 사이버 공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친양자제도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온라인을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례 3> 메뉴를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꾸미고, 콘텐츠를 풍부하게 구비토록 할 것 - “우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별로 카테고리가 중복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웹기획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가 풍부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은 사이트 운영이 신속해서 시기 적절한 내용의 업 데이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성정치문화연구소)

<사례 4> 메뉴구성, 웹기획을 효율적으로 하고, 철저한 게시판 관리가 요구됨 - “항상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인 홈페이지는 그 단체를 대표하기 때문

에 메뉴 구성을 비롯한 웹기획의 효율성, 페이지의 로딩 속도, 데이터의 분리형태가 집약적인가 산재되어 있는가, 디자인은 중요한 부분을 잘 고려하여 기능적으로 되어 있는가, 게시판 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11)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사례 1> off-line 활동의 홍보와 대중의 여성운동 이해를 위한 인터넷 활용- “기존의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해온 활동에 대한 홍보를 대중화하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운동의 필요성과 활동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대중의 여성운동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살류쥬)

<사례 2> 단체활동 홍보 통한 on-line상의 상담 활성화 도모- “단체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잘 홍보하는 일은 여성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중요합니다. 홍보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활성화시키고, 홈페이지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요원(현재 2명)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성폭력상담소)

<사례 3> 정확한 정보파악 중요, 사업 계획 시 on-line과 off-line 동시 고려- “여성단체연합과 회원단체들의 연합된 힘을 이끌어내기 위해 명확한 단체의 입장을 규정지을만한 정확한 정보와 흐름의 파악이 우선되어야하고, 온라인에서의 정보제공, 진행사항의 보고와 더불어 오프라인의 서명과 캠페인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면을 다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전화연합)

12) 평가도구의 개발과 토론활성화

<사례 1> 사이버 여성운동 평가 도구 개발이 요구됨- “사이버 여성운동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게시판의 활성화 정도 즉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신속성, 정확성, 친절함 등이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서명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도 사이버 여성운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민우회)

<사례 2> 현재 여성운동의 이슈에 대한 토론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 “성명서 운동이나 참여정치가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장상 국무총리서리의 인준 문제에 대한 의견을 게시판이나 토론방에 게시하고 말머리 달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명선거운동 및 유권자 의식교육 등 정치문화 개선운동과 관련하여 현재 이슈가 되는 정치 현황에 대한 의견을 네티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토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poll이나 설문 조사, 오리엔테이션을 한 적은 있으나 오프라인보다 효과는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이 좋은지 일정한 가이드 라인과 같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3) 적극적인 사이버 활동 필요

<사례 1> 사이버 상에서의 적극적 상담·찾아가는 상담 실시 필요 - “여성 인권운동을 하기 시작한 초창기 여성의 전화는 상담업무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상담을 일반여성을 사이버 상에서 만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수동적인 자세로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을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먼저 만나러 가는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례 2> 홈페이지 개설전 사이버 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전 준비가 요구됨 - “사이버 공간에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나 오히려 이 사이트에 몰려든 온갖 성 테러리스트들에게 페미니스트들이 철저하게 농락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준비가 미숙한 단계에서 성급하게 사이트를 오픈하여 운영한 주최 측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상담소/인천여성의 전화/여성의 전화연합)

14) 실무자 회원 대상의 정보화 교육 실시

<사례 1> 지방지회 활동가·회원대상의 정보화 교육 실시 - “지금 점차 지방 지회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의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낼 수 있는 단체로서 성장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온라인 사업을 통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를 위해서 지방 지회 활동가들의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주부클럽연합회)

“실무자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발적인 노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유권자연맹/또 하나의 문화)

<사례 2> 홈페이지 운영자 수준에 맞는 IT교육 실시 필요 - “인력지원을 토대로 현재 각 여성 단체의 홈페이지 운영자들의 수준에 맞는 IT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대구여성회)

“지금의 몇몇 교육들은 활동가들의 수준을 무시한 너무 고차원적인 내용들이라 교육에 참여한 후에도 실제로 홈페이지 운영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사례 3> IT기술 교육 실시 및 지속적 지원과 연대가 요구됨 - “IT기술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원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IT기술을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IT기술을 보유한 업체나 기술자들과의 연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유권자연맹)

“활동가 대상의 IT기술교육이 필요합니다.”

(대한YWCA연합회/여성정치문화연구소)

15) 정부·지방자치단체와 단체간 연대활동

<사례 1> 다양한 여성운동과 이용자간의 네트워크 결성이 중요함 - “상담을 통해 그 때 그 때의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여성운동의 보편적인 활동, 의정활동이나, 여성관련 정책이나 법의 개정, 또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여러 운동 등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례 2> 단체들간 연대를 위한 의사소통 필요 - “무엇보다 서로서로 연대를 잘해야 합니다. 캠페인을 할 경우 배너 달아주기, 온라인 서명 연대 등을 통해 여성단체들의 힘을 모아야하며 어떤 연대할 주제들에 대하여 단체들 간의 입장에 대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같이 연대를 하면서도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례 3> 단체간 콘텐츠 공유 -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나 정보는 다른 단체와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자동적으로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게 하거나, 콘텐츠를 복사해서 다른 홈페이지에 올리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사례 4> 단체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여러 여성단체들이 서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여성정치문화연구소)

<사례 5> 여성단체들의 커뮤니티와 사이버 공간을 하나로 묶는 여성 포털 네트워크 구축필요- “무엇보다 사이버 여성 운동의 성공사례를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여성커뮤니티와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하나로 묶어 여성포털 네트워크를 이뤄내야 합니다.”

(달나라딸세포)

“여러 여성단체 사이버 공간을 네트워크화하는 중심 단체나 기구가 설립되어서 잘되는 모임에는 격려와 포상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류주)

“온라인을 통한 각 단체의 소모임이나 연대 모임의 구심점 역할을 해 줄 단체나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YWCA연합회)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위해 내용의 업데이트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 여성단체들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정치문화연구소)

“앞으로 인터넷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므로 미래 세대에 잘 대처하려면 여성 단체들도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사업과 연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천여성네트워크)

<사례 6> 중앙·지방간, 지역내 정보교환을 위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형성- “정보화 사회에서 여성의 적응력을 높여야 하고 지방과 중앙간의 정보교환 및 지역 사회 내부에서 정보 교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건전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지역여성이 주체가 되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정치연맹)

<사례 7>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실시 필요- “각 여성단체 사이에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타 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 운동을 공유하고 함께 홍보함으로써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이버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리를 통해 타 단체의 온라인 전담 실무자와의 접촉을 통해 연대 활동이 공동으로 모색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재단/여성중앙회/한국여성단체연합)

16)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

<사례 1> 상담 데이터 베이스화 추진필요 - “상담전산화 부분에 주력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상담이 매월, 분기별, 상반기, 하반기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지 상담의 유형별로 나눈 성폭력 몇 건, 가정폭력 몇 건 정도의 건수 집계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25개 지부의 상담자료를 분석했을 때 월별, 유형별, 나이별, 지역별, 시대적인 총체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상담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전화연합)

<사례 2> 상담 원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 필요 - “원자료가 되는 많은 사례들을 프로젝트화해서 파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이와 같은 중요한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제대로 된 일지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절실합니다.” (성폭력상담소)

<사례 3> 모든 정보에 대한 체계화 일원화 필요 - “일반 여성들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정보의 양과 유용성도 중요하지만 찾거나 보기 편리하도록 경로가 지정되어서, 보다 많은 이용자가 몰려들게 함으로써, 여자만세와 각 단체의 활동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부천여성네트워크)

<사례 4> 사이버 공간의 여성운동 노하우를 축적하여 다른 단체에도 이전 - “사이버 공간을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 운동에 대한 경험, 즉 IT기술,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운영과 같은 노하우를 집약적으로 축적하여 여러 다른 단체들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나라딸세포)

이상에서 여성단체들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의견으로 첫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재정·인력지원을 제안하고 있고, 다음 정보화에 대한 교육실시와 충실한 내용의 콘텐츠 개발과 웹 프로그램 개발 단체간 사이버 연대활동, 실무자 및 회원대상 교육 실시와 여성단체 활동 자료에 대한 DB구축 및 단체간 자료공유 단체의 자발적 투자와 노력, 평가도구 개발, off-line과 on-line 사업 연계 등을 제안하고 있다.

<표 VII-6> 여성단체 사이버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

응답수(%)

심층면접대상 해당 단체명		제안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	○		○								
2	한국여성단체연합						○		○			○	○	○		○	
3	한국여성민우회				○	○	○		○	○			○				
4	한국여성의전화					○					○			○			○
5	한국성폭력상담소				○				○			○		○			○
6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				○	○			○							
7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							○					○		
8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		
9	한국여성상담센터						○		○								
10	전국주부교실중앙회							○									
11	한국여성재단							○		○						○	
12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13	대한YWCA연합회				○		○								○	○	
	서울YWCA연합회			○													
14	한국여성중앙회	○				○										○	
15	한국정치연맹	○		○		○										○	
16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						○			○		○		○	○	
17	또 하나의문화				○			○			○				○		
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									○	○	
19	살류주	○										○				○	
20	부천여성네트워크							○								○	○
21	인천여성의 전화	○							○					○			
22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	○								
23	대구여성회	○				○	○	○							○		
24	언니네					○				○							
25	달나라딸세포															○	○
합계	91	9	3	3	4	10	7	8	7	5	3	3	3	4	7	10	4
	%	9.9	3.3	3.3	4.4	11.0	7.7	8.8	7.7	5.5	3.3	3.3	3.3	4.4	7.7	11.0	4.4

①사이버 공간의 이해 및 참여유도 ②여성단체 홈페이지 홍보 ③사이버운동 필요성 인식제고 ④정부의 기술인력 지원요구 ⑤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⑥홈페이지 전담 전문인력 지원 ⑦기술·재정·인력의 종합지원 ⑧홈페이지 독자성과 내용의 충실화 ⑨컨텐츠를 흥미롭게 개발 ⑩온라인을 통해 여성운동에 참여토록 컨텐츠 개발 ⑪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⑫평가도구 개발과 토론 활성화 ⑬적극적인 사이버 활동 필요 ⑭실무자 회원 대상의 정보화 교육 ⑮정부·지방자치 단체와 단체간 연대활동 ⑯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2. 전문가 워크숍 결과

전문가 워크숍은 여성단체 실무책임자 10명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심층면접·여성단체 홈페이지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설문조사 결과에서의 “여성단체들이 사이버 여성운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공간에서의 여성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토대로 본 워크숍에서는 off-line과 on-line에서의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의 모색을 함께 논의하는 전문가집담회(key persons group study) 형식으로 카드퀴즈 토론과 자유토론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가.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 모색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성단체 실무책임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리하면 여성단체의 조직확대, 회원의 단체활동 참여증진, 활동가 확보 및 전문성제고, 여성단체의 재정지원과 기금 확보, 여성단체 회장 및 지도자의 리더십과 성인지적 의식의 변화, 여성운동의 새로운 방법도입 시도,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역할변화 등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단체의 조직확대가 요구된다.

조직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단체들간의 네트워크형성(1명)과 여성운동단체간의 연대활동(3명) 및 사업공유,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이용(2명), 단체내의 남녀평등의식 확산(2명), 단체 내 세대간 의사소통 원활화 모색, 단체회원의 저변 확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회원의 단체활동 참여증진이 요구된다.

회원의 단체활동 참여증진을 위해서는 여성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사업을 수행하고, 여성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여

성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이와 함께 후원회원들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단체활동을 특성화시켜 브랜드화하며, 단체에 대한 홍보(2명)와 단체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1명), 자원활동 여성인력의 확보와 여성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활동가 확보 및 전문성제고가 요구된다.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이 활동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고려하여 활동가 확보(2명), 활동가의 전문성 제고(2명)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활동가 확보를 위해서는 활동가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업무환경 개선”(2명)이 요구되고,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체 실무자의 여성운동 마인드 고양(1명), 실무자의 국제교류(1명), 전국단위 실무자 워크숍 실시(1명), 워크숍의 지속적인 활성화(1명),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토론참여(3명), 재교육실시(3명) 등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 여성단체의 재정지원과 기금 확보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 사업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3명)과 여성단체 자체의 노력사항으로 예산확보 루트의 다각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여성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회원의 회비 납부실적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여 회원의 회비납부를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 여성단체 지도자의 리더십 및 성인지적 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단체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분명한 목표의식과 리더십이 요구되며, 단체장의 가부장적이고, 성 차별적인 고정관념과 사회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여섯째,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역할변화가 요구된다.

정부(여성부)의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분야의 다양화와 다양한 단체활동 장려가 요구되며, 정부 관계자의 태도를 정부 중심에서 여성단체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또한 정부는 여성단체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등의 민관 협력체제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VII-6>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활성화방안(복수응답)

구분	세부내용	인원수(%)	
단체조직 확대	단체들간의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1)/여성운동 단체간의 연대(3)	4	10(17.8)
	회원 가입증대를 통한 조직확대/여성단체간 사업공유	2	
	프로그램의 개발·확산(1) /단체내의 남녀 평등의식 확산(2)	3	
	단체 내 세대간 의사 소통 원활화	1	
회원의 저변확대 · 참여증진	회원의 자발적 참여 /여성의식 교육실시	2	7(12.5)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후원회원들간의 연대	2	
	자원활동가 확보 /여성이 교육받을 기회 확대	2	
	여성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단체사업	1	
활동가 확보· 전문성제고	활동가 확보 및 전문성제고	4	12(21.4)
	활동가에 대한 적절한 대우 /실무자의 업무환경 개선	2	
	단체 실무자의 여성운동 마인드 고양 /실무자의 국제교류	2	
	전국 실무자 워크숍 활성화 /지속적인 토론참여 /재교육실시	4	
여성단체의 재정·기금확보	단체사업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3	5(8.9)
	예산확보 루트의 다각화 /단체회원의 회비납부 의무화	2	
단체 특성화· 홍보강화	단체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단체의 특성화, 브랜드화	2	4(7.1)
	단체홍보	2	
지도자의 리더십	지도자의 리더십/ 목표의식 분명 /단체장의 마인드 변화	3	3(5.4)
여성운동의 새로운 시도	가족으로서의 여성보기(여성문제를 자신의 가족문제로 인식)	1	11(19.6)
	법제도 개선보다 여성의 실제적인 삶의 질 개선이 중요	1	
	여성운동 기록형태 변화/실험정신과 다양한 방법 시도	2	
	활동가와 회원의 육아문제해결 공동지원	1	
	시민으로서의 여성 관점 도입(소비자, 유권자, 납세자)	1	
	여성운동의 방법-고립되지 않기 /여성운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	2	
	여성단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 변화	1	
	지역(주민)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리기	1	
정부태도와 역할	정부(여성부)지원분야 다양화 /정부의 다양한 단체활동 장려	2	4(7.1)
	정부 관계자 의식 변화(정부 중심에서 여성단체 중심으로)	1	
	민간협력체계→정부는 여성단체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우할 것	1	
합 계		56(100)	

일곱째, 여성운동의 새로운 방법의 도입과 시도가 요구된다.

여성에 대한 시각의 변화 - 가족으로서의 여성보기(여성문제를 자신의 가족문제로 인식하고 보기)가 요구되며, 법제도 개선보다 여성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성운동 기록형태를 여성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여성운동에 실험정신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도록 한다. 또한 여성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의 원활한 단체활동 참여를 위해 개별단체 또는 지역단체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으로서의 여성관점을 도입(소비자, 유권자, 납세자)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여성운동의 방법모색, 여성단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 변화시키기, 지역(주민)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리기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

첫 번째 토론주제인 현실공간에서의 여성단체 중심의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에 이어 두 번째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여기서는 참석자들이 모두 단체 활동가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소속 단체의 사정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제안된 방안들은 기술인력확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기술 지원, 정보화 교육 실시, 홈페이지 운영지원, 정보 인프라 구축, 회원욕구 반영, 사이버 연대 구축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단체의 기술인력 확보 및 지원이 요구된다.

여성단체 사이버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IT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인력뱅크를 운영토록 하고(2명), IT전문인력을 지원토록 하며(4명), IT분야 전문가로 팀(뱅크)을 구성하여 단체를 지원하는 방안(1명), 기술인력 풀을 구성하여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1명), 전문기술 업체 또는 기술자를 양성하는 학원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1명)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여성단체가 갖는 공공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취약한 여성단체의 재정을 도와야하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여성단체사업 및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단체정보 활성화를 위해 하드웨어 구축 및 통신비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2명)이 요망된다. 또한 현재 소수 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중립적으로 여러 단체에 배정토록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정보화 교육 실시가 요구된다

인력인프라 육성을 위한 교육실시, 업무전산화에 대한 적응훈련 및 정보화 능력 함양교육의 실시(3명), 업무전산화를 통한 실무자 업무량 해소,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2명), 단체장의 인식변화(정보화 마인드 중요), 사이버 교육 기회 제공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넷째, 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지원이 요구된다.

사이버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컴퓨터·서버 등 정보관련 기기의 준비를 위한 시설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다양하고 특징적인 콘텐츠개발 보급(3명),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다양한 자료의 DB화 및 공유, 풍부한 자료를 갖춘 자료실 운영(2명), 온라인 상의 모니터링 사업 활성화, 일상적 관심사에 대해 부문별로 다양한 동호회 육성, 포럼의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회원욕구 반영 및 사이버 연대구축이 요구된다.

사이버 여성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열린 공간이 요구되며, 또한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회원욕구·네티즌 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키도록 하고(3명), 온라인 회원확보와 즉각적인 반응 등이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사이버 연대활동을 강화하고(3명), 단체간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2명) 하여야 한다.

<표 VII-7>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방안(복수응답)

구분	세부내용	인원수(%)	
기술인력 확보 및 지원	IT분야 자원봉사자 인력뱅크 운영(2)	2	10(20.4)
	IT전문인력 지원(4)/기술지원(1)	5	
	IT분야 전문 자문팀 지원/기술인력 풀 확보·운영	3	
	전문기술 업체와 협력 네트워크	1	
정부·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여성단체 인건비 지원/하드웨어 통신비 지원	2	5(10.2)
	(정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재정(2)	2	
	현재 일부 단체의 편파적인 예산지원을 중립적으로 단체에 배정	1	
정보화 교육 실시	인력인프라 육성(교육)(1)/홈페이지 운영자 교육(2)	3	8(16.3)
	업무 전산화에 대한 적응 훈련 /정보화 능력함양 교육실시	2	
	업무전산화를 통한 실무자 업무량 해소	1	
	단체장의 인식변화 정보화 마인드 함양/사이버 교육기회 제공	2	
인프라 구축	관련기기 준비(컴퓨터 등...준비)/시설지원(컴퓨터·서버 등)	2	2(4.1)
홈페이지 운영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1)/다양하고 특성있는 콘텐츠 개발 (3)	4	10(20.4)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1)/다양한 자료의 DB화 및 공유·자료실의 풍부화(2)	1	
	온라인 상의 모니터링 사업 활성화	2	
	일상적 관심사를 분임 별로 나누어 다양한 동호회 육성	1	
	포럼의 활성화	1	
		1	
회원욕구 반영	열린 공간(쉬운 접근)(1)/회원욕구·네티즌 욕구 파악(3)/온라인 회원확보/즉각적인 반응.	6	6(12.2)
사이버 연대	사이버 연대 활동 강화(3)/단체간의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2)	3 2	5(10.2)
기타	온라인 상의 결과를 오프라인 활동에 반영(1)/웹 전략 부재, 홍보 활성화(1)/홈페이지 주인이 사람 cf)사업(1)	3	3(6.1)
합 계		49(100)	

기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활동결과를 상호반영하고, 현재의 웹 전략 부재를 해소토록 하며, 홈페이지 운영을 현재의 사업위주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도록 한다.

다. 단체별 활성화 방안의 모색: 자유토론을 중심으로

1) 홈페이지 운영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담인력 및 재정지원이 필요함

<사례 1> “여성단체 예산의 상당부분이 인건비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다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므로 궁극적으로 인건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건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여성단체의 활동을 사이버에 맞도록 하는 작업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단체는 콘텐츠 개발에 여성부로부터 2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석자 3)

<사례 2> 홈페이지 운영인력의 부족— “저희들 또한 거기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저희 민우회 같은 경우에는 민우회 메인 페이지가 있구요. 그리고 센터들이 있거든요. 저는 메인 페이지 담당자인데, 메인 페이지를 담당하면서 업데이트도하고 있는데, 사실 센타 홈페이지를 보면 그것들을 움직여 줄 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어요.” (참석자 5)

<사례 3> 사이버 자녀 교육상담 전문인력의 부족— “저희 대한 어머니회는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 때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 반영했어요. 메뉴를 정할 때도 게시판, 방명록, 상담실이 있거든요. 게시판에는 이런 글을 쓰고, 방명록에는 저런 글을 쓰고, 상담실을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중략-- 저희 단체 성격에 맞도록 자녀교육을 위한 상담을 하려고 상담실을 개설했는데, 저희에게는 교육문제를 상담해줄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운영할 자원활동가가 필요한데 확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상담실을 개설 해놨는데 운영이 안되더라고요. 또 게시판과 방명록도 차이를 두고 해 둔 건데 나중에 글이 올라온 거를 보면 방명록하고 게시판하고 똑같아 지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다고 하나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저희도 전문인력이 없고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무를 보면서 홈페이지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따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잠깐 글 올리고 새소식 올리고 이런 것만 잠깐 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트를 없앨 기술이 없어서 못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정상 상담실 운영을 못하겠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인력이 확보가 되면 다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참석자 7)

<사례 4> 사이버 전담인력이 요구됨 - “홈페이지 유지관리에서도 실무자 분들이 홈페이지만 관리하는 전담 인력을 따로 배치할 할 수 있는 단체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와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인사이동으로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체 내 사이버 활동을 전담할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참석자 3)

<사례 5> 지역단체 연합사이트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재정지원 필요 - “2002년 5월에 사이트를 오픈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각 단체의 실무자를 둘러싼 환경이 열악해요. 세 네 명의 실무자들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홈페이지나 연합사이트를 운영하고 온라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차출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도 일반 단체업무와 온라인 사업을 같이 수행하는데 제 업무에서 온라인 사업비중은 20%정도 밖에 안되지만, 단체 전체로 보면 온라인 사업이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만큼 일 양이 많아서 실무자들이 부담을 많이 느껴요. 저희 부천시 연합사이트에 관련된 각 단체 실무자들은 연합사이트를 구축해서 연합사이트 안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을 수행해야하고 각 단체의 홈페이지도 관리해야하고 힘든 일입니다. 지역단체가 연합해서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든 이유는 인력면에서 일을 줄이려고 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사무국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중략--- 또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력이 필요한데 각 단체의 실무자들이 지역의 사정은 잘 알고는 있지만 소속단체의 업무와 on-line사업을 주관하면서, 연합사이트의 일에 투입되기에는 힘든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력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이 요구됩니다.” (참석자 8)

2) 홈페이지 운영 인력 확보방안

<사례 1> IT관련 정책 기술자문단 구성활용 - “지역단체 중 IT전담 직원을 배치한 곳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회원단체들이 있는데 인터넷 사업을 전담하는 활동가는 없어요. 다른 업무와 함께 겸임하거나, 아예 없거나, IT쪽 일을 외부에 맡기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석자들이 기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고 하시는데, 저희의 경우 여성연합 정보사업 담당 팀 아래 정책자문단과 기술자문단

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사이버여성운동 내지 정보사회에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같이 공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자문단은 현업으로 웹마스터 프로그래머, 컨설턴트 등의 일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자의 도움을 받는 게 기술은 익히는 것 보다 훨씬 쉽거든요. 왜냐면 IT분야에서 빨리 변화하는 기술들을 다 익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참석자 6)

<사례 2> 지역의 컴퓨터 학원과 기술지원협력구축—“기술인력 확보 방안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웬만한 지역들의 컴퓨터 학원에는 그래픽, 웹 디자인 프로그램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마치는 수강생들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하느니 여성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주어 포트폴리오로 제출하면 자신의 이력에도 경력에도 도움이 되고 좋거든요. 웬만한 지역에는 컴퓨터 학원이 다 있으니까, 한 학원과 제휴해서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술은 빌리면 되는데 기술로 고민하면 계속 사이버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참석자 6)

<사례 3>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한 기자단 구성—“우리단체는 지금 10개 지역에서 기사를 한 명씩 선정 기자단을 『방방곡곡 기자단』이라고 명칭을 부쳤고, 또 각 분야별로 열 개의 분야에서 적재적소에 맞는 기자단 20명을 확보해서 기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월평균 21건 업 데이트했는데, 지금은 월 평균 46건으로 하루에 한 개 이상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고, 이용자의 수가 90%가 증가했습니다. 기자단에게는 자기가 작성한 기사에 대한 조회수에 따라 마일리지 시스템을 적용해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구요. 이에 따라 온라인 회원수도 36% 증가했습니다.” (참석자 6)

3) 회원들의 정보화 교육 · 재교육 필요

<사례 1> 회원의 정보화 교육 및 단체활동 참여의식 제고 요망—“회원들이 연세가 많아서 정보화 교육훈련을 시키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대부분 40대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억지로 교육을 시켜서 겨우 겨우 했는데, 2박 3일 교육을 실시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하고... 중도탈락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중략--- 단체 실무자로서 경험을 기반으로 제안을 하면 외부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여성들 스스로가 정

보 마인드를 가지고 집중력 있게 교육을 받고 꾸준히 활동하겠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들 스스로 여성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중략--- 또한 여성들 스스로 정보화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정보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추수지도가 필요하고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석자 4)

<사례 2> 회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교육 필요- “단체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용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실제로 30.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들의 컴퓨터 다루는 능력이 낮거나, 회원가입이 낮으면 자연히 이용실적이 낮을 겁니다. 여학생들을 위한 홈페이지의 활용은 여학생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니까 활용도가 높겠지만... 회원들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해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여성들 중심으로 여성 눈높이에 맞는 교육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 8)

4) 사이버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실공간에서의 사업 및 여성운동의 활성화 우선 도모

<사례 1> 우선적으로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현실공간 사업 및 여성운동의 활성화 도모- “네트워크 사업이란 어떤 사이트를 목적을 두고 만들었는데 운영이 안 되면 그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타계를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뚜렷한 해결책은 없거든요. 단지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에 실무자들이 뛰는 것이 필요한 것밖엔 없어요. 온라인 사업이라 해서 발로 안 뛰면 그건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성공하려면 현실세계에서 더 열심히 뛰어줘야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또한 사이버 여성운동 역시 활성화되려면 우선 현실공간에서 여성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참석자 모두의 의견)

<사례 2> 사이버 교육 실시와 함께 off-line에서의 지속적인 만남의 공간 확보가 요구됨- “사이버 활동을 하다보면 직접적인 활동이나 운동으로 연결시키기가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이버 공간이 교육할 때 접속이 용이하지 않아요. 저희단체에 직접오시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

도록 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활동은 이용자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잖아요. 그러나 온라인 교육이나 활동에 한번 접했다고 이용자의 의식이 바뀌진 않으니깐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과의 연결을 시키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석자 3)

5) 여성단체 의사 결정직의 의식변화 · 여성운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 고양

<사례 1> “실무자 쪽은 젊으니깐 여성운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여성운동이나 여성문제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도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안하지만, 이사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야 되는데 소극적이라 단체의 설립목적이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의 틀을 못 깨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 교육 쪽이니깐 거기에 그대로 맞추자 그런 것이 강해요.” (참석자 7)

6) 홈페이지 게시판의 활성화를 위해 이슈별 사안별 게시판 운영

<사례 1> “저희 메인 홈페이지는 일반대중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이슈를 전달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회원들 대상으로 한 포럼이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포럼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회원들을 참여시킬 것이냐 예요, 사실 포럼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회원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거든요. 참여가 저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소모임 형태의 포럼을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일반인과 회원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캠페인이나 사안이 있으면 사안별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생리대 가격인하나 회식문화 바꾸기 등에 대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면 이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 홈페이지도 이슈별로 회원들의 의견을 담는 쪽으로 좀 변화를 주어보자는 시점에 있습니다. 근데, 포럼은 방이 많다고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원들의 참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5)

7) 회원 및 일상적 관심사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

<사례 1> 홈페이지에서 일상적 관심사를 다룸으로써 회원 참여증진- “제가 일상적 관심사의 동호회를 제안했는데 이는 여성단체의 경우 여성을 모아 운

동을 하는데, 지나치게 이슈 중심으로 가거나 과제 중심으로 가면 편안하게 수다 떨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일상적인 문제로부터 여성운동 참여의 계기를 만드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수다를 떨면서 일상적인 문제부터 여성운동의 참여 계기만 만들어지면 여성분들이 동호회나 그런 거 하기 훨씬 좋은 여건이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원이 운영하는 ‘좋은 엄마, 나쁜 엄마’라는 게시판은 아줌마 회원의 수다를 중심으로 육아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있는데 그런 사이트가 홈페이지 전면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프레디 머큐리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음악사연 이야기 게시판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이트의 주인이 나고 회원이고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사이트에서 확 드러나 주는 게 어쨌든 사이버를 통한 여성운동에서도 그 자원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참석자 1)

<사례 2> 사업중심이 아닌 회원중심 사이트 운영 - “또 여성단체 사이트는 사업이 드러나기보단 사람이 드러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애정을 갖고 단체에 애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사람중심의 사이트라는 느낌이 먼저 나와야 애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희 게시판의 경우는 회원 중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한 사람에 하나씩 자기 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단체 홈페이지에는 마이 게시판 부여기능이 있습니다. 회원들 중에서 자기 홈페이지를 운영하지는 못하지만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마이 게시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을 위한 게시판을 저희 홈페이지에 만들어줍니다. 그럼 거기서 ‘육아의 풍속사’를 쓰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를 마음대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웹상에 다 드러납니다.” (참석자 1)

8) 온라인 상의 상담 게시판 운영

<사례 1> “저희 단체는 성폭력 상담을 주로 합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상담게시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담이 전체 상담에 3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합니다. 사이버 상의 여성운동 활성화 방향에 대해 최근에 고민하면서 우선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석자 2)

9) 단체의 사업을 네티즌에게 친숙한 언어로 가공해서 제공

<사례 1> “대부분의 단체들이 외부에 홍보용으로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네티즌들이 와서 정보를 얻어 가는가, 단체 홈페이지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와서 보는가, 지금은 전체 시민사회 단체 중에서 하루 접속 횟수가 높다는 단체들은 개인회원들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인데 예컨대 참여연대나 환경연합 같은 단체가 2만 5천에서 3만 정도 되고, 그 다음 ‘함께 하는 시민행동’의 경우 접속횟수가 한 만회를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1200회 정도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한참 접속 안하는 데는 접속 횟수가 5, 6건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 네티즌들도 들어오지 않는 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네티즌들을 끌어들이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여성단체 연합에 접속을 하는 네티즌들의 성향을 보니까 부류가 세 부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부류는 테러를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다른 부류는 기자나 학생들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그냥 일반인들이 와서 구경하는 것입니다. 기자들이나 학생들처럼 자료를 얻기 위해 오는 분들에게는 토론회 자료들 드리는데, 일반인들이 여성단체는 뭐하는 곳인가를 알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명서 문구, 보도 자료 이런 것만 보면 다시는 들어오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프라인의 운동방식과는 다르게 네티즌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언어 하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성명서 같은 것을 풀어서 가공하기로 했습니다. ---중략---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없애고 그 예산을 웹상으로 돌려 웹진 뉴스매거진 같은 형태를 취했는데 웹상에서 서비스를 할 때는 웹상에 맞는 언어로 가공해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티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는 것은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들이 하고 있는 여성운동을 웹상에 맞는 적절한 언어로 쉽게 가공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6)

10) 여성단체의 지식정보 표준화 필요

<사례 1> “여성단체연합은 연합단체이기 때문에 가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여성정보운동과 사이버여성운동을 혼동해서 생각하시는데 두 개의 영역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성단체연합은 그동안 회원단체들과 함께 15년간 해왔던 여성운동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까. 그래서 지식정보 표준화

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어요. 15년 간에 혹은 그 이전부터라도 여성운동의 각 분야별로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늦은 수준에서는 문서표준화 정도부터 해서 지식정보 표준화 작업을 해내고 그것을 전체 여성단체 연합의 회원단체와 공유하고, 가능하면 웹상에서 띄워서 서비스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정보 표준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기업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도입된 것인데, 민간단체에서는 진행이 안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석자 6)

11) 여성단체의 사이버 연대활동 필요

<사례 1> 온라인 활동을 지원할 후원회원·자원 봉사자 중심의 조직화 모색— “우선 저희는 후원회원들이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조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 앞으로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항하는 활동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단체가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가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테러를 당할 때는 저희 단체가 조직한 멤버들이 가서 같이 싸우고 같이 자기주장 펼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사이버 상에서 성폭력을 당한 개인의 신고가 들어올 때 저희단체가 만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들 간에 조직화되어 사이버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예컨대 채팅 사이트에서 사이버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운영자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거나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적절히 내리지 않을 경우 운영자에게 강력히 항의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온라인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2)

<사례 2> 현재 지역 여성단체 연합 사이트 운영 중, 타지역에 여성단체 통합 사이트 운영을 제안함— “저희는 부천지역 여성단체들이 한 연합사이트로 모여서 만든 것입니다. 2001년 9월에 여성인력 개발센터, 가정법률 상담소, 여성의 전화, 그리고 제가 소속한 여성회관, YWCA, 여성복지과, 새소망 모자원, 『모퉁이 쉼터』등이 연합사이트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기술인력의 여성인력의 정보화 능력 부족과 같은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연합 사이트 『여자만세』의 현황을 보면 각 단체의 실무자들이 운영진으로 들어와 있어요. 처음 운영이 여성회관에서 시작되었구요. 기술지원은 부천지역 정보센터로부터 받았습니다. 부천지역 정보센터는 부천시 산하 지

역정보 기반구축과 콘텐츠개발을 해주는 곳으로 여기서 모든 자원과 서버지원, 홈페이지 제작을 해주셨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타지역에 지역정보센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통합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통합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8)

12)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여성단체 연합사이트 지원 제안

<사례 1> “여자만세 구축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면, 첫째 지역의 여성단체들의 사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같은 지역에 사는 동일한 대상을 회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데서 탈피하려고 시작했습니다. 부천지역은 2000년부터 연합사업을 off-line상에서 활발하게 했어요. 오프라인에서 단체간 네트워크의 구축이 잘되고 있었고, 그래서 단체들이 온라인 상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의견을 모으게 됐어요. 부천지역의 여성정보들을 일원화 시켜 단체들의 사업이라던가 그런 거를 한눈에 보기 위해 하나의 공동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무자들끼리 모이고 사업정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중복사업이 있으면 한 기관으로 모아줘서 한 기관이 각 기관마다 가정법률 상담이라던가 인력개발이라던가 기관이 주력하는 방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다른 단체들의 회원들도 인력개발센터에 관심있고, 여성의 전화에 상담전화 해보고 싶고 다른 단체의 회원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몰라서 회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한 번의 클릭으로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끼리의 네트워크도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구요. 연합사이트 지원은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수행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석자 8)

이상의 자유토론에서 각 단체의 실태를 고려하여 제시한 사이버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홈페이지의 게시판 운영을 사업중심에서 회원(인간중심)중심으로, 상담단체는 상담위주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홈페이지 운영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전담자 인건비 지원이 제안하고 있다.

셋째, 정보화 교육이 요구되고, 사업에 따른 교육은 추수교육과 재교육의 실시가 제안하고 있다.

넷째, 홈페이지 게시판의 활성화를 위한 이슈별 사안별 게시판을 운영토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 사이버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공간에서의 사업 및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섯째, 단체 회장 및 지도자의 사이버 여성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정보화 마인드가 요구된다.

일곱째,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활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IT기술 적 지원을 위한 IT자문단 결성, 관련기업·학원과 기술지원 협력구축이 요구되며, 홈페이지 운영 인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기자단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VI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309
2. 제언	312

1. 결론

본 연구는 정보사회에서의 여성발전과 여성지위 향상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중심의 사이버 공간 활용을 위한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중앙 및 대도시 소재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사이버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주요 여성관련 사이트 홈페이지를 분석하였고 앞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전문가 대상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여성단체 일반 현황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앙 및 대도시 여성단체의 30.5%는 여성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여성지위향상 및 여성운동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회원규모는 100명 이하(15.8%)에서부터 10,000명 이상(5.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운데 55.6%의 단체들이 1,000명 이하의 회원 규모를 가지고 있고, 연간 재정규모는 1,000만원 이하(17.5%)에서부터 3억원 이상(12.3%)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과반수의 단체들은 연간 30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단체는 대체로 예산확보측면에서 회원의 회비 의존도가 매우 낮고, 재정상태가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확대와 회비납부를 적극 권장하여 재정규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급직원 규모는 과반수의 단체가 2명 이하(1명 23.8%, 2명 13.2%)의 직원을 두고 있거나 없는 경우(21.9%)이며, 반면 가장

많은 곳은 89명으로 직원규모 역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여성단체들의 인적·물적 기반은 단체간 편차가 매우 큰 가운데 대체로 취약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여성단체 정보화 현황

본 연구에서는 여성단체 사이버 여성운동의 토대를 이루는 정보화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성단체들의 컴퓨터 보유현황은 85.5%의 단체가 컴퓨터를 보유(486급 이하 10.9%, 펜티엄급 이상 74.6%)하고 있으며, 14.1%의 단체는 컴퓨터가 없는 상태이다. 이들 컴퓨터 보유 단체들은 인터넷(81.6%)과 이메일(60.2%)을 활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용내용은 단체사업 안내(67.5%), 회원관리(41.6), 단체소식안내(39.0%)에 이용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활용 현황을 보면, 홈페이지 개설형태는 단체의 자체 홈페이지 개설(63.8%), 본회나 기타의 네트워크에 링크(32.2%), 온라인 동호회 활용(3.9%) 등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운영은 단체 직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62.9%로 가장 많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서비스 내용은 단체사업소개(19.2%), 회원관리(13.8%) 등이다.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못한 단체들은 그 이유로 재정·인력·기술 부족을 들고 있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의 여성단체 정보화와 관련된 인식을 살펴보면 “여성단체 정보화 수준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6.6점을 주고 있다. 한편 “사이버 공간 활용은 여성운동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사이버 여성운동을 연대하여 수행할 때 여성세력화를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으며, 사이버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의 정보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에서 여성단체의 정보 인프라구축 수준은 낮으나, 응답자들의 정보화 마인드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현황

우리나라 여성단체의 현실 공간(off-line)에서의 여성운동 참여 현황을 보면 49.2%의 단체들이 여성발전과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성차별 개선운동’(19.4%) 및 교육’(17.1%), ‘법·제도 개선운동’(12.7%), ‘회원자질 및 여성의식 향상교육’(11.5%)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운동’(9.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단체의 연대활동 현황을 보면 여성단체들 중 30.9%가 여성운동을 위한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는 ‘성차별 개선운동’(38.0%), ‘여성의 정치지위 향상운동’(32.2%), ‘여성을 차별하는 법·제도 개선운동’(12.9%), ‘성차별 개선교육’(11%), ‘경제·노동분야 여성차별 개선운동’(5.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여성단체 중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21.9%이며,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이버 여성운동의 내용은 off-line에서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 ‘남녀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14.9%)’, ‘여성을 차별하는 법 개정운동(12.6%)’ ‘성폭력 및 성차별 상담(10.3%)’ ‘남녀 평등의식 및 여성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9.2%)’ ‘여성운동 관련단체 정보제공과 다양한 여성관련 소식 제공(9.2%)’ 등이었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의 대부분이 인적·물적 토대가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고려할 때, 현실공간에서의 여성운동 참여율(49.2%)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반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21.9%에 지나지 않고 있음은 단체 자체의 홈페이지 운영(63.8%)과 현실공간에서의 여성운동 참여(49.2%)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라. 여성단체의 사이버 여성운동 활성화 방향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심층면접, 여성운동 참여단체의 홈페이지 분석, 전문

가 워크숍 등의 결과를 종합할 때 여성단체의 사이버 여성운동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현실공간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고, 또한 현실공간에서 여성운동을 활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인적·물적 토대가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인적·물적 토대가 건설한 단체들 중 대체로 많은 단체들이 여성운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인적·물적 토대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더라도 여성운동에 대한 높은 참여의지를 가진 단체들이 여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여성운동을 활성화시키려면 여성단체의 여성운동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단체의 의사결정권자들의 여성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남녀 평등적인 의식, 성인지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세력화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운동이슈에 따른 부문별 여성운동에 다수의 여성단체들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을 저변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2. 제언

앞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단체의 사이버여성운동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여성단체 차원의 개선 및 노력사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언코자 한다.

가. 정책적 차원의 지원 방안

현재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애로사항과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정책적 차원에서 재정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교육지원, 사이버 여성운동 단체간 연대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은 여성단체들이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여성발전 및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 또

한 크기 때문이다.

1)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인적·물적 토대의 내실화와 여성단체활동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단체의 홈페이지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하나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여성단체들은 전반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 여성운동이 갖는 공공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사이버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성단체 재정의 일부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여성단체 임·직원 대상의 성인지력 향상교육 지원

여성단체의 사이버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공간에서의 여성운동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체활동이 활발한 여성단체 가운데서도 여성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단체들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여성단체장 및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여성의식 교육, 성인지력 향상 교육, 여성운동의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실공간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이버 여성운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참여가 저조한 단체의 경우 역시 핵심 구성원을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교육과 함께 사이버 여성운동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시키는 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을 개별 여성단체들이 주도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므로 중앙 및 시·도단위로 여성단체와 광역단위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에서 실시하되 여성부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토록 한다.

3) 여성단체 정보화 구축 및 교육 지원

여성단체 자체 평가에서 여성단체 정보화에 대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나타나는 바, 여성단체의 정보 인프라 구축과 정보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체 회원들의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필수적 요건임을 고려하여 회원대상의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정보화 교육에 보다 많은 여성단체 회원이 참여하도록 이끌되 교육수준을 참여자의 눈 높이에 맞추어 실시토록 한다.

4) 연속적인 여성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지원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단체 홈페이지의 단순한 제작을 위한 재정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사이버 공간의 활용이 활성화될 때까지 일정 기간동안 홈페이지 제작·운영에 필요한 기술 자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단순한 홈페이지 제작은 시간이 흐르면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홈페이지를 재 제작하거나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단체는 또 다른 부담을 갖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의 경우 기술인력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 기술을 자문·지도하는 방안, 단체의 관련 인력을 교육시키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며, 가능한 각 단체의 사정에 적합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탄력적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5) 여성단체간 공동 on-line 네트워크 구축

단체간 중복사업을 피하고 효과적인 정보제공과 여성세력화를 위해 지역 여성단체간 사이버 공간(on-line)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망을 운영토록 하고, 지방자치 단체 및 여성부는 이를 적극 지원토록 한다.

나. 여성단체 차원의 개선 및 노력사항

다음은 여성단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체차원의 개선 및 노력사항과 관련된 제언들이다.

1) 홈페이지 개설 시 단체의 개설목적을 명확히 반영

여성단체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부터 홈페이지 개설의 분명한 목적이 반영되어야 한다. 단순히 해당 여성단체의 사업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할 것인지 혹은 단체 성격과 관련된 여성운동을 사이버 공간에서 전개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할 것인지 아니면 네티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설할 것인지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 그에 적합한 각기 다른 메뉴구성과 운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여성단체라고 하여도 각 단체마다 설립목적과 사업이 다르고, 중요시하고 있는 여성운동의 구체적인 영역이 다르다. 그러나 현재 매우 다양한 단체들의 홈페이지는 상대적으로 유사한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홈페이지를 새로이 개설하거나 다시 제작할 경우 단체의 특성과 요구하는 바 핵심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활용이 되도록 한다.

2) 단체의 특성에 적합한 홈페이지 운영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며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여성단체가 전반적인 여성운동을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여성단체 본회나 협의체 중심으로 전반적인 여성운동을 다루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이외 개별 단체나 지역단체는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또는 특화된 분야의 여성운동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도 다수의 단체들이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의 전화나 성폭력 상담소, 여성상담소등이 상담활동에 주력하고 정치관련단체에서는 정치부분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상호작용 통로의 극대화를 통한 커뮤니티의 활성화

일반적인 여성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부분은 게시판과 상담서비스와 같이 이용자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게시판에 이용자들의 삶이 반영되는 글이 올라올 때 해당 사이트의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단순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내용을 보고 돌아가는 방문자에 비해 자신의 정보를 내어놓는 이들의 경우 특정 사이트에 대한 기여에는 차이가 난다. 각 여성단체에서 회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홈페이지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살류주’의 경우는 여성운동단체는 아니나 문학동인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동인들이 직접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덜하고, 빠른 회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여성단체에서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하고 회신이 필요한 경우라면 빠른 회신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결국 단체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여성차별에 대한 문제를 활발히 논의함으로써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문제화 하여 여성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4) 전자상거래 구축을 통한 자립방안 고려

여성단체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앞으로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바로 유지 및 보수비용의 조달부분이다. 이는 홈페이지의 성격과 연관되는 것으로 『살류주』처럼 동인지 홈페이지로 남을 경우 이런 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게시판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인 정보의 제공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점이다. 즉 게시판에 자발적으로 글을 올리는 집단과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집단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운영자는 사이트 유지 및 관리에 따로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모든 홈페이지가 이런 방식의 모델을 채택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여성운동에 관한 실질적인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할 때 상당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이때 독자적인 생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 하나의 문화’와 같이 간행물을 판매하거나 민우회 생협외 경우처럼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는 등 수입증진의 방안으로 전자상거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이 경우 각 단체마다 독자적인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회원 단체간 또는 지역단체간 통합운영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기술담당자와 여성운동 콘텐츠 담당자간의 원활하고 충분한 의사소통 반영

여성단체 홈페이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 중 하나는 기술적 담당인력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담당자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여성단체에서는 한 사람이 두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나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리가 있고, 분리되는 경우는 기술담당과 콘텐츠 제공자간에 상호작용이 불충분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방식이므로 양편에서 서로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해주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여성단체 홈페이지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방향성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방대한 여성운동 정보를 전하는 경우 기자단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기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한 단체 홈페이지의 특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각 콘텐츠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술인력과 여성운동 담당 인력간에 기자단을 결성할 경우 기자단 상호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단체특성을 살리고 일관되고 충실한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현안 사이트의 운영

사이버 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안 사이트의 일시적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콘텐츠를 단체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게시판기능에 의존한 토론의 활성화와 합의를 위해 현안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특별한 게시판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안 사이트의 구성은 특정 여성문제나 상황에 적합하도록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앞서 본 연구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군가산제 폐지운동’이나 ‘호주제 폐지운동’과 같은 현안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예컨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현안사이트의 경우는 가장 효과적인 사이버 상에서 여성단체들이 연대하는 여성운동의 대응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극 권장할 만하다.

7) 개인운동 방식의 활용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은 여성단체의 활동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공간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개인적 차원의 여성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단체의 조직적인 접근 없이도 한 개인이 공공문제의 해결에 있어 단체나 조직에 못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곧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적은 비용과 노력만으로 여성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 운동방식의 등장은 단순히 많은 물질적 자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웹사이트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라 할지라도 네티즌들의 성향과 요구에 잘 부합할 경우 폭발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회비평 사이트인 똘지일보도 개인 웹사이트로 시작되었고, 군가산점 폐지반대 사이트도 개인 웹사이트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개인사이트를 사이버 여성운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개인사이트의 경우 사이트의 구성과 관리 모든 측면에서 개인이 직

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여성단체나 협의체들이 개인운동 사이트 운영을 원하는 여성운동가(남·여 포함)들을 모집하여 교육, 훈련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줌으로써 개인들로 하여금 여성운동(현안) 사이트를 운영토록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운동의 현안 사이트와 더불어 개인운동방식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로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여성단체 차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여성부 차원에서도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적극 권장해 볼만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8) 현실 공간(off-line)에서의 여성운동 활성화 도모

on-line에서 여성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off-line에서의 여성운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여성단체의 사이버 여성운동은 사이버 공간 내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off-line에서의 여성운동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 곧 off-line에서의 여성운동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off-line에서의 여성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어느 편에서 여성운동이 선행되어야 하는가를 굳이 논하기보다는 충실한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여성단체 사이버 공동망 구축을 통한 홍보의 극대화

홈페이지가 구축된 여성단체의 경우 각 단체의 홈페이지를 여성운동에 관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여성단체는 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활동이나 여성운동 관련사항을 개별 단체의 홈페이지와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홍보대상이 대개 동일 지역 여성이거나 관련 단체의 회원이기 때문에 지역활동, 공동의 관심사 혹은 교육 등에 대해 공동망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on-line상에서의 회원관리 방안 도입

대부분의 여성단체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받고 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관련 내용을 읽기만 하는 방문자에 비해 회원으로 가입한 이들이 해당단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적극적 지지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운동의 지속적인 진행과 방향성 정립을 위해서도 관심 있는 이들의 회원가입은 필수적이므로 회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단, 여기서 회원증가를 위해 회원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여성운동에 관한 콘텐츠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여성운동 자체의 기반을 넓히려는 본연의 목적과 상치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 홈페이지 개설목적에 따른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일단 회원에 가입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단체를 홍보하고 단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회원들에게 주기적인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 제공해준다는 혹은 회원들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회원들이 관심 있는 여성운동 영역에 관한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회원확보의 규모가 클 경우는 배너광고를 통한 재정확보도 가능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개별 회원이 게시판에 글을 쓰는 등 적극적인 활동참여가 있을 경우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이 마일리지가 일정 수준 축적되는 경우 해당 여성단체의 모니터링 회원자격을 주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11) 기술인력 풀(pool) 구축을 통한 공동 활용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여성단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여성단체의 열악한 인력구조 내에서 여성단체가 개별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들

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여성단체의 기대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이버 공간활용에서 여성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이를 전담할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적자원이 열악한 여성단체에서 각 개별단체마다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 여성단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더불어 전담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로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을 지원할 기술인력 풀(pool)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12) 여성단체 홈페이지 기술지원을 위한 인턴 제도 도입

개별 여성단체들이 홈페이지 운영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것이지만 실제 여성단체 홈페이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수준이 상업적인 사이트와 동일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므로, 지역별로 정보관련 기업·대학·전문기술학원의 기술인력 및 전공자 대상의 다양한 인턴제도를 도입하여 인력 बैं크를 구성하고, 여성단체에 대한 기술지원에 활용토록 한다.

13) 여성단체 공동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활용

각 여성단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홈페이지 자료실 역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공동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한다면 개별 단체에서의 수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성단체 공동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여성단체들간 협의체나 분회 및 광역별 지역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 여성부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돕는 방안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14) 신속한 정보제공과 업데이트를 위한 기자단 도입

대부분의 여성단체가 홈페이지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제공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기자단은 각 단체 목적과 다루고자 하는 사안별로 적합한 기사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한다.

참고문헌

- 공성민, 1999, 『여성운동이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연구: 여성단체활동을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김남석, 2000, “한국사회에서 총선시민연대 활동의 의의”, 경남대 『사회연구』 13집.
- 김동춘, 2001, 『2001 NGO 리포트』 아르케.
- 김세균, 1992, “그람시를 넘어야 한다” 『경제와 사회』 제 16호(겨울), 한울.
- 김영래, 1998, “비정부조직의 정치참여에 관한 비교연구” 『공공정책연구』 4호.
- 김영순, 2001, 『한국의 여성인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 김영순, 한국여성인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01.
- 김은실, 1996, “시민사회와 여성운동” 한국학술단체협의회 발표문(미간행).
- 김인춘, 1997, “비영리영역과 NGO들” 『동서연구』 제9권 제2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 김홍숙, 1999,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현황 및 정책대안 /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박은숙, 1999, 『여성정책 형성과정에서 여성단체의 활동』 경북대 박사논문.
- 알베르토 델루치, 1980, “새로운 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정수복 편,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 위르겐 하버마스, 1987, “의사소통 행위이론과 새로운 사회운동: 항의와 잠재력” 정수복편,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 유팔무, 김호기 편, 199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 윤석인, 2000, 『한국여성 NGO의 민주성과 조직활동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 논문.
- 윤영민, 2000, 『사이버 공간의 정치』 한양대 출판부.
- 이경숙외, 1999, 『21세기 여성운동의 전환: 지상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 이혜경, 1999, 『여성운동조직의 자원과 가치에 따른 미디어보도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장미경 외, 1996, “여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사회론과 시민운동”(미간행).
- 정철희, 1995, “한국 민주화 운동의 사회적 기원” 『한국사회학』 29:501-532.
- 조돈문, 1995,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이해” 『경제와 사회』 제28호(겨울), 한국산업

사회학회, 한울.

조양호 외, 2000, 『사회운동단체, 홈페이지 운영원칙 어때야 하는가?』 워크숍 자료집, 주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킹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PeaceNet.

조은, 1997, “지구촌화, 세계시민사회 그리고 신사회운동”, 『한국사회과학』 제19권 2호.

조희연 편, 1990,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차명제, 1999, “한국시민사회 발전과 과제” 주성수 편저, 『새천년 한국 시민사회의 비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클라우스 오페, 1985, “새로운 사회운동: 제도정치적 한계에 대한 도전” 정수복 편,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하승창, 2001, “사이버 시민사회운동의 현황과 과제” 『내나라』 제10권 제1호, 가을.

한국시민의 신문, 2000, 『한국민간단체총람 1999』.

한국여성 NGO 네트워크, 2000, 『제4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참가보고집』.

한국여성개발원, 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 95 NGO 포럼』 한국여성개발원.

한승주, 2000,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치참여 현황분석과 인터넷 활용을 중심으로』 전북대석사논문.

한정자 외, 2000, “지역여성단체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여성학논집』 17집, pp.227-255.

홍성태, 2000 『사이버사회의 문화와 정치』 문화과학사, 2000

황은진, 1999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Acker, J., 1973, "Women and Social Stratification: A Case of Intellectual Sexism" in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Buechler, Steven, 1995, "New Social Movement Theori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6(3).

Casteels, M. 1997.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I*, Blackwell Publishing.

Cohen, Jean L., 1985, "Strategy or Identity: New Theoretical Paradigms and Contemporary Social Movements", *Social Research*. 52(4): 663-716.

Ferguson, K., 1984, *The Feminist Case Against Bureaucracy*. Temple University Press.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Halford, Susan and Mike Savage and Anne Witz, 1997, *Gender, Careers and*

- Organizations: Current Developments in Banking, Nursing and Local Government*. Macmillan Press.
- J. Huber, ed. *Changing Women in a Changing Society*. Univ. of Chicago Press.
- Karl, Marilee, 1995, *Women and Empowerment: participation and decision making*, London: Zed Books Ltd.
- Korea Women's NGO Committee, 2000, *POST BEIJING: IMPLEMENTATION OF THE UN PLATFORM FOR ACTION*. Proceedings.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997, *Directory of Non-Governmental Women's Organizations in Korea*, KWDI.
- Louie, Miriam Ching Yoon, 1995, "Minjung Feminism: Korean Women's Movement for Gender and Class Liberati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8(4):417-430.
- Rheingold, H. 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Mass. Reading: Addison-Wesley.
- Slevin, J. 2000. *The Internet and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 Smith, Marc A, 2001, 『사이버 공간과 공동체』, 나남출판.
- Snow, David A., and Robert D. Benford, 1988, "Ideology, Frame Resonance, and Participant Mobilization"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1: 197-217.
- West, Guida and Rhoda Lois Blumberg, 1990, *Women and Social Protest*.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Hierarchies, Jobs, Bodies: A Theory of Gendered Organizations" *Gender and Society*. 5: 390-407.
- _____, 1992, "Gendering Organizational Theory" in A. J. Mills and P. Tancred eds. *Gendering Organizational Analysis*. Sage: 248-60.



부 록



지역			ID		

여성단체의 여성운동과 사이버 활용 현황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정책전문연구기관입니다. 본 원의 사회문화연구부에서는 2002년 연구과제로 지식정보사회에서 여성단체의 “여성세력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수행을 위해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의 활용과 여성운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본 연구의 통계자료로만 이용되며, 공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가 사이버 여성운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단체의 정보화 기반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현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 응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2년 6월

책임연구자: 한정자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정숙경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고선주 (한국여성개발원 위촉연구원)

♣ 조사문의 및 우송처	(우 122-707) 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번지 한국여성개발원 사회문화연구부 정 숙 경 e-mail: skyjung@kwdi.re.kr 전화: 02-356-0070 교환330 Fax: 02)384-7164			
단 체 명				
단 체 연 락 처	☎		Homepage 주소	
	FAX			
작성자 (응답자)	성명		직책	
	연령		E-mail	

응답요령	질문을 읽고 가장 일치하는 응답번호에 √해 주십시오. 만약 제 시된 질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 지시대로 건너뛰어 응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 귀 단체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 1 귀 단체의 법인등록 여부와 형태에 관해서입니다.

- 1-1) 법인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① 예 ☐ 1-2 로
② 아니오 ☐ 문 2 로

1-2) 법인등록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정부부처등록 중앙단체 ② 중앙등록단체의 시·도 단위 단체
③ 중앙등록단체의 일반 시 단위 단체 ④ 정부등록 개별단체
⑤ 지방행정기관 등록단체 ⑥ 기타 _____

문 2 귀 단체의 소재지는 어느 곳입니까?

-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 ③ 도청소재지 ④ 중소도시

- ① 자원봉사활동 ② 컴퓨터교육 및 여성정보화 활동 ③ 취미 및 교양교육
④ 직업 및 취업교육활동 ⑤ 회원친목도모활동 ⑥ 생활개선 활동 ⑦ 여성운동
⑧ 환경보존 및 개선활동 ⑨ 여성지위향상 도모활동 ⑩ 소비자 보호활동
⑪ 여성상담활동 ⑫ 회원권익 증진활동 ⑬ 기타 ()

문 9 귀 단체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 ① 이용함 ☞ 9-1번 으로
 ② 이용하지 않음 ☞ 9-2번 으로

9-1) 인터넷 이용시 통신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일반모뎀(전화) ② 초고속망(ADSL, ISDN, 케이블)
 ③ 전용LAN망 ④ 기타

9-2) 귀 단체에서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컴퓨터가 없어서
 ② 컴퓨터는 있으나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해서
 ③ 굳이 인터넷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④ 인터넷을 다룰 사람이 없어서
 ⑤ 다른 곳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서
 ⑥ 기타 _____

문 10 정보화를 위한 주변기기로 다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PC(화상)카메라 ② 디지털 카메라 ③ 디지털 캠코더
 ④ 스캐너 ⑤ 기타(_____)

문 11 귀 단체는 몇 명에게 e-mail을 보내며, 그 중 단체 회원은 몇 명입니까?

- ① e-mail을 보내는 경우 전체 _____ 명 중 단체 회원 _____ 명
 ② e-mail을 이용하지 않는다

문 12 귀 단체에서는 e-mail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경우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① 새 소식 제공 ② 단체활동 및 사업 안내 ③ 회원 관리
 ④ 정보 제공 ⑤ 기타 _____

문 13 귀 단체에서는 정보통신비로 월 평균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지출규모					
	없음	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1. PC통신요금	①	②	③	④	⑤	⑥
2. 고속인터넷접속요금	①	②	③	④	⑤	⑥

문 14 귀 단체의 정보화 정도를 점수로 나타낸다면 100점을 만점으로 할 때 대략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 _____점

문 15 여성단체의 정보화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사항을 1 가지만 √표해 주십시오.

- ① 여성단체 무상 PC보급 ②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구축지원
 ③ 여성단체의 정보통신요금 지원 ④ 여성단체 회원, 실무자 정보화교육
 ⑤ 여성을 위한 정보컨텐츠 제작지원 ⑥ 기타 _____

문 16 귀 단체에서 실시한 정보화교육제목과 내용, 교육대상, 총 참여인원을 아래 해당란에 직접 적어주십시오 교육대상자는 해당되는 란에 √표해 주십시오.

교 육		대상자			
제 목	내 용	임원	직원	회원	참여인원

※ 사이버 공간의 활용정도와 인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 17 귀 단체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 ①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② 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필요성을 느낀다 ⑤ 매우 필요성을 느낀다

문 18 귀 단체는 실제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19로 ② 아니오 ➡ 18-1 응답후 문 32로

18-1)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 문 19 귀 단체는 단체 활동에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어느 정도나 활용하십니까?
- ①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② 보통이다

③ 대체로 활용한다

④ 매우 많이 활용한다

문 20 귀 단체는 사이버 공간 활용에 따라 아래의 효과를 어느 정도나 얻고 계십니까? 다음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사이버 공간 활용을 통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단체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회원들의 참여를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회원들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단체와 연대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관련자료를 소개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문 21 귀 단체는 어떤 형태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① 홈페이지 개설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 ➡ 문 22 번으로

② 본 회나 다른 네트워크에 링크해서 활용하고 있다 ➡ 문 26,27를 거쳐 문 32번으로

③ 온라인 동호회 등 (사이버 커뮤니티)로 이용한다 ➡ 문28 번으로

♣ 문 22번-25번까지는 홈페이지가 있는 여성단체만 응답하세요

문 22 귀 단체의 홈페이지 제작은 누가, 어떤 재원으로 했습니까?

제작	① 홈페이지 제작 전문가에게 외주 제작 의뢰 ② 전문가를 새로 채용해서 홈페이지 제작 ③ 단체간사와 프리랜서가 의논해 공동제작 ④ 기존의 단체 간사가 제작 ⑤ 기타 _____
재원	① 정부의 지원으로 ② 단체의 재정으로 ③ 정부보조와 단체부담 ④ 기타 _____

문 23 홈페이지 운영은 누가 하며, 운영비, 회원과 방문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23-1) 운영자 ① 전담 운영담당자 ② 상근 간사들 ③ 위탁운영
 ④ 자원봉사자 ⑤ 기타 (_____)

23-2) 운영비 대략 한달 평균 _____만원(전담인력 채용시 인건비 포함)

23-3) 회원수 약_____명/ 하루 평균 방문자수 약_____명

문 24 귀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체크해주시시오,

- | |
|----------------------------------------------------------------------------------------------------------------------------------------------------------------------------------------------------------------|
| ① 회원관리(mailing list/mail 보내기) ② 여성운동(여성문제) 콘텐츠제공
③ 여성운동(여성문제) 토론장(게시판) 운영 ④ 여성상담 ⑤ 여성건강정보
⑥ 지역사회활동소개 ⑦ 사업소개(프로그램 포함) ⑧ 구인/구직정보
⑨ 여성교육정보 제공 ⑩ 여가활동 정보 ⑪ 소비자 보호정보
⑫ 기타 (_____) |
|----------------------------------------------------------------------------------------------------------------------------------------------------------------------------------------------------------------|

문 25 귀 단체 홈페이지에서는 다음의 의견전달방법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번호에 √ 체크해 주십시오

활용방법	전혀 활용 않함	거의 활용 않함	약간 활용함	대체로 활용함	매우 잘 활용함
온라인투표(스티커 붙이기)	①	②	③	④	⑤
전자 포스터	①	②	③	④	⑤
배너 달기	①	②	③	④	⑤
전자메일 보내기	①	②	③	④	⑤
플래쉬 전파하기	①	②	③	④	⑤
전자우편 서명활동	①	②	③	④	⑤
전자엽서 보내기	①	②	③	④	⑤
게시판에 글쓰기	①	②	③	④	⑤

☞ 문 32 로

♣ 문 26번-문 27번은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는 여성단체만 응답하세요. 응답하신 이후에는 문 30으로 가세요

문 26 귀 단체는 링크되어 있는(본회의),홈페이지를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 ①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활용하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은 활용한다 ⑤ 매우 많이 활용한다

문 27 링크되어 있는(본회의),홈페이지에 귀 단체의 활동사항을 정보로 얼마나 자주 제공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제공하지 않음 ② 한 달에 한 두 번 ③ 격주로 한 두 번
④ 일주일에 한 두 번 ⑤ 거의 매일

☞문 30 으로

♣ 문 28번부터는 온라인 상에 동호회를 운영하는 여성단체만 응답하세요

문 28 귀 단체의 온라인 동호회(커뮤니티)의 이름은 무엇이며, 귀 단체의 동호회 사이트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동호회 이름: _____ 회원수: 약 _____ 명

문 29 온라인 상에 여성운동과 관련하여 의견교환이나 전달은 한 달 평균 몇 번 정도 이루어집니까?

- ① 거의 이루어지 않는다 ② 월 1회 정도
③ 월 2-3회 정도 ④ 주 1회 이상
(지시문)?

문 30 귀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이유 때문에 ② 유지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③ 다른 통신망(천리안, 다움 등의 게시판)이 있어 불필요해서
④ 기타 (_____)

문 31 만약 귀 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면 어떤 형태로 하고 싶습니까?

- ①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싶다
②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고 싶다
③ 독자적으로 개설하고 싶다
④ ‘위민넷’, ‘진보넷’ 과 같은 비영리사이트를 활용하고 싶다
⑤ 상업적인 사이트를 활용하고 싶다
⑥ 기타 _____

♣ 다음부터는 모든 여성단체가 다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단체의 사이버 운동에 관한 인지와 필요성 및 여건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 32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단체 활동 및 여성운동에 관해 귀 단체를 대표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에 주십시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그 저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여성단체의 정보화는 여성지위를 강화시킬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연대활동은 ‘여성의 세력화’를 효과적으로 이룰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단체 활동은 여성회원의 정보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은 여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때 효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여성운동을 위해 사이버 공간(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활용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33 정보화와 컴퓨터 능력에 관한 아래의 기술에 대해 가장 동의하는 번호에 √
표에 주십시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그 저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우리단체의 회장, 임원은 정보화를 중요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단체의 실무자들은 정보화를 중요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단체의 회원들은 정보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단체의 실무자들은 컴퓨터를 잘 다룬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단체의 회원들은 대부분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귀 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경험과 방법 및 내용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 34 귀 단체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34-1 로 ② 아니오 문 35 번으로

34-1) 귀 단체가 사이버를 활용한 여성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 적어
주십시오. (년 월 부터)

34-2) 귀 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아래 【보기】에서 골라 모두 √표 주십시오.

- ① 온라인 투표(스티커 붙이기 등) ② 전자포스터 인쇄 ③ 배너 달기
④ 전자우편 보내기 ⑤ 플래쉬 전파하기 ⑥ 전자우편 서명활동
⑦ 전자엽서 보내기 ⑧ 기타_____

34-3) 귀 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의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사이버 여성운동의 내용	

☞ 문 35 번으로

※ 여성의 지위향상 및 세력화를 위한 연대활동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 35 귀 단체에서 여성발전을 위해 타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와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하신 경우인지 참여하신 경우인지를 구별하여 √표해주시고, 각기 여성단체와 연대한 경우인지 혹은 시민단체와 연대한 경우인지를 구별하여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활동주제(내용)	주관여부		연대단체	
	주관	참여	여성단체	시민단체

문 36 귀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가능한 여성운동의 내용과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마지막으로 응답에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성단체 활동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 조사에 협조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2 연구보고서 250-8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방안 연구

2002년 12월 26일 인쇄
200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장 하 진

발행처 :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356-007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313-7593 (代)

<정가 9,000원>

ISBN 89-8491-038-4 93330